
연구보고서 94-2

문화향수 실태조사

1994. 12.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향수 실태조사

1994. 12.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 출 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귀하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용역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994. 12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소 장 김 학 수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책임자 : 김학수 (언론문화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 김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 구 원 : 문종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호석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보조 : 김영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연구주관기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 고영복)

목 차

연구개요	i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과 방향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향	4
제2절 연구방법	7
1. 자료수집	7
2. 자료분석	15
3. 응답자의 특성	17
제 2 장 한국의 문화적 환경	20
제1절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23
1.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23
2. 한국문화에 대한 평가	27
제2절 문화환경	33
1. 문화용품 소유현황	33
2.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34
3. 여가시간	36
4.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39
5.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원	44

제 3 장 대중매체 이용실태	48
제1절 텔레비전 시청실태	50
1. 텔레비전 시청량	51
2.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52
제2절 신문구독실태	55
1. 신문구독행태	56
2. 구독하는 신문 종수	57
3. 신문구독 시간	58
4.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59
제3절 라디오 청취실태	63
1. 라디오 청취행태	64
2. 라디오 청취량	65
3.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	66
제4절 비디오 시청실태	87
1.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편수	68
2.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현황	69
제5절 독서실태	70
1. 독서량	71
2. 도서구입방법	72
3.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73
4. 잡지구독행태	77
5. 만화수용실태	78
제6절 컴퓨터와 도서관 이용실태	80
1. 컴퓨터 이용실태	81
2. 도서관 이용실태	84
제 4 장 문화예술행사와 여가활동	86
제1절 문화예술행사	88

1.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88
2.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분야와 낙후분야에 대한 인식	92
3.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	94
4.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	97
제2절 여가활동	98
1. 여가활동실태	98
2. 여가활동100애요인	100
3. 여행실태	103
제 5 장 문화예술교육 및 정책	105
제1절 문화예술교육	107
1. 문화예술교육 경험	107
2. 문화예술교육 참가의사	108
제2절 문화예술정책	109
1.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109
2. 문화활동비용 지출분야 현황과 희망하는 지출분야	112
3.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중점 육성분야	116
4. 문화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117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18
제1절 한국의 문화환경	118
제2절 문화향수실태	120
1. 대중문화	120
2. 문화예술	122
3. 한국의 문화예술실태 전체 지도	124
제3절 문화복지와 정책적 대안	125
참고문헌	130
영문초록	134

부 록	137
1. 조사결과표	138
2. 설문지	203
3. 가구내 피조사자 선정방식	222
4. 조사지침서	234

표 목차

〈표 1- 1〉 지역별 인구분포와 할당부수	9
〈표 1- 2〉 지역별 조사부수 및 일련번호	10
〈표 1- 3〉 성별 분포	17
〈표 1- 4〉 연령별 분포	17
〈표 1- 5〉 학력별 분포	18
〈표 1- 6〉 소득수준별 분포	18
〈표 1- 7〉 직업별 분포	19
〈표 1- 8〉 도시규모별 분포	19
〈표 2- 1〉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24
〈표 2- 2〉 하위집단별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25
〈표 2- 3〉 훌륭한 문화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27
〈표 2- 4〉 하위집단별 훌륭한 문화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28
〈표 2- 5〉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한 인식	30
〈표 2- 6〉 하위집단별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한 인식	31
〈표 2- 7〉 문화용품 소유현황(가구당)	34
〈표 2- 8〉 월 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35
〈표 2- 9〉 월 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분포	35
〈표 2-10〉 일일 평균 여가시간	36
〈표 2-11〉 일일 평균 여가시간 분포	37
〈표 2-12〉 하위집단별 일일 평균 여가시간	38
〈표 2-13〉 문화예술행사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만족도	40
〈표 2-14〉 하위집단별 문화예술행사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만족도	41
〈표 2-15〉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43
〈표 2-16〉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원	45
〈표 2-17〉 하위집단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원	45
〈표 3- 1〉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량	51
〈표 3- 2〉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량 분포	51

〈표 3- 3〉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52
〈표 3- 4〉 하위집단별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53
〈표 3- 5〉 신문구독행태	57
〈표 3- 6〉 구독하는 신문 종수	58
〈표 3- 7〉 일일 평균 신문구독 시간량	58
〈표 3- 8〉 일일 평균 신문구독 시간량 분포	59
〈표 3- 9〉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60
〈표 3-10〉 하위집단별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61
〈표 3-11〉 라디오 청취행태	64
〈표 3-12〉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	65
〈표 3-13〉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 분포	65
〈표 3-14〉 라디오 청취 선호 프로그램	66
〈표 3-15〉 월 평균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편수	68
〈표 3-16〉 월 평균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편수 분포	68
〈표 3-17〉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현황	69
〈표 3-18〉 연 평균 독서량	71
〈표 3-19〉 연 평균 독서량 분포	72
〈표 3-20〉 도서구입방법	73
〈표 3-21〉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74
〈표 3-22〉 하위집단별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75
〈표 3-23〉 잡지구독행태	77
〈표 3-24〉 만화 보는 양	78
〈표 3-25〉 만화구독행태	79
〈표 3-26〉 일일 평균 컴퓨터 이용량	81
〈표 3-27〉 일일 평균 컴퓨터 이용량 분포	82
〈표 3-28〉 컴퓨터 사용능력	83
〈표 3-29〉 컴퓨터 사용용도	83
〈표 3-30〉 각종 도서관 이용현황	84
〈표 3-31〉 도서관 이용목적	85
〈표 4- 1〉 전통문화예술 관람현황	88

〈표 4- 2〉 전통문화예술 관람 분포	89
〈표 4- 3〉 현대문화예술 관람현황	90
〈표 4- 4〉 현대문화예술 관람 분포	90
〈표 4- 5〉 영화관람 분포	91
〈표 4- 6〉 한국의 예술분야중 발전분야에 대한 인식	92
〈표 4- 7〉 한국의 예술분야중 낙후분야에 대한 인식	93
〈표 4- 8〉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94
〈표 4- 9〉 하위집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95
〈표 4-10〉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	97
〈표 4-11〉 휴일 여가활동	98
〈표 4-12〉 희망하는 여가활동	99
〈표 4-13〉 여가활동 장애요인	100
〈표 4-14〉 하위집단별 여가활동 장애요인	101
〈표 4-15〉 연 평균 국내여행횟수	103
〈표 4-16〉 연 평균 국내여행횟수 분포	103
〈표 4-17〉 연 평균 해외여행횟수	104
〈표 4-18〉 연 평균 해외여행횟수 분포	104
〈표 5- 1〉 문화예술교육 경험	107
〈표 5- 2〉 문화예술교육 참가의사	108
〈표 5- 3〉 정비,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109
〈표 5- 4〉 하위집단별 정비,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110
〈표 5- 5〉 월 평균 최대지출 문화활동	112
〈표 5- 6〉 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113
〈표 5- 7〉 하위집단별 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114
〈표 5- 8〉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중점 육성분야	116
〈표 5- 9〉 한국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117
〈표 6- 1〉 대중매체 이용율과 이용량	121
〈표 6- 2〉 문화예술 관람율	123
〈그림 1〉 한국의 문화향수실태 전체 지도	124

연구개요

1. 연구목적과 방법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문화현상이 광범위하게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현대국가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필수적인 국가적, 정책적 사업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의 향상과 문화향수권의 신장은 일반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직결된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국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생산물을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비로소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정책적 효과 역시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의 문화복지와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국민들의 문화향수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무엇보다도 문화활동과 관련된 제반 영역의 향수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1)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독서, 만화, 비디오 등 매스미디어 영역, 2)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예술영역, 3) 국악, 전통민속공연, 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 전통예술과 역사적 유물과 관련된 전통문화영역, 4) 여행, 운동,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영역, 5) 기타 컴퓨터, 도서관 등 사회문화활동 영역 등이다.

둘째,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한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주로 어떠한 관점을 갖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현재 한국의 문화적 환경을 조사한다. 문화적 환경은 문화활동의 조건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1) 비디오, 오디오, 자동차, 피아노 등 문화용품 소유실태, 2) 문화시설과 내용에 대한 평가, 3) 여가시간,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등 문화여건, 4) 문화예술활동의 정보원 등이다.

넷째,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다. 이러한 평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이므로 귀중한 정책자료로 사용할만 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면서 본 연구는 일반국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문화향수실태 조사는 문화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의 영역들 중에서 문화의 분배와 소비에 역점을 둔 연구이다. 즉 문화향수실태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향은 문화 전반이나 또는 문화생산 및 유통보다는 문화분배와 소비구조의 행위양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문화향수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 작성, 표본추출 및 코딩, 여론조사 실시, 입력 및 SPSS계량 분석조사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는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표집된 만 15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1994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면접조사방식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표본수를 2,000명으로 한 것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표본은 다단계 유층군집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제1차 표집단위

는 동과 읍(면)이었고, 2차 표집단위는 거주구역, 3차 표집단위는 가구, 그리고 제4차 표집단위가 최종 응답자였다.

2. 조사결과

1) 한국의 문화환경

문화환경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한 조건들의 총화이다. 바람직한 문화환경은 문화향수의 질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는 적어진다.

문화환경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다. 시간과 비용이 없다면 문화활동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조사결과 한국사람의 여가시간은 평일 평균 2시간 40분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은 월 평균 22,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간량과 비용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활동과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시간문제와 비용문제가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가시간과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각각 10.4%와 31.4%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시간과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다. 특히 비용이 전혀 없는 비율이 30% 정도 나왔다는 것은 문화활동과 경제적인 문제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층은 소득수준이 높거나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등 직업인들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이 있지만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지만 비용이 없는 문화향수의 소외자들은 최소한 30%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향수를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문화용품의 소유여부이다. 문화용품을 소유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문화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사 결과 비디오와 오디오는 소유율이 각각 78.6%와 68.5%로 나타나 웬만한 가정들은 대체로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의 전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하면 문화활동은 일상적으로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는 51.8%의 소유율로 조사되어 2가구당 1가구 정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밖에 컴퓨터, 무선호출기, 유선방송수신 기능 등은 30%정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문화환경과 관련된 조건 중 문화시설과 내용을 통해 전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문화예술행사의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와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양자 모두 만족하는 것 보다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환경은 그다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나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고, 문화예술을 위한 시설과 작품의 질 역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하여 자신있게 높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23.4%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대중매체 이용실태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이다. 대중문화의 매개자는 다름아닌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의 이용율은 문화예술활동이나 여가활동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텔레비전 이용율은 95.9%로 거의 모든 국민이 시청하여 가장 주요

한 문화매체임이 증명되었다. 시청량에 있어서도 일일 평균 2시간 40분으로 나타나 다른 매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투여되었다. 특히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여가시간이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볼 때 대체로 국민들은 특별한 문화예술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일상적으로는 여가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는 것이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드라마,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보다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물론 이것은 실제 시청율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국민들이 텔레비전의 기능들 중 보도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신문 이용율은 80.1%로 조사되어 주요한 대중매체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도 36%정도로 나타나 신문사간의 경쟁적 현실과 경제지와 스포츠지 등 신문의 분화현상을 반영하였다. 신문의 관심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은 정치면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문화면이나 생활정보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밖에 일일 평균 구독시간은 50분 정도로 조사되었다.

라디오 이용율은 68%로 나타났고, 대체로 대중가요, 클래식, 팝 등 음악감삼을 목적으로 청취하였다.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율은 1시간 30분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듣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91년 조사와 비교하여 승용차에서 듣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독서에 있어서는 81.1%가 1년에 책 한권 이상을 독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분야로는 문학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서적에 대한 독서율은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연 평균 독서량은 9.0권으로 나타나 1개월에 1권 정도에 다소 못 미치는 양이었다.

잡지는 81.1%의 이용율을 보였지만 정기구독하는 경우보다는 관심있는 사항이 실릴 때 가끔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 사설기관 등에 비치된 것을 시간 보내기식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비디오는 62.7%가 이용하였으며, 한달 평균 3.5편의 비디오 테이프를 감상하였다. 이는 91년에 비해 괄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디오 소유율이 가구당 78.6%로 증가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만화는 30.6%의 이용율로 조사되었지만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었고, 어찌다 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화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것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문화예술

문화예술영역은 대중매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 관람실태를 보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체로 한 영역이 규모있는 산업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규모가 40%정도는 되어야 하고, 30%정도면 산업적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영역은 20%미만의 수용자 규모를 갖고 있다. 즉 미술관람 19.4%, 연극 18.8%, 연예 쇼공연 11.3%, 양악공연 10.5%, 문학행사 10.2%, 무용 3.2% 등으로 조사된 것이다. 영화가 44.7%정도의 수용자를 갖고 있지만, 만약 영화를 대중매체로 분류하면 사실상 한국의 문화예술 중 어느 영역도 산업으로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한편 전통문화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영역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예술영역 중 가장 열악한 분야가 또한 전통예술이다. 국악이나 전통민속공연은 기껏해야 5%내외의 수용자를 가질 뿐이다.

전반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취약성은 문화국가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제약으로 남는다. 설령 대중문화의 이용실태가 만족할만 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 역시 그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아이디어와 기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3. 문화복지와 정책적 대안

복지국가의 건설은 이미 현대국가의 과제로 설정된 지 오래이다. 경제적인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이제 문화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이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곧 인간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진정한 행복은 의식주의 해결 뿐 아니라 올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가치의 신장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문화영역의 발전과 정신적 가치의 신장이라는 총체적 변화는 국가에게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구하도록 방향지운다. 그것은 다름아닌 문화복지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신장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화를 경제나 시장영역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적 소외나 분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적 소외문제는 계층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상류층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과중하여 문화활동을 할 여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문화예술활동의 장애요인과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질문한 결과, ‘시간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양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층이나 직업적으로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직 등과 같은 유망한 직종들이 ‘시간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결국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노동이 여가를 압도하므로 노동은 문화예술활동과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문화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불가능한 사안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의 발전에 맡겨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조건이 이렇다 할지라도 문화정책은 절실히 필요하

다. 전반적으로 문화영역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가에 대한 희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이 추구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람직한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은 문화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문화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역시 도로, 항만, 철도 등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으로 여겨야 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이므로 대체로 국가가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역시 문화예술의 토대와 같은 것이고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영역인 것이다.

둘째, 국가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를 직접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국가가 문화기획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반 기획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복지라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문화환경이 좋은 공간을 중심으로 기획하게 되어 문화환경이 열악한 곳은 여전히 문화의 소외지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더욱 중시하므로 오직 국가만이 문화의 소외지대에 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를 바라고 있다. 보다 활발한 문화활동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문화사업과 문화행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이 20.7%로 나타나 문화시설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로는 연극(14.5%), 생활문화강습(12.6%), 연예 쇼공연(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사를 국가가 기획하여 특정한 연극극단이나 생활문화강습소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순회공연을 실시한다면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의 실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잠재적 수용자를 현재적 수용자로 전환시켜 문화수용자의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초, 중고등학교 안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는다면 그만큼 특정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 욕구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의 한국교육정책과 보다 연관된 것이라 문화정책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현재의 입시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을 거대한 문화예술 수용자로 만들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특별한 문화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다. 조사결과 사회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미비하게 나왔다. 음악교육이 11.8%로 가장 높게 나왔을 뿐 미술, 연극, 영화, 사진 등에 대한 교육경험은 미세한 응답율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88.8%의 응답자가 조건만 맞다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교육비용이 비싸도 참가하겠다는 적극적인 국민도 12.0%나 되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대체로 한국사회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방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는 거의 문화의 소외지대에 다름아니다. 얼마나 열악하면 문화시설의 장비 및 확충 대상으로 영화관을 두번째로 높은 비율(19.6%)로 응답할 만큼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읍면지역은 도시에선 그렇게 흔한 영화관마저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의 중점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36.5%(복수응답)가 지역문화육성, 지방문화시설 확충 등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섯째,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전통문화는 한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영역이다. 게다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

국으로서는 전통문화가 문화나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기능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전통문화가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가장 시장성없는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조사결과, 국악연주와 전통민속공연의 경우 1년에 한번 이상 관람한다는 응답자는 4.4%,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있다. 조사결과 국민들의 23.4%만이 세계속에서 한국문화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국과 외국문화를 비교할 위치에 있는 고학력자, 도시지역 사람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한국문화를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국민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도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방향

1. 연구목적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 우리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목도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하여 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를 지배하였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구조가 종식되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대륙 단위의 블록 경제를 구성할 정도로 경제적 전쟁의 치열함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다원화된 계층구조 아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네트워크화하여 사회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하는 중이고, 문화적으로는 가히 ‘문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모든 사회분야에 문화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전영역에서 불현듯 나타난 급격한 변동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사안이며, 사회과학자나 인문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없는 사실이다. 특히 ‘문화’라는 현상은 그 어느 현상보다도 가장 발전의 확장일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영역에서 발생한 변화들 역시 문화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사회와 문화는 개념적으로 상호 구별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사회가 더 보편적이 개념인지 아

니면 문화가 더 보편적인 개념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한마디로 문화라는 개념은 ‘전반적인 생활양식’이라는 의미로 규정할 정도로 확장 및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사회는 농업화라는 1차혁명, 산업화라는 2차혁명을 거치고 현재는 정보화라는 3차혁명을 겪는 중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정보화 사회의 도태’라고 규정한다. 특히 정보는 농업이나 산업과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기보다는 문화적인 측면도 강하게 내포한다. 따라서 컴퓨터와 정보통신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정보화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자극하고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신문, 방송, 영화, 연극, 인공위성,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영역은 수용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중반 이후 텔레비전은 대중문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였다. 다시 말해 신문과 영화가 문화생활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던 것이 텔레비전의 발생으로 인하여 방송이 문화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자가 된 것이다. 게다가 텔레비전은 신문, 영화, 연극 등 타매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재결합하였고, 심지어 현재는 테크놀로지의 산물인 인공위성, 케이블 TV 등 뉴미디어마저 흡수하면서 핵심적 역할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이에 따라 문화수용자들은 집안에 앉아서 세상소식부터 영화, 연극, 드라마 등 각양각색의 문화적 양식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신문산업이나 영화산업 역시 사양산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중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하기 위하여 내용이나 기술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대처한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케이블 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은 대중문화산업의 확대를 가져와 새로운 대중문화 소비와 문화향수 패턴을 창출하는 중이다.

셋째, 미국과 소련의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UR의 협정이 실행되는 작금의 현실

에서 국제화는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즉 국제화라는 개념은 ‘문화생활의 국제화’라는 의미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생산 및 분배의 국제화와 국제적 문화시장 통합에 발맞춰 한국사회는 기존의 대중문화 소비 유형 및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한 문화영역에서 경쟁체제로의 시장재편과 국제화는 대중문화 소비 뿐 아니라 고급문화, 일상적인 생활문화에 까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넷째, 비디오, 오디오, 자동차, 컴퓨터 등 앞세대에서는 경제적으로 중상층 이상만이 향유하던 문화상품들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TV, 전화기,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들은 대체로 90%이상 소유하고 있고, 80년대 초반 해도 특수계층들만 향유하던 상품들도 이제는 보편적인 소비상품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상당히 높였다.

다섯째, 60, 70년대 경제적인 욕구로 생존하였던 대중들은 삶의 질이 고양된 이후로는 여가생활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져온 결과로서 이제는 문화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직업은 설령 봉급이 많더라도 최선의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휴가, 여행, 스포츠 등 문화적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고, 한때 대중적인 여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골프, 스키, 볼링 등이 건전한 스포츠로 인정받는 실정이다.

이론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자극받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문화를 부차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최근까지도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현상에 대한 규명이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여가의 사회학이나 다양한 문화이론들이 발표되어 중요한 논쟁들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문화현상이 광범위하게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현대 국가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필수적인 국가적, 정책적 사업으로 상정하는 바에야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의 향상과 문화향수권의 신장은 일반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직결된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 생산물을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비로소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정책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의 문화복지와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국민들의 문화향수실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화향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일종의 문화향수에 관한 한국사회의 전체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가 완성되면 어떤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떤 영역은 활동이 거의 전무할 것이다. 동어반복이지만 문화활동이 집중된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문화향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은 문화향수의 편중현상과 소외현상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화복지는 이러한 문화소비의 편중과 소외를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내용은 무엇보다도 문화활동과 관련된 제반 영역의 향수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1)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독서, 만화, 비디오 등 매스미디어 영역, 2)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예술 영역, 3) 국악, 전통민속공연, 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 전통예술과 역사적 유물과 관련된 전통문화 영역, 4) 여행, 운동, 스포츠 관람 등 여가활동 영역, 5) 가타 컴퓨터, 도서관 등 사회문화활동 영역 등이다.

둘째,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한다. 다양한 의미로 해설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주로 어떠한 관점을 갖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현재 한국의 문화적 환경을 조사한다. 문화적 환경은 문화활동의 조건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문화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1) 비디오, 오디오, 자동차, 피아노 등 문화용품 소유상태, 2) 문화시설과 내용에 대한 평가, 3) 여가시간,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등 문화여건, 4) 문화예술활동의 정보원 등이다.

넷째,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이므로 귀중한 정책자료로 사용할만 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면서 본 연구는 일반국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수상태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적 배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문화의 각 부문들간의 구조적인 연관성을 깊게 천착해야 한다. 이렇게 전반적인 문화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문화정책 배려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문화복지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문화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영역들 중에서 문화의 분배와 소비에 역점을 둔 연구이다. 즉 문화향수실태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향은 문화 전반이나 또는 문화생산 및 유통 보다는 문화분배와 소비구조의 행위양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문화산업의 생산에 대한 기본적 조건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생산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결정하지만, 소비 역시 역으로 생산을 규제하는 조건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한 문화예술영역이 산업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요의 규모를 조사해야 하는데 문화향수실태 조사는 바로 그러한 경제적 수요를 예측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끝으로 본 조사는 문화향수에 대한 전반적 지도를 기초로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문화편중과 소외현상을 토대로 규범적인 의미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은 앞서 논하였듯이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분석 속에서 가능하다. 향후 문화영역을 세분화하여 이러한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민의 문화향수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 작성, 표본추출 및 코딩화, 여론조사 실시, 입력 및 spss계량 분석조사를 실행하였다. 연구방법의 구체적인 과학적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표집된 만 15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1994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면접조사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1994년 6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와 8개의 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다.

2)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요구되는 조사의 정확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2,000명으로 하였다. 특히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정부승인통계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전국조사들에 비하여 표본수를 많이 확보하였다.

3)표집방법

표본은 다단계 유층군집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제1차 표집단위는 동과 읍(면)이었고, 2차 표집단위는 거주구역, 3차 표집단위는 가구, 그리

고 제4차 표집단위가 최종 응답자였다. 구체적으로 표집과정을 설명하면 첫째로 각 도와 특별/직할시별로 표집인원을 인구비례에 의해 할당하였다. 즉 시도가 유층변인으로 이용된 것이다. 그 다음 각 도 및 특별/직할시별로 1차 표집단위인 읍(면)과 동을 추출하였는데, 전국에서 모두 8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때, 읍 및 동은 인구에 비례하여 선정확률이 부여되도록 비례확률추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읍(면) 및 동별 인구자료로는 1992년 통계청이 발표한 1990년 11월 1일 현재의 「인구 주택 총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이와같이 추출된 1차 표집단위인 읍(면)과 동에서 다시 2차 표집단위인 거주구역을 각 2개씩 모두 128개를 추출하였다. 거주구역은 해당지역의 반장 및 이장 집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각 거주 구역에서 가구를 추출하였고, 이때 각 거주 구역별로 7-8가구씩 모두 2,000가구를 추출토록 하였다. 가구선정 방법은 선정된 거주 구역의 어느 한 기점(대체로 이장 또는 반장집)을 중심으로 왼쪽편 건물을 따라서 순서대로(지하에서 옥상의 방향으로 가구를 방문) 한 가구씩 추출토록 하였다.

4단계는 선정된 가구에서 최종 응답자를 추출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는 양승목 등이 작성한 CNU 선정표를 이용, 가구당 1명씩 2,000명을 추출하였다. CNU 방법에서는 각 가구에서 추출될 대상자 모두에게 일정한 선정확률을 부여하는 선정표를 무작위로 설문표지에 부착한 다음(부록 : CNU 선정표 참조), 해당 가구에서 선정표대로 추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구내 응답자를 CNU 선정표 방식을 이용하여 추출한 것은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할당표집 방법이나 또는 기타 선정방법에 비해 CNU 방식이 한국의 가족구조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연령별, 성별 통제와 같이 일정한 조사 대상자의 선정확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선

정확률을 부여함으로써 표집오차의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단계에서 추출된 지역별 할당비율과 할당부수는 <표 1-1>, <표 1-2>와 같다.

<표1-1> 지역별 인구분포와 할당부수

단위 : 명, 부

	인 구 분 포	할 당 부 수
서울	7,977,882 (25.0%)	500
부산	2,825,139 (8.9%)	178
대구	1,660,991 (5.2%)	104
인천	1,319,157 (4.2%)	84
광주	826,406 (2.6%)	52
대전	768,567 (2.4%)	48
경기	4,506,893 (14.1%)	282
강원	1,178,294 (3.7%)	74
충북	1,033,311 (3.2%)	64
충남	1,522,133 (4.8%)	96
전북	1,536,304 (4.9%)	98
전남	1,858,736 (5.8%)	116
경북	2,171,960 (6.8%)	136
경남	2,687,503 (8.4%)	168
총계	31,873,276 (100.0%)	2,000

<표 1-2> 지역별 조사 부수 및 일련번호

1. 서울지역

지역명	번호	조사지역	조사부수
서울시 (20개 지역)	01	강남구 대치1동	25부
	02	강동구 명일1동	25부
	03	강서구 내발산2동	25부
	04	관악구 봉천8동	25부
	05	구로구 고척1동	25부
	06	노원구 상계6동	25부
	07	도봉구 미아6동	25부
	08	동대문구 이문동	25부
	09	동작구 사당2동	25부
	10	마포구 도화2동	25부
	11	서대문구 북가좌1동	25부
	12	서초구 방배2동	25부
	13	성동구 능동	25부
	14	성북구 능선동 2가	25부
	15	송파구 문정동	25부
	16	양천구 신월2동	25부
	17	영등포구 대림2동	25부
	18	용산구 서빙고동	25부
	19	은평구 불광2동	25부
	20	종로구 교북동	25부

2. 부산, 경남 지역

지역명	번호	조사지역	조사부수
부산시 (7개 지역)	21	강서구 동선동	25부
	22	남구 남천1동	25부
	23	동래구 명장동	25부
	24	부산진구 당감2동	25부
	25	사하구 다대동	25부
	26	영도구 대평동2가	25부
	27	해운대구 송정동	25부
경남 (7개 지역)	28	마산시 합포구 대창동	25부
	29	울산시 중구 북정동	25부
	30	진주시 망경북동	25부
	31	창원시 내리동	25부
	32	남해군 남해읍	25부
	33	울산군 범서면	25부
	34	하동군 악양면	25부

3. 대구, 경북 지역

지역명	번호	조사지역	조사부수
대구 (4개 지역)	35	남구 대명9동	26부
	36	동구 도동	26부
	37	서구 비산4동	26부
	38	중구 남성로	26부
경북 (6개 지역)	39	상주시 냉림동	22부
	40	포항시 등촌동	22부
	41	안동군 풍산읍	23부
	42	의성군 의성읍	23부
	43	고령군 성산면	23부
	44	봉화군 상운면	23부

4.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지역명	번호	조사지역	조사부수
인천 (4개 지역)	45	남구 승의1동	21부
	46	동구 송현동	21부
	47	북구 다남동	21부
	48	남동구 구월동	21부
경기 (12개 지역)	49	과천시 문원동	23부
	50	구리시 수택동	23부
	51	동두천시 상봉암동	23부
	52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3부
	53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부
	54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부
	55	안산시 봉오동	24부
	56	의왕시 삼동(부곡동)	24부
	57	남양주군 와부읍	24부
	58	연천군 연천읍	24부
	59	평택군 안중면	24부
	60	가평군 북면	24부
강원 (4개 지역)	61	속초시 장사동	19부
	62	태백시 창죽동	19부
	63	양양군 양양읍	18부
	64	원주군 흥업면	18부

5.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지역 별	번호	조사 지역	조사 부 수
대전 (2개 지역)	65	동구 대2동	24부
	66	유성구 금고동	24부
충남 (4개 지역)	67	대천시 신설동	24부
	68	서산군 대산읍	24부
	69	논산군 벌곡면	24부
	70	천안군 북면	24부
충북 (3개 지역)	71	청주시 내덕동	22부
	72	충주시 성남동	21부
	73	보은군 산외면	21부

6.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지역 명	번호	조사 지역	조사 부 수
광주 (2개 지역)	74	광산구 도덕동	26부
	75	북구 망월동	26부
전남 (5개 지역)	76	목포시 대방동	24부
	77	여천시 안산동	23부
	78	영광군 영광읍	23부
	79	나주군 다도면	23부
	80	보성군 겸백면	23부
전북 (4개 지역)	81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25부
	82	순창군 순창읍	25부
	83	남원군 동면	24부
	84	임실군 성수면	24부

4)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첫째 대중문화매체 이용실태를 알아보는 문항, 둘째 사회문화활동 실태를 알아보는 문항, 셋째 여가활동 실태를 알아보는 문항, 넷째 지역문화 예술 실태를 알아보는 문항, 다섯째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 현황을 알아보는 문항, 여섯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설문지 참조).

A. 대중문화매체 이용실태

- | | |
|-------------------|--------------------|
| --- 신문구독 형태 | --- 구독하는 신문 종수 |
| --- 신문구독 시간 | ---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
| --- 텔레비전 시청량 | ---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
| --- 라디오 청취형태 | --- 라디오 청취량 |
| ---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 | --- 도서구입 방법 |
| --- 독서량 | ---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
| --- 잡지구독형태 | --- 만화 보는 양 |
| --- 만화구독형태 | --- 비디오 프로그램 대여 편수 |
| ---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현황 | --- 컴퓨터 사용 능력 |
| ---컴퓨터 사용 용도 | |

B. 사회문화활동 실태

- | | |
|-----------------|--------------------|
| --- 각종 도서관 이용현황 | --- 도서관 이용목적 |
| --- 문화예술행사 관람현황 | ---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
| --- 문화예술행사이 정보원 | |

C. 여가활동 실태

- | | |
|---------------|----------------|
| --- 휴일 여가활동 | --- 희망하는 여가활동 |
| --- 여가활동 장애요인 | --- 하루 평균 여가시간 |

--- 평균 국내여행 횟수 --- 평균 해외여행 횟수

--- 문화용품 보유현황

D. 문화예술활동 실태

--- 문화예술행사의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

--- 정비 및 확장이 필요한 문화시설

---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

E.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

--- 한국인의 문화관념

--- 훌륭한 문화의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 한국의 문화수준

--- 한국 문화예술분야 중 발전분야

--- 한국 문화예술분야 중 낙후분야

--- 문화예술정책의 중점 육성분야

---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 문화예술 교육경험

--- 문화예술 교육참가 의사 --- 월 평균 최대지출 문화활동

--- 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 월 평균 문화활동 지출비용

F. 사회인구학적 특성

--- 도시규모,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속성

5)조사기간

조사는 1994년 6월 24일(금)부터 6월 26일(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6)조사방법

본 조사는 면접자가 응답자에게 문항 내용을 읽어주고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7)면접원

면접원은 전국 5개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 중에서 84명을 선발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경우 서강대 학생들이 조사하였고, 대전, 충청북지역은 건국대 학생들이, 광주, 전남북지역은 전남대 학생들이, 대구, 경북지역은 경북대 학생들이, 부산, 경남 지역은 경남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면접원은 조사방법 및 면접수칙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였다.

8)설문지 회수

회수된 설문지와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000부였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검토, 코딩, 편집과정 등을 거쳐 SPSS-X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에서는 각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및 유목은 다음과 같다.

1)성별

<남>,<여>

2)연령별

만 15세이상부터 19세까지를 편의상 <10대>로 칭하고, 그밖에 <20대>, <30대>, <40대>, <50대>는 각기 독립된 집단으로, 나머지 60대 이상을 묶어 <60대이상>으로 분류하였다.

3)학력별

무학, 독학, 국민학교 졸업까지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국졸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으로 나눠 다섯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졸>은 고등학교 재학과 퇴학을, <고졸>은 대학교 재학과 퇴학 그리고 전문대 졸업을, <대졸>은 대학원 재학과 퇴학을 포함한다.

4)소득수준별

가구 전체의 월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40만원이하>, <41-70만원>, <7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이상> 등 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5)직업별

<사무직>,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판매직>, <생산직>, <서비스업>, <1차산업>, <학생>, <주부>, <정년퇴직>, <기타> 등 11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업별 하위집단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직 : 회사원, 일반공무원, 은행원 등.

전문기술직 : 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기사, 프로그래머 등.

행정관리직 : 기업체 경영주, 기업체 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간부 등.

판매직 : 도소매 상인, 부동산 중개인, 점포, 외판원 등.

생산직 : 공장근로자, 운전기사, 기능공, 노무자 등.

서비스업 : 숙박, 요식업 주인, 종업원, 이미용사, 청소원 등.

1차산업 : 농업, 어업, 축산업 등.

6)도시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도시 지역에는 6개의 특별/직할시를,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일반 시지역을 모두 포함시켰다.

3.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도시규모별, 성별, 연령별, 교육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사되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1) 성별 분포

<표 1-3> 성별 분포

단위 : 명, %

성 별	빈 도	백 분 율
남 자	998	49.9
여 자	1002	50.1
계	2000	100.0

2) 연령별 분포

<표 1-4>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연 령 별	빈 도	백 분 율
10 대	240	12.0
20 대	522	26.1
30 대	574	28.7
40 대	328	16.4
50 대	182	9.1
60 대이상	154	7.7
계	2000	100.0

3) 학력별 분포

<표 1-5>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소득수준별	빈 도	백 분 율
40만원이하	141	7.1
41-70만원	251	12.6
71-100만원	437	21.9
101-150만원	501	25.1
151-200만원	378	18.9
201-300만원	202	10.1
301만원이상	90	4.5
계	2000	100.0

4) 소득수준별 분포

<표 1-6> 소득수준별 분포

단위 : 명, %

소득수준별	빈 도	백 분 율
40만원이하	141	7.1
41-70만원	251	12.6
71-100만원	437	21.9
101-150만원	501	25.1
151-200만원	378	18.9
201-300만원	202	10.1
301만원이상	90	4.5
계	2000	100.0

5) 직업별 분포

<표 1-7>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

직업별	빈도	백분율
사무직	252	12.6
전문기술직	134	6.7
행정관리직	32	1.6
판매직	302	15.1
생산직	139	7.0
서비스직	125	6.3
1차산업	140	7.0
주부	411	20.6
학생	339	17.0
정년퇴직	39	2.0
기타	87	4.4
계	2000	100.0

6) 도시규모별

<표 1-8> 도시규모별 분포

단위 : 명, %

지역별	빈도	백분율
대도시	965	48.3
중소도시	505	25.3
읍면지역	530	26.4
계	2000	100.0

제 2 장 한국의 문화적 환경

일반 국민의 문화향수실태를 서술하기에 앞서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적 환경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구조적 조건으로서 기능한다. 환경적 조건이 우수하면 문화상품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질 좋은 작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유리하지만, 반면에 조건이 열악하면 질 좋은 작품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문화적 환경은 경제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문화복지를 당면 과제로 설정한 국가는 무엇보다도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치 사소한 부실마저 발견되지 않는 고속도로가 경제의 효율성을 보장하듯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 환경은 작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의 문화정책도 바로 이러한 문화적 환경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질 좋은 문화적 환경만 구축한다면 내용의 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몫으로 남을 뿐인 것이다.

한국의 문화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한국문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고, 2)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에 대한 조사는 국민들의 문화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의 문화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문화를 향수하려는 욕구가 높지만,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면 우리문화를 소비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간혹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수준을 낮다고 평가할 경우 국가나 담당 문화인은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

된 일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영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영화인이 한국영화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외국영화를 많이 본다고 비판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화용품 소유현황,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여가시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전 사회와는 달리 노동과 여가를 엄격하게 구분지어왔다. 공간적으로는 일터와 쉼터가 분리되었고, 시간적으로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분리된 것이다. 게다가 사무실과 가정의 분리는 공간 이동시간, 즉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냈다. 특히 현재의 서울처럼 교통난이 심각할 경우, 국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소비를 하게 되어 그만큼 여가시간을 상실한다. 그런 이유로 국가는 지하철, 버스 등 공공서비스를 증가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려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여가시간이나 문화활동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쉼터는 다름아닌 가정이다. 그곳은 노동력의 재생산 뿐 아니라 문화활동의 중심적인 장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용품의 소유는 문화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기능한다.

한편 여가시간과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은 두말할 필요없이 문화향수를 위한 구조적 조건이다. 한마디로 여가시간이 없거나 비용이 없다면 휴식을 취하는 것 이외의 여가활동은 생각할 수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사회의 문화지표를 위와 같은 두가지 변수의 함수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이 많고 문화비용이 높으면 문화지표가 선진국형이고, 여가시간이 적고 문화비용이 낮으면 문화 후진국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관계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단일 변수 보다는 총체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 지표이다.

셋째,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시설, 장소와 행사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시설과 장소는 문화예술행사의 물리적 조건이고 행사의 양과 질

을 높이는 기본 조건이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질은 문화소비자를 끄는 동인이다. 문화예술의 양과 질이 우수하면 국민들의 접촉도는 양적으로 늘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환경을 추정하는데 양 변수는 타당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원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어떤 정보원이 가장 주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제 1 절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1.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는 단일한 명제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런 이유로 학자들 역시 자신의 이론적 지향에 걸맞게 문화관념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개념의 추상성에 비추어 보면 특수하게는 역사적 유물이나 예술 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그 특수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문화에 관한 정의를 국민들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8.4%가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사적 유산이 보존되고 있는 것’ 21.9%, ‘일상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지며 서로 질서를 지키는 것’ 2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전통적인 축제, 행사 예능 등의 것’(9.8%), ‘학문의 번성과 높은 교육수준’(4.1%), ‘새로운 것의 창조’(3.1%), ‘과학기술의 발달’(2.1%) 등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은 서구의 낭만주의에서 발생한 문화개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수용하였고, 역사적 유산이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화개념도 비중있게 수용하고 있었다.

참고로 87년도 일본 총리부 공보실에서 조사¹⁾ 한 일본인의 문화개념과 비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일본인과 문화 - 문화에 관한 여론조사』, 1992, p.4.

교하면 일본인은 ‘역사적 유산이 보존되고 있는 것’에 가장 높게 응답하여 한국인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모두 새로운 것의 창조나 과학 기술과 같은 능동적인 것보다는 역사적 유산, 예술활동 등과 같은 정적이고 미적인 것을 문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1>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예술활동	568	28.4
역사유산	438	21.9
생활질서	404	20.2
전통축제	182	9.1
학문번성	81	4.1
창조행위	71	3.6
과학발달	42	2.1
기타	8	.4
없다	70	3.5
모르겠다	121	6.1
무응답	15	.8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26.6%)가 역사적 유산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에 여자(32.7%)는 예술활동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예술활동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역사적 유산에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교육수준별로도 학력이 높을수록 예술활동에, 학력이 낮을수록 역사적 유산에 많은 수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를 일상생활로 규정하는 비율 역시 높아졌다.

한편 직업별로는 1차산업 종사자(27.9%)와 정년퇴직자(33.3%), 소득수준별로는 40만원 이하(22.0%)의 응답자가 역사적 유산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에 직업별로 학생(37.5%), 판매직(29.5%), 소득수준별로 210-300만원(38.6%), 301만원이상(35.6%)이 되는 응답자들은 예술활동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끝으로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로 갈수록 예술활동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2-2> 하위집단별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1. 성별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남	26.6%	24.0%	18.3%	9.2%	4.4%	5.0%	1.8%	.5%	3.7%	5.5%	.9%
여	17.3%	32.7%	22.1%	9.0%	2.7%	3.1%	2.4%	.3%	3.3%	6.6%	.6%

$\chi^2=48.3$ df=10 p<.01

2. 연령별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10대	23.8%	38.8%	13.8%	7.5%	2.9%	5.4%	2.5%	.4%	2.9%	1.3%	.8%
20대	16.5%	36.2%	23.9%	9.0%	5.2%	3.8%	1.3%	.8%	2.3%	.8%	.2%
30대	21.6%	30.8%	22.8%	8.9%	3.5%	3.7%	.7%	.5%	2.8%	4.0%	.7%
40대	22.9%	20.7%	24.4%	11.0%	2.1%	4.3%	3.7%	.0%	4.0%	6.1%	.9%
50대	28.0%	16.5%	10.4%	12.1%	3.3%	3.3%	2.7%	.0%	7.1%	14.3%	2.2%
60대이상	29.2%	7.1%	10.4%	5.2%	2.6%	4.5%	5.2%	.0%	5.8%	29.2%	.6%

$\chi^2=357.4$ df=50 p<.01

3. 학력별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국졸이하	29.4%	9.8%	11.9%	10.6%	1.7%	1.3%	3.8%	.0%	6.8%	23.8%	.9%
중졸	24.6%	27.7%	16.4%	10.1%	.7%	4.3%	2.7%	.0%	4.1%	8.4%	1.0%
고졸	21.5%	31.1%	22.7%	8.5%	4.2%	3.4%	1.5%	.6%	3.1%	2.9%	.4%
대졸	16.4%	33.9%	22.8%	8.9%	6.2%	6.5%	2.2%	.5%	1.6%	.0%	1.1%
대학원이상	11.1%	31.1%	24.4%	6.7%	4.4%	8.9%	.0%	.0%	4.4%	6.7%	2.2%

$\chi^2=291.7$ df=40 p<.01

4. 직업별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사무직	25.0%	29.4%	19.8%	7.9%	4.8%	5.2%	2.4%	1.2%	2.4%	1.2%	.8%
전문기술직	17.2%	28.4%	23.9%	6.7%	9.7%	5.2%	.7%	.0%	3.7%	3.7%	.7%
행정관리직	21.9%	21.9%	18.8%	12.5%	6.3%	9.4%	6.3%	.0%	3.1%	.0%	.0%
판매직	23.5%	29.5%	20.9%	9.6%	1.7%	4.3%	3.3%	.0%	3.3%	4.0%	.0%
생산직	24.5%	29.5%	18.0%	7.9%	3.6%	2.2%	1.4%	.7%	3.6%	7.9%	.7%
서비스업	21.6%	20.0%	26.4%	12.8%	3.2%	3.2%	1.6%	.8%	3.2%	5.6%	1.6%
1차산업	27.9%	11.4%	15.7%	9.3%	.7%	1.4%	2.1%	.0%	7.9%	22.9%	.7%
주부	19.5%	30.2%	21.7%	9.7%	1.0%	2.9%	1.9%	.2%	2.9%	9.0%	1.0%
학생	18.9%	37.5%	18.3%	8.6%	5.6%	5.3%	1.8%	.6%	2.4%	.9%	.3%
정년퇴직	33.3%	7.7%	7.7%	10.3%	5.1%	5.1%	5.1%	.0%	7.7%	17.9%	.0%
기타	19.5%	27.6%	21.8%	8.0%	4.6%	4.6%	.0%	.0%	5.7%	4.6%	3.4%

$\chi^2=260.3$ df=100 p<.01

5. 소득수준별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40이하	22.0%	18.4%	14.9%	5.0%	4.3%	1.4%	.7%	.7%	3.5%	29.1%	.0%
41-70	21.5%	25.5%	14.3%	12.4%	2.0%	3.6%	4.0%	.4%	7.2%	8.0%	1.2%
71-100	24.7%	25.2%	21.5%	8.9%	3.2%	3.7%	1.8%	.5%	3.4%	6.4%	.7%
101-150	23.4%	26.9%	22.8%	8.8%	5.0%	4.4%	2.0%	.6%	2.8%	3.2%	.2%
151-200	19.8%	32.5%	19.3%	10.8%	2.9%	5.6%	1.9%	.0%	3.4%	2.4%	1.3%
201-300	18.3%	38.6%	23.8%	5.9%	2.5%	3.0%	2.0%	.5%	2.5%	2.0%	1.0%
301이상	17.8%	35.6%	20.0%	8.9%	5.6%	5.6%	2.2%	.0%	.0%	3.3%	1.1%

$\chi^2=231.1$ df=60 p<.01

6. 도시규모별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대도시	22.4%	29.9%	20.7%	8.3%	3.3%	4.0%	2.2%	.4%	3.0%	4.7%	1.0%
중소도시	17.8%	29.7%	19.2%	9.1%	4.6%	5.1%	3.0%	.4%	4.6%	5.5%	1.0%
읍면지역	24.9%	24.3%	20.2%	10.6%	3.0%	3.0%	1.1%	.4%	3.4%	9.1%	.0%

$\chi^2=95.8$ df=50 p<.01

2. 한국문화에 대한 평가

1)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 각각의 국가들은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근거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한국 역시 교육과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단일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모토로 자부심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과 홍보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훌륭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응답지의 45.1%가 ‘다소 있다’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많다’에 35.8%로 응답하여 81% 정도의 응답자는 한국이 훌륭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한 응답은 각각 11.0%와 1.8%에 머물렀다.

한편 87년도 일본 총리부 공보실의 조사²⁾와 비교하면 훌륭한 일본문화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본인은 ‘많이 있다’ 61.4%, ‘아마 있다’ 32.9%로 응답하여 ‘훌륭한 문화가 있다’에 94.3%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훌륭한 문화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율
매우 많다	715	35.8
다소 있다	901	45.1
별로 없다	219	11.0
거의 없다	35	1.8
모르겠다	126	6.3
무응답	4	.2
계	2000	100.0

2) 윗 글, p.3.

하위집단별로 보면 도시규모별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매우 많다’에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매우 많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조사층들은 연령별로는 20대(42.9%), 60대이상(42.2%), 교육별로는 국졸이하(40.0%), 직업별로는 정년퇴직(46.2%), 1차산업(42.1%), 소득수준별로는 40만원이하(36.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조사층이 다른 층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4> 하위집단별 훌륭한 문화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1. 연령별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거의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10대	26.7%	51.3%	17.5%	1.3%	2.9%	.4%
20대	42.9%	43.7%	9.8%	1.7%	1.9%	.0%
30대	35.0%	48.1%	10.5%	1.2%	4.9%	.3%
40대	28.0%	49.1%	11.0%	2.1%	9.8%	.0%
50대	37.9%	35.7%	11.5%	3.3%	11.0%	.5%
60대이상	42.2%	31.2%	5.8%	1.9%	18.8%	.0%

$\chi^2=130.7$ df=25 p<.01

2. 학력별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거의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국졸이하	40.0%	30.6%	7.7%	3.0%	18.7%	.0%
중졸	31.8%	45.8%	13.5%	1.4%	7.5%	.0%
고졸	35.0%	47.9%	10.5%	1.7%	4.5%	.3%
대졸	39.5%	45.7%	11.6%	1.1%	1.9%	.3%
대학원졸 이상	33.3%	48.9%	8.9%	4.4%	4.4%	.0%

$\chi^2=105.0$ df=20 p<.01

3. 직업별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거의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사무직	36.5%	48.0%	10.3%	2.4%	2.4%	.4%
전문기술직	38.1%	41.8%	14.2%	.7%	5.2%	.0%
행정관리직	37.5%	50.0%	9.4%	.0%	3.1%	.0%
판매직	34.8%	44.4%	11.9%	2.0%	7.0%	.0%
생산직	37.4%	42.4%	9.4%	1.4%	9.4%	.0%
서비스업	31.2%	44.8%	12.0%	3.2%	8.0%	.8%
1차산업	42.1%	34.3%	7.1%	4.3%	12.1%	.0%
주부	32.4%	48.7%	9.0%	1.0%	9.0%	.0%
학생	33.0%	49.3%	14.5%	1.2%	2.1%	.0%
정년퇴직	46.2%	30.8%	10.3%	2.6%	10.3%	.0%
기타	48.3%	36.8%	8.0%	1.1%	3.4%	2.3%

$\chi^2=100.1$ df=50 p<.01

4. 소득수준별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거의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40이하	36.9%	29.8%	11.3%	2.8%	19.1%	.0%
41-70	36.3%	39.8%	13.1%	2.4%	8.0%	.4%
71-100	40.7%	41.6%	8.5%	1.4%	7.6%	.2%
101-150	32.5%	48.5%	12.6%	1.2%	5.0%	.2%
151-200	33.3%	51.6%	10.3%	1.9%	2.9%	.0%
201-300	35.6%	48.0%	10.4%	3.0%	3.0%	.0%
301이상	36.7%	46.7%	11.1%	.0%	.0%	1.1%

$\chi^2=88.7$ df=30 p<.01

5. 도시규모별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거의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대도시	32.0%	48.4%	12.6%	2.0%	4.8%	.2%
중소도시	37.2%	44.2%	10.9%	1.4%	5.9%	.4%
읍면지역	41.1%	39.8%	7.9%	1.7%	9.4%	.0%

$\chi^2=71.8$ df=25 p<.01

2) 한국의 문화수준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앞의 항목처럼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타국가와의 비교나 세계 속에서의 위상을 통하여 알아볼 수도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수준은 세계 속에서 높은 편인가 아니면 낮은 편인가’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48.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높은 편’이라는 응답자가 23.4%. ‘낮은 편’이라는 응답자가 18.8%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은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확실한 자부심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87년도 일본 총리부 공보실의 조사³⁾와 비교하면 일본인은 ‘일본문화가 세계 속에서 높은 편이다’에 61.3%로 응답하여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자신의 문화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한국의 문화수준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높은 편	468	23.4
보통이다	978	48.9
낮은 편	375	18.8
모르겠다	173	8.7
무응답	6	.3
계	2000	100.0

3) 윗 글, P.6.

하위집단별로 보면 연력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편’에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중간층보다는 ‘높은 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정년퇴직(53.8%), 1차산업(35.0%) 등이 ‘높은 편’에 많이 응답한 반면에 서비스업(24.8%), 판매직(23.8%)등은 ‘낮은 편’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 밖에 성별로는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자부심의 측면에서 그다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시골사람들 등을 중심으로 자부심이 높았고, 반면에 외국 문화와 비교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부심이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는데, 좋은 문화환경을 갖는 층들이 그렇지 못한 층보다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문화예술활동이 미비하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표 2-6> 하위집단별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한 인식

1. 연령별

	높은편	보통이다	낮은편	모르겠다	무응답
10대	21.3%	55.4%	16.3%	5.4%	1.7%
20대	23.2%	49.6%	21.6%	5.6%	.0%
30대	20.6%	50.9%	20.7%	7.5%	.3%
40대	20.7%	49.7%	17.4%	12.2%	.0%
50대	24.7%	46.7%	15.9%	12.6%	.0%
60대이상	42.2%	29.9%	11.7%	16.2%	.0%

$\chi^2=97.1$ df=20 p<.01

2.. 학력별

	높은편	보통이다	낮은편	모르겠다	무응답
국졸이하	37.9%	30.6%	12.8%	18.7%	.0%
중졸	20.7%	50.4%	17.1%	11.1%	.7%
고졸	20.5%	51.1%	21.1%	7.1%	.2%
대졸	25.3%	53.0%	18.0%	3.5%	.3%
대학원졸이상	17.8%	51.1%	22.2%	8.9%	.0%

$\chi^2=101.7$ df=16 p<.01

3. 직업별

	높은편	보통이다	낮은편	모르겠다	무응답
사무직	25.0%	48.8%	22.2%	3.6%	.4%
전문기술직	22.4%	56.7%	17.2%	3.7%	.0%
행정관리직	28.1%	43.8%	21.9%	6.3%	.0%
판매직	21.5%	46.7%	23.8%	7.9%	.0%
생산직	15.8%	48.2%	20.9%	15.1%	.0%
서비스업	16.8%	47.2%	24.8%	9.6%	1.6%
1차산업	35.0%	39.3%	12.9%	12.9%	.0%
주부	20.0%	50.1%	17.0%	12.9%	.0%
학생	24.5%	53.7%	15.3%	5.9%	.6%
정년퇴직	53.8%	35.9%	5.1%	5.1%	.0%
기타	26.4%	47.1%	17.2%	8.0%	1.1%

$\chi^2=106.4$ df=40 p<.01

4. 소득수준별

	높은편	보통이다	낮은편	모르겠다	무응답
40이하	25.5%	39.6%	15.6%	19.9%	.0%
41-70	24.7%	41.0%	21.9%	12.4%	.0%
71-100	24.9%	46.2%	19.2%	9.4%	.2%
101-500	19.8%	57.1%	17.0%	6.2%	.0%
151-200	22.8%	52.6%	17.7%	6.3%	.5%
201-300	25.7%	46.5%	19.8%	6.9%	1.0%
301이상	26.7%	43.3%	24.4%	4.4%	1.1%

$\chi^2=66.6$ df=24 p<.01

6. 도시규모별

	높은편	보통이다	낮은편	모르겠다	무응답
대도시	20.9%	50.5%	21.3%	6.7%	.5%
중소도시	23.6%	49.3%	16.8%	10.1%	.2%
읍면지역	27.7%	45.7%	15.8%	10.8%	.0%

$\chi^2=96.0$ df=20 p<.01

제 2 절 문화환경

1. 문화용품 소유현황

문화향수를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용품의 소유 여부이다. 즉 국민들이 각종의 문화용품을 소유할 경우, 여가시간만 확보된다면 문화용품과 관련된 문화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가 없는 가구는 영화감상을 하고 싶을 때 영화관을 이용하거나 다른 문화활동을 하겠지만 비디오가 있다면 선택의 고민없이 비디오 프로그램을 대여하여 시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문화용품의 소유는 문화활동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 문화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는 비디오, 위성수신방송기, 유선방송 수신기능, 오디오, 2)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자동차,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시밀리, 컴퓨터, 3) 문화활동을 직접 할 수도 있는 피아노 등의 보급율을 조사하였다. 한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보급율은 거의 모든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참고로 93년도 텔레비전 보급율을 알아보면 99.5%로 조사되었다.⁴⁾

조사결과 먼저 문화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용품들은 비디오 78.6%, 오디오 68.5%, 유선방송 수신기능 28.0%, 위성수신방송기 5.1%로 나타났다. 가구당 비디오와 오디오의 소유비율이 70%내지 80%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볼 때, 영화나 음악감상은 대체로 가구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선방송 수신기능은 현재 28%에 불과하지만 95년부터 케이블 TV가 운영되면 상당한 비율로 증가할 추세이다. 그밖에 전파월경 문제를 야기하는 위성수신

4)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문민시대의 전개와 공영방송의 새 역할에 관한 연구』, 1993년 9월, p.26.

방송기는 현재 5%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신규 고층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에서는 값싸고 용이한 설치를 통해 공동 수신이 가능하므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문화용품은 자동차 51.8%, 컴퓨터 32.0%, 휴대전화기 17.4%, 팩시밀리 5.0%로 조사되었다. 자가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휴일에 여행이나 근거리의 휴식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승용차는 대중적인 문화용품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셋째, 감상 뿐 아니라 직접 연주할 수도 있는 피아노 보급율은 19.2%로 조사되었다.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직접 연구와 같은 문화활동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2-7> 문화용품 소유현황(가구당)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비디오	1592	78.6
오디오	1369	68.5
자동차	1035	51.8
컴퓨터	639	32.0
무선호출기	637	31.9
유선방송수신기능	560	28.0
피아노	384	19.2
휴대전화기	347	17.4
위성수신방송기	102	5.1
팩시밀리	99	5.0

2.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생산물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형식으로 교환된다. 즉

예술작품, 연주회, 공연 등 문화생산물은 시장조건 아래서 생산 및 소비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 생산과 소비가 문화예술활동의 지출비용에 의해 제약받음을 의미한다. 만약 지출비용이 많으면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 역시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지출비용이 적으면 수요가 적어지고 동시에 공급도 줄어든다.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출비용은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서 설정된다.

조사결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한달에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22,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2-8> 월 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22.000원
-------------	---------

월 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31.4%가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1만원 이하 20.8%, 2만원 이하 19.3%, 3만원 이하 10.6%로 나타났다. 한달에 3만원 초과 문화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18.1%였는데, 이들 중 1.5%는 십만원 초과 비용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등 가정에서의 문화향수를 제외한다면 약 70%의 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일정량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표 2-9> 월 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1만원 이하	415	20.8
1만초과 2만이하	386	19.3
2만초과 3만이하	212	10.6
3만초과 5만이하	222	11.2
5만초과 10만이하	108	5.4
10만원 초과	30	1.5
없 다	627	31.4
계	2000	100.0

3. 여가시간

문화를 향수하기 위해서는 자유시간의 보장이 전제 조건이다. 즉 취침시간이나 식사시간처럼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과 노동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이 존재해야 문화상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름아닌 노동시간의 축소와 자유시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시간의 또 다른 표현인 여가시간은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처럼 문화향수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상정된다. 본 조사는 국민들의 일일 평균 여가시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가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여가시간의 조작적 정의 : 여가시간은 근로, 취침, 식사, 출퇴근, 학업, 주부의 가사노동 등을 제외한 시간이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일일 평균 여가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2-10> 일일 평균 여가시간

여 가 시 간	2시간 40분
---------	---------

일일 평균 여가시간의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26.2%가 ‘1시간초과 2시간 이하’의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2시간초과 3시간이하’ 17.9%, ‘1시간 이하’ 1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시간이 없다’가 10.4%나 되어 약 10% 정도의 국민들은 사실상 문화향수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 일일 평균 여가시간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1시간 이하	356	17.8
1시간초과 2시간이하	524	26.2
2시간초과 3시간이하	357	17.9
3시간초과 4시간이하	242	12.1
4시간초과 5시간이하	161	8.1
5시간 초과	153	7.7
없 다	207	10.4
계	2000	100.0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여자(12.2%)가 남자(8.5%)보다 ‘여가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으로 인한 노동보다는 가사노동이 많은 여자가 남자보다 여가시간이 없다는 것은 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시간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15.5%), 40대(11.9%), 50대(12.1%)가 여가시간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재 직업일선에서 활동하는 세대로서 노동시간이 많은 조사대상층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의 집단들이 대졸이상의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없다는 항목에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직업별로는 서비스업(17.6%), 판매직(15.6%), 1차산업(14.3%) 등이 ‘여가시간이 없다’에 다른 층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표 2-12〉 하위집단별 일일 평균 여가시간

1. 성별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남	2.3%	16.2%	28.4%	17.4%	11.8%	7.6%	7.7%	8.5%
여	3.5%	13.6%	24.1%	18.3%	12.4%	8.5%	7.6%	12.2%

$\chi^2=33.1$ df=5 p<.01

2. 연령별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10대	2.9%	16.3%	23.8%	18.8%	12.5%	12.5%	7.9%	5.4%
20대	3.1%	13.0%	25.9%	21.5%	14.0%	8.4%	8.4%	5.7%
30대	3.0%	15.7%	30.3%	16.4%	9.8%	5.4%	4.0%	15.5%
40대	2.7%	16.8%	26.8%	17.1%	14.3%	7.0%	3.4%	11.9%
50대	3.8%	17.0%	23.1%	17.6%	10.4%	7.1%	8.8%	12.1%
60대이상	1.3%	9.7%	18.2%	11.7%	11.0%	13.0%	26.0%	9.1%

$\chi^2=60.9$ df=25 p<.01

3. 학력별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국졸이하	3.8%	17.4%	19.6%	7.7%	9.8%	10.6%	20.4%	10.6%
중졸	3.4%	14.9%	25.1%	19.3%	10.1%	9.6%	7.2%	10.4%
고졸	2.1%	13.5%	26.0%	19.6%	12.8%	8.0%	6.3%	11.6%
대졸	3.5%	15.9%	31.7%	18.0%	14.2%	5.1%	4.3%	7.3%
대학원졸이상	4.4%	22.2%	28.9%	20.0%	11.1%	4.4%	.0%	8.9%

$\chi^2=342.6$ df=20 p<.01

4. 직업별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사무직	2.0%	18.7%	30.2%	19.8%	15.5%	7.1%	2.4%	4.4%
전문기술직	4.5%	14.2%	34.3%	17.2%	9.7%	6.0%	1.5%	12.7%
행정관리직	3.1%	6.3%	43.8%	25.0%	9.4%	3.1%	3.1%	6.3%
판매직	3.3%	20.9%	27.5%	16.9%	9.6%	1.3%	5.0%	15.6%
생산직	.7%	13.7%	21.6%	22.3%	13.7%	12.2%	2.2%	13.7%
서비스업	3.2%	11.2%	34.4%	13.6%	11.2%	4.0%	4.8%	17.6%
1차산업	4.3%	22.1%	22.1%	8.6%	12.9%	7.9%	7.9%	14.3%
주부	2.9%	9.5%	22.6%	21.2%	12.2%	10.7%	10.0%	10.9%
학생	3.2%	15.3%	23.6%	19.5%	13.6%	11.5%	8.3%	5.0%
정년퇴직	.0%	2.6%	10.3%	5.1%	2.6%	20.5%	53.8%	5.1%
기타	2.3%	12.6%	27.6%	11.5%	11.5%	6.9%	21.8%	5.7%

$\chi^2=171.1$ df=50 p<.01

5. 소득수준별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40이하	.7%	16.3%	21.3%	11.3%	10.6%	10.6%	20.6%	8.5%
41-70	2.8%	14.7%	17.9%	20.7%	12.4%	10.8%	11.2%	9.6%
71-100	2.1%	12.4%	28.6%	19.0%	11.9%	8.0%	8.5%	9.6%
101-150	4.0%	14.8%	26.9%	16.4%	12.2%	8.2%	6.0%	11.6%
151-200	3.7%	16.7%	27.0%	20.4%	11.9%	6.1%	4.2%	10.1%
201-300	3.0%	14.9%	29.7%	16.3%	12.4%	6.4%	5.0%	12.4%
310이상	1.1%	18.9%	30.0%	15.6%	14.4%	7.8%	3.3%	8.9%

$\chi^2=105.9$ df=30 p<.01

6. 도시규모별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대도시	2.4%	13.3%	26.8%	19.2%	12.8%	7.5%	7.3%	10.8%
중소도시	2.8%	14.9%	24.2%	15.4%	13.1%	10.7%	8.1%	10.9%
읍면지역	4.0%	17.9%	27.0%	17.7%	9.8%	6.6%	7.9%	9.1%

$\chi^2=65.3$ df=25 p<.01

4.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1) 문화예술행사의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소라는 물리적 환경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아무리 질적으로 뛰어난 공연과 행사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과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행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립극단이 햄릿을 공연하려는데 조명시설이 소극장 무대에 걸맞는 정도라면 작품의 질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문화예술행사의 시설과 장소는 국민들에게 질적으로 뛰어난 문화예술을 관람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국민들

에게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시설과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현재의 문화공간의 실정을 유추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6.4%였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관심없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9.6%, 2.4%인데 비하여 ‘대체로 불만스럽다’와 ‘매우 불만스럽다’는 응답은 각각 19.2%와 19.0%로 나타나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체로 불만스러워 하였다.

<표 2-13> 문화예술행사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매우 만족	47	2.4
대체로 만족	192	9.6
그저 그렇다	527	26.4
대체로 불만	383	19.2
매우 불만	380	19.0
관심없다	465	23.3
무응답	6	.3
계	2000	100.0

문화예술활동의 시설과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불만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일수록 문화적 용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도시규모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불만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보다 시골로 갈수록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과 공간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시골사람들은 문화적인 소외감을 갖기 쉽다.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관심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들 조사층은 문화지출비용에서 열악한 집단들로서 문화적 욕구조차 가지기 어려웠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1차산업이 ‘매우 불만’과 ‘관심없다’에 다른 직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밖에 성별로는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4> 하위집단별 문화예술행사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만족도

1. 연령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림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10대	1.3%	6.7%	29.2%	27.9%	21.3%	12.9%	.8%
20대	3.1%	10.3%	25.7%	21.8%	21.5%	17.2%	.4%
30대	3.0%	10.5%	28.2%	20.4%	20.4%	18.5%	.3%
40대	1.8%	9.5%	27.4%	18.0%	18.0%	28.4%	.0%
50대	2.2%	11.0%	21.4%	9.3%	9.3%	39.0%	.0%
60대이상	.6%	7.1%	20.8%	15.6%	15.6%	48.1%	.0%

$\chi^2=146.5$ df=30 p<.01

2. 학력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림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국졸이하	.9%	5.5%	16.2%	14.5%	17.0%	46.0%	.0%
중졸	1.4%	7.5%	28.7%	21.0%	18.1%	23.1%	.2%
고졸	3.0%	9.4%	27.9%	18.8%	20.2%	20.3%	.5%
대졸	3.0%	13.4%	27.2%	20.7%	18.8%	16.9%	.0%
대학원졸이상	.0%	22.2%	20.0%	22.2%	15.6%	20.0%	.0%

$\chi^2=109.7$ df=24 p<.01

3. 직업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그럼 대체로 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사무직	3.2%	13.1%	24.2%	20.6%	21.0%	17.1%	.8%
전문기술직	4.5%	14.2%	20.9%	22.4%	17.2%	20.9%	.0%
행정관리직	6.3%	18.8%	25.0%	9.4%	18.8%	21.9%	.0%
판매직	2.6%	8.9%	30.5%	16.2%	20.5%	20.9%	.3%
생산직	2.2%	7.9%	23.0%	18.7%	20.9%	27.3%	.0%
서비스업	1.6%	8.0%	30.4%	15.2%	18.4%	26.4%	.0%
1차산업	.0%	3.6%	20.0%	10.7%	27.9%	37.9%	.0%
주부	2.2%	10.2%	29.2%	17.8%	11.9%	28.2%	.5%
학생	1.8%	8.6%	27.7%	28.0%	20.6%	13.0%	.3%
정년퇴직	.0%	7.7%	17.9%	12.8%	5.1%	56.4%	.0%
기타	3.4%	8.0%	21.8%	18.4%	27.6%	20.7%	.0%

$\chi^2=151.6$ df=60 p<.01

4. 소득수준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그럼 대체로 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40이하	2.8%	7.8%	22.0%	12.1%	22.0%	33.3%	.0%
41-70	3.2%	9.2%	19.9%	21.1%	17.9%	28.7%	.0%
71-100	1.6%	11.4%	27.7%	16.5%	18.1%	24.3%	.5%
101-150	2.0%	7.4%	29.7%	20.4%	19.8%	20.6%	.2%
151-200	3.2%	11.1%	26.2%	18.3%	20.4%	20.4%	.5%
201-300	1.5%	7.4%	29.7%	25.7%	15.3%	20.3%	.0%
301이상	3.3%	15.6%	18.9%	20.0%	20.0%	21.1%	1.1%

$\chi^2=56.7$ df=36 p<.01

5. 도시규모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그럼 대체로 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대도시	2.7%	11.4%	27.7%	19.5%	14.3%	24.1%	.3%
중소도시	2.0%	9.9%	30.9%	21.6%	15.2%	20.2%	.2%
읍면지역	2.1%	6.0%	19.6%	16.2%	31.1%	24.5%	.4%

$\chi^2=122.7$ df=30 p<.01

2)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문화예술행사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행사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32.3%의 응답자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관심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28.5%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불만스럽다’와 ‘매우 불만스럽다’는 각각 16.5%와 14.2%였고, ‘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6.8%와 1.2%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역시 대체로 불만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5>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족 다 만	매우 만족	24	1.2
	대체로 만	136	6.8
	그저 그렇	569	28.5
	대체로 불	330	16.5
	매우 불만	283	14.2
	관심없다	646	32.3
	무응답	12	.6
계	2000	100.0	

5.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원

현대와 같이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익명으로 간접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 이전에 유통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소비자는 상품의 특성과 질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는 광고시장을 유래없이 발전시켰다. 문화 생산물 역시 상품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심지어 질과는 무관하게 광고와 홍보의 성공이 문화상품의 성공을 보장할 정도이다. 또한 문화수용자들 역시 문화예술행사를 참가할 의도가 있을 경우 사전에 행사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원에 주로 의존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면 정책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주요 의존매체를 통하여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리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행사 정보원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한 조건변수이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원은 응답자의 31.3%가 텔레비전, 다음으로 30.0%가 일간신문이라고 응답하여 대중매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사안내문이나 포스터라는 응답이 10.6%였고, 주위사람은 6.7%로 응답되었다. 라디오, 잡지, 교육기관, 지방문화원 등의 응답은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91년 조사⁵⁾와 비교할 때, 텔레비전은 거의 비슷하였지만 신문은 20.9%에서 30.0%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신문사들이 지면확장을 하면서 문화면을 늘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향수 실태조사』, 1991년 6월, p.99.

<표 2-16>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원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텔레비전	625	31.3
일간신문	600	30.0
포스터	212	10.6
주위사람	133	6.7
라디오	51	2.6
잡지	35	1.8
지역신문	30	1.5
교육기관	16	.8
지방문화원	13	.7
확성기	6	.3
기타	14	.7
관심없다	222	11.1
무응답	43	2.2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신문을 주요 정보원으로 삼은 반면에 여자는 텔레비전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신문에 의존한 반면 나머지 층은 텔레비전을 주요 정보원으로 삼았다.

또한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으면 텔레비전보다 신문을 정보원으로 의존하였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신문을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텔레비전을 보다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하였다.

<표 2-17> 하위집단별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원

1. 성별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남	34.8%	27.8%	2.2%	1.8%	.9%	5.5%	.9%	10.7%	.7%	.2%	.4%	12.3%
여	25.2%	34.7%	2.9%	1.7%	.4%	7.8%	.7%	10.5%	2.3%	.4%	1.0%	9.9%

$\chi^2=45.4$ df=12 p<.01

2. 연령별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10대	16.7%	35.8%	3.8%	4.6%	.0%	11.7%	4.2%	15.4%	.0%	.0%	.4%	6.3%
20대	35.6%	24.7%	3.4%	2.5%	.2%	7.1%	.4%	17.2%	1.9%	.4%	.8%	3.4%
30대	39.9%	30.8%	2.3%	1.6%	.9%	3.3%	.2%	9.4%	2.6%	.0%	.5%	7.0%
40대	27.7%	36.9%	2.1%	.3%	1.2%	6.1%	.6%	7.3%	.9%	.0%	.9%	13.1%
50대	21.4%	35.7%	.5%	.5%	.5%	7.1%	.0%	3.3%	.5%	.5%	.5%	24.7%
60대이상	9.7%	30.5%	1.9%	.0%	1.3%	10.4%	.6%	.6%	.6%	1.9%	1.3%	39.6%

$\chi^2=452.2$ df=60 p<.01

3. 학력별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국졸이하	4.7%	41.7%	1.3%	.4%	.0%	11.5%	1.7%	2.6%	.0%	1.3%	.9%	31.9%
중졸	17.1%	36.9%	2.9%	1.9%	.2%	8.2%	1.9%	10.6%	.5%	.2%	1.0%	16.6%
고졸	31.8%	31.7%	3.1%	1.9%	.6%	5.6%	.2%	12.6%	2.3%	.2%	.6%	7.6%
대졸	53.5%	18.8%	1.3%	2.2%	1.3%	4.6%	.3%	11.0%	1.3%	.0%	.3%	1.6%
대학원졸이상	48.9%	17.8%	4.4%	.0%	2.2%	6.7%	2.2%	6.7%	4.4%	.0%	2.2%	2.2%

$\chi^2=423.1$ df=48 p<.01

4. 직업별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사무직	42.9%	23.0%	1.6%	1.6%	1.2%	7.1%	.0%	10.3%	.8%	.4%	.8%	7.1%
전문기술직	50.7%	19.4%	3.7%	2.2%	2.2%	2.2%	.7%	10.4%	1.5%	.0%	1.5%	2.2%
행정관리직	53.1%	18.8%	3.1%	.0%	3.1%	3.1%	.0%	12.5%	.0%	.0%	.0%	3.1%
판매직	35.4%	31.5%	2.6%	.7%	1.0%	6.6%	.0%	7.6%	2.6%	.0%	2.0%	8.6%
생산직	25.2%	33.8%	4.3%	2.9%	.0%	4.3%	.7%	15.8%	1.4%	.0%	.0%	10.1%
서비스업	28.8%	28.0%	3.2%	4.0%	.0%	4.8%	.0%	11.2%	.8%	.8%	.8%	16.0%
1차산업	11.4%	43.6%	.7%	.0%	.7%	4.3%	.0%	2.9%	.0%	1.4%	.0%	34.3%
주부	23.8%	41.1%	1.9%	.7%	.2%	5.4%	.7%	5.6%	2.9%	.2%	.5%	13.4%
학생	24.5%	26.0%	2.7%	3.2%	.0%	12.7%	3.2%	20.9%	.3%	.0%	.3%	4.1%
정년퇴직	10.3%	30.8%	5.1%	.0%	.0%	15.4%	.0%	2.6%	.0%	2.6%	.0%	33.3%
기타	32.2%	32.2%	3.4%	3.4%	1.1%	2.3%	.0%	11.5%	2.3%	.0%	.0%	11.5%

$\chi^2=456.1$ df=120 p<.01

5. 소득수준별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40이하	17.0%	36.2%	1.4%	2.1%	.7%	8.5%	.0%	6.4%	2.1%	1.4%	.0%	24.1%
41-70	17.9%	35.5%	4.0%	2.0%	.4%	7.6%	1.2%	6.0%	.8%	.4%	.8%	21.9%
71-100	26.5%	34.1%	3.4%	1.6%	.2%	6.4%	1.4%	10.1%	.9%	.5%	.9%	11.2%
101-150	33.9%	31.9%	2.6%	1.0%	.6%	5.8%	.4%	12.0%	2.0%	.2%	.8%	8.0%
151-200	37.0%	26.7%	1.3%	1.9%	1.1%	7.1%	.5%	12.2%	1.9%	.0%	.3%	6.9%
201-300	37.1%	27.2%	2.0%	2.5%	.5%	5.4%	1.5%	12.4%	1.0%	.0%	1.0%	6.4%
301이상	33.3%	22.2%	2.2%	3.3%	2.2%	7.8%	.0%	14.4%	2.2%	.0%	1.1%	5.6%

$\chi^2=176.5$ df=72 p<.01

6. 도시규모별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대도시	34.9%	30.5%	2.7%	2.0%	.3%	6.0%	.8%	8.5%	.8%	.1%	.8%	8.9%
중소도시	29.5%	30.1%	3.2%	1.8%	1.2%	5.5%	1.2%	15.0%	1.6%	.6%	.6%	8.7%
읍면지역	21.5%	33.8%	1.7%	1.3%	.8%	8.9%	.4%	10.2%	2.6%	.4%	.6%	17.4%

$\chi^2=180.4$ df=60 p<.01

3 장 대중매체 이용실태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킨 것은 대중매체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대중매체의 출현은 기존의 문화양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 18, 19세기를 지배하던 순수예술은 이제 모더니즘이란 틀에 자신을 가두고 저속한 대중과의 대화를 단절하였다. 그 결과 순수예술은 엘리트주의로 전락하고 대중매체에게 자신의 영광을 내주었다. 도서,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로 이어지는 대중매체의 위력은 20세기 중엽 텔레비전의 출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뉴미디어의 시대를 눈앞에 둔 현재, 텔레비전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흡수하여 그 완성을 더욱 공고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텔레비전은 공공재로서 존재하므로 수용자들은 비용지출 없이 거의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수할 수 있다. 물론 수용자 자신이 상품으로서 광고주에게 시간단위로 팔려가고, 동시에 자본가의 광고비용이 일반 상품에 전가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비용지출 없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문화활동보다도 합리적인 문화매체인 것이다. 텔레비전의 보급율이 99.5%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도 텔레비전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을 포함한 신문, 라디오, 도서, 만화, 잡지, 비디오 등 국민들의 대중매체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이들 영역들은 국민들의 소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의 주요한 정보원으로 기능하므로 연구상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 컴퓨터와 도서관 이용실태도 조사하였다. 컴퓨터는 점점 우리의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컴퓨터 없는 삶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할 전망이어서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도서관 역시 사회문화활동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하였다.

제 1 절 텔레비전 시청실태

앞서 논하였듯이 텔레비전은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자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삶과 가깝게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다. 즉 텔레비전은 일상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문화의 경제성이 가장 높게 발현되는 매체인 것이다. 반면에 연극, 영화, 미술, 박물관 등 여타의 문화예술행사는 여가의 중심지인 가정과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잠실체육관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실황공연을 보려면 필연적으로 그 공간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 노력, 교통비, 입장료 등 무시못할 비용이 뒤따른다. 이를 감당할 여가시간이나 문화예술활동 비용이 없다면 공연장까지 가서 문화를 향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실황녹화를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텔레비전은 현장감은 떨어질지라도 별다른 비용없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은 시청하는 매체이므로 신문, 책 등과 같은 인쇄매체보다 개인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바로 그 일상성과 수월성으로 인하여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총아인 셈이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시청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청량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텔레비전 시청량은 개인들이 특별한 문화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여가시간과 관련된 것이므로 중요한 문화지표이다. 또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므로 국가정책자나 방송국 실무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 텔레비전 시청량

“평일의 경우 하루평균 텔레비전 방송을 얼마나 보느냐”고 TV 시청량을 물어 본 결과 국민들의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량은 2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청량은 국민들의 여가시간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가시간과 텔레비전 시청량이 유사하게 조사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이다. 즉 공휴일이 아니거나 특별한 행사가 없는 일상에서는 여가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텔레비전 시청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3-1>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량 (평일 기준)

시 청 량	2시간 40분
-------	---------

평일의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량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29.5%가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시청자가 20.5%, ‘30분 초과 1시간 이하’ 시청자가 17.5%,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시청자가 9.7%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량 분포 (평일기준)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30분 이하	108	5.4
30분초과 1시간이하	350	17.5
1시간초과 2시간이하	588	29.4
2시간초과 3시간이하	410	20.5
3시간초과 4시간이하	193	9.7
4시간초과 5시간이하	134	6.7
5시간초과	136	6.8
보지 않는다	81	4.1
계	2000	100.0

2.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텔레비전을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같은 시간대에 방영될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냐”라고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을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3.4%가 뉴스보도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 드라마 부문 18.4%, 영화 10.0%, 오락,쇼 프로그램 9.7%, 스포츠 9.1%, 교양물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중 공익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는 뉴스보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표 3-3>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뉴스보도	868	43.4
드라마	368	18.4
영화	200	10.0
오락쇼	193	9.7
스포츠	181	9.1
교양물	121	6.1
기타	14	.7
관심없다	34	1.7
무응답	21	1.1
계	2000	100.0

6) 이러한 결과는 뉴스보도에 대한 실제 시청률과는 다르다. 93년의 한 조사는 저녁 9시 대 뉴스와 드라마 중 어떤 프로를 선택하고 싶은가를 질문한 다음 실제 시청한 프로는 무엇이었는데를 조사하였다. 즉 시청자의 채널선택의와 실제 시청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뉴스를 선택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응답자는 58.4%나 나왔지만 실제 시청율은 32.0%에서 45.3%까지 나왔다(목, 금, 토, 일 등 4일의 뉴스시청율을 조사함). 이러한 결과는 뉴스프로그램과 드라마와 같은 오락프로그램을 대응편성할 경우 설령 사람들이 뉴스를 시청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시청시에는 드라마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따라서 공익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을 대응편성하는 문제는 대단한 주의를 요한다.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윗 글, pp.117-118.

하위집단별로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뉴스보도(55.0%)와 스포츠(15.3%)에 높은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는 뉴스보도(31.8%), 드라마(31.2%)에 응답하여 뉴스보도를 제외하면 여자는 드라마를, 남자는 스포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오락쇼(34.2%)와 영화(20.4%)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신세대의 취향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40대(64.9%), 50대(57.7%), 30대(54.0%), 60대이상(50.0%) 등 중장년층은 뉴스에 과반수 이상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교육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뉴스보도에 높게 응답한 반면에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드라마 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행정관리직의 75.0%가 뉴스보도를 본다고 응답하였고 학생(20.6%)은 영화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한편 도시규모별로는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드라마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드라마를 선호하였다.

<표 3-4> 하위집단별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1. 성별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남	55.0%	5.5%	7.6%	5.5%	15.3%	8.1%	.4%	1.5%	1.0%
여	31.8%	31.2%	11.7%	6.6%	2.8%	11.9%	1.0%	1.9%	1.1%

$\chi^2=348.2$ df=8 p<.01

2. 연령별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10대	5.0%	15.8%	34.2%	5.0%	15.8%	20.4%	.4%	2.9%	.4%
20대	28.9%	18.4%	10.7%	9.4%	11.3%	18.0%	1.5%	1.3%	.4%
30대	54.0%	12.2%	7.0%	7.0%	9.2%	7.5%	.7%	.9%	1.6%
40대	64.9%	18.0%	.9%	3.7%	6.1%	3.7%	.3%	.6%	2.1%
50대	57.7%	29.1%	3.3%	2.7%	4.4%	2.7%	.0%	.5%	1.1%
60대이상	31.8%	33.8%	3.9%	1.9%	1.9%	.6%	.0%	7.8%	.0%

$\chi^2=622.9$ df=40 p<.01

3. 학력별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국졸이하	37.0%	38.7%	8.1%	2.1%	6.0%	2.6%	.0%	5.5%	.0%
중졸	34.9%	21.7%	15.9%	3.9%	9.2%	9.9%	1.0%	1.9%	1.7%
고졸	42.7%	17.1%	9.9%	6.0%	10.5%	11.5%	.4%	1.0%	1.0%
대졸	57.5%	5.9%	3.5%	11.0%	7.8%	11.3%	1.1%	1.1%	.8%
대학원졸이상	53.3%	11.1%	6.7%	6.7%	4.4%	8.9%	4.4%	.0%	4.4%

$\chi^2=242.3$ df=32 p<.01

4. 직업별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사무직	50.0%	8.3%	6.0%	9.5%	11.5%	12.7%	.4%	.4%	1.2%
전문기술직	58.2%	6.7%	3.0%	6.7%	9.7%	11.2%	1.5%	.7%	2.2%
행정관리직	75.0%	3.1%	3.1%	6.3%	6.3%	3.1%	.0%	3.1%	.0%
판매직	52.0%	16.2%	6.6%	7.0%	9.6%	7.0%	.3%	.3%	1.0%
생산직	51.1%	7.9%	7.9%	5.8%	17.3%	6.5%	.0%	2.9%	.7%
서비스업	50.4%	25.6%	5.6%	1.6%	5.6%	7.2%	.8%	.8%	2.4%
1차산업	61.4%	22.1%	2.1%	1.4%	4.3%	1.4%	.0%	5.7%	1.4%
주부	38.2%	34.3%	8.8%	4.9%	2.4%	8.5%	.7%	1.0%	1.2%
학생	13.6%	15.3%	25.1%	7.1%	14.7%	20.6%	.9%	2.4%	.3%
정년퇴직	61.5%	20.5%	5.1%	.0%	7.7%	.0%	.0%	5.1%	.0%
기타	41.4%	14.9%	10.3%	10.3%	9.2%	6.9%	3.4%	3.4%	.0%

$\chi^2=505.5$ df=80 p<.01

5. 소득수준별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40이하	38.3%	24.8%	11.3%	2.8%	10.6%	6.4%	2.1%	3.5%	.0%
41-70	43.0%	23.5%	8.8%	4.0%	10.8%	5.2%	.4%	3.6%	.8%
71-100	45.3%	20.8%	8.9%	3.7%	8.7%	9.4%	.5%	1.4%	1.4%
101-150	42.5%	17.0%	10.8%	8.4%	9.0%	10.2%	.6%	.6%	1.0%
151-200	43.7%	14.6%	9.8%	6.3%	9.0%	13.2%	.8%	1.3%	1.3%
201-300	50.0%	13.9%	6.4%	8.4%	5.9%	11.9%	1.0%	2.0%	.5%
301이상	32.2%	16.7%	13.3%	8.9%	11.1%	13.3%	.0%	2.2%	2.2%

$\chi^2=80.7$ df=48 p<.01

6. 도시규모별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대도시	43.8%	16.3%	9.8%	6.4%	8.2%	11.1%	.9%	1.6%	1.9%
중소도시	45.5%	17.8%	9.3%	6.7%	8.1%	10.1%	.8%	1.0%	.6%
읍면지역	40.6%	22.8%	9.6%	4.7%	11.5%	7.9%	.2%	2.6%	.0%

$\chi^2=70.6$ df=40 p<.01

제 2 절 신문구독실태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의 중심이었던 신문은 90년대 들어 텔레비전의 위세에 밀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문은 아직까지 주요한 문화매체로서 기능한다. 현재의 신문산업구조는 80년대 초 기존의 담합구조로부터 경쟁적 과점구조로 변한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는 추세이다. 즉 경쟁적인 몇 개의 거대기업들이 전체 신문시장을 주도하고, 동시에 현상유지에 급급한 한계기업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현재의 신문산업인 것이다.

특히 주요 신문기업들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방송의 위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영역별 확장 뿐 아니라 통신을 이용한 전자신문 등 수용자를 유지 및 확장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하튼 현재 신문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전히 여타의 대중매체들보다도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보에서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신문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인쇄매체 고유의 특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자매체와는 달리 인쇄매체는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정보를 보도할 경우, 공연시간이 장소를 잊어버렸다면 그만이지만 신문은 그러한 정보를 다시 찾아 숙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잡지나 서적 등 다른 인쇄매체와는 달리 신문은 매일매일 보도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같은 영상시대에서도 신문은 영향력있는 문화매체로서 살아남은 것이다.

신문구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신문구독행태를 조사하였다. 신문구독행태는 가장 기본적인 정기구독과 더불어 직장에서 보는 형태나

가관에서 구매하여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둘째, 신문구독 종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신문 역시 공공재로서 대부분의 비용을 광고로부터 확보한다. 즉 신문기업은 1부당 300원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처럼 신문도 신문구독자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긴 대가인 광고료로 유지 및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신문기업은 광고주에게 광고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판매부수 뿐 아니라 인쇄부수의 증대에 사력을 다한다. 그 결과 신문구독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1종류의 신문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적은 비용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수용자들로서는 다양성을 추두한다는 입장에서 몇 종류의 신문을 함께 구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신문구독 시간량을 조사하였다. 신문은 인쇄매체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조건은 영상매체가 발전할수록 약점으로 작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신문읽기는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힘든 노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신문구독 시간량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항목에 넣었다.

넷째, 신문에 대한 관심영역을 조사하였다. 기존 한국사회의 신문영역은 일종의 정치적 지사(志士)를 만드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정치면의 중시는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욕구의 다원화로 인하여 경제, 사회, 문화면 등에 대한 정보욕구도 상당히 증가하였고,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 따라서 신문에 대한 관심영역 조사는 유의미한 것이다.

1. 신문구독행태

현재의 신문구독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문을 주로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0.8%가 ‘정기구독한다’고 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3.2%가 ‘직장에 들어오는 신문’, 6.1%가 ‘가관이 나 지하철에서 사서 본다’고 응답하였다.

91년 조사⁷⁾와 비교할 때 가관구입이 2.5%정도 줄어든 반면에, 정기구독은 약 3.7%정도 늘었다.

<표 3-5> 신문구독 행태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정기구독	1216	60.8
직장에서	264	13.2
가관에서	122	6.1
보지않음	384	19.2
무응답	14	.7
계	2000	100.0

2. 구독하는 신문 종수

“하루에 몇가지 신문을 읽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5.6%가 한종류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26.7%가 두종류, 6.6%가 세종류로 나타났다.

91년 조사⁸⁾와 비교할 때 한종류 구독은 48.2%에서 45.6%로 낮아졌고 반면

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윗 글, p. 26.

8) 윗 글, p.29.

에 구독은 19.7%에서 26.7%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신문구독의 종수가 다소 많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3-6> 구독하는 신문 종수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1가지	911	45.6
2가지	533	26.7
3가지	131	6.6
4가지이상	52	2.7
안본다	373	18.7
계	2000	100.0

3. 신문구독 시간량

“하루에 신문을 얼마나 읽느냐”고 구독 시간량을 물어 본 결과 신문에 대한 한국사람의 일일 평균 신문구독 시간량은 50분으로 나타났다. 1시간을 넘지 않는 수치였다.

<표 3-7> 일일 평균 신문구독 시간량

시 간 량	50분
-------	-----

일일 평균 신문구독 시간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32.6%의 응답자가 ‘30분 이하’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분초과 1시간 이하’ 26.3%, ‘1시간초과 2시간 이하’ 16.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58.9%) 하루 평균 1시간 이하로 신문을 구독하였다.

<표 3-8> 일일 평균 신문구독 시간량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유효비
30분이하	651	32.6	40.6
30분초과 1시간이하	525	26.3	32.8
1시간초과 2시간이하	331	16.6	20.7
2시간초과 3시간이하	59	3.0	3.7
3시간초과	36	1.8	2.2
안본다	398	19.9	
계	2000	100.0	100.0

* 여기서 유효비는 안본다를 제외한 백분율을 의미한다.(91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것임)

4.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신문을 볼 때 가장 관심있게 보는 면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22.5%가 ‘정치면’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면’ 20.9%, ‘생활정보면’ 13.4%, ‘문화면’ 11.0%, ‘경제면’ 10.3% 순으로 응답되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생활정보나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 사회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표 3-9>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정치면	450	22.5
사회면	417	20.9
생활정보면	268	13.4
문화면	220	11.0
경제면	205	10.3
국제면	32	1.6
기타	75	3.8
보지않음	267	13.4
무응답	66	3.3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정치(33.3%), 사회(20.1%), 경제(12.1%) 등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에 여자는 사회(21.6%), 생활정보(20.1%), 문화(15.1%) 등에 높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자는 정치에 관심이 높지만 여자는 생활이나 문화정보에 보다 관심을 갖는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은 정치면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20대는 사회면, 10대는 문화면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에 비중을 두는 젊은 세대와 정치에 비중을 두는 중장년층의 세대간 격차를 보여준다.

교육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와 경제면에 보다 관심을 갖는 거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행정관리직(40.6%), 전문기술직(38.1%), 사무직(32.1%) 등이 정치면을 선호하였고, 서비스업은 사회면(24.0%), 학생은 문화면(21.5%), 주부는 생활정보면(23.4%)을 각각 선호하여 신문의 관심영역과 직업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하위집단별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1. 성별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남	33.3%	12.1%	20.1%	2.1%	6.9%	6.7%	5.7%	9.8%	3.2%
여	11.8%	8.4%	21.6%	1.1%	15.1%	20.1%	1.8%	16.9%	3.4%

$\chi^2=248.9$ df=8 p<.01

2. 연령별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10대	8.8%	2.1%	14.2%	4.6%	21.3%	15.8%	11.7%	17.9%	3.8%
20대	16.5%	8.2%	27.6%	1.9%	18.0%	16.3%	4.0%	5.6%	1.9%
30대	27.5%	14.6%	23.9%	1.4%	8.2%	15.0%	2.4%	4.4%	2.6%
40대	26.2%	17.7%	20.1%	.0%	5.5%	11.0%	1.8%	13.4%	4.3%
50대	29.7%	6.0%	14.3%	1.1%	3.3%	9.9%	2.7%	26.4%	6.6%
60대이상	29.2%	2.6%	6.5%	.6%	2.6%	3.2%	.6%	50.6%	3.9%

$\chi^2=567.6$ df=40 p<.01

3. 학력별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국졸이하	12.3%	3.8%	9.8%	.4%	3.4%	7.2%	3.0%	53.6%	6.4%
중졸	18.8%	6.7%	13.0%	2.4%	11.8%	18.1%	5.5%	20.7%	2.9%
고졸	23.3%	11.4%	25.5%	1.5%	13.0%	14.9%	3.4%	5.5%	1.6%
대졸	30.4%	14.2%	24.7%	1.6%	10.2%	9.4%	3.0%	.8%	5.6%
대학원졸이상	28.9%	20.0%	22.2%	2.2%	8.9%	4.4%	4.4%	2.2%	6.7%

$\chi^2=552.3$ df=32 p<.01

4. 직업별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사무직	32.1%	18.3%	23.8%	.8%	6.7%	7.9%	2.8%	2.0%	5.6%
전문기술직	38.1%	8.2%	26.1%	3.7%	4.5%	11.9%	1.5%	3.0%	3.0%
행정관리직	40.6%	25.0%	9.4%	.0%	6.3%	.0%	9.4%	.0%	9.4%
판매직	26.2%	14.6%	23.8%	.7%	10.9%	11.6%	3.3%	7.0%	2.0%
생산직	26.6%	12.2%	22.3%	.7%	7.2%	15.1%	5.0%	8.6%	2.2%
서비스업	20.0%	14.4%	24.0%	.8%	13.6%	15.2%	.0%	8.0%	4.0%
1차산업	23.6%	10.0%	10.0%	.0%	1.4%	7.9%	2.1%	42.9%	2.1%
주부	11.4%	7.1%	20.2%	.5%	11.4%	23.4%	1.5%	21.4%	3.2%
학생	15.6%	2.9%	18.9%	4.7%	21.5%	11.2%	8.8%	13.3%	2.9%
정년퇴직	35.9%	.0%	20.5%	.0%	.0%	2.6%	.0%	35.9%	5.1%
기타	19.5%	9.2%	19.5%	3.4%	3.4%	12.6%	8.0%	9.2%	3.4%

$\chi^2=527.3$ df=80 p<.01

5. 소득수준별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40이하	18.4%	2.1%	11.3%	2.8%	5.7%	16.3%	4.3%	33.3%	5.7%
41-70	17.9%	7.2%	15.5%	.4%	8.8%	15.9%	3.6%	26.3%	4.4%
71-100	22.7%	7.3%	22.9%	.7%	10.5%	13.7%	3.2%	15.6%	3.4%
101-150	21.0%	13.0%	24.2%	1.8%	10.8%	15.8%	3.6%	8.2%	1.8%
151-200	26.7%	12.2%	22.8%	2.1%	13.0%	9.3%	4.2%	7.4%	2.4%
201-300	27.2%	17.8%	15.8%	2.0%	10.9%	11.4%	5.0%	6.4%	3.5%
301이상	21.1%	5.6%	25.6%	3.3%	21.1%	8.9%	4.4%	4.4%	7.8%

$\chi^2=216.6$ df=48 p<.01

6. 도시규모별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대도시	22.9%	11.9%	21.6%	1.7%	11.6%	11.7%	4.1%	9.2%	5.3%
중소도시	23.6%	8.1%	23.2%	1.8%	11.1%	15.4%	3.6%	11.1%	2.2%
읍면지역	20.8%	9.2%	17.4%	1.3%	9.8%	14.5%	3.2%	23.0%	.8%

$\chi^2=188.6$ df=40 p<.01

제 3 절 라디오 청취실태

20세기초 전파의 발견은 라디오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매체를 탄생시켰다. 한국 역시 6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라디오는 신문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텔레비전 보급이 보편화된 70년대 중반 이후, 즉 라디오라 가졌던 기존의 주요한 방송기능을 텔레비전에 빼앗긴 이후 라디오는 포맷과 형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라디오는 텔레비전의 부수적 매체로 전락한 것이다.

현재 라디오는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음악이나 교통관계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악 프로그램은 학업이나 가사노동, 운전 등과 병행하여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라디오 방송의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교통관계 프로그램도 고속도로와 대도시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교통관계 프로그램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라디오 청취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라디오 청취형태를 조사하였다. 라디오는 거의 전 가정에 보급되었고, 자동차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보급이 증가되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대체로 어떠한 장소에서 청취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둘째, 라디오 청취량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일일 평균 청취량과 시간별 청취량 분포를 살펴보았다.

셋째, 선호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평소에 즐겨듣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 라디오 청취행태

“주로 라디오를 어디서 듣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집에서 듣는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 ‘차 안에서’가 22.4%를 차지했다. 그리고 ‘직장에서 듣는다’ 9.1%, ‘휴대하면서 듣는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91년 조사⁹⁾와 비교하면 차안에서 듣는 유효비율이 10.7%에서 32.3%로 증가하여 약 22% 늘어난 거승로 나타났다. 이것은 91년도에 비해 94년도 승용차 보유율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94년 가구당 승용차 소유율은 51.8%로 조사되어 대체로 2가구당 1가구는 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라디오 청취행태

단위 : 명, %

항목	빈 도	백분율	유효비
집에서	713	35.7	51.4
차안에서	448	22.4	32.3
직장에서	181	9.1	13.0
휴대하면서	33	1.7	2.4
기타	12	0.6	0.9
듣지않음	594	29.7	
무응답	19	1.0	
계	2000	100.0	100.0

* 여기서 유효비는 듣지 않음과 무응답을 제외한 백분율을 의미한다.(91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것임)

9) 윗글, p. 52.

2. 라디오 청취량

“평일의 경우 하루평균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듣느냐”고 라디오 청취량을 물어 본 결과 국민들의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은 1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

<표 3-12>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평일 기준)

청 취 량	1시간 30분
-------	---------

평일의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 분포를 보면 17.9%가 ‘30분 초과 1시간 이하’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6.1%가 ‘1시간 초과 2시가 이하’, 14.9%가 ‘30분 이하’, 로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3시간을 초과하는 청취자도 11.5%로 나타났다.

<표 3-12>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평일 기준)

단위 : 명, %

항목	빈 도	백분율	유효비
30분 이하	298	14.9	21.9
30분초과 1시간이하	358	17.9	26.3
1시간초과 2시간이하	321	16.1	23.7
2시간초과 3시간이하	155	7.8	11.4
3시간초과 4시간이하	75	3.8	5.5
4시간초과 5시간이하	56	2.8	4.1
5시간 초과	97	4.9	7.1
듣지 않는다	640	32.0	
계	2000	100.0	100.0

* 여기서 유효비는 듣지않는다는 제외한 백분율을 의미한다.(91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것임)

3. 라디오 선호 프로그램

평소 즐겨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세가지를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 41%가 대중가요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뉴스 29.7%, 팝송 24.9%, 생활정보 21.5%, 스포츠 1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교양 13.0%, 날씨 11.8%, 교통안내 9.6%, 고전음악 8.0% 등으로 조사되었다. 코미디, 드라마, 국악 등은 낮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라디오에 있어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가요, 팝송, 고전음악, 국악 등의 비율을 합하면 76.8%에 이른다.

또한 뉴스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뉴스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비해 신속성이 가장 높다. 게다가 장소의 제약이라는 한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밖에 국민들은 생활정보, 날씨, 교통안내 등의 정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라디오 청취 선호 프로그램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대중가요	820	41.0
뉴스	593	29.7
팝송	498	24.9
생활정보	430	21.5
스포츠	312	15.6
교양	260	13.0
날씨	235	11.8
교통안내	191	9.6
고전음악	161	8.0
토론해설	142	7.1
드라마	97	4.9
코미디	63	3.2
국악	46	2.0

(3가지 복수응답)

제 4 절 비디오 시청실태

비디오는 영화, 교육,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원품을 복제하여 가정에서 시청하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생산의 입장에서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원제품을 시장에서 유통시킨 후, 저렴한 복제비용만으로 수요자에게 다시 다량으로 재유통시킬 수 있어 비디오는 문화기업에게 높은 경제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태백산맥’이란 영화를 만든 영화사는 일단 시중 영화관에서 수익을 얻어내고, 더 이상 관람자가 없다면 원작을 대량으로 복사하여 전국의 비디오 가게에 출하하여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한편 소비의 입장에서조차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대여하여 온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즉 영화관에서 1인당 5천원의 비용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를 2천원의 비용으로 대여하여 가족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매체이므로 비디오 보급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금성사의 사내 자료에 따르면 비디오 보급율이 89년 26.3%, 90년 44%, 92년 57%로 매년 10%이상의 신장율을 보였고, 본 조사에 따르면 94년 현재 78.6%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는 80년대초만해도 상류층의 문화용품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매체로 발돋움한 것이다. 아마도 2년내지 3년후면 텔레비전 보급율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비디오 시청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편수를 조사하였다. 단위는 월별은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 비디오 프로그램은 영화 뿐 아니라 교육자료, 음악, 교양물 등 다양한 분야로 분화되어 있고, 수용자들은 반복하여 시청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대여하지 않고 아예 소유하려고 한다.

1.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편수

“평소 비디오 테이프를 한달에 몇편이나 보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한달에 평균 3.5편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월 평균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 편수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편수	3.5편
---------------	------

월 평균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량 분포를 보면 2편이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1편 12.6%, 3편 9.2% 순으로 나타났다. 주에 1편 이상 보는 사람은 26.1%(4편 이상)정도로 조사되었고, 11편 이상을 보는 비디오광도 5.3%나 되었다. 한편 비디오 테이프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도 37.3%로 드러났다.

91년 조사¹⁰⁾와 비교할 때 비디오 시청율이 45.9%에서 62.7%로 늘어났다. 비디오 소유의 증가처럼 비디오 시청율도 지속적으로 늘 추세이다. 또한 비디오가 주요한 대중매체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표 3-16> 월 평균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량 분포

단위 :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유효비
1 편	251	12.6	20.0
2 편	299	15.0	23.8
3 편	184	9.2	14.7
4 편	120	6.0	9.6
5 편	151	7.6	12.0
6편-10편	144	7.2	11.5
11편 이상	105	5.3	8.4
보지 않음	746	37.3	
계	2000	100.0	100.0

* 여기서 유효비는 보지않음을 제외한 백분율을 의미한다.(91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것임)

10) 윗 글, p. 78.

2.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현황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설문한 결과, 일반영화 소유율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동용 만화영화 14.1%, 교육자료용 11.1%, 교양물 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음악 8.5%, 스포츠물 8.2%, 성인대상영화(포르노물) 3.8%, 쇼, 코미디물 3.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7>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현황(가구당)

단위 : 편, %

프 로 그 램	빈 도	백분율
일반영화	728	36.4
아동용 만화영화	298	14.8
교육자료용(강습)	221	11.1
교양물	212	10.8
음악 프로그램	129	8.5
스포츠물	124	8.2
성인대상영화	71	3.8
쇼 코미디물	89	3.5

제 5 절 독서실태

전통적인 문화지표 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독서실태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교양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교양이 높다고 가정 또는 전제하는 것이다.

독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측면에서 출판산업을 분석하거나 소비의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취하였는데 참고로 90년도 발행종수와 부수를 살펴보면 41,712종 241,839,337부수이다.¹¹⁾연도별로 보면 발행종수와 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도서량이 증가한다면 소비의 측면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를 알기 위하여 국민들의 독서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독서량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월평균 독서량은 수치가 너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여 1년 평균 독서량을 조사하였다.

둘째, 도서구입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서점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겠으나 국민의 독서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공공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대한 이용율을 알아보았다.

셋째, 독서관심분야를 알아보았다. 한국의 출판시장은 과점과 독점적 경쟁이라는 이중구조로 존재한다. 출판 대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은 교과서, 참고서, 아동도서, 사전류 등과 같은 서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거대한 수용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11) 노병성, 「1980년대 한국 출판산업의 산업조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2, pp. 122-125.

들이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도서영역의 선호를 조사하였다.

넷째, 잡지구독방법을 조사하였다. 근래에 들어 다양한 잡지들이 우후죽순 처럼 발간되었다.

국민들이 이러한 잡지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았다.

다섯째, 만화책 보는 실태를 조사하였다. 70년대까지 만화영역은 아동용 만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80년대 초부터는 성인용 만화가 등장하여 만화를 보는 수용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많이 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화보는 양과 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독서량

독서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대략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지난 1년간 읽은 책은 평균 9.0권으로 나타났다.

<표 3-18> 연 평균 독서량

독서량	9.0권
-----	------

연 평균 독서량 분포를 보면 59%정도가 1권에서 10권이하로 읽었고, 월 평균 1권씩 보는 것으로 여겨지는 11권 이상은 21.2%정도로 나왔다. 반면에 지난 1년간 한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응답도 16.9%나 되었다. 따라서 독서를 하는 국민의 비율은 83.1%로 나타났다.

<표 3-19> 연 평균 독서량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1권	107	5.4
2권	186	9.3
3권	206	10.3
4권	92	4.6
5권	215	10.8
6권-10권	374	18.7
11권-20권	263	13.2
21권이상	180	9.0
읽지 않음	377	18.9
계	2000	100.0

2. 도서구입방법

“책을 주로 어디서 구해서 보느냐”는 질문을 통해 도서구입방법을 조사한 결과 ‘서점에서 그때 그때 직접 구입해서 본다’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처의 책 빌려주는 곳 또는 정기적으로 오는 이동도서관에서 빌려 본다’와 ‘공공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에서 빌려본다’가 각각 6.1%와 5.1%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는 구매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반면에 공공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91년 조사¹²⁾와 비교하면 이동도서관의 비율이 2.0%에서 6.1%로 증가하여 이

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윗 글, p. 69.

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보다 이용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간이 고정된 공공도서관보다 장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동도서관은 국민들에게 독서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다.

<표 3-20> 도서구입방법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서점에서	1057	52.9
친구나 친지	212	10.6
이동 도서관	122	6.1
공공 도서관	101	5.1
기타	54	2.7
거의 안본다	435	21.8
무 응 답	19	1.0
계	2000	100.0

3.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평소에 읽는 책은 주로 어떤 분야”라는 질문에 대하여 38.8%의 응답자가 ‘문화예술분야’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역사분야’ 10.0%, ‘종교, 철학분야’ 9.8%, ‘생활 육아분야’ 6.1%, ‘사회과학분야’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순수, 기술과학분야’나 ‘어학, 인문과학분야’ 등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교과서나 참고서 등을 제외하면 국민들은 문학예술분야의 도서를 많이 선택하여 읽는 것이다.

<표 3-21>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 분 율
문화예술	736	36.8
역사분야	199	10.0
종교철학	196	9.8
생활육아	162	8.1
사회과학	106	5.3
순수기술	73	3.7
인문어학	43	2.2
기타	72	3.6
거의 안읽음	369	18.5
무응답	44	2.2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문화예술(32.4%)과 역사분야(15.0%)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에 여자는 문화예술(41.2%), 생활육아(13.8%), 종교철학(12.1%) 등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하면 남자는 역사분야에, 여자는 생활육아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로 갈수록 문화예술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별로는 학생(53.4%), 전문기술직(47.0%), 사무직(42.5%) 등이 문화예술분야의 도서를, 행정관리직(21.9%)은 역사분야의 책을, 주부(20.9%)는 생활육아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22〉 하위집단별 관심있게 읽는 도서분야

1. 성별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남	32.4%	15.0%	8.3%	7.5%	2.4%	2.4%	6.3%	3.8%	19.4%	2.4%
여	41.2%	4.9%	2.3%	12.1%	13.8%	1.9%	1.0%	3.4%	17.5%	2.0%

$\chi^2=227.9$ df=9 p<.01

2. 연령별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10대	54.2%	5.8%	6.7%	4.6%	4.6%	2.9%	7.5%	7.1%	4.6%	2.1%
20대	49.6%	6.5%	8.0%	7.7%	10.5%	3.6%	3.6%	4.2%	5.0%	1.1%
30대	39.2%	11.0%	3.7%	12.2%	12.5%	1.4%	3.7%	3.7%	10.8%	1.9%
40대	23.5%	16.8%	5.5%	13.7%	5.5%	.9%	2.7%	2.1%	26.2%	3.0%
50대	18.1%	9.9%	4.4%	9.9%	2.7%	2.7%	2.2%	2.2%	44.0%	3.8%
60대이상	7.8%	9.7%	.6%	7.8%	.6%	.6%	1.3%	.6%	67.5%	3.2%

$\chi^2=634.1$ df=45 p<.01

3. 학력별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국졸이하	15.3%	5.1%	.9%	7.2%	1.7%	.4%	2.1%	1.7%	62.6%	3.0%
중졸	31.6%	10.1%	3.6%	9.4%	8.2%	1.0%	3.9%	3.1%	25.3%	3.9%
고졸	41.2%	10.1%	4.7%	10.6%	10.8%	1.7%	3.1%	5.4%	11.4%	1.1%
대졸	44.4%	12.6%	11.0%	9.4%	5.6%	5.4%	5.9%	1.1%	2.2%	2.4%
대학원졸이상	44.4%	8.9%	8.9%	13.3%	4.4%	4.4%	2.2%	2.2%	6.7%	4.4%

$\chi^2=518.8$ df=36 p<.01

4. 직업별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사무직	42.5%	15.5%	10.7%	8.3%	5.2%	3.6%	4.8%	4.0%	3.6%	2.0%
전문기술직	47.0%	9.7%	7.5%	12.7%	2.2%	1.5%	9.7%	1.5%	5.2%	3.0%
행정관리직	21.9%	21.9%	12.5%	9.4%	.0%	3.1%	9.4%	6.3%	9.4%	6.3%
판매직	35.4%	16.6%	2.3%	13.2%	6.6%	1.7%	1.0%	4.3%	17.5%	1.3%
생산직	29.5%	17.3%	3.6%	7.9%	4.3%	.7%	5.0%	4.3%	25.2%	2.2%
서비스업	33.6%	11.2%	4.0%	9.6%	12.0%	2.4%	.8%	4.0%	21.6%	.8%
1차산업	15.0%	5.0%	.0%	4.3%	2.9%	.7%	2.1%	2.1%	62.9%	5.0%
주부	32.1%	3.6%	.5%	13.4%	20.9%	.2%	.2%	2.4%	24.1%	2.4%
학생	53.4%	5.3%	12.1%	4.4%	3.8%	5.0%	7.1%	4.4%	3.2%	1.2%
정년퇴직	7.7%	10.3%	.0%	10.3%	.0%	.0%	2.6%	.0%	61.5%	7.7%
기타	36.8%	9.2%	5.7%	13.8%	3.4%	3.4%	5.7%	6.9%	14.9%	1.1%

$\chi^2=748.4$ df=90 p<.01

5. 소득수준별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40이하	20.6%	7.8%	5.7%	7.8%	3.5%	2.1%	3.5%	3.5%	45.4%	.0%
41-70	26.7%	8.8%	1.6%	11.2%	10.4%	1.6%	2.8%	2.4%	31.1%	3.6%
71-100	35.5%	11.9%	3.0%	9.6%	7.8%	1.4%	2.7%	3.0%	21.7%	3.4%
101-150	37.1%	9.8%	5.6%	10.0%	10.0%	2.8%	4.6%	4.8%	14.4%	1.0%
151-200	43.7%	10.6%	7.1%	10.6%	6.6%	2.1%	4.0%	3.4%	9.8%	2.1%
201-300	43.1%	9.4%	10.9%	9.4%	7.4%	1.5%	5.0%	3.5%	8.4%	1.5%
301이상	52.2%	6.7%	4.4%	6.7%	7.8%	5.6%	1.1%	4.4%	6.7%	4.4%

$\chi^2=218.7$ df=54 p<.01

6. 도시규모별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대도시	38.1%	11.5%	6.0%	9.9%	7.9%	2.0%	3.4%	4.1%	14.1%	2.9%
중소도시	37.2%	9.3%	5.9%	10.7%	8.5%	3.8%	4.2%	3.0%	15.2%	2.2%
읍면지역	34.0%	7.7%	3.4%	8.7%	8.1%	.9%	3.6%	3.2%	29.4%	.9%

$\chi^2=142.6$ df=45 p<.01

4. 잡지구독 행태

잡지구독 행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가끔 구입해서 본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응답이 21.6%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기구독’을 하는 응답자는 11.3%, ‘빌려서 본다’는 응답자는 9.9%로 나타났다. 따라서 잡지는 정기적으로 구독하기 보다는 관심있는 내용이 잡지에 실릴 경우 가끔 구입하거나 아니면 은행, 병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간 때우기로 보는 것이다.

91년 조사¹³⁾와 비교하면 정기구독율이 9.0%에서 11.3%로 2.3%정도 높아졌고, 비치된 것을 보는 비율 역시 17.4%에서 21.6%로 높아졌다. 반면에 가끔 구입하거나 빌려보는 비율은 다소 낮아졌다. 특히 비치된 것을 보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공공장소의 잡지비치율의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3> 잡지구독행태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정기구독	225	11.3
가끔구입	566	28.3
비치된 것	432	21.6
빌려서 봄	197	9.9
거의 보지않음	568	28.4
무응답	12	.6
계	2000	100.0

13) 윗 글, P. 72.

5. 만화수용실태

1) 만화보는 양

만화보는 양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소 만화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어쩌다 한두번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한달에 한두번 본다’와 ‘일주일에 한두번 본다’는 각각 5.2%와 3.5%의 응답률을 보였고, ‘거의 매일 본다’는 만화광은 1.6%로 나타났다.

한편 ‘거의 보지 않는다’는 69.4%로 응답되어 대략 70% 정도의 국민은 만화에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24> 만화 보는 양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거의 매일	31	1.6
주에 한두번	69	3.5
달에 한두번	104	5.2
어쩌다 본다	401	20.1
거의 보지않음	1388	69.4
무응답	7	.4
계	2000	100.0

2)만화구독행태

“만화를 평소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3.3%가 ‘다른 곳에 비치된 것을 본다’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집에 빌려와서 본다’는 응답자가 6.0%였으며 만화가계에서 본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사서본다’는 응답은 2.9%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만화 주간지나 월간지 등 비치된 만화잡지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표 3-25> 만화구독행태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비치된 것	266	13.3
빌려와서	159	8.0
만화가계	101	5.1
사서본다	57	2.9
거의 보지않음	1398	69.9
무응답	19	1.0
계	2000	100.0

제 6 절 컴퓨터와 도서관 이용실태

21세기를 주도할 컴퓨터는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였다. 앞으로 한세대의 역사가 흐른다면 컴퓨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이용실태는 점진적으로 높아갈 전망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예측을 기초로 컴퓨터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먼저 컴퓨터 사용량에 관한 것이다. 국민들이 하루 평균 컴퓨터에 어느 정도 시간할애를 하는지 조사하였다.

둘째, 컴퓨터 사용능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능력에 따라 문맹자, 초보자, 초급사용, 중급사용, 고급사용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사용능력 기준에 대한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컴퓨터 문맹자 :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 2) 컴퓨터 초보자: 오락 프로그램 등 반복적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용방법 정도는 안다.
- 3) 컴퓨터 초급 사용자 : 워드 프로세서 등 기본 프로그램 몇가지를 이용할 수 있고 OS(운영체제)도 알고 있다.
- 4) 컴퓨터 중급 사용자 : 대부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5) 컴퓨터 고급 사용자 : 웬만한 프로그램은 스스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컴퓨터 사용 용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주로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한편 도서관은 국민의 사회문화적 질을 확보 및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도

서관들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를 보장하거나 주요한 자료수집공간 등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그만큼 사회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마을문고, 대학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이용여부를 알아보았고, 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컴퓨터 이용실태

1) 컴퓨터 이용량

컴퓨터 이용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무적인 것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일일 평균 컴퓨터 이용량은 36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일일 평균 컴퓨터 이용량

컴퓨터 이용량	36분
---------	-----

일일 평균 컴퓨터 이용량 분포를 분석하면 ‘30분 초과 1시간 이하’가 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30분 이하’ 6.0%,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5.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일반인의 컴퓨터 이용은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7> 일일 평균 컴퓨터 이용량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30분이하	120	6.0
30분초과 1시간이하	156	7.8
1시간초과 2시간이하	113	5.7
2시간초과 5시간이하	96	4.9
5시간초과	43	2.2
안한다	1472	73.6
계	2000	100.0

2)컴퓨터 사용능력

“개인용 컴퓨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8%가 ‘컴퓨터 문맹자’로서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다. 다음으로 워드 프로세서 등 기본 프로그램 몇가지를 이용할 수 있고, OS(운영체제)도 알고있다는 ‘초급사용자’가 18.3%로 나타났고, 오락 프로그램 등 반복적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용방법 정도는 안다는 ‘컴퓨터 초보자’는 15.5%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응답자의 5.8%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급 사용자’였고, 웬만한 프로그램은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한다는 ‘고급 사용자’는 0.8%에 머물렀다.

<표 3-28> 컴퓨터 사용능력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문맹자	1096	54.8
초보자	309	15.5
초급사용	365	18.3
중급사용	116	5.8
고급사용	16	.8
무응답	98	4.9
계	2000	100.0

3)컴퓨터 사용용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에 관한 질문의 결과, 일반사무가 4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전자오락 24.6%, 고객관리 11.1%, 학습 5.8%, 정보습득 4.0%, 그래픽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한 컴퓨터 사용용도는 일반사무나 고객관리 등 문서작성 및 보관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전자오락과 같이 즐기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표 3-29> 컴퓨터 사용용도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일반사무	377	44.1
전자오락	210	24.6
고객관리	95	11.1
학습	50	5.8
정보습득	34	4.0
그래픽	13	1.5
기타	76	8.9
계	855	100.0

2. 도서관 이용실태

1) 각종 도서관 이용현황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1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공립도서관 11.4%, 국립도서관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설독서실 6.6%, 중.고교도서관 5.9%, 마을문고 5.3%, 직장부속도서관이 4.5%등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30> 각종 도서관 이용현황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대학도서관	241	12.1
공립도서관	227	11.4
국립도서관	149	7.5
사설 독서실	131	6.6
중.고교도서관	118	5.9
마을문고	105	5.3
직장부속도서관	89	4.5

2)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또는 독서실에 가는 이유”에 관한 질문의 결과, ‘책을 읽거나 대출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

로 ‘입시나 취직공부를 하기 위해서’ 35.1%,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시나 취직공부를 제외하고 도서관을 문화적 활동으로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약 50%정도로 나타난 것이다.

91년 조사¹⁴⁾와 비교하면 91년의 경우, ‘입시나 취직공부를 위해서’가 58.5%로 가장 높았으나 94년은 ‘책을 읽거나 대출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3-31> 도서관 이용목적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도서대출	345	46.4
입시취직	261	35.1
행사참석	33	4.4
기타	59	7.9
무응답	46	6.2
계	744	100.0

14) 윗 글, p. 92.

제 4 장 문화예술행사와 여가활동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학이나 예술을 연상한다. 특히 문화가 서구적인 관념으로 치장된 이후 더욱 그렇다. 서구에서 문화는 16세기까지 자연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관념이었지만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인간정신이나 예술과 관련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낭만주의의 시기에 들어와 문화는 문학과 예술의 발전상태를 지칭하였고, 현재까지 그러한 관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령 문화에 대한 관념이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것으로 확장되었을지라도 문화의 척도를 예술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살아있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 역시 본 연구 제2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미술, 음악, 연극 등과 같은 예술활동이라고 보는 관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는 전통과 관련된 것이란 인식도 넓게 소통되고 있다. 즉 문화를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 전통예술 등 역사적 유산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각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은 자본주의란 동일한 사회구조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는 서로 다르다. 다른 이유는 다름아닌 전통의 차이 때문이다. 전통이라는 과거와 자본주의라는 현재가 뒤엎히면서 동일한 자본구조이면서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방식은 인사와 의사결정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것이다. 한국인들도 문화를 역사적 유산이라고 보는 경우가 예술로 보는 관점 다음으로 많았다.

20세기에 들어와 문화는 전반적인 생활양식이라는 보편적 규정으로 확대되었다. 예술이나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자체를 문화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 스포츠, 휴식 등 여가생활도 문화적 척도로서 기능한다.

문화관념이 이와같이 다원화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통문화, 예술, 여가 등 가능한 영역 모두를 조사하였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전통문화의 경우 국악, 전통민속 공연 등과 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에 대한 관람실태를 조사하였고,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경우 문학행사, 미술(건축, 사진) 전시회, 양악(클래식, 오페라 등)연주회, 연극공연, 무용공연, 연예, 쇼 공연, 영화관 등에 대한 관람실태를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의 문화예술 중 가장 발전한 분야와 낙후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전문가의 평가는 아니지만 각각의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문화수용의 주체자로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존재한다.

셋째, 문화예술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문화예술을 관람할 욕구가 존재할지라도 여건이 안된다면 관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람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넷째,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것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조사하였다.

한편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먼저 국민들이 주로 행하는 여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공휴일에 여가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휴일 여가활동을 설문하였다. 아울러 여건이 된다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둘째,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장애요인이 제거된다면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여행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생활수준이 향상된 후 국민들의 여행이 상당히 증가하여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의 양을 알아보았다.

제 1 절 문화예술행사

1.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1) 전통문화예술

지난 1년간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실태를 알아본 결과, 고궁 및 사적지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0%로 조사되었다. 박물관에 있어서는 23.4%의 응답자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전통민속공연과 국악연주는 각각 6.7%, 4.4%로 나타나 관람한 국민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화예술영역에서는 고궁 및 사적지, 박물관 등 역사적 유물들을 중심으로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91년 조사¹⁵⁾와 비교하면 국악연주는 3.3%에서 4.4%로 다소 높아졌고, 반면에 박물관은 27.1%에서 23.4%로, 민속놀이는 8.1%에서 6.7%로 낮아졌다. 한편 고궁 및 사적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4-1> 전통문화예술 관람현황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국악연주	88	4.4
전통민속공연	134	6.7
박물관	468	23.4
고궁 및 사적지	760	38.0

15) 윗 글, p. 95-97.

관람분포를 보면 각 항목 모두 1번 관람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궁 및 사적지는 정기적인 이용자가 상당수 있어 3번 이상의 관람자가 27.7% 정도로 나타났다.

<표 4-2> 전통문화예술 관람 분포

단위 : %

항 목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계
국악연주	69.3	20.5	4.5	1.1	4.5	100.0
전통민속공연	73.1	15.7	4.5	4.5	2.2	100.0
박물관	58.1	25.9	8.8	2.8	4.5	100.0
고궁 및 사적지	41.2	31.1	14.3	4.2	9.2	100.0

2) 현대문화예술

지난 1년간 현재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실태를 알아본 결과, 영화관람을 1번 이라도 한 사람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화가 대중매체로서 확고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술(사진, 건축) 전시회 19.4%, 연극 18.8%로 조사되어 미술과 연극에 대한 관람율도 상당하였다. 그리고 젊은 층을 주 관객 대상으로 삼는 연예, 쇼 공연도 11.3%로 조사되었고, 클래식과 오페라 등 양악연주는 10.5%, 문학행사는 10.2%로 나타났다. 무용공연은 3.2%의 상당히 낮은 관람율을 보여 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91년 조사¹⁶⁾와 비교하면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양악연주 등은 관람비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쇼 공연 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의 경우 52.7%에서 44.7%로 낮아진 것은 비디오시청율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4-3> 현대문학예술 관람현황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문학행사	205	10.2
미술(사진, 건축)	389	19.4
양악(클래식) 연주	210	10.5
연극공연	376	18.8
무용공연	65	3.2
연예 쇼 공연	226	11.3
영화관	894	44.7

관람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문화예술 관람분포와 유사하게 1번 관람할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술전시회와 연극공연의 경우 3번 이상 관람하는 응답자가 각각 21.1%와 25.3%로 나타나 다른 문화예술 영역보다 정기적인 관람자가 많이 존재하였다.

<표 4-4> 현대문화예술 관람분포

단위 : %

항 목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계
문학행사	57.6	21.0	10.7	3.9	6.8	100.0
미술(건축, 사진)	46.8	32.1	9.5	1.3	10.3	100.0
양악연주	62.4	22.4	5.7	1.9	7.6	100.0
연극공연	47.1	27.7	12.2	5.1	8.0	100.0
무용공연	70.8	20.0	6.2	0.0	3.1	100.0
연예 쇼 공연	62.4	21.2	7.5	0.9	8.0	100.0

16) 윗 글, p. 95.

한편 영화관람 분포는 2번 이용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번 이용 8.5%, 3번 이용 6.6%로 나타났다. 6번에서 10번까지의 이용이 7.7%로 조사되었고, 11번 이상 이용한 응답자도 4.1%나 되어 다른 문화예술행사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 영화관람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유효비
1번	170	8.5	19.0
2번	180	9.0	20.1
3번	131	6.6	14.7
4번	70	3.5	7.8
5번	108	5.4	12.1
6번-10번	153	7.7	17.1
11번이상	82	4.1	9.2
없다	1106	55.3	
계	2000	100.0	100.0

* 여기서 유효비는 없다를 제외한 백분율을 의미한다.(91년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것임)

2.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분야와 낙후분야에 대한 인식

1) 한국 문화예술 중 발전분야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예술분야 중 가장 발전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국악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축 13.1%, 연예 7.9%, 문학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소수의 응답자가 영화(4.3%), 미술(3.8%), 연극(3.5%) 등을 꼽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서구로부터 수입한 현대 예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또한 ‘모르겠다’는 응답도 29.3%로 비중있게 나타나 평가를 유보하는 국민도 상당수 되었다.

<표 4-6> 한국의 예술분야 중 발전분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국악	490	24.5
건축	262	13.1
연예	158	7.9
문학	145	7.3
영화	85	4.3
미술	75	3.8
연극	70	3.5
무용	43	2.2
양악	42	2.1
사진	10	.5
기타	7	.4
모르겠다	591	29.6
무응답	22	1.1
계	2000	100.0

2) 한국 문화예술 중 낙후분야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예술분야 중 가장 낙후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화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축 9.3%, 국악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문학 4.4%, 무용 3.9%, 연극 3.4%, 양악 3.3%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영화를 가장 낙후된 분야로 인식한 것은 국민들이 미국, 서구유럽이나 홍콩 등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나라의 영화들을 많이 감상하여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들은 가장 발전한 분야로 응답하였던 국악과 건축을 영화 다음으로 낙후되었다고 평가하여 국민들간에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7> 한국의 예술분야 중 낙후분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영화	499	25.0
건축	186	9.3
국악	149	7.5
문학	88	4.4
무용	78	3.9
연극	68	3.4
연예	66	3.3
양악	65	3.3
사진	43	2.2
미술	42	2.1
기타	13	.7
모르겠다	687	34.4
무응답	16	.8
계	2000	100.0

3.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응답자의 33.2%가 지적한 ‘여가시간의 부족’이고, 그 다음이 ‘근처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는다’ 20.1%, ‘비용이 많이 든다’ 1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장애요인으로 응답자의 9.8%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를 들었고, 5.3%가 ‘매력있는 공연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소수의 응답자들은 ‘공연정보의 부족’, ‘같이 갈 친구의 문제’, ‘표 구하기의 어려움’ 등을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따라서 ‘여가시간’이라는 조건변수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고, 근처에서 공연하지 않는다는 ‘시설 및 장소의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든다’가 두, 세 번째 장애요인으로 밝혀져, 결국 여가시간, 문화예술활동 비용, 문화예술활동 시설 등 3가지 조건이 구조적 제약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8>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시간이 부족하다	664	33.2
근처에 공연이 없음	402	20.1
비용이 많이 든다	242	12.1
마음의 여유가 없다	196	9.8
불만한 공연이 적다	105	5.3
공연정보가 없다	69	3.5
함께 갈 친구가 없다	26	1.3
내용이 어렵다	24	1.2
표를 구하기 어렵다	19	1.0
기타	34	1.7
모르겠다	186	9.3
무응답	33	1.7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시간이 없었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거리가 멀다’와 ‘비용이 없다’에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 등 직업전선에 나가있는 층이 ‘시간이 없다’와 ‘마음의 여유가 없다’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용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높게 설정되었다.

한편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층과 소득수준별로는 수입이 높은 층들은 시간이 없는데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52.2%), 판매직(48.0%) 등이 시간이 없는데 높게 응답하였고, 행정관리직(18.8%), 주부(14.6%), 서비스업(14.4%) 등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다른 직업층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로 갈수록 여가시간이 없다는 응답율이 증가하였다.

<표 4-9> 하위집단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1. 성별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멀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남	9.4%	6.2%	17.9%	.9%	36.4%	8.8%	1.1%	1.5%	3.5%	11.0%	1.4%	1.8%
여	14.8%	4.3%	22.3%	1.0%	30.0%	10.8%	1.5%	.9%	3.4%	7.6%	2.0%	1.5%

$\chi^2=37.9$ df=11 p<.01

2. 연령별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멀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10대	17.1%	7.5%	25.0%	.8%	23.8%	6.7%	2.5%	2.5%	3.3%	8.3%	.8%	1.7%
20대	15.9%	8.0%	23.2%	1.3%	27.6%	8.6%	1.1%	1.0%	5.2%	5.2%	1.5%	1.3%
30대	9.2%	4.2%	22.0%	.9%	36.9%	12.9%	.7%	.3%	2.8%	6.8%	2.3%	1.0%
40대	9.5%	4.0%	17.7%	1.2%	41.2%	10.7%	.3%	.9%	1.8%	9.5%	.6%	2.7%
50대	11.0%	2.2%	11.5%	.5%	40.7%	9.3%	1.1%	2.2%	3.3%	13.2%	1.6%	3.3%
60대이상	9.1%	2.6%	10.4%	.0%	27.3%	5.8%	4.5%	2.6%	3.9%	3.9%	3.9%	.6%

$\chi^2=234.0$ df=55 p<.01

3. 학력별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법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국졸이하	11.9%	1.7%	14.0%	1.7%	32.8%	7.7%	3.8%	2.6%	2.6%	17.9%	2.1%	1.3%
중졸	11.3%	3.6%	21.0%	.7%	32.3%	8.9%	1.2%	2.4%	2.7%	11.8%	1.7%	2.4%
고졸	11.6%	5.7%	22.6%	.8%	31.4%	11.5%	1.0%	.8%	3.6%	8.5%	1.4%	1.3%
대졸	14.2%	7.5%	18.0%	1.1%	38.2%	7.8%	.8%	.3%	4.6%	3.5%	2.4%	1.6%
대학원졸이상	13.3%	11.1%	8.9%	2.2%	40.0%	11.1%	.0%	.0%	2.2%	6.7%	.0%	4.4%

$\chi^2=113.7$ df=44 p<.01

4. 직업별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법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사무직	14.7%	6.0%	22.2%	.8%	34.5%	7.1%	1.2%	.8%	4.0%	6.7%	.4%	1.6%
전문기술직	10.4%	6.7%	13.4%	1.5%	52.2%	6.7%	.7%	.7%	1.5%	4.5%	.0%	1.5%
행정관리직	3.1%	3.1%	15.6%	.0%	31.3%	18.8%	3.1%	.0%	12.5%	3.1%	3.1%	6.3%
판매직	6.3%	4.6%	19.5%	.3%	48.0%	8.9%	.3%	.7%	2.3%	7.3%	1.0%	.7%
생산직	6.5%	3.6%	17.3%	.7%	39.6%	9.4%	.7%	.7%	3.6%	11.5%	2.9%	3.6%
서비스업	8.0%	3.2%	20.0%	1.6%	34.4%	14.4%	.8%	.8%	2.4%	10.4%	1.6%	2.4%
1차산업	7.1%	1.4%	20.7%	1.4%	38.6%	7.1%	.0%	.0%	5.0%	15.0%	.7%	.7%
주부	14.6%	2.4%	21.7%	1.2%	22.6%	14.6%	1.9%	1.9%	2.9%	10.9%	3.9%	2.2%
학생	20.6%	10.3%	21.2%	1.2%	23.3%	7.1%	1.8%	1.8%	4.1%	6.5%	.3%	1.5%
정년퇴직	12.8%	5.1%	10.3%	.0%	15.4%	10.3%	7.7%	7.7%	5.1%	25.6%	5.1%	.0%
기타	8.0%	9.2%	24.1%	.0%	25.3%	8.0%	1.1%	1.1%	3.4%	14.9%	3.4%	.0%

$\chi^2=290.7$ df=110 p<.01

5. 소득수준별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법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40이하	14.2%	4.3%	23.4%	.7%	30.5%	3.5%	.7%	2.8%	3.5%	15.6%	.7%	.0%
41-70	12.7%	4.8%	20.7%	1.2%	28.3%	7.6%	2.8%	1.2%	3.2%	13.1%	2.8%	1.6%
71-100	12.4%	4.1%	19.9%	1.1%	29.7%	11.7%	1.8%	1.1%	3.7%	11.2%	.9%	2.3%
101-150	11.8%	6.6%	23.0%	.4%	31.9%	11.8%	1.0%	1.0%	3.0%	7.0%	1.8%	.8%
151-200	12.4%	6.6%	17.5%	.5%	37.8%	9.8%	1.3%	1.3%	3.4%	6.3%	2.1%	1.6%
201-300	11.4%	4.0%	17.3%	2.5%	38.1%	7.9%	.5%	.5%	3.5%	8.9%	2.0%	3.0%
301이상	7.8%	3.3%	15.6%	1.1%	44.4%	10.0%	1.1%	1.1%	5.6%	5.6%	1.1%	3.3%

$\chi^2=91.3$ df=66 p<.05

6. 도시규모별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법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대도시	13.7%	5.8%	11.6%	1.3%	37.8%	10.3%	1.8%	1.1%	3.1%	9.3%	2.1%	2.1%
중소도시	13.1%	6.5%	18.8%	.6%	31.5%	11.9%	.8%	1.2%	4.2%	8.7%	1.2%	1.6%
읍면지역	8.3%	3.0%	36.8%	.6%	26.4%	7.0%	.9%	1.3%	3.4%	9.8%	1.5%	.9%

$\chi^2=224.2$ df=55 p<.01

4.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

“앞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연극공연이 2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문화강습 25.1%, 연예, 쇼 19.7%, 민속공연 17.9%, 미술전시 1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문예영화 12.7%, 문학행사 10.8%, 양악연주 10.4%로 조사되었고, 국악연주와 무용은 10% 미만으로 적은 응답율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연극이나 생활문화강습 등에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10> 희망하는 지역문화예술행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연극공연	578	28.9
생활문화강습	502	25.1
연예쇼	393	19.7
민속공연	357	17.9
미술전시	271	13.6
문예영화	254	12.7
문학행사	215	10.8
양악연주	208	10.4
국악연주	165	8.3
무용공연	87	4.4

(2가지 복수응답)

제 2 절 여가활동

1. 여가활동실태

1)휴일 여가활동

“공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집에서 쉰다(휴식)’가 37.1%의 응답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까운 곳 산책 13.0%, 운동, 등산 12.6%, 낚시, 야유회, 해수욕 6.6%, 문화예술감상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은 각각 3.4%, 3.1%로 나타났고. 소수의 응답자가 꽃꽂이, 바둑 등 취미활동과 과외학습, 사진, 서예 등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공휴일을 평일의 노동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1> 휴일 여가활동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휴식	741	37.1
산책	260	13.0
운동	252	12.6
낚시	132	6.6
문화감상	100	5.0
독서	96	4.8
여행	67	3.4
스포츠관람	62	3.1
생활문화	28	1.4
과외학습	22	1.1
문화참여	9	.5
기타	88	4.4
시간없음	117	5.9
무응답	26	1.3
계	2000	100.0

2)희망하는 여가활동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무엇 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2.9%가 여행이라고 응답하여 국내나 해외, 명승지 탐방 같은 여행이 가장 높은 희망사항으로 밝혀졌다. 다음이 운동, 등산으로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집에서 쉬고 싶다(휴식)’는 응답자의 7.7%를 차지하여, 실제 비율인 37.1%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 한국사회는 노동 자체가 여가생활을 상당정도 장애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밖에 낚시, 야유회, 해수욕 6.9%, 생활문화, 취미활동 6.9%, 과외학습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희망하는 여가활동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여행	857	42.9
운동	270	13.5
휴식	153	7.7
낚시	137	6.9
생활문화	137	6.9
과외학습	98	4.9
문화참여	80	4.0
문화감상	71	3.6
산책	63	3.2
스포츠관람	47	2.4
독서	23	1.2
기타	14	.7
무응답	50	2.6
계	2000	100.0

2. 여가활동 장애요인

여가활동을 장애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조금 못미치는 44.4%가 시간의 부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18.7%의 응답자가 비용의 문제, 17.8%가 정신적인 여유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밖에 관련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문제, 같이 활동할 사람의 문제는 각각 4.9%, 3.6%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중한 노동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여가나 자유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인 여유 부족 역시 노동이나 학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와같은 분석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

<표 4-13> 여가활동 장애요인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시간이 없다	887	44.4
비용이 없다	374	18.7
정신적 여유가 없다	356	17.8
시설, 프로그램 없다	98	4.9
같이 할 사람 없다	72	3.6
정보가 전혀 없다	51	2.6
내용이 어렵다	13	.7
기타	52	2.6
관심없다	74	3.7
무응답	23	1.2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시간이 없었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비용이 없다’에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가 ‘시간이 없다’와 ‘정신적 여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10대, 20대, 60대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용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높게 설정되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이 장애요인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용문제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수입이 높을수록 시간이 없다에, 수입이 낮을수록 비용이 없다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59.7%), 판매직(57.9%), 사무직(51.2%) 등이 시간이 없다에 높게 응답하였고, 행정관리직(31.3%), 주부(23.8%) 등은 정신적 여유가 없다에 다른 직업층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도시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관련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에 10.6%로 다른 층보다 높게 응답하여 시골이 문화의 소외지역임을 확인하였다.

<표 4-14> 하위집단별 여가활동 장애요인

1. 성별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남	17.7%	47.8%	16.4%	4.7%	3.0%	2.7%	.6%	1.7%	4.2%	1.1%
여	19.7%	40.9%	19.2%	5.1%	4.2%	2.4%	.7%	3.5%	3.2%	1.2%

$\chi^2=18.4$ df=9 p<.05

2. 연령별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10대	26.7%	37.1%	12.9%	8.3%	5.0%	2.5%	.4%	1.7%	3.8%	1.7%
20대	22.4%	41.4%	18.0%	6.5%	4.4%	3.1%	.4%	2.3%	.8%	.8%
30대	13.2%	49.5%	23.2%	3.3%	2.6%	2.8%	.5%	2.4%	1.6%	.9%
40대	14.6%	52.7%	17.1%	4.9%	2.1%	1.2%	.6%	2.1%	2.4%	2.1%
50대	20.3%	47.3%	11.5%	1.6%	2.7%	2.2%	1.1%	1.6%	9.9%	1.6%
60대이상	20.8%	25.3%	13.6%	3.9%	6.5%	1.2%	1.9%	7.8%	16.9%	.0%

$\chi^2=238.7$ df=45 p<.01

3. 학력별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국졸이하	25.5%	33.2%	10.6%	4.3%	5.1%	1.7%	2.6%	3.4%	13.6%	.0%
중졸	21.2%	42.4%	17.8%	4.8%	3.1%	2.7%	.2%	1.7%	4.8%	1.2%
고졸	18.4%	45.6%	18.0%	5.4%	3.6%	2.9%	.5%	2.6%	1.6%	1.4%
대졸	12.6%	49.5%	21.5%	4.6%	3.5%	2.4%	.3%	3.2%	1.3%	1.1%
대학원졸이상	15.6%	53.3%	20.0%	2.2%	.0%	.0%	.0%	2.2%	4.4%	2.2%

$\chi^2=144.1$ df=36 p<.01

4. 직업별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사무직	15.9%	51.2%	17.5%	4.8%	3.2%	2.4%	.0%	1.6%	2.8%	.8%
전문기술직	9.7%	59.7%	14.9%	2.2%	3.7%	2.2%	.7%	1.5%	2.2%	3.0%
행정관리직	18.8%	31.3%	31.3%	3.1%	3.1%	6.3%	.0%	3.1%	3.1%	.0%
판매직	12.6%	57.9%	16.2%	5.0%	2.0%	2.3%	.0%	2.0%	1.3%	.7%
생산직	18.7%	44.6%	14.4%	5.8%	2.9%	5.8%	1.4%	2.2%	2.9%	1.4%
서비스업	16.8%	48.8%	18.4%	4.0%	1.6%	1.6%	.0%	2.4%	4.8%	1.6%
1차산업	16.4%	47.9%	12.9%	4.3%	2.1%	1.4%	1.4%	2.1%	10.0%	1.4%
주부	19.0%	31.6%	23.8%	5.6%	5.1%	2.2%	1.2%	5.8%	4.4%	1.2%
학생	29.5%	37.5%	14.7%	5.9%	4.7%	2.4%	.6%	.9%	2.7%	1.2%
정년퇴직	35.9%	15.4%	17.9%	.0%	7.7%	5.1%	2.6%	5.1%	10.3%	.0%
기타	17.2%	46.0%	19.5%	5.7%	3.4%	2.3%	.0%	1.1%	4.6%	.0%

$\chi^2=206.6$ df=90 p<.01

5. 소득수준별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40이하	27.7%	31.9%	13.5%	5.7%	2.1%	2.8%	2.8%	.7%	12.8%	.0%
41-70	22.3%	41.4%	12.7%	7.2%	4.4%	2.0%	.4%	3.6%	5.6%	.4%
71-100	22.9%	40.5%	18.1%	4.3%	4.1%	2.1%	.5%	2.3%	3.4%	1.8%
101-150	17.4%	43.7%	21.8%	5.4%	3.0%	3.0%	.4%	3.0%	1.8%	.6%
151-200	14.8%	48.9%	18.3%	4.2%	4.0%	2.9%	.8%	2.4%	2.4%	1.3%
201-300	11.4%	50.5%	18.8%	4.0%	4.0%	3.0%	.5%	2.0%	4.0%	2.0%
301이상	14.4%	61.1%	11.1%	2.2%	2.2%	1.1%	.0%	4.4%	1.1%	2.2%

$\chi^2=127.8$ df=54 p<.01

6. 도시규모별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대도시	18.2%	47.5%	17.6%	2.4%	3.1%	2.6%	.9%	2.9%	2.9%	1.9%
중소도시	22.4%	39.2%	20.0%	3.8%	4.6%	3.0%	.2%	2.4%	4.0%	.6%
읍면지역	16.0%	43.6%	16.0%	10.6%	3.6%	10.6%	.6%	2.3%	4.9%	.4%

$\chi^2=113.5$ df=45 p<.01

3. 여행실태

1) 국내여행

지난 1년 동안 업무상의 여행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국내여행횟수는 1.8회로 조사되었다.

<표 4-15> 연 평균 국내여행횟수

여행횟수	1.8회
------	------

일년 평균 여행 횟수 분포를 보면 2번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번 18.5%, 3번 9.2%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달에 1번꼴로 여행하는 응답자도 14.3%(4번 이상 여행한 사람)로 나타났다. 한편 1번도 없다는 응답자는 38.1%로 나타났다.

<표 4-16> 연 평균 국내여행 횟수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1번	369	18.5
2번	399	20.0
3번	184	9.2
4번	88	4.4
5번	102	5.1
6번이상	96	4.8
없음	762	38.1
계	2000	100.0

2) 해외여행

연 평균 해외여행 횟수는 0.5회로 조사되었다.

<표 4-17> 연 평균 해외여행 횟수

여행 횟수	0.5회
-------	------

연 평균 해외여행 횟수 분포를 보면 기증까지 업무상의 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5.4%를 차지하여 14.6%의 국민들만이 해외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여행 경험자들 중에서는 1번이 6.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2번 이상은 8.1%로 조사되었다.

<표 4-18> 연 평균 해외여행 횟수 분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1번	136	6.8
2번	57	2.9
3번	29	1.5
4번	11	0.6
5번	17	0.9
6번이상	43	2.2
없음	1707	85.4
계	2000	100.0

제 5 장 문화예술교육 및 정책

자본주의사회에서 문화예술행사가 대중성을 지닐려면 생산과 소비가 적정 수준에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소비규모가 안정적으로 크다면 정책적 배려없이도 자율적인 발전은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규모가 미약하거나 수용자 집단이 적다면 자생적인 시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문화예술처럼 국민의 문화복지를 보장하는 영역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무엇보다도 수용자 집단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문화를 향수할 만한 잠재적 수용자를 실제 향수하는 현실적 수용자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클래식 공연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구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연극교육을 일반화하여 학생들을 향후에 주요한 연극 수용자로 만든다. 어릴 때부터 연극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연극 햄릿을 보더라도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아니면 연출자가 누구인지 선택하여 관람한다. 또는 햄릿의 연기나 연출을 비겨하기 위해 모두 관람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 연극시장은 우리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얼마나 시장성이 있으면 그로토프스키와 같은 연출가는 상업성에 찌든 연극을 배제하고 ‘배고픈 연극’을 추구하려고 하였겠는가. 또한 미국에서는 브로드웨이의 상업성을 거부하고자 오프-브로드웨이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반면에 수용자 규모가 미비한 한국의 경우는 상업적 연극을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릴때부터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것은 문화예술발전의 구조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의 정책은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등 전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 역시 국가의 정책분야로 상정될 수 있다.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보조금 등 물질적 지원이나 작품 내용에 대한 규제 등에 주로 머물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볼 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국가 정책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으로 나뉘어야 한다. 사실상 현재 주로 사용되는 국가보조금이나 내용심의회는 단기적인 것일 뿐이다. 단기적인 것에 치중되는 문화정책은 필연적으로 문화예술 영역의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때우기식 정책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절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문화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도 구조적 조건을 질높게 건설하는 것이 주요 정책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구조적 조건이 계속 나쁘다면 질 좋은 작품이 창조되기 힘들 뿐 아니라 저질의 상품은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교육경험과 교육참가의사를 알아보았다. 공식적인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제외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현재까지 존재했었는지를 조사하였고, 만약 주변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참가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둘째, 문화예술정책의 경우, 1)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2) 문화활동 지출현황과 희망하는 지출분야, 3) 문화예술정책의 중점분야, 4)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제 1 절 문화예술교육

1. 문화예술교육 경험

문화예술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음악교육이 11.4%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미술교육 6.8%, 민속놀이 4.6%, 국악 3.9%, 연극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무용, 영화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각각 2.0%, 1.6% 등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5-1> 문화예술교육 경험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음악	228	11.4
미술	136	6.8
민속놀이	92	4.6
국악	77	3.9
연극	58	2.9
무용	40	2.0
영화	32	1.6

2. 문화예술교육 참가의사

“앞으로 주변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경우 참가 의향”은 응답자의 60.5%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참가하겠다’고 하고, ‘비싸도 참가하겠다’ 12.0%, ‘교육비가 싸면 참가하겠다’ 9.8%, ‘무료면 참가하겠다’ 4.8%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건만 맞으면 문화예술교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비가 비싸도 참가하겠다는 적극적인 사람도 12%나 된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5-2> 문화예술교육 참가의사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시간여유	1210	60.5
비싸도참가	240	12.0
싸면참가	192	9.6
무료참가	95	4.8
관심없다	230	11.2
기타	16	.8
무응답	24	1.2
계	2000	100.0

제 2 절 문화예술정책

1.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정비,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문화시설로는 문화회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 15.2%, 영화관 10.4%, 박물관 8.7%, 시민회관 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정비,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문화회관	575	28.8
도서관	303	15.2
영화관	208	10.4
박물관	173	8.7
시민회관	144	7.2
미술관	85	4.3
기타	36	1.8
필요없다	61	3.1
모르겠다	387	19.4
무응답	28	1.4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대체로 문화회관에 가장 높게 응답한 가운데 연령별로 10대(26.3%)는 영화관을 정비하거나 확충하기를 바랐다. 반면에 20대이상 50

대까지는 도서관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60대이상(14.3%)은 시민회관의 정비나 확충을 희망하였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에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민회관의 정비와 확충을 기대하였다.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22.2%), 사무직(23.1%) 등이 도서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생은 영화관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밖에 도시규모별로는 문화적 소외지역인 읍면지역(19.6%)이 다른 지역보다 영화관의 정비와 확충에 훨씬 높게 응답하였다.

<표 5-4> 하위집단별 정비,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1. 성별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남	27.0%	2.6%	10.4%	14.3%	8.8%	11.1%	1.4%	3.2%	19.4%	1.3%
여	30.5%	5.9%	6.9%	16.0%	5.6%	9.7%	2.2%	2.9%	18.9%	1.5%

$$\chi^2=33.6 \text{ df}=9 \text{ p}<.01$$

2. 연령별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10대	31.7%	4.6%	8.3%	13.3%	1.7%	26.3%	1.7%	1.3%	9.6%	1.7%
20대	36.0%	3.8%	7.7%	17.6%	5.7%	12.8%	2.7%	1.9%	10.5%	1.1%
30대	31.4%	5.7%	9.4%	16.0%	6.4%	7.7%	1.2%	2.8%	18.1%	1.2%
40대	24.4%	4.6%	9.8%	16.8%	9.5%	6.4%	.6%	3.7%	22.9%	1.5%
50대	16.5%	2.2%	10.4%	10.4%	11.0%	5.5%	1.6%	4.9%	35.2%	2.2%
60대이상	13.6%	1.3%	5.2%	8.4%	14.3%	1.9%	3.9%	7.1%	42.9%	1.3%

$$\chi^2=302.5 \text{ df}=45 \text{ p}<.01$$

3. 학력별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국졸이하	11.1%	2.1%	7.7%	11.1%	11.5%	10.2%	3.4%	5.1%	37.4%	.4%
중졸	24.1%	4.1%	9.4%	13.7%	7.0%	13.3%	1.0%	2.7%	22.7%	2.2%
고졸	33.5%	3.2%	8.3%	14.8%	6.9%	10.5%	2.1%	3.0%	16.7%	1.0%
대졸	33.9%	8.3%	9.4%	18.0%	5.9%	8.3%	1.1%	2.2%	11.0%	1.9%
대학원졸이상	22.2%	4.4%	8.9%	33.3%	4.4%	.0%	.0%	4.4%	17.8%	4.4%

$$\chi^2=171.9 \text{ df}=36 \text{ p}<.01$$

4. 직업별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사무직	29.8%	4.4%	8.7%	22.2%	6.7%	8.7%	1.6%	2.4%	13.5%	2.0%
전문기술직	27.6%	5.2%	10.4%	23.1%	6.0%	6.7%	1.5%	3.7%	13.4%	2.2%
행정관리직	28.1%	9.4%	9.4%	12.5%	6.3%	9.4%	.0%	3.1%	21.9%	.0%
판매직	27.2%	4.6%	7.9%	16.6%	7.6%	11.6%	1.7%	2.3%	19.5%	1.0%
생산직	29.5%	2.2%	11.5%	12.2%	7.9%	8.6%	.7%	2.9%	23.0%	1.4%
서비스업	24.0%	4.8%	8.0%	12.0%	10.4%	8.0%	2.4%	3.2%	25.6%	1.6%
1차산업	22.1%	.0%	4.3%	9.3%	12.9%	8.6%	2.1%	5.0%	34.3%	1.4%
주부	29.4%	5.4%	6.3%	14.1%	6.3%	6.3%	1.2%	4.4%	25.5%	1.0%
학생	34.8%	4.1%	9.1%	14.2%	3.2%	20.9%	2.1%	1.5%	8.6%	1.5%
정년퇴직	20.5%	.0%	17.9%	.0%	17.9%	.0%	7.7%	5.1%	30.8%	.0%
기타	26.4%	5.7%	16.1%	12.6%	9.2%	9.2%	3.4%	2.3%	12.6%	2.3%

$\chi^2=224.1$ df=90 p<.01

5. 소득수준별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40이하	22.7%	.7%	12.1%	6.4%	5.0%	8.5%	4.3%	4.3%	36.2%	.0%
41-70	21.9%	2.0%	6.0%	14.7%	10.8%	11.2%	2.4%	3.2%	25.9%	2.0%
71-100	30.0%	3.2%	8.7%	15.6%	8.7%	9.8%	.9%	3.0%	18.8%	1.4%
101-150	31.5%	7.0%	8.8%	13.6%	6.4%	10.8%	1.4%	2.8%	16.2%	1.6%
151-200	28.6%	4.2%	8.5%	19.6%	6.3%	10.8%	1.1%	3.7%	16.1%	1.1%
201-300	32.2%	5.0%	8.9%	19.8%	5.4%	8.9%	2.5%	1.0%	15.3%	1.0%
301이상	28.9%	4.4%	10.0%	7.8%	5.6%	13.3%	4.4%	4.4%	17.8%	3.3%

$\chi^2=115.6$ df=54 p<.01

6. 도시규모별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대도시	28.1%	4.2%	7.9%	17.7%	5.9%	8.4%	2.2%	3.2%	20.1%	2.3%
중소도시	34.1%	5.1%	12.9%	11.7%	7.1%	4.6%	2.0%	3.6%	18.0%	1.0%
읍면지역	24.3%	3.4%	6.0%	13.8%	9.6%	19.6%	.9%	2.3%	19.2%	.2%

$\chi^2=174.6$ df=45 p<.01

2. 문화활동 비용지출분야 현황과 지출분야

1) 월평균 최대 비용지출 문화활동

월평균 가장 많이 지출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는 응답자의 34%가 응답한 ‘책, 잡지 구입’이었다. 다음으로 ‘비디오테입 구입 및 대여’가 16.1%, ‘음반, 테입 및 CD 구입’이라는 응답이 13.5%, 영화관람 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수의 응답자들이 ‘각종 전시회 및 음악회’, ‘연극관람’ 등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5> 월 평균 최대지출 문화활동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책 잡지	679	34.0
비디오테입	321	16.1
음반	269	13.5
영화	161	8.1
각종전시회	22	1.1
연극	15	.8
음악회	12	.6
무용	2	.1
기타	35	1.8
없다	470	23.5
무응답	14	.7
계	2000	100.0

2)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앞으로 비용을 늘리고 싶은 문화활동 지출분야는 18.0%의 응답자가 ‘책, 잡지 구입’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3.9%의 응답자가 연극관람이라고 했다. 그 밖에 음반, 테입, CD 구입 13.0%, 영화관람 10.9%, 음악회 관람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책 잡지	359	18.0
연극	277	13.9
각종전시회	265	13.3
음반	260	13.0
영화	217	10.9
음악회	182	9.1
비디오테입	90	4.5
무용	28	1.4
기타	24	1.2
관심없다	273	13.7
무응답	25	1.3
계	2000	100.0

하위집단별로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21.4%)는 ‘책, 잡지 구입’을 희망한 반면에 여자(15.0%)는 ‘각종 전시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책, 잡지 구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10대(27.1%) 영화, 20대(20.1%) 음반, 30대(21.1%)와 40대(23.2%)는 ‘책, 잡지구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별로는 행정관리직(28.1%), 생산직(24.5%) 등은 ‘책, 잡지구입’을 원하였고, 판매직(19.9%)은 ‘각종 전시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하위집단별 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1. 성별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남	21.4%	13.3%	5.4%	11.5%	6.4%	1.0%	11.7%	13.4%	1.0%	13.8%	.9%
여	14.5%	12.7%	3.6%	15.0%	11.8%	1.8%	10.0%	14.3%	1.4%	13.5%	1.6%

$\chi^2=44.2$ df=10 p<.01

2. 연령별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10대	16.7%	15.0%	7.5%	8.3%	8.3%	.4%	27.1%	13.3%	.4%	1.7%	1.3%
20대	15.7%	20.1%	3.4%	12.1%	10.0%	1.5%	12.6%	21.5%	.4%	1.9%	.8%
30대	21.1%	12.9%	5.4%	15.9%	11.8%	1.7%	7.1%	15.7%	1.6%	5.9%	.9%
40대	23.2%	7.9%	4.0%	15.5%	9.8%	1.8%	7.6%	10.1%	1.5%	16.8%	1.8%
50대	11.5%	8.8%	3.8%	14.3%	4.9%	1.1%	8.2%	3.8%	2.2%	38.5%	2.7%
60대이상	12.3%	1.9%	1.9%	9.1%	.6%	.6%	3.2%	1.9%	1.9%	64.9%	1.3%

$\chi^2=739.0$ df=50 p<.01

3. 학력별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국졸이하	9.4%	4.7%	2.6%	7.7%	3.4%	.4%	10.2%	2.1%	.4%	57.0%	2.1%
중졸	16.9%	11.1%	5.1%	13.5%	5.5%	1.2%	16.1%	10.8%	1.2%	15.7%	2.9%
고졸	18.8%	14.9%	5.3%	14.1%	8.8%	1.4%	10.7%	17.7%	1.2%	6.8%	.4%
대졸	20.7%	14.8%	3.5%	15.6%	16.4%	2.4%	7.0%	14.8%	1.9%	2.2%	.8%
대학원졸이상	33.3%	20.0%	2.2%	2.2%	17.8%	.0%	.0%	15.6%	.0%	6.7%	2.2%

$\chi^2=569.9$ df=40 p<.01

4. 직업별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사무직	22.2%	14.7%	2.0%	11.1%	13.1%	2.0%	6.0%	19.8%	1.6%	6.3%	1.2%
전문기술직	23.1%	12.7%	4.5%	15.7%	14.2%	2.2%	8.2%	14.2%	.7%	4.5%	.0%
행정관리직	28.1%	3.1%	.0%	12.5%	15.6%	.0%	21.9%	12.5%	.0%	6.3%	.0%
판매직	16.9%	12.9%	6.3%	19.9%	7.3%	2.3%	11.3%	12.3%	2.0%	7.0%	2.0%
생산직	24.5%	11.5%	5.0%	12.9%	5.0%	1.4%	11.5%	13.7%	1.4%	12.2%	.7%
서비스업	18.4%	12.0%	8.0%	13.6%	4.8%	.8%	9.6%	14.4%	2.4%	14.4%	1.6%
1차산업	10.7%	7.1%	4.3%	10.0%	1.4%	.7%	6.4%	5.7%	.0%	52.1%	1.4%
주부	13.6%	11.4%	3.6%	14.6%	12.4%	1.9%	7.5%	12.4%	1.5%	19.5%	1.5%
학생	18.3%	18.6%	5.3%	7.7%	8.6%	.3%	20.9%	18.0%	.3%	.9%	1.2%
정년퇴직	10.3%	2.6%	2.6%	7.7%	2.6%	.0%	2.6%	.0%	2.6%	69.2%	.0%
기타	20.7%	16.1%	3.4%	16.1%	8.0%	.0%	11.5%	11.5%	.0%	11.5%	1.1%

$\chi^2=527.4$ df=100 p<.01

5. 소득수준별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40이하	12.8%	8.5%	5.0%	13.5%	2.8%	.7%	9.2%	8.5%	.0%	37.6%	1.4%
41-70	13.5%	8.0%	4.0%	9.2%	4.8%	1.6%	13.9%	12.4%	1.6%	28.3%	2.8%
71-100	18.8%	10.3%	3.4%	15.8%	9.4%	1.6%	11.7%	11.9%	.5%	14.6%	2.1%
101-150	20.6%	14.4%	6.0%	12.8%	8.2%	1.4%	11.0%	15.0%	2.0%	8.2%	.6%
151-200	19.8%	17.7%	4.8%	12.2%	9.8%	2.1%	10.6%	14.3%	1.1%	6.9%	.8%
201-300	16.8%	13.9%	4.0%	17.3%	15.3%	.5%	6.4%	19.8%	1.0%	5.0%	.0%
301이상	14.4%	17.8%	2.2%	10.0%	17.8%	.0%	11.1%	14.4%	2.2%	8.9%	1.1%

$\chi^2=244.9$ df=60 p<.01

6. 도시규모별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대도시	17.0%	14.6%	3.9%	13.2%	10.3%	1.9%	11.2%	14.6%	1.3%	10.4%	1.7%
중소도시	20.2%	10.7%	5.3%	12.7%	11.5%	1.2%	6.5%	16.2%	1.2%	13.3%	1.2%
읍면지역	17.5%	12.3%	4.7%	14.0%	4.7%	.8%	14.3%	10.2%	.9%	20.0%	.6%

$\chi^2=191.3$ df=50 p<.01

3.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중점 육성분야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중점 육성분야를 두가지만 지적해 달라는 질문의 결과, ‘지역문화의 육성 확충’이 36.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34.5%,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24.5%, ‘예술창작’ 18.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중점 육성분야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지역문화육성	730	36.5
전통문화계승	688	34.4
문화향수	489	24.5
예술창작	367	18.4
남북예술교류	292	14.6
문화산업육성	241	12.1
예술교육확대	215	10.8
외국과의교류	165	8.3

(2가지 복수응답)

4. 문화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문화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정책”에 대하여 응답자의 37.7%가 ‘문화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꼽았다. 다음으로 20.7% ‘문화사업, 문화행사 실시’, 12.5% ‘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순으로 응답했다. 그밖에 ‘예술문화단체나 씨클의 육성, 지원’ 8.8%, ‘지도자 양성 파견’ 7.2%, ‘타지역과의 문화교류’ 4.3% 등으로 나타났다.

<표 5-9> 한국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단위 : 명, %

항 목	빈 도	백분율
문화시설확충	754	37.7
문화행사실시	414	20.7
문화정보제공	249	12.5
씨클육성지원	176	8.8
지도자육성	144	7.2
문화교류	85	4.3
표창제도	46	3.4
기타	80	4.0
무응답	52	2.6
계	2000	100.0

제 6 장 결 론

제 1 절 한국의 문화환경

문화환경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한 조건들의 총화이다. 바람직한 문화환경은 문화향수의 질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는 적어진다. 국가의 문화정책도 바람직한 문화환경의 구성에 다름아니다.

문화환경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이다. 시간과 비용이 없다면 문화활동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조사결과 한국사람의 여가시간은 평일 평균 2시간 40분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은 월 평균 22,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간량과 비용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활동과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시간문제와 비용문제가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용보다는 시간에 대한 응답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시간변수가 가장 주요한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가시간과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각각 10.4%와 31.4%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시간과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다. 특히 비용이 전혀 없는 비율이 30%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문화활동과 경제적인 문제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층은 소득수준이 높거나 전문 기술직과 사무직 등 직업인들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이 있지만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지만 비용이 없는 문화적 소외자들은 최소한 30% 이상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향수를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문화용품의 소유여부이다. 문화용품을 소유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문화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사 결과 비디오와 오디오는 소유율이 각각 78.6%와 68.5%로 나타나 웬만한 가정들은 대체로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의 전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하면 문화활동은 일상적으로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는 51.8%의 소유율로 조사되어 2가구당 1가구 정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밖에 컴퓨터, 무선호출기, 유선방송 수신기능 등은 30%정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문화환경과 관련된 조건 중 문과시설과 내용은 전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질을 추정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문화예술행사의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와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양자 모두 만족하는 것 보다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환경은 그다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나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고,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과 작품의 질 역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하여 자신있게 높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23.4%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의 문화관념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한국인은 문화를 예술이나 역사적 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 2 절 문화향수실태

1. 대중문화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이다. 대중문화의 매개자는 다름아닌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의 이용율은 문화예술활동이나 여가활동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텔레비전 이용율은 95.9%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여 가장 주요한 문화매체임이 증명되었다. 시청량에 있어서도 일일 평균 2시간 40분으로 나타나 다른 매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투여되었다. 특히 일일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여가시간이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볼 때 대체로 국민들은 특별한 문화예술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일상적으로는 여가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는 것이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드라마,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보다도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물론 이것은 실제 시청율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국민들이 텔레비전의 기능들 중 보도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신문 이용율은 80.1%로 조사되어 주요한 대중매체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도 36%정도로 나타나 신문사 간의 경쟁적 현실과 경제지와 스포츠지 등 신문의 분화현상을 반영하였다. 신문의 관심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은 정치면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문화면이나 생활정보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밖에 일일 평균 구독시간은 50분 정도로 조사되었다.

라디오 이용율은 68%로 나타났고, 대체로 대중가요, 클래식, 팝 등 음악감상을 목적으로 청취하였다. 일일 평균 라디오 청취량은 1시간 30분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듣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91년 조사와 비교하여 자동차에서

듣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독서에 있어서는 81.1%가 1년에 책 한권 이상을 독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분야로는 문학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서적에 대한 독서율은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연 평균 독서량은 9.0권으로 나타나 1개월 1권 정도의 독서량에 다소 못미치는 양이었다.

잡지는 81.1%의 이용율을 보였지만 정기구독하는 경우보다는 관심있는 사항이 실릴 때 가끔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공공기관, 사설기관 등에 비치된 것을 시간 보내기식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비디오는 62.7%가 이용하였으며 한달 평균 3.5편의 비디오 테이프를 감상하였다. 이는 91년에 비해 괄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비디오 소유율이 가구당 78.6%로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밖에 만화는 30.6%의 이용율로 조사되었지만,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어쩌다 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화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것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대중매체 이용율(a)과 이용량(b)

(a)대중매체 이용율		(b)대중매체 이용량	
매 체	이 용 율	매 체	이 용 량
텔레비전	95.9%	텔레비전	평일 평균 2시간 40분
신문	80.1%	신문	평일 평균 50분
라디오	68.0%	라디오	평일 평균 1시간 30분
도서	81.1%	도서	연 평균 9.0권
잡지	71.6%	비디오	월 평균 3.5편
비디오	62.7%		
만화	30.6%		

2. 문화예술

문화예술영역은 대중매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 관람실태를 보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체로 한 영역이 규모있는 산업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규모가 40%정도는 되어야 하고, 30%정도면 산업적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영역은 20%미만의 수용자 규모를 갖고 있다. 영화가 44.7% 정도의 수용자를 갖고 있지만, 만약 영화를 대중매체로 분류하면 사실상 한국의 문화예술중 어느 영역도 산업으로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한편 전통문화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영역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예술영역 중 가장 열악한 분야 또는 전통예술이다. 국악이나 전통 민속공연은 기껏해야 5% 내외의 수용자를 가질 뿐인 것이다. 사실상 전통문화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독특한 문화예술이므로 보편성만 갖추면 관광 뿐 아니라 세계의 우수한 문화예술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책임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가 가져야 한다. 전통문화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20%를 다소 넘는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반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취약성은 문화국가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제약으로 남는다. 설령 대중문화의 이용실태가 만족할만 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 역시 그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아이디어와 기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서구의 대중문화는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모더니즘 등 순수예술의 내용과 기법을 배웠고, 대중매체 특성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질을 높여온 것이다. 물론 순수예술가는 이러한 현상

을 예술의 타락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교류는 예술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여하튼 현재의 열악한 문화예술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수용자 규모로 볼 때 단기적인 정책적 배려로는 아무런 효과도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교육적 현실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초, 중고등학교 때부터 참여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용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외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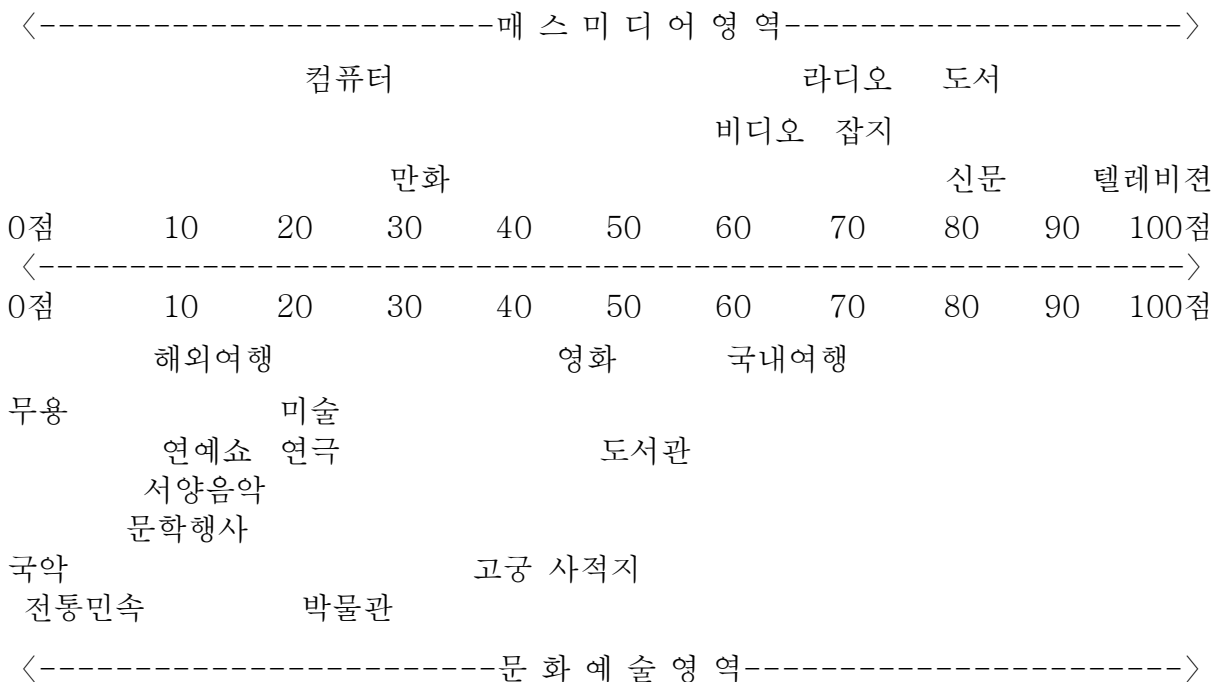
<표 6-2> 문화예술 관람율
(단위:%)

문화예술	관람율
영화관람	44.7
미술관람	19.4
연극공연	18.8
연예 쇼	11.3
양악공연	10.5
문학행사	10.2
무용공연	3.2
고공 사적지	38.0
박물관	23.4
전통민속	6.7
국악공연	4.4

3. 한국의 문화향수실태 전체 지도

대중매체 이용실태와 문화예술 관람실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화향수실태 지도를 그려보았다. 한눈에 한국의 문화향수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다. 작성방법은 대중매체 이용율과 문화예술 관람율을 점수로 전환하여 0점에서 100점사이에 모든 문화활동을 지도에 그려넣는 것이다. 100점에 가까우면 문화향수가 대단히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점에 가까우면 문화향수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문화향수실태 전체지도



제 3 절 문화복지와 정책적 대안

복지국가의 건설은 이미 현대국가의 과제로 설정된지 오래이다. 국민의 복지정책은 경제적으로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중 분배를 중요시한다. 균형있는 분배정색으로 사회의 주요한 문제인 ‘경제적 소외’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문화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이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곧 인간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고의 반영이다. 진정한 행복은 의식주의 해결 뿐 아니라 올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가치의 신장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문화영역의 발전과 정신적 가치의 신장이라는 총체적 변화는 국가에게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구하도록 방향지운다. 그것은 다름아닌 문화복지이다.

문화복지는 경제적인 복지와 유사하게 소외의 문제를 다룬다. 경제적인 복지가 인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문화복지는 인간이라면 최소한도의 문화향수를 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따라서 문화복지는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최소한도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문화복지는 사실적이라기 보다는 규범적인 과제이다.

국가의 문화정색은 위와 같은 사고를 토대로 문화복지를 신장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화를 경제나 시장영역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적 소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적 소외문제는 계층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상류층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과중하여 문화활동을 할 여가시간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문화예술활동의 장애요인과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질문한 결과, ‘시간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양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층이나 직업적으로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직 등과 같은 유망한 직종들이 ‘시간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결국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노동이 여가를 압도하므로 노동은 문화예술활동과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문화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불가능한 사안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의 발전에 맡겨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조건이 이렇다 할지라도 문화정책은 절실히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문화영역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가에 대한 희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이 추구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람직한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은 문화복지를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문화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역시 도로, 항만, 철도 등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으로 여겨야 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이므로 대체로 국가가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역시 문화예술의 토대와 같은 것이고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영역인 것이다.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시설, 장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역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에 만족하는 사람은 12.2%에 불과하였지만 불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3배에 달하는 38.2%로 조사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정책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37.7%의 응답자가 다른 무엇보다

다도 문화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여 문화정책상 물리적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문화시설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공연이 가능한 문화회관에 28.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두번째 필요한 것으로는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둘째, 국가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를 직접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국가가 문화기획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체로 일반 기획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복지라기 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문화환경이 좋은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문화환경이 열악한 곳은 여전히 문화의 소외지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복지를 더욱 중시하므로 오직 국가만이 문화의 소외지대에 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를 바라고 있다. 조사결과, 문화사업과 문화행사를 실시한다에 20.7%로 응답하여 문화시설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로는 연극(14.5%), 생활문화강습(12.6%), 연예 쇼공연(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사를 국가가 기획하여 특정한 연극 극단이나 생활문화강습소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순회공연을 실시한다면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의 실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잠재적 수용자를 현재적 수용자로 전환시켜 문화수용자의 규모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초, 중, 고등학교안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는다면 그만큼 특정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욕구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의 한국교육정책과 연관된 것이라 문화정책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현재의 입시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을 거대한 문화예술 수용자로 만들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특별한 문화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다. 조사결과 사회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미비하게 나왔다.

음악교육이 11.8%로 가장 높게 나왔을 뿐 미술, 연극, 영화, 사진 등에 대한 교육경험은 미세한 응답율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88.8%의 응답자가 조건만 맞는다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교육비용이 비싸도 참가하겠다는 적극적인 국민도 12.0%나 되어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대체로 한국사회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방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는 거의 문화의 소외지대에 다름아니다. 얼마나 열악하면 문화시설의 정비 및 확충 대상으로 영화관을 두번째로 높은 비율(19.6%)로 응답할 만큼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읍면지역은 도시에선 그렇게 흔한 영화관마저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의 중점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36.5%(복수응답)가 지역문화육성, 지방문화시설 확충 등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섯째,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전통문화는 한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영역이다. 게다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으로서는 전통문화가 문화나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자로 기능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전통문화가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가장 시장성없는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조사결과 국악연주와 전통민속공연은 1년 관람율이 14%, 6.7%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고궁 및 사적지와 박물관의 이용율이 38.0%와 23.4%로 나타나 역사적 유물만큼은 적절하게 문화적 기능을 하였다.

우리나라 예술분야 중 가장 발전한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은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28.1%)로 국악을 선택하여 국악에 대한 자부심

이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공연의 관람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국악의 대중화가 절대적으로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국민들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문화예술정책의 중점분야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34.4%, 복수 응답)으로 응답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전통문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전통문화의 대중적 실패로 인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있다. 조사결과 국민들의 23.4%만이 세계속에서 한국문화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국과 외국문화를 비교할 위치에 있는 고학력자, 도시지역 사람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한국문화를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국민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도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정기 간행물 및 통계연감

1) 주요 정기간행물 및 통계연감(연보)

한국 신문협회 20년, 동아연감, 한국신문방송연감, 한국출판연감, 한국통계연감, 문예연감 한국영화연감, KBS연지, 문화방송사사

2) 미디어 산업계의 주요 기관지

신문과 방송(한국언론연구원), 신문연구(관훈클럽),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 말과 글(편집기자회), 방송연구(한국방송위원회)

2. 문화와 미디어 관계 국내 문헌

강현두, 「월점에서 본 한국방송의 현실과 과제」, 『사상』, 1991, 가을.

_____,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87.

김광득, 『현대 여가론 - 이론과 실제』, 1990.

김승현 편, 『정보사회 정치경제학』, 나남, 1990.

김우룡, 『뉴미디어 개론』, 나남, 1991.

김정탁, 『설득의 광고학』, 나남, 1990.

- 김지운, 「정치, 사회현실과 신문사설의 괴리」, 사상, 1991, 가을.
- 김학수, 『언론윤리와 한국언론변동 활동』, 나남, 1989.
- 김학천, 『현대방송과 대중』, 나남, 1993.
- 김훈순, 『텔레비전과 현대비명』, 나남, 1992.
- 노병성, 「한국출판산업의 산업조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 논문, 1993.
- 노병성, 「출판학 정립을 위한 패러다임 고찰」, 출판잡지연구, 1992.
- 박흥수, 김영석 편,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1987.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영상진흥법 제정에 따른 기초연구조사』, 1994, 5월.
- _____, 『정부와 언론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연구』, 1993, 11월.
- 언론연구원 총서, 『위성방송』, 1994.
- 오두범, 『PR 커뮤니케이션론』, 나남, 1991.
- 원우현, 「한국경영의 실상과 과제」, 사상, 1991, 가을.
- 유재천, 『한국 매스미디어 산업의 변천에 관한 통계지표조사』, 1992, 7월.
- 유재천, 이민웅, 『정부와 언론』, 나남, 1994.
- 장용호, 『매체경제와 산업정책』, 1993.
- _____, 『한국 텔레비전 산업의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나남, 1988.
- 정순일, 『한국방송의 어제와 오늘』, 나남, 1991.
- 정순일, 『CATV 총람』, 나남, 1992.
- 전석호, 『유선텔레비전의 수용』, 나남, 1991.
-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 1993.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 최윤희, 『현대 PR론』, 나남, 1992.
- 통신정책연구소, 『뉴미디어 백서』, 1985.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산업』, 1990.
- _____,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 1990.
-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문민시대의 전개와 공영방송의 새 역할에 관한 연구』, 1993, 9월.

II. 국외 문헌

- Bammal G. & Bammal L. Leisure and Human Behavior, 하현국 역, 여가와 인간 행동, 백산, 1993
- Costley, Carolyn L. & DeWald, Duane, "Cue Modality : Video and Audio Effects on Recall,"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8 (1991).
- Davis, Donald M. & Walker, James R., "Countering the new media : the Resurgence of Share Maintenance in Prime Time Network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fall, 1990, Vol. 34, No. 4.
- Fisk, J.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 Unwin Hyman, 1989.
_____. Television Culture, London : Methuen, 1987.
_____. Reading the Popular, Boston : Unwin Hyman, 1989.
- Hawkins, Robert P. & Kent, Robert J., "Exploring Tempo and Modality Effects, On Consumer Responses to Music," Advances in Consumer Reserch, Vol. 18 (1991).
- Kellaris, James J., & Kent, Robert J., "Exploring Tempo and Modality Effects, On Consumer Responses to Music,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8 (1991).
- Levy, Mark R., "Home Video Recorders & Bessant J. Information Horizons, Biddles Ltd, 1988.
- Noam, E. Video Media Competition : Regulation, Economics and Technology, Columbia Univ. Press, 1985.
- Owen, B. & Steven, W. Video Economics, Havard Univ. Press, 1992.
- Owen, B. & Beebe, J. & Manning W. Television Economics, Lexington Books, 1974.

- Perse Elizabeth M., "Audience Selectivity & Involvement in the Never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Research*, Octo. 1990, Vol 17, No.5.
- Picard, R. *Media Economics*, 김지운 역, 미디어 경제학, 나남, 1992.
- Shiller, H. *Culture, INC.*, Oxford Univ. Press, 1989.
- Sylvester Alice K., "Controlling Remote", *Marketing & media Decision*, Feb. 1990.
- White, R. "Mass Communication and Culture: Transition to a New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3, 1983.
- Williams, R.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Penguin Books, 1961. 나영균 역, *문화와 사회*, 이대출판부, 1986.
- _____ . *Communications* London : Chatto & Windus, 1966.
- _____ . *Television-Technology and Cultural Form*, New York : Schocken Books, 1975.
- _____ . *Key Words -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6.

Abstract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policies in the welfare state is to understand cultural diversity which people enjoy and, on the basis of it, to establish and execute a cultural policy which aims at the equal distribution of cultural products to all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survey South Koreans' cultural diversity in enjoyment. The results will be used in establishing the nation's cultural policy, which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cultural welfare.

1. Cultural diversity that Koreans enjoy will be surveyed for the following areas : 1) mass media (newspaper, TV, radio, books, comics, video, etc), 2) arts (literature, fine art, music, play, ballet, movie, etc), 3) traditional culture (folk music, folk play, museum, historical remains, etc), 4) leisure (travel, sports, attending sports games, etc), 5) social culture (computers, libraries, etc).

2. Koreans' views of culture will be surveyed.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of culture and so we try to find out what kind of viewpoints Koreans have as they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Moreover, an overall evaluation of Korean culture will be surveyed and analysed.

3. We will survey cultural environment. Because cultural environment acts as pre-conditions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cultural welfare. Such environment will be surveyed for the following : 1) possession of cultural aids (video, audio, car, piano, etc), 2) evaluation of cultural facilities and programs, 3) cultural costs (leisure time, cultural activity expenses, etc), 4) information sources of cultural activities.

4. People's evaluations of the nation's 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will be surveyed. They can be used as a valuable source of policy-making.

By these we will reveal Koreans' cultural diversity in enjoyment. The study focuses 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products rather than their production and circulation. It analyses processes and effects of cultural consumption.

The result was that the nation's cultural environment is not enough for Koreans to enjoy arts and culture. Time and money are still insufficient to support cultural enjoyment and participation.

On the contrary, usage of mass media was higher than that of art and leisure activities. Especially 95.9% of all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enjoy TV. Other mass media usages were as follows : 80.1% for newspaper, 68% for radio, 81.1% for book, 81.6% for magazine, 62.7% for video, 44.7% for movie, 30.6% for comics.

Compared with mass media, arts were found to be enjoyed less than mass media. For example, 19.4% of the respondents went to art exhibition, 18.8% to play, 11.3% to entertainment show, 10.5% to western music concert, 10.2% to literature event and 3.2% to ballet and dance.

On the other hand, the least-enjoyed were found to be traditional arts. For example, folk music of folk plays had only about 5% of consumers.

In such a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make a good cultural environment. Especially, facilities and physical environment of culture need to be improved as pre-conditions of enhancing cultural welfare.

Second, government should hold the diverse events of arts and culture. Shortly, the government should act as a cultural agency.

Third, education of art and culture is also very important. We can increase potential consumers by education.

Fourth, local cultures should also be developed. In Korea, local communities have bad conditions. So, our government should maintain and improve local cultures.

Fifth, a policy of traditional culture if needed. Traditional 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to symbolize Korea, which has 5000-year history.

But it has failed to attract general people and form market power.

부 록

1. 조사결과표
2. 설 문 지
3. 가구내 피조사자 선정방식
4. 조사지침서

	신문구독형태				
	정기구독	가관에서	직장에서	보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62.6%	6.8%	14.2%	15.8%	.5%
여	59.0%	5.4%	12.2%	22.6%	.9%
연령별					
10대	47.1%	10.4%	6.3%	34.2%	2.1%
20대	54.2%	12.8%	20.1%	12.6%	.2%
30대	72.3%	3.8%	14.8%	8.4%	.7%
40대	70.1%	1.5%	11.3%	16.2%	.9%
50대	57.7%	1.1%	9.9%	30.8%	.5%
60대이상	45.5%	.6%	2.6%	51.3%	.0%
학력별					
국졸이하	33.6%	2.1%	3.0%	60.9%	.4%
중졸	55.9%	6.0%	7.5%	29.4%	1.2%
고졸	62.9%	8.5%	17.0%	11.0%	.5%
대졸	75.5%	3.5%	17.2%	3.2%	.5%
대원졸이상	82.2%	.0%	6.7%	8.9%	2.2%
직업별					
사무직	54.4%	5.6%	35.3%	4.0%	.8%
전문기술직	76.9%	2.2%	15.7%	4.5%	.7%
행정관리직	81.3%	.0%	12.5%	6.3%	.0%
판매직	71.2%	6.3%	11.3%	11.3%	.0%
생산직	50.4%	10.8%	21.6%	16.5%	.7%
서비스업	63.2%	4.8%	16.0%	15.2%	.8%
1차산업	44.3%	3.6%	3.6%	48.6%	.0%
주부	62.8%	5.1%	5.8%	25.3%	1.0%
학생	56.9%	10.3%	6.2%	25.1%	1.5%
정년퇴직	53.8%	.0%	5.1%	41.0%	.0%
기타	59.8%	4.6%	16.1%	19.5%	.0%
소득수준별					
40이하	40.4%	7.8%	10.6%	41.1%	.0%
41-70	39.4%	8.4%	15.1%	35.9%	1.2%
71-100	54.7%	5.3%	17.2%	22.2%	.7%
101-150	64.3%	7.4%	14.4%	13.0%	1.0%
151-200	74.1%	4.5%	9.3%	11.6%	.5%
201-300	73.8%	4.0%	10.9%	10.9%	.5%
301이상	77.8%	5.6%	7.8%	8.9%	.0%
도시규모별					
대도시	67.8%	5.7%	12.2%	13.4%	.9%
중소도시	58.4%	7.1%	14.3%	19.4%	.8%
읍면지역	50.4%	5.8%	14.0%	29.6%	.2%
전체	60.8%	6.1%	13.2%	19.2%	.7%

	구독하는 신문 종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이상	안본다
성별					
남	42.6%	31.7%	8.9%	3.5%	13.3%
여	48.5%	21.7%	4.2%	1.7%	24.0%
연령별					
10대	49.2%	20.8%	2.5%	.4%	27.1%
20대	47.9%	31.2%	5.4%	2.3%	13.2%
30대	47.6%	30.1%	10.6%	2.8%	8.9%
40대	45.7%	28.0%	6.1%	3.7%	16.5%
50대	38.5%	22.5%	7.1%	4.4%	27.5%
60대이상	32.5%	9.1%	1.9%	1.9%	54.5%
학력별					
국졸이하	29.8%	7.2%	2.6%	.0%	60.4%
중졸	49.6%	16.9%	2.2%	2.2%	29.2%
고졸	51.3%	30.1%	6.6%	1.6%	10.3%
대졸	37.6%	40.3%	12.4%	6.5%	3.2%
대원졸이상	35.6%	33.3%	17.8%	8.9%	4.4%
직업별					
사무직	37.7%	41.3%	10.3%	6.7%	4.0%
전문기술직	31.3%	39.6%	18.7%	6.7%	3.7%
행정관리직	28.1%	53.1%	12.5%	6.3%	.0%
판매직	49.0%	30.1%	7.9%	1.7%	11.3%
생산직	44.6%	35.3%	4.3%	1.4%	14.4%
서비스업	49.6%	26.4%	6.4%	3.2%	14.4%
1차산업	37.9%	10.7%	2.1%	.0%	49.3%
주부	51.3%	14.8%	3.4%	1.2%	29.2%
학생	50.7%	25.1%	3.2%	.9%	20.1%
정년퇴직	51.3%	5.1%	2.6%	2.6%	38.5%
기타	42.5%	26.4%	10.3%	4.6%	16.1%
소득수준별					
40이하	40.4%	14.9%	.0%	1.4%	43.3%
41-70	43.4%	18.3%	2.8%	.8%	34.7%
71-100	50.6%	20.8%	5.9%	2.1%	20.6%
101-150	46.3%	30.1%	6.4%	2.6%	14.6%
151-200	45.2%	32.5%	7.4%	4.0%	10.8%
201-300	44.1%	34.2%	10.9%	3.5%	7.4%
301이상	35.6%	35.6%	17.8%	4.4%	6.7%
도시규모별					
대도시	47.0%	28.9%	7.8%	3.1%	13.2%
중소도시	47.9%	26.5%	5.5%	2.0%	18.0%
읍면지역	40.6%	22.6%	5.3%	2.3%	29.2%
전체	45.6%	26.7%	6.6%	2.6%	18.7%

	신문구독 시간량					
	30분이하	1시간이상		3시간이하	3시간초과	안본다
		1시간이하	2시간이하			
		a	a	a		
성별						
남	27.8%	28.2%	21.9%	4.1%	3.0%	15.0%
여	37.3%	24.4%	11.2%	1.8%	.6%	24.8%
연령별						
10대	47.9%	14.6%	7.1%	.4%	.0%	30.0%
20대	39.5%	29.3%	14.0%	2.9%	1.3%	13.0%
30대	30.3%	30.5%	23.3%	4.5%	1.0%	10.3%
40대	27.4%	29.6%	18.3%	3.0%	3.4%	18.3%
50대	24.7%	22.5%	17.6%	2.7%	4.4%	28.0%
60대이상	13.6%	15.6%	9.7%	1.3%	2.6%	57.1%
학력별						
국졸이하	20.4%	9.8%	4.3%	.0%	1.7%	63.8%
중졸	36.9%	22.7%	8.2%	1.7%	1.2%	29.4%
고졸	35.8%	28.8%	19.2%	3.3%	1.3%	11.6%
대졸	29.3%	33.1%	25.5%	5.1%	3.0%	4.0%
대원졸이상	15.6%	35.6%	28.9%	4.4%	8.9%	6.7%
직업별						
사무직	32.1%	34.1%	23.0%	3.6%	2.4%	4.8%
전문기술직	20.1%	32.8%	31.3%	5.2%	6.7%	3.7%
행정관리직	21.9%	28.1%	37.5%	3.1%	6.3%	3.1%
판매직	31.8%	30.5%	19.9%	4.3%	2.0%	11.6%
생산직	30.2%	28.1%	20.9%	5.0%	.0%	15.8%
서비스업	34.4%	24.8%	14.4%	4.0%	6.4%	16.0%
1차산업	21.4%	16.4%	10.0%	.0%	.7%	51.4%
주부	33.3%	24.1%	10.7%	2.2%	.2%	29.4%
학생	44.8%	20.6%	10.0%	1.5%	.3%	22.7%
정년퇴직	15.4%	20.5%	12.8%	5.1%	.0%	46.2%
기타	34.5%	27.6%	17.2%	1.1%	2.3%	17.2%
소득수준별						
40이하	31.2%	17.7%	5.7%	2.1%	.0%	43.3%
41-70	28.3%	21.1%	11.6%	1.6%	2.0%	35.3%
71-100	37.1%	23.3%	12.1%	3.0%	1.4%	23.1%
101-150	30.3%	30.9%	17.8%	3.8%	1.2%	16.0%
151-200	32.3%	28.0%	24.1%	2.9%	2.4%	10.3%
201-300	30.2%	33.2%	20.8%	4.5%	3.0%	8.4%
301이상	43.3%	18.9%	21.1%	.0%	4.4%	12.2%
도시규모별						
대도시	33.9%	27.4%	18.2%	3.6%	3.1%	13.8%
중소도시	32.9%	27.7%	17.0%	3.4%	.6%	18.4%
읍면지역	29.8%	22.8%	13.0%	1.3%	.6%	32.5%
전체	32.6%	26.3%	16.6%	3.0%	1.8%	19.9%

관심있게 보는 신문지면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	생활정보면	기타	보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33.3%	12.1%	20.1%	2.1%	6.9%	6.7%	5.7%	9.8%	3.2%
여	11.8%	8.4%	21.6%	1.1%	15.1%	20.1%	1.8%	16.9%	3.4%
연령별									
10대	8.8%	2.1%	14.2%	4.6%	21.3%	15.8%	11.7%	17.9%	3.8%
20대	16.5%	8.2%	27.6%	1.9%	18.0%	16.3%	4.0%	5.6%	1.9%
30대	27.5%	14.6%	23.9%	1.4%	8.2%	15.0%	2.4%	4.4%	2.6%
40대	26.2%	17.7%	20.1%	.0%	5.5%	11.0%	1.8%	13.4%	4.3%
50대	29.7%	6.0%	14.3%	1.1%	3.3%	9.9%	2.7%	26.4%	6.6%
60대이상	29.2%	2.6%	6.5%	.6%	2.6%	3.2%	.6%	50.6%	3.9%
학력별									
국졸이하	12.3%	3.8%	9.8%	.4%	3.4%	7.2%	3.0%	53.6%	6.4%
중졸	18.8%	6.7%	13.0%	2.4%	11.8%	18.1%	5.5%	20.7%	2.9%
고졸	23.3%	11.4%	25.5%	1.5%	13.0%	14.9%	3.4%	5.5%	1.6%
대졸	30.4%	14.2%	24.7%	1.6%	10.2%	9.4%	3.0%	.8%	5.6%
대원졸이상	28.9%	20.2%	22.2%	2.2%	8.9%	4.4%	4.4%	2.2%	6.7%
직업별									
사무직	32.1%	18.3%	23.8%	.8%	6.7%	7.9%	2.8%	2.0%	5.6%
전문기술직	38.1%	8.2%	26.1%	3.7%	4.5%	11.9%	1.5%	3.0%	3.0%
행정관리직	40.6%	25.0%	9.4%	.0%	6.3%	.0%	9.4%	.0%	9.4%
판매직	26.2%	14.6%	23.8%	.7%	10.9%	11.6%	3.3%	7.0%	2.0%
생산직	26.6%	12.2%	22.3%	.7%	7.2%	15.1%	5.0%	8.6%	2.2%
서비스업	20.2%	14.4%	24.0%	.8%	13.6%	15.2%	.0%	8.0%	4.0%
1차산업	23.6%	10.0%	10.0%	.0%	1.4%	7.9%	2.1%	42.9%	2.1%
주부	11.4%	7.1%	20.2%	.5%	11.4%	23.4%	1.5%	21.4%	3.2%
학생	15.6%	2.9%	18.9%	4.7%	21.5%	11.2%	8.8%	13.3%	2.9%
정년퇴직	35.9%	.0%	20.5%	.0%	.0%	2.6%	.0%	35.9%	5.1%
기타	19.5%	9.2%	19.5%	3.4%	14.9%	12.6%	8.0%	9.2%	3.4%
소득수준별									
40이하	18.4%	2.1%	11.3%	2.8%	5.7%	16.3%	4.3%	33.3%	5.7%
41-70	17.9%	7.2%	15.5%	.4%	8.8%	15.9%	3.6%	26.3%	4.4%
71-100	22.7%	7.3%	22.9%	.7%	10.5%	13.7%	3.2%	15.6%	3.4%
101-150	21.0%	13.0%	24.2%	1.8%	10.8%	15.8%	3.6%	8.2%	1.8%
151-200	26.7%	12.2%	22.8%	2.1%	13.0%	9.3%	4.2%	7.4%	2.4%
201-300	27.2%	17.8%	15.8%	2.0%	10.9%	11.4%	5.0%	6.4%	3.5%
301이상	21.1%	5.6%	25.6%	3.3%	21.1%	8.9%	2.2%	4.4%	7.8%
도시규모별									
대도시	22.9%	11.9%	21.6%	1.7%	11.6%	11.7%	4.1%	9.2%	5.3%
중소도시	23.6%	8.1%	23.2%	1.8%	11.1%	15.4%	3.6%	11.1%	2.2%
읍면지역	20.8%	9.2%	17.4%	1.3%	9.8%	14.5%	3.2%	23.0%	.8%
전체	22.5%	10.3%	20.9%	1.6%	11.0%	13.4%	3.8%	13.4%	3.3%

	텔레비전 시청량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안본다
	a	a	a	a	a	a		
성별								
남	6.4%	20.3%	31.5%	17.9%	9.0%	5.2%	5.8%	3.8%
여	4.4%	14.7%	27.3%	23.1%	10.3%	8.2%	7.8%	4.3%
연령별								
10대	10.4%	17.1%	19.6%	25.4%	8.8%	6.7%	5.8%	6.3%
20대	5.2%	16.7%	27.2%	21.8%	9.4%	5.9%	7.9%	5.9%
30대	5.4%	18.6%	31.7%	18.1%	10.5%	7.8%	5.6%	2.3%
40대	5.5%	18.3%	35.4%	17.1%	8.8%	6.1%	6.1%	2.7%
50대	2.2%	15.9%	33.0%	24.2%	8.8%	6.6%	7.7%	1.6%
60대이상	1.9%	16.9%	26.6%	20.1%	11.7%	6.5%	9.7%	6.5%
학력별								
국졸이하	4.3%	14.9%	26.8%	18.3%	11.1%	8.9%	11.1%	4.7%
중졸	6.7%	14.0%	22.7%	23.1%	11.6%	8.0%	9.9%	4.1%
고졸	4.4%	15.6%	29.7%	22.0%	10.5%	7.4%	6.6%	3.8%
대졸	7.0%	26.1%	37.1%	16.4%	5.1%	2.4%	1.9%	4.0%
대원졸이상	6.7%	31.1%	35.6%	11.1%	4.4%	4.4%	.0%	6.7%
직업별								
사무직	3.6%	25.0%	37.3%	17.1%	8.3%	4.0%	2.0%	2.8%
전문기술직	7.5%	24.6%	37.3%	13.4%	6.0%	5.2%	2.2%	3.7%
행정관리직	3.1%	18.8%	43.8%	12.5%	9.4%	9.4%	.0%	3.1%
판매직	6.3%	15.6%	27.5%	19.9%	11.9%	6.6%	9.9%	2.3%
생산직	2.9%	15.1%	29.5%	21.6%	12.2%	6.5%	9.4%	2.9%
서비스업	5.6%	16.0%	23.2%	21.6%	11.2%	11.2%	8.8%	2.4%
1차산업	1.4%	22.9%	32.9%	20.0%	5.7%	7.9%	5.7%	3.6%
주부	3.4%	9.2%	29.9%	23.1%	12.9%	9.2%	10.2%	1.9%
학생	11.2%	20.6%	22.4%	22.4%	6.8%	4.1%	3.5%	8.8%
정년퇴직	.0%	12.8%	20.5%	20.5%	10.3%	5.1%	23.1%	7.7%
기타	4.6%	17.2%	27.6%	24.1%	6.9%	6.9%	3.4%	9.2%
소득수준별								
40이하	.7%	16.3%	22.7%	27.0%	11.3%	5.0%	9.9%	7.1%
41-70	4.4%	14.3%	26.3%	19.5%	11.6%	8.0%	13.1%	2.8%
71-100	6.2%	14.0%	29.3%	21.5%	11.0%	8.0%	7.1%	3.0%
101-150	5.4%	18.4%	28.7%	20.8%	9.4%	5.6%	7.6%	4.2%
151-200	6.6%	19.8%	32.0%	18.5%	10.6%	5.3%	2.1%	5.0%
201-300	5.9%	20.3%	33.7%	19.8%	4.5%	9.9%	3.0%	3.0%
301이상	5.6%	24.4%	32.2%	16.7%	4.4%	4.4%	6.7%	5.6%
도시규모별								
대도시	5.8%	17.0%	31.0%	20.1%	8.8%	7.2%	6.3%	3.8%
중소도시	5.7%	18.8%	26.7%	19.8%	10.9%	5.9%	7.1%	5.0%
읍면지역	4.3%	17.2%	29.1%	21.9%	10.0%	6.6%	7.4%	3.6%
전체	5.4%	17.5%	29.4%	20.5%	9.7%	6.7%	6.8%	4.1%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뉴스보도	드라마	오락쇼	교양물	스포츠	영화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성별									
남	55.0%	5.5%	7.6%	5.5%	15.3%	8.1%	.4%	1.5%	1.0%
여	31.8%	31.2%	11.7%	6.6%	2.8%	11.9%	1.0%	1.9%	1.1%
연령별									
10대	5.0%	15.8%	34.2%	5.0%	15.8%	20.4%	.4%	2.9%	.4%
20대	28.9%	18.4%	10.7%	9.4%	11.3%	18.0%	1.5%	1.3%	.4%
30대	54.0%	12.2%	7.0%	7.0%	9.2%	7.5%	.7%	.9%	1.6%
40대	64.9%	18.0%	.9%	3.7%	6.1%	3.4%	.3%	.6%	2.1%
50대	57.7%	29.1%	3.3%	2.7%	4.4%	1.1%	.0%	.5%	1.1%
60대이상	50.0%	33.8%	3.9%	1.9%	1.9%	.6%	.0%	7.8%	.0%
학력별									
국졸이하	37.0%	38.7%	8.1%	2.1%	6.0%	2.6%	.0%	5.5%	.0%
중졸	34.9%	21.7%	15.9%	3.9%	9.2%	9.9%	1.0%	1.9%	1.7%
고졸	42.7%	17.1%	9.9%	6.0%	10.5%	11.5%	.4%	1.0%	1.0%
대졸	57.5%	5.9%	3.5%	11.0%	7.8%	11.3%	1.1%	1.1%	.8%
대원졸이상	53.3%	11.1%	6.7%	6.7%	4.4%	8.9%	4.4%	.0%	4.4%
직업별									
사무직	50.0%	8.3%	6.0%	9.5%	11.5%	12.7%	.4%	.4%	1.2%
전문기술직	58.2%	6.7%	3.0%	6.7%	9.7%	11.2%	1.5%	.7%	2.2%
행정관리직	75.0%	3.1%	3.1%	6.3%	6.3%	3.1%	.0%	3.1%	.0%
판매직	52.0%	16.2%	6.6%	7.0%	9.6%	7.0%	.3%	.3%	1.0%
생산직	51.1%	7.9%	7.9%	5.8%	17.3%	6.5%	.0%	2.9%	.7%
서비스업	50.4%	25.6%	5.6%	1.6%	5.6%	7.2%	.8%	.8%	2.4%
1차산업	61.4%	22.1%	2.1%	1.4%	4.3%	1.4%	.0%	5.7%	1.4%
주부	38.2%	34.3%	8.8%	4.9%	2.4%	8.5%	.7%	1.0%	1.2%
학생	13.6%	15.3%	25.1%	7.1%	14.7%	20.6%	.9%	2.4%	.3%
정년퇴직	61.5%	20.5%	5.1%	.0%	7.7%	.0%	.0%	5.1%	.0%
기타	41.4%	14.9%	10.3%	10.3%	9.2%	6.9%	3.4%	3.4%	.0%
소득수준별									
40이하	38.3%	24.8%	11.3%	2.8%	10.6%	6.4%	2.1%	3.5%	.0%
41-70	43.0%	23.5%	8.8%	4.0%	10.8%	5.2%	.4%	3.6%	.8%
71-100	45.3%	20.8%	8.9%	3.7%	8.7%	9.4%	.5%	1.4%	1.4%
101-150	42.5%	17.0%	10.8%	8.4%	9.0%	10.2%	.6%	.6%	1.0%
151-200	43.7%	14.6%	9.8%	6.3%	9.0%	13.2%	.8%	1.3%	1.3%
201-300	50.0%	13.9%	6.4%	8.4%	5.9%	11.9%	1.0%	2.0%	.5%
301이상	32.2%	16.7%	13.3%	8.9%	11.1%	13.3%	.0%	2.2%	2.2%
도시규모별									
대도시	43.8%	16.3%	9.8%	6.4%	8.2%	11.1%	.9%	1.6%	1.9%
중소도시	45.5%	17.8%	9.3%	6.7%	8.1%	10.1%	.8%	1.0%	.6%
읍면지역	40.6%	22.8%	9.6%	4.7%	11.5%	7.9%	.2%	2.6%	.0%
전체	43.4%	18.4%	9.7%	6.1%	9.1%	10.0%	.7%	1.7%	1.1%

라디오 청취형태

	집에서	직장에서	차안에서	휴대하면서	듣지않음	기타	무응답
성별							
남	24.2%	9.2%	33.3%	2.0%	29.3%	.9%	1.1%
여	47.0%	8.9%	11.6%	1.3%	30.1%	.3%	.8%
연령별							
10대	62.1%	3.3%	6.7%	6.3%	20.0%	1.3%	.4%
20대	38.1%	12.1%	24.1%	2.5%	21.5%	.8%	1.0%
30대	32.9%	9.4%	31.9%	.3%	25.1%	.0%	.3%
40대	23.8%	9.1%	26.8%	.6%	37.2%	.6%	1.8%
50대	23.6%	11.0%	17.6%	.5%	43.4%	1.1%	2.7%
60대이상	35.7%	3.9%	1.9%	.0%	57.8%	.6%	.0%
학력별							
국졸이하	31.5%	3.0%	3.4%	.4%	57.9%	2.6%	1.3%
중졸	47.7%	8.2%	10.1%	1.9%	30.4%	.2%	1.4%
고졸	37.1%	10.4%	24.0%	2.0%	25.7%	.2%	.5%
대졸	24.7%	11.0%	40.6%	1.1%	20.4%	.8%	1.3%
대원졸이상	6.7%	4.4%	51.1%	2.2%	35.6%	.0%	.0%
직업별							
사무직	20.2%	14.7%	42.5%	1.2%	19.8%	.0%	1.6%
전문기술직	19.4%	15.7%	43.3%	.0%	20.9%	.0%	.7%
행정관리직	12.5%	9.4%	37.5%	3.1%	37.5%	.0%	.0%
판매직	24.8%	17.5%	25.8%	1.0%	29.5%	.3%	1.0%
생산직	24.5%	11.5%	33.8%	.7%	27.3%	.7%	1.4%
서비스업	26.4%	18.4%	20.0%	.0%	32.8%	.8%	1.6%
1차산업	30.0%	2.9%	10.7%	.7%	52.1%	2.1%	1.4%
주부	53.3%	1.9%	8.5%	.2%	35.3%	.2%	.5%
학생	55.2%	2.7%	13.3%	6.5%	20.6%	1.2%	.6%
정년퇴직	43.6%	.0%	5.1%	2.6%	48.7%	.0%	.0%
기타	28.7%	8.0%	27.6%	.0%	33.3%	1.1%	1.1%
소득수준별							
40이하	38.3%	5.0%	7.1%	1.4%	47.5%	.7%	.0%
41-70	41.0%	10.4%	12.4%	.4%	33.1%	1.2%	1.6%
71-100	36.4%	7.3%	24.0%	1.4%	29.5%	.5%	.9%
101-150	35.7%	8.6%	24.4%	2.0%	27.7%	.6%	1.0%
151-200	33.9%	10.6%	27.2%	2.9%	24.1%	.3%	1.1%
201-300	29.2%	10.9%	26.7%	1.5%	29.7%	1.0%	1.0%
301이상	34.4%	12.2%	25.6%	.0%	27.8%	.0%	.0%
도시규모별							
대도시	35.0%	10.8%	25.4%	1.7%	25.5%	.5%	1.1%
중소도시	38.4%	7.5%	21.6%	1.6%	29.9%	.2%	.8%
읍면지역	34.2%	7.4%	17.7%	1.7%	37.2%	1.1%	.8%
전체	35.7%	9.1%	22.4%	1.7%	29.7%	.6%	1.0%

	라디오 청취량							안본다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a	a	a	a	a		
성별								
남	18.8%	20.2%	15.0%	5.0%	2.8%	1.6%	4.1%	32.4%
여	11.0%	15.6%	17.1%	10.5%	4.7%	4.0%	5.6%	31.6%
연령별								
10대	15.0%	21.7%	26.7%	11.3%	3.3%	.4%	2.5%	19.2%
20대	15.1%	19.0%	17.6%	11.1%	5.2%	3.8%	5.7%	22.4%
30대	16.6%	19.3%	15.5%	7.0%	4.2%	2.8%	7.0%	27.7%
40대	16.5%	15.9%	13.1%	5.8%	2.7%	3.0%	2.1%	40.9%
50대	11.5%	13.2%	13.2%	5.5%	2.2%	1.6%	5.5%	47.3%
60대이상	8.4%	13.0%	5.8%	.6%	1.9%	3.9%	2.6%	63.6%
학력별								
국졸이하	8.5%	8.5%	8.9%	6.0%	1.3%	3.0%	1.7%	62.1%
중졸	10.6%	18.6%	18.3%	8.4%	3.6%	2.7%	5.3%	32.5%
고졸	14.1%	18.5%	15.4%	9.2%	4.4%	3.5%	6.3%	28.4%
대졸	23.7%	21.2%	20.2%	5.1%	3.8%	1.3%	3.0%	21.8%
대원졸이상	31.1%	20.0%	11.1%	2.2%	4.4%	.0%	2.2%	28.9%
직업별								
사무직	19.8%	25.8%	17.9%	6.0%	3.2%	2.4%	3.6%	21.4%
전문기술직	20.9%	23.9%	14.2%	7.5%	2.2%	3.7%	4.5%	23.1%
행정관리직	15.6%	15.6%	15.6%	6.3%	3.1%	.0%	6.3%	37.5%
판매직	15.9%	14.9%	11.6%	7.6%	4.6%	4.0%	8.3%	33.1%
생산직	14.4%	22.3%	13.7%	4.3%	2.9%	3.6%	10.8%	28.1%
서비스업	16.0%	8.0%	10.4%	13.6%	2.4%	3.2%	9.6%	36.8%
1차산업	11.4%	17.9%	7.1%	3.6%	.7%	1.4%	2.9%	55.0%
주부	9.0%	13.6%	18.7%	7.5%	5.4%	3.9%	3.6%	38.2%
학생	17.1%	21.8%	23.0%	10.6%	3.8%	.9%	1.5%	21.2%
정년퇴직	10.3%	12.8%	15.4%	5.1%	2.6%	2.6%	2.6%	48.7%
기타	13.8%	11.5%	16.1%	9.2%	5.7%	2.3%	3.4%	37.9%
소득수준별								
40이하	8.5%	16.3%	19.1%	3.5%	1.4%	1.4%	3.5%	46.1%
41-70	12.0%	19.1%	13.5%	8.8%	2.8%	3.2%	4.8%	35.9%
71-100	14.2%	19.5%	13.3%	8.0%	3.9%	2.3%	5.0%	33.9%
101-150	17.2%	15.4%	18.2%	8.8%	3.6%	2.6%	6.0%	28.3%
151-200	16.9%	18.0%	15.9%	8.7%	5.8%	3.4%	4.5%	26.7%
201-300	15.3%	19.8%	16.8%	5.9%	2.5%	3.0%	4.0%	32.7%
301이상	14.4%	18.9%	18.9%	4.4%	4.4%	4.4%	3.3%	31.1%
도시규모별								
대도시	15.9%	18.8%	16.9%	8.4%	4.2%	3.0%	6.1%	26.7%
중소도시	13.9%	20.2%	15.4%	7.1%	4.2%	3.2%	4.0%	32.1%
읍면지역	14.2%	14.2%	15.1%	7.2%	2.5%	2.1%	3.4%	41.5%
전체	14.9%	17.9%	16.1%	7.8%	3.8%	2.8%	4.9%	32.0%

도서구입방법

	서점에서	공공도서관	이동도서관	친구친지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54.0%	4.7%	4.5%	10.2%	2.5%	22.7%	1.3%
여	51.7%	5.4%	7.7%	11.0%	2.9%	20.8%	.6%
연령별							
10대	56.3%	9.2%	4.6%	22.1%	.8%	5.4%	1.7%
20대	64.6%	7.9%	8.2%	10.0%	1.1%	7.7%	.6%
30대	60.8%	3.5%	8.4%	9.4%	3.1%	14.6%	.2%
40대	48.5%	3.7%	3.0%	11.3%	3.4%	29.6%	.6%
50대	32.4%	2.2%	3.8%	6.6%	3.8%	47.3%	3.8%
60대이상	11.7%	1.3%	1.9%	2.6%	6.5%	74.7%	1.3%
학력별							
국졸이하	15.7%	2.6%	1.7%	6.4%	3.0%	69.4%	1.3%
중졸	40.5%	4.1%	5.8%	17.1%	3.1%	27.5%	1.9%
고졸	56.7%	6.0%	7.3%	12.0%	2.9%	14.7%	.4%
대졸	78.0%	5.4%	6.5%	3.5%	1.3%	4.3%	1.1%
대원졸이상	73.3%	4.4%	4.4%	2.2%	4.4%	11.1%	.0%
직업별							
사무직	73.4%	5.6%	6.3%	4.8%	2.8%	6.0%	1.2%
전문기술직	76.1%	2.2%	9.0%	4.5%	.7%	6.7%	.7%
행정관리직	71.9%	3.1%	3.1%	6.3%	6.3%	6.3%	3.1%
판매직	52.6%	3.3%	10.3%	10.9%	3.0%	19.5%	.3%
생산직	49.6%	2.9%	3.6%	9.4%	3.6%	28.8%	2.2%
서비스업	43.2%	1.6%	4.8%	15.2%	1.6%	32.8%	.8%
1차산업	15.0%	2.9%	.7%	7.1%	2.9%	70.7%	.7%
주부	45.5%	4.1%	7.3%	11.7%	3.6%	27.3%	.5%
학생	59.3%	13.3%	4.4%	16.8%	.6%	4.4%	1.2%
정년퇴직	17.9%	.0%	5.1%	.0%	5.1%	69.2%	2.6%
기타	56.3%	1.1%	3.4%	13.8%	5.7%	18.4%	1.1%
소득수준별							
40이하	20.6%	5.7%	5.7%	13.5%	2.8%	51.8%	.0%
41-70	39.4%	2.4%	3.6%	11.2%	3.6%	39.0%	.8%
71-100	52.2%	5.3%	3.7%	11.4%	1.6%	25.2%	.7%
101-150	57.1%	4.0%	7.0%	13.2%	2.6%	14.4%	1.8%
151-200	58.7%	7.7%	7.7%	7.7%	4.0%	13.5%	.8%
201-300	64.9%	7.4%	6.9%	5.9%	2.5%	11.9%	.5%
301이상	68.9%	.0%	12.2%	8.9%	1.1%	7.8%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54.4%	5.2%	8.4%	10.9%	2.8%	16.9%	1.5%
중소도시	56.6%	5.0%	5.7%	10.1%	2.0%	19.8%	.8%
읍면지역	46.4%	4.9%	2.3%	10.6%	3.2%	32.5%	.2%
전체	52.9%	5.1%	6.1%	10.6%	2.7%	21.8%	1.0%

	연 평균 독서량								
	1권	2권	3권	4권	5권	10권이하	20권이하	20권초과	안읽음
성별									
남	5.9%	8.1%	11.3%	5.0%	11.6%	16.9%	12.4%	9.9%	18.7%
여	4.9%	10.4%	9.3%	4.2%	9.9%	20.5%	13.9%	8.1%	19.0%
연령별									
10대	3.3%	5.4%	10.4%	8.8%	13.8%	27.9%	15.0%	11.7%	3.8%
20대	3.1%	7.3%	11.3%	4.4%	11.1%	24.1%	19.0%	14.2%	5.6%
30대	5.4%	13.9%	10.6%	5.1%	11.5%	20.0%	14.5%	7.8%	11.1%
40대	8.8%	11.0%	11.6%	4.3%	11.0%	12.5%	9.1%	6.4%	25.3%
50대	6.6%	7.1%	8.2%	2.2%	7.7%	11.0%	6.6%	3.8%	46.7%
60대이상	7.8%	3.2%	5.2%	.6%	5.2%	3.2%	1.9%	3.2%	69.5%
학력별									
국졸이하	6.4%	4.3%	6.4%	1.7%	5.1%	5.5%	2.6%	3.0%	65.1%
중졸	7.2%	11.3%	10.8%	6.0%	9.9%	15.4%	9.9%	4.8%	24.6%
고졸	5.4%	11.1%	12.1%	4.7%	12.4%	21.2%	12.9%	8.7%	11.5%
대졸	3.5%	5.4%	8.3%	4.0%	11.6%	25.3%	22.0%	16.7%	3.2%
대원졸이상	.0%	8.9%	4.4%	8.9%	6.7%	11.1%	31.1%	22.2%	6.7%
직업별									
사무직	5.2%	7.1%	10.3%	6.7%	13.1%	22.2%	20.2%	11.5%	3.6%
전문기술직	2.2%	7.5%	13.4%	4.5%	14.9%	19.4%	20.1%	14.2%	3.7%
행정관리직	15.6%	15.6%	9.4%	6.3%	3.1%	18.8%	9.4%	12.5%	9.4%
판매직	5.3%	9.9%	12.3%	2.6%	10.6%	20.9%	13.9%	7.0%	17.5%
생산직	8.6%	11.5%	11.5%	5.0%	10.8%	14.4%	12.2%	5.0%	20.9%
서비스업	4.8%	12.0%	12.0%	8.8%	11.2%	16.8%	8.0%	3.2%	23.2%
1차산업	5.7%	6.4%	7.9%	.0%	7.1%	2.9%	.7%	1.4%	67.9%
주부	8.0%	15.1%	9.7%	4.4%	8.5%	16.3%	7.5%	5.4%	25.1%
학생	2.1%	4.4%	9.4%	6.2%	12.1%	27.7%	18.9%	16.2%	2.9%
정년퇴직	7.7%	2.6%	2.6%	.0%	12.8%	5.1%	5.1%	.0%	64.1%
기타	2.3%	4.6%	8.0%	2.3%	10.3%	17.2%	17.2%	19.5%	18.4%
소득수준별									
40이하	4.3%	6.4%	10.6%	1.4%	6.4%	13.5%	7.8%	3.5%	46.1%
41-70	6.4%	10.8%	8.0%	4.0%	7.6%	11.6%	11.6%	6.4%	33.9%
71-100	5.5%	10.8%	11.9%	5.5%	12.1%	17.4%	8.5%	5.3%	23.1%
101-150	6.6%	9.4%	9.6%	5.6%	12.6%	20.8%	14.0%	9.0%	12.6%
151-200	4.5%	7.9%	10.8%	5.0%	11.9%	23.5%	16.1%	11.4%	8.7%
201-300	5.9%	9.4%	10.9%	2.0%	8.9%	16.3%	20.3%	16.8%	9.4%
301이상	.0%	6.7%	8.9%	5.6%	8.9%	26.7%	15.6%	15.6%	12.2%
도시규모별									
대도시	5.0%	8.9%	9.8%	4.1%	12.1%	21.3%	13.2%	10.9%	14.6%
중소도시	5.5%	11.1%	11.1%	6.7%	10.7%	15.4%	14.9%	8.1%	16.4%
읍면지역	6.0%	8.1%	10.4%	3.4%	8.3%	17.0%	11.5%	6.4%	28.9%
전체	5.4%	9.3%	10.3%	4.6%	10.8%	18.7%	13.2%	9.0%	18.9%

관심있게 있는 독서분야										
	문화예술	역사분야	사회과학	종교철학	생활육아	어학인문	순수기술	기타	읽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32.4%	15.0%	8.3%	7.5%	2.4%	2.4%	6.3%	3.8%	19.4%	2.4%
여	41.2%	4.9%	2.3%	12.1%	13.8%	1.9%	1.0%	3.4%	17.5%	2.0%
연령별										
10대	54.2%	5.8%	6.7%	4.6%	4.6%	2.9%	7.5%	7.1%	4.6%	2.1%
20대	49.6%	6.5%	8.0%	7.7%	10.5%	3.6%	3.6%	4.2%	5.0%	1.1%
30대	39.2%	11.0%	3.7%	12.2%	12.5%	1.4%	3.7%	3.7%	10.8%	1.9%
40대	23.5%	16.8%	5.5%	13.7%	5.5%	.9%	2.7%	2.1%	26.8%	3.0%
50대	18.1%	9.9%	4.4%	9.9%	2.7%	2.7%	2.2%	2.2%	44.0%	3.8%
60대이상	7.8%	9.7%	.6%	7.8%	.6%	.6%	1.3%	.6%	67.5%	3.2%
학력별										
국졸이하	15.3%	5.1%	.9%	7.2%	1.7%	.4%	2.1%	1.7%	62.6%	3.0%
중졸	31.6%	10.1%	3.6%	9.4%	8.2%	1.0%	3.9%	3.1%	25.3%	3.9%
고졸	41.2%	10.1%	4.7%	10.6%	10.8%	1.7%	3.1%	5.4%	11.4%	1.1%
대졸	44.4%	12.6%	11.0%	9.4%	5.6%	5.4%	5.9%	1.1%	2.2%	2.4%
대원졸이상	44.4%	8.9%	8.9%	13.3%	4.4%	4.4%	2.2%	2.2%	6.7%	4.4%
직업별										
사무직	42.5%	15.5%	10.7%	8.3%	5.2%	3.6%	4.8%	4.0%	3.6%	2.0%
전문기술직	47.0%	9.7%	7.5%	12.7%	2.2%	1.5%	9.7%	1.5%	5.2%	3.0%
행정관리직	21.9%	21.9%	12.5%	9.4%	.0%	3.1%	9.4%	6.3%	9.4%	6.3%
판매직	35.4%	16.6%	2.3%	13.2%	6.6%	1.7%	1.0%	4.3%	17.5%	1.3%
생산직	29.5%	17.3%	3.6%	7.9%	4.3%	.7%	5.0%	4.3%	25.2%	2.2%
서비스업	33.6%	11.2%	4.0%	9.6%	12.0%	2.4%	.8%	4.0%	21.6%	.8%
1차산업	15.0%	5.0%	.0%	4.3%	2.9%	.7%	2.1%	2.1%	62.9%	5.0%
주부	32.1%	3.6%	.5%	13.4%	20.9%	.2%	.2%	2.4%	24.1%	2.4%
학생	53.4%	5.3%	12.1%	4.4%	3.8%	5.0%	7.1%	4.4%	3.2%	1.2%
정년퇴직	7.7%	10.3%	.0%	10.3%	.0%	.0%	2.6%	.0%	61.5%	7.7%
기타	36.8%	9.2%	5.7%	13.8%	2.3%	3.4%	5.7%	6.9%	14.9%	1.1%
소득수준별										
40이하	20.6%	7.8%	5.7%	7.8%	3.5%	2.1%	3.5%	3.5%	45.4%	.0%
41-70	26.7%	8.8%	1.6%	11.2%	10.4%	1.6%	2.8%	2.4%	31.1%	3.6%
71-100	35.5%	11.9%	3.0%	9.6%	7.8%	1.4%	2.7%	3.0%	21.7%	3.4%
101-150	37.1%	9.8%	5.6%	10.0%	10.0%	2.8%	4.6%	4.8%	14.4%	1.0%
151-200	43.7%	10.6%	7.1%	10.6%	6.6%	2.1%	4.0%	3.4%	9.8%	2.1%
201-300	43.1%	9.4%	10.9%	9.4%	7.4%	1.5%	5.0%	3.5%	8.4%	1.5%
301이상	52.2%	6.7%	4.4%	6.7%	7.8%	5.6%	1.1%	4.4%	6.7%	4.4%
도시규모별										
대도시	38.1%	11.5%	6.0%	9.9%	7.9%	2.0%	3.4%	4.1%	14.1%	2.9%
중소도시	37.2%	9.3%	5.9%	10.7%	8.5%	3.8%	4.2%	3.0%	15.2%	2.2%
읍면지역	34.0%	7.7%	3.4%	8.7%	8.1%	.9%	3.6%	3.2%	29.4%	.9%
전체	36.8%	10.0%	5.3%	9.8%	8.1%	2.2%	3.7%	3.6%	18.5%	2.2%

잡지구독행태						
	정기구독	가끔구입	비치된것	빌려서	보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11.7%	29.2%	19.3%	7.4%	31.5%	.9%
여	10.8%	27.4%	23.9%	12.3%	25.3%	.3%
연령별						
10대	8.8%	30.8%	15.4%	17.5%	27.1%	.4%
20대	10.7%	32.8%	28.0%	10.5%	17.6%	.4%
30대	15.5%	31.7%	25.8%	11.0%	15.9%	.2%
40대	11.3%	26.2%	19.2%	7.0%	35.4%	.9%
50대	9.9%	22.0%	14.8%	5.5%	45.6%	2.2%
60대이상	2.6%	8.4%	7.1%	2.6%	78.6%	.6%
학력별						
국졸이하	2.1%	12.8%	8.5%	4.3%	71.1%	1.3%
중졸	7.2%	30.4%	15.4%	13.3%	33.0%	.7%
고졸	11.6%	32.2%	25.4%	10.1%	20.6%	.2%
대졸	17.5%	27.4%	26.1%	9.9%	18.0%	1.1%
대원졸이상	37.8%	17.8%	31.1%	2.2%	11.1%	.0%
직업별						
사무직	16.3%	29.8%	32.9%	6.7%	13.1%	1.2%
전문기술직	21.6%	23.9%	23.1%	6.7%	24.6%	.0%
행정관리직	25.0%	28.1%	18.8%	.0%	25.0%	3.1%
판매직	11.6%	31.8%	16.2%	11.6%	28.8%	.0%
생산직	7.9%	33.9%	27.3%	7.9%	20.9%	2.2%
서비스업	12.8%	40.8%	14.4%	5.6%	25.6%	.8%
1차산업	5.0%	15.7%	6.4%	5.0%	67.1%	.7%
주부	8.5%	26.5%	23.8%	11.9%	28.5%	.7%
학생	9.7%	28.6%	20.4%	15.3%	26.0%	.0%
정년퇴직	2.6%	15.4%	20.5%	2.6%	59.0%	.0%
기타	10.3%	25.3%	26.4%	10.3%	27.6%	.0%
소득수준별						
40이하	2.1%	23.4%	10.6%	6.4%	57.4%	.0%
41-70	8.0%	25.9%	18.3%	7.6%	39.0%	1.2%
71-100	7.6%	28.8%	20.6%	10.3%	32.0%	.7%
101-150	12.0%	29.5%	25.7%	9.2%	23.2%	.4%
151-200	13.8%	29.6%	24.9%	12.7%	18.8%	.3%
201-300	20.8%	22.8%	21.8%	12.4%	21.8%	.5%
301이상	16.7%	40.0%	15.6%	5.6%	20.0%	2.2%
도시규모별						
대도시	12.5%	28.4%	22.5%	11.2%	24.7%	.7%
중소도시	10.9%	26.9%	26.5%	9.5%	25.7%	.4%
읍면지역	9.2%	29.4%	15.3%	7.7%	37.7%	.6%
전체	11.3%	28.3%	21.6%	9.9%	28.4%	.6%

	만화 보는 양					
	거의매일	달에한두번	주에한두번	어쩌다	보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2.3%	6.1%	4.4%	19.0%	67.6%	.5%
여	.8%	4.3%	2.5%	21.1%	71.2%	.2%
연령별						
10대	8.8%	15.4%	16.7%	32.5%	26.3%	.4%
20대	1.3%	7.5%	3.1%	30.8%	57.3%	.0%
30대	.3%	3.0%	1.7%	19.7%	75.1%	.2%
40대	.3%	2.1%	.3%	11.6%	85.1%	.6%
50대	.0%	1.6%	.5%	4.4%	91.8%	1.6%
60대이상	.0%	.6%	.6%	1.9%	96.8%	.0%
학력별						
국졸이하	2.1%	2.6%	3.4%	7.7%	83.4%	.9%
중졸	3.9%	6.5%	6.7%	20.5%	61.9%	.5%
고졸	1.1%	6.1%	2.7%	23.5%	66.5%	.2%
대졸	.0%	3.5%	1.9%	20.7%	73.7%	.3%
대원졸이상	.0%	2.2%	2.2%	4.4%	91.1%	.0%
직업별						
사무직	.4%	4.0%	2.0%	19.0%	74.2%	.4%
전문기술직	.7%	3.0%	.7%	21.6%	73.9%	.0%
행정관리직	.0%	6.3%	.0%	12.5%	78.1%	3.1%
판매직	.7%	4.0%	2.0%	19.9%	73.5%	.0%
생산직	1.4%	4.3%	1.4%	25.9%	64.7%	2.2%
서비스업	2.4%	1.6%	3.2%	16.8%	76.0%	.0%
1차산업	.0%	2.9%	.7%	8.6%	87.9%	.0%
주부	.2%	1.7%	1.2%	15.1%	81.3%	.5%
학생	6.2%	14.7%	12.1%	32.2%	34.8%	.0%
정년퇴직	.0%	.0%	2.6%	5.1%	92.3%	.0%
기타	.0%	8.0%	3.4%	20.7%	67.8%	.0%
소득수준별						
40이하	5.7%	2.1%	3.5%	17.7%	70.9%	.0%
41-70	.4%	5.2%	3.6%	18.7%	71.3%	.8%
71-100	.7%	2.7%	3.9%	21.3%	71.2%	.2%
101-150	2.2%	7.0%	3.2%	21.6%	65.9%	.2%
151-200	.8%	6.3%	2.6%	20.1%	69.8%	.3%
201-300	1.5%	6.9%	3.0%	19.3%	68.8%	.5%
301이상	2.2%	3.3%	6.7%	14.4%	72.2%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1.7%	5.5%	4.0%	19.4%	69.30%	.4%
중소도시	1.2%	4.2%	3.2%	19.0%	72.1%	.4%
읍면지역	1.7%	5.7%	2.6%	22.3%	67.5%	.2%
전체	1.6%	5.2%	3.5%	20.1%	69.4%	.4%

만화구독방법						
	만화가게	빌려와서	사서본다	비치된것	보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6.6%	6.7%	3.3%	14.6%	67.3%	1.4%
여	3.5%	9.2%	2.4%	12.0%	72.5%	.5%
연령별						
10대	15.4%	29.6%	14.2%	12.9%	27.1%	.8%
20대	9.8%	12.3%	1.7%	18.4%	57.3%	.6%
30대	1.9.6%	2.4%	1.9%	17.1%	76.1%	.5%
40대	.6%	2.7%	.9%	8.5%	86.3%	.9%
50대	.0%	.5%	.0%	6.0%	89.0%	4.4%
60대이상	.0%	.0%	.0%	1.3%	98.7%	.0%
학력별						
국졸이하	3.8%	5.1%	3.0%	2.6%	83.8%	1.7%
중졸	5.3%	14.0%	5.3%	11.8%	61.9%	1.7%
고졸	5.7%	7.9%	2.4%	16.0%	67.4%	.6%
대졸	4.6%	3.8%	1.1%	16.1%	73.9%	.5%
대원졸이상	.0%	2.2%	4.4%	4.4%	88.9%	.0%
직업별						
사무직	5.6%	4.8%	1.2%	13.9%	73.4%	1.2%
전문기술직	3.0%	5.2%	1.5%	14.9%	74.6%	.7%
행정관리직	6.3%	.0%	.0%	18.8%	71.9%	3.1%
판매직	3.0%	5.6%	2.0%	13.9%	74.8%	.7%
생산직	5.0%	6.5%	1.4%	21.6%	61.9%	3.6%
서비스업	3.2%	8.0%	2.4%	12.0%	73.6%	.8%
1차산업	1.4%	1.4%	.0%	9.3%	87.1%	.7%
주부	1.2%	3.6%	.7%	10.0%	83.7%	.7%
학생	14.5%	23.0%	10.3%	15.3%	36.3%	.6%
정년퇴직	.0%	.0%	.0%	2.6%	97.4%	.0%
기타	5.7%	10.3%	3.4%	12.6%	67.8%	.0%
소득수준별						
40이하	5.0%	7.8%	2.1%	10.6%	73.8%	.7%
41-70	3.6%	8.4%	1.6%	13.1%	71.3%	2.0%
71-100	4.1%	6.4%	2.3%	15.1%	71.6%	.5%
101-150	6.0%	8.4%	4.0%	13.8%	66.5%	1.4%
151-200	5.3%	8.5%	2.4%	12.4%	70.9%	.5%
201-300	6.9%	6.9%	4.5%	13.9%	67.3%	.5%
301이상	3.3%	12.2%	2.2%	8.9%	72.2%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5.0%	8.5%	2.9%	12.0%	70.5%	.8%
중소도시	4.2%	7.3%	3.2%	14.3%	69.7%	1.4%
읍면지역	5.5%	7.5%	2.5%	14.7%	69.1%	.8%
전체	5.1%	8.0%	2.9%	13.3%	69.9%	1.0%

월 평균 비디오 프로그램 대여편수

	1편	2편	3편	4편	5편	6-10편	10편초과	보지않음
성별								
남	12.4%	15.9%	9.2%	5.4%	9.3%	7.8%	5.9%	34.0%
여	12.7%	14.1%	9.1%	6.6%	5.8%	6.6%	4.6%	40.6%
연령별								
10대	17.5%	15.8%	14.6%	6.3%	11.7%	5.4%	7.5%	21.3%
20대	13.4%	15.7%	11.7%	9.4%	9.6%	11.9%	8.4%	19.9%
30대	10.6%	18.3%	9.1%	6.3%	8.7%	9.4%	5.4%	32.2%
40대	14.9%	15.2%	7.3%	4.0%	4.9%	2.7%	2.4%	48.5%
50대	12.6%	9.3%	3.8%	3.8%	3.8%	3.3%	1.6%	61.5%
60대이상	3.9%	5.2%	2.6%	.0%	.0%	.0%	.6%	87.7%
학력별								
국졸이하	5.1%	6.8%	4.7%	1.3%	2.1%	1.7%	1.3%	77.0%
중졸	14.9%	13.7%	8.2%	5.1%	6.5%	5.1%	4.1%	42.4%
고졸	11.8%	16.2%	10.8%	7.0%	8.7%	9.4%	7.6%	28.5%
대졸	15.6%	18.0%	8.6%	7.8%	9.1%	7.5%	3.5%	29.8%
대원졸이상	20.0%	20.0%	11.1%	4.4%	8.9%	6.7%	2.2%	26.7%
직업별								
사무직	19.0%	17.9%	9.9%	6.3%	7.5%	8.7%	4.4%	26.2%
전문기술직	12.7%	16.4%	9.7%	7.5%	9.7%	7.5%	7.5%	29.1%
행정관리직	6.3%	25.0%	.0%	.0%	15.6%	6.3%	.0%	46.9%
판매직	14.2%	14.6%	5.6%	5.3%	8.6%	9.3%	7.6%	34.8%
생산직	8.6%	20.1%	7.9%	8.6%	7.2%	8.6%	5.0%	33.8%
서비스업	7.2%	12.0%	9.6%	7.2%	4.0%	5.6%	13.6%	40.8%
1차산업	8.6%	8.6%	7.1%	1.4%	1.4%	4.3%	1.4%	67.1%
주부	9.7%	13.9%	8.8%	6.1%	6.1%	5.8%	2.2%	47.4%
학생	17.7%	15.0%	15.6%	6.2%	12.4%	7.7%	6.5%	18.9%
정년퇴직	5.1%	2.6%	5.1%	2.6%	2.6%	.0%	.0%	82.1%
기타	6.9%	19.5%	4.6%	9.2%	3.4%	8.0%	4.6%	43.7%
소득수준별								
40이하	5.7%	13.5%	7.8%	.7%	5.0%	6.4%	3.5%	57.4%
41-70	13.1%	10.8%	8.8%	5.2%	4.0%	4.0%	4.0%	50.2%
71-100	11.0%	14.6%	9.4%	4.6%	8.0%	5.5%	5.0%	41.9%
101-150	13.0%	14.6%	8.4%	8.4%	9.0%	9.0%	5.8%	31.9%
151-200	13.0%	19.8%	9.3%	7.1%	7.9%	8.7%	3.7%	30.4%
201-300	15.8%	15.3%	10.4%	5.9%	9.4%	7.9%	6.9%	28.2%
301이상	17.8%	12.2%	12.2%	5.6%	5.6%	7.8%	12.2%	26.7%
도시규모별								
대도시	14.8%	15.8%	9.6%	6.2%	8.0%	7.6%	5.6%	32.4%
중소도시	11.5%	15.2%	8.7%	6.3%	7.9%	6.5%	5.9%	37.8%
읍면지역	9.4%	13.4%	8.7%	5.3%	6.4%	7.2%	4.0%	45.7%
전체	12.6%	15.0%	9.2%	6.0%	7.6%	7.2%	5.3%	37.3%

	미디어 프로그램 소유현황							
	영화프로		음악프로		쇼 코미디프로		아동용 만화영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36.1%	63.9%	6.0%	94.0%	3.6%	96.4%	10.2%	89.8%
여	36.7%	63.3%	6.9%	93.1%	3.3%	96.7%	19.4%	80.6%
연령별								
10대	45.8%	54.2%	10.4%	89.6%	9.6%	90.4%	7.9%	92.1%
20대	45.8%	54.2%	9.8%	90.2%	5.4%	94.6%	12.8%	87.2%
30대	40.6%	59.4%	5.2%	94.8%	1.0%	99.0%	28.6%	71.4%
40대	28.7%	71.3%	3.0%	97.0%	2.4%	97.6%	10.4%	89.6%
50대	22.0%	78.0%	6.6%	93.4%	2.2%	97.8%	3.3%	96.7%
60대이상	7.8%	92.2%	.6%	99.4%	.0%	100.0%	3.9%	96.1%
학력별								
국졸이하	17.0%	83.0%	.9%	99.1%	2.6%	97.4%	5.1%	94.9%
중졸	34.7%	65.3%	5.5%	94.5%	5.1%	94.9%	11.3%	88.7%
고졸	42.2%	57.8%	7.1%	92.9%	3.8%	96.2%	17.3%	82.7%
대졸	37.4%	62.6%	8.9%	91.1%	1.9%	98.1%	18.0%	82.0%
대원졸이상	24.4%	75.6%	11.1%	88.9%	.0%	100.0%	20.0%	80.0%
직업별								
사무직	38.5%	61.5%	7.1%	92.9%	3.2%	96.8%	14.3%	85.7%
전문기술직	33.6%	66.4%	11.2%	88.8%	3.0%	97.0%	18.7%	81.3%
행정관리직	25.0%	75.0%	6.3%	93.8%	3.1%	96.9%	3.1%	96.9%
판매직	38.4%	61.6%	5.3%	94.7%	3.0%	97.0%	15.9%	84.1%
생산직	35.3%	64.7%	3.6%	96.4%	2.9%	97.1%	15.1%	84.9%
서비스업	45.6%	54.4%	5.6%	94.4%	4.0%	96.0%	13.6%	86.4%
1차산업	20.0%	80.0%	1.4%	98.6%	.7%	99.3%	6.4%	93.6%
주부	32.1%	67.9%	3.9%	96.1%	.7%	99.3%	25.1%	74.9%
학생	48.1%	51.9%	11.8%	88.2%	8.8%	91.2%	8.3%	91.7%
정년퇴직	12.8%	87.2%	2.6%	97.4%	.0%	100.0%	2.6%	97.4%
기타	32.2%	67.8%	8.0%	92.0%	4.6%	95.4%	8.0%	92.0%
소득수준별								
40이하	24.8%	75.2%	3.5%	96.5%	6.4%	93.6%	6.4%	93.6%
41-70	29.5%	70.5%	2.8%	97.2%	1.6%	98.4%	6.0%	94.0%
71-100	35.0%	65.0%	3.4%	96.6%	1.8%	98.2%	14.2%	85.8%
101-150	41.3%	58.7%	7.4%	92.6%	3.0%	97.0%	20.0%	80.0%
151-200	35.4%	64.6%	9.0%	91.0%	3.7%	96.3%	18.0%	82.0%
201-300	43.1%	56.9%	9.4%	90.6%	5.9%	94.1%	14.9%	85.1%
301이상	42.2%	57.8%	13.3%	86.7%	7.8%	92.2%	13.3%	86.7%
도시규모별								
대도시	37.2%	62.8%	7.4%	92.6%	4.5%	95.5%	16.7%	83.3%
중소도시	35.8%	64.2%	5.9%	94.1%	2.0%	98.0%	14.7%	85.3%
읍면지역	35.5%	64.5%	5.3%	94.7%	3.0%	97.0%	11.5%	88.5%
전체	36.4%	63.6%	6.5%	93.6%	3.5%	96.6%	14.8%	85.2%

	비디오 프로그램 소유 현황							
	교육자료용		성인대상영화		스포츠 물		교양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8.8%	91.2%	4.0%	96.0%	6.8%	93.2%	10.7%	89.3%
여	13.3%	86.7%	3.1%	96.9%	5.6%	94.4%	10.5%	89.5%
연령별								
10대	7.5%	92.5%	5.0%	95.0%	7.5%	92.5%	5.8%	94.2%
20대	10.3%	89.7%	3.6%	96.4%	6.1%	93.9%	10.3%	89.7%
30대	15.9%	84.1%	4.2%	95.8%	5.2%	94.8%	15.0%	85.0%
40대	12.2%	87.8%	2.1%	97.9%	9.5%	90.5%	13.1%	86.9%
50대	7.1%	92.9%	3.3%	96.7%	6.0%	94.0%	8.2%	91.8%
60대이상	3.2%	96.8%	1.9%	98.1%	1.3%	98.7%	.0%	100.0%
학력별								
국졸이하	3.4%	96.6%	.9%	99.1%	3.0%	97.0%	3.0%	97.0%
중졸	8.0%	92.0%	4.6%	95.4%	5.8%	94.2%	7.2%	92.8%
고졸	11.0%	89.0%	4.0%	96.0%	6.4%	93.6%	10.7%	89.3%
대졸	18.5%	81.5%	3.2%	96.8%	7.5%	92.5%	17.7%	82.3%
대원졸이상	17.8%	82.2%	2.2%	97.8%	11.1%	88.9%	20.0%	80.0%
직업별								
사무직	11.9%	88.1%	4.8%	95.2%	8.3%	91.7%	13.5%	86.5%
전문기술직	18.7%	81.3%	1.5%	98.5%	7.5%	92.5%	18.7%	81.3%
행정관리직	15.6%	84.4%	9.4%	90.65%	21.9%	78.1%	9.4%	90.6%
판매직	11.9%	88.1%	4.6%	95.4%	7.0%	93.0%	14.6%	85.4%
생산직	4.3%	95.7%	4.3%	95.7%	4.3%	95.7%	7.9%	92.1%
서비스업	12.8%	87.2%	6.4%	93.6%	6.4%	93.6%	12.0%	88.0%
1차산업	2.9%	97.1%	2.1%	97.9%	1.4%	98.6%	1.4%	98.6%
주부	13.4%	86.6%	2.7%	97.3%	6.1%	93.9%	7.8%	92.2%
학생	8.8%	91.2%	3.5%	96.5%	6.8%	93.2%	9.4%	90.6%
정년퇴직	5.1%	94.9%	.0%	100.0%	2.6%	97.4%	2.6%	97.4%
기타	13.8%	86.2%	.0%	100.0%	.0%	100.0%	14.9%	85.1%
소득수준별								
40이하	.7%	99.3%	4.3%	95.7%	1.4%	98.6%	1.4%	98.6%
41-70	4.0%	96.0%	2.8%	97.2%	3.2%	96.8%	3.6%	96.4%
71-100	7.3%	92.7%	4.3%	95.7%	4.8%	95.2%	8.7%	91.3%
101-150	11.6%	88.4%	4.0%	96.0%	6.4%	93.6%	11.8%	88.2%
151-200	16.9%	83.1%	3.2%	96.8%	7.9%	92.1%	16.7%	83.3%
201-300	19.8%	80.2%	2.0%	98.0%	9.4%	90.6%	13.9%	86.1%
301이상	17.8%	82.2%	3.3%	96.7%	13.3%	86.7%	14.4%	85.6%
도시규모별								
대도시	11.9%	88.1%	2.6%	97.4%	7.0%	93.0%	13.2%	86.8%
중소도시	12.7%	87.3%	4.4%	95.6%	5.3%	94.7%	8.7%	91.3%
읍면지역	7.9%	92.1%	4.5%	95.5%	5.5%	94.5%	7.7%	92.3%
전체	11.1%	89.0%	3.6%	96.5%	6.2%	93.8%	10.6%	89.4%

	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량							안본다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a	a	a	a	a	a		
성별								
남	6.6%	8.7%	7.2%	3.5%	1.8%	1.1%	1.8%	69.2%
여	5.4%	6.9%	4.1%	1.2%	1.2%	.8%	2.5%	77.9%
연령별								
10대	10.0%	14.6%	8.8%	1.7%	.8%	.0%	.8%	63.3%
20대	9.2%	12.5%	11.3%	4.4%	3.6%	1.3%	3.4%	54.2%
30대	5.9%	7.1%	3.7%	2.6%	1.2%	1.6%	3.5%	74.4%
40대	3.7%	2.7%	2.4%	.6%	.6%	.9%	.9%	88.1%
50대	1.1%	3.3%	1.1%	1.6%	.0%	.0%	.0%	92.9%
60대이상	.0%	.0%	1.3%	.0%	.0%	.0%	.0%	98.7%
학력별								
국졸이하	1.3%	.4%	.9%	.9%	.0%	.0%	.0%	96.6%
중졸	4.3%	5.3%	3.6%	.2%	.2%	.0%	.0%	86.3%
고졸	5.9%	7.5%	6.0%	2.7%	1.3%	.9%	2.7%	73.1%
대졸	10.2%	15.6%	9.9%	3.8%	4.6%	3.0%	3.8%	49.2%
대원졸이상	13.3%	11.1%	6.7%	11.1%	.0%	.0%	8.9%	48.9%
직업별								
사무직	10.3%	12.7%	14.3%	6.3%	5.6%	4.8%	5.6%	40.5%
전문기술직	8.2%	9.0%	10.4%	5.2%	2.2%	1.5%	7.5%	56.0%
행정관리직	3.1%	12.5%	12.5%	3.1%	.0%	3.1%	.0%	65.6%
판매직	4.0%	4.6%	1.3%	1.0%	1.3%	.0%	2.3%	85.4%
생산직	4.3%	2.9%	1.4%	.7%	.7%	.0%	.7%	89.2%
서비스업	.0%	5.6%	.8%	1.6%	.0%	1.6%	4.8%	85.6%
1차산업	.0%	.0%	.0%	.0%	.0%	.0%	.0%	100.0%
주부	2.4%	3.6%	.5%	.0%	.0%	.0%	.0%	93.4%
학생	13.6%	18.0%	13.9%	4.1%	2.1%	.3%	.6%	47.5%
정년퇴직	.0%	.0%	.0%	2.6%	.0%	.0%	.0%	97.4%
기타	9.2%	8.0%	3.4%	2.3%	1.1%	1.1%	3.4%	71.3%
소득수준별								
40이하	5.0%	9.2%	4.3%	1.4%	.7%	.0%	.0%	79.4%
41-70	3.2%	4.0%	4.8%	2.4%	.8%	.4%	1.2%	83.3%
71-100	3.7%	4.3%	3.0%	1.6%	.7%	.2%	1.4%	85.1%
101-150	5.2%	9.2%	5.8%	2.4%	1.6%	1.6%	3.0%	71.3%
151-200	10.3%	10.3%	7.7%	2.9%	2.1%	1.3%	1.9%	63.5%
201-300	7.4%	9.4%	9.4%	4.5%	2.5%	1.5%	4.0%	61.4%
301이상	10.0%	11.1%	5.6%	.0%	3.3%	1.1%	4.4%	64.4%
도시규모별								
대도시	7.0%	7.9%	6.0%	2.9%	1.5%	1.0%	2.7%	71.0%
중소도시	5.0%	10.5%	5.1%	1.6%	1.6%	1.4%	1.2%	73.7%
읍면지역	5.1%	5.1%	5.5%	2.1%	1.5%	.4%	2.1%	78.3%
전체	6.0%	7.8%	5.7%	2.4%	1.5%	1.0%	2.2%	73.6%

컴퓨터 사용능력						
	문맹자	초보자	초급사용	중급사용	고급사용	무응답
성별						
남	53.1%	13.5%	19.3%	8.1%	1.1%	4.8%
여	56.5%	17.4%	17.2%	3.5%	.5%	5.0%
연령별						
10대	29.6%	34.2%	27.1%	5.8%	.4%	2.9%
20대	33.1%	19.7%	33.7%	10.3%	1.0%	2.1%
30대	56.6%	16.0%	14.8%	6.3%	1.2%	5.1%
40대	72.3%	7.6%	8.5%	3.0%	.9%	7.6%
50대	83.0%	3.3%	5.5%	.5%	.0%	7.7%
60대이상	90.3%	.6%	.6%	.6%	.0%	7.8%
학력별						
국졸이하	88.9%	5.5%	.4%	.0%	.0%	5.1%
중졸	64.8%	17.8%	8.9%	2.9%	.2%	5.3%
고졸	53.6%	15.8%	19.6%	5.4%	.4%	5.3%
대졸	28.0%	19.1%	35.2%	12.6%	1.6%	3.5%
대원졸이상	31.1%	8.9%	28.9%	15.6%	11.1%	4.4%
직업별						
사무직	25.8%	14.7%	40.9%	14.3%	.8%	3.6%
전문기술직	39.6%	17.9%	21.6%	14.9%	4.5%	1.5%
행정관리직	40.6%	9.4%	28.1%	3.1%	3.1%	15.6%
판매직	64.2%	16.6%	11.3%	2.3%	.0%	5.6%
생산직	71.9%	15.1%	7.2%	.7%	.0%	5.0%
서비스업	74.4%	12.8%	6.4%	2.4%	.8%	3.2%
1차산업	89.3%	2.1%	.7%	.0%	.0%	7.9%
주부	72.7%	12.2%	5.6%	1.5%	.0%	8.0%
학생	23.3%	25.7%	37.5%	10.9%	1.5%	1.2%
정년퇴직	89.7%	.0%	5.1%	.0%	.0%	5.1%
기타	46.0%	20.7%	21.8%	5.7%	1.1%	4.6%
소득수준별						
40이하	68.8%	12.8%	12.1%	4.3%	.0%	2.1%
41-70	68.1%	8.0%	13.5%	4.0%	.0%	6.4%
71-100	65.2%	14.9%	11.7%	2.5%	.2%	5.5%
101-150	53.1%	14.8%	17.4%	9.2%	1.2%	4.4%
151-200	44.4%	16.7%	26.5%	6.6%	.8%	5.0%
201-300	37.1%	23.3%	26.7%	5.4%	2.0%	5.4%
301이상	37.8%	24.4%	24.4%	7.8%	2.2%	3.3%
도시규모별						
대도시	51.1%	18.8%	17.5%	6.9%	1.1%	4.6%
중소도시	51.5%	11.9%	21.8%	5.3%	.8%	8.7%
읍면지역	64.7%	12.8%	16.2%	4.2%	.2%	1.9%
전체	54.8%	15.5%	18.3%	5.8%	.8%	4.9%

	컴퓨터 사용용도							무응답
	전자오락	학습	일반사무	고객관리	정보습득	그래픽	기타	
성별								
남	8.2%	2.1%	20.7%	4.9%	2.4%	.9%	1.7%	59.0%
여	11.0%	2.9%	16.8%	4.5%	.9%	.4%	1.5%	62.1%
연령별								
10대	32.9%	7.5%	17.1%	.4%	6.3%	.0%	2.1%	33.8%
20대	10.5%	4.0%	36.6%	6.7%	1.5%	1.5%	2.1%	37.0%
30대	7.3%	1.0%	17.8%	7.5%	1.4%	.5%	2.4%	62.0%
40대	4.6%	.9%	9.14%	3.4%	.3%	.3%	.6%	80.8%
50대	.5%	.5%	6.0%	1.6%	.5%	.0%	.0%	90.7%
60대이상	.0%	.6%	.0%	.6%	.0%	.6%	.0%	98.1%
학력별								
국졸이하	4.3%	.9%	.4%	.0%	.4%	.0%	.0%	94.0%
중졸	17.6%	3.4%	4.1%	.2%	2.7%	.0%	1.2%	70.8%
고졸	8.3%	2.1%	20.4%	5.6%	1.1%	.5%	2.0%	60.0%
대졸	8.6%	3.8%	39.2%	10.8%	2.4%	1.3%	1.9%	32.0%
대원졸이상	.0%	.0%	46.7%	2.2%	4.4%	6.7%	2.2%	37.8%
직업별								
사무직	4.4%	2.8%	52.4%	7.9%	2.0%	.0%	1.2%	29.4%
전문기술직	3.0%	2.2%	28.4%	11.9%	3.0%	6.0%	3.0%	42.5%
행정관리직	9.4%	3.1%	25.0%	6.3%	.0%	.0%	.0%	56.3%
판매직	8.3%	1.3%	7.3%	9.9%	1.0%	.0%	.7%	71.5%
생산직	8.6%	1.4%	7.2%	2.2%	1.4%	.0%	1.4%	77.7%
서비스업	5.6%	2.4%	4.8%	8.0%	.8%	.0%	.0%	78.4%
1차산업	.7%	.7%	.0%	.0%	.0%	.0%	1.4%	97.1%
주부	8.0%	1.0%	5.4%	1.5%	.5%	.0%	2.2%	81.5%
학생	24.5%	7.4%	33.9%	.6%	4.4%	1.2%	2.4%	25.7%
정년퇴직	.0%	.0%	2.6%	.0%	2.6%	.0%	.0%	94.9%
기타	14.9%	.0%	24.1%	5.7%	.0%	1.1%	2.3%	51.7%
소득수준별								
40이하	13.5%	2.1%	12.1%	.0%	.7%	.0%	.7%	70.9%
41-70	5.2%	1.2%	14.3%	3.6%	1.2%	.0%	.4%	74.1%
71-100	9.2%	2.5%	11.0%	2.7%	1.1%	.2%	1.1%	72.1%
101-150	8.6%	2.2%	20.2%	5.4%	2.4%	.8%	2.0%	58.5%
151-200	9.5%	2.6%	25.4%	6.9%	2.4%	1.3%	1.9%	50.5%
201-300	14.9%	2.0%	27.7%	6.9%	1.0%	.5%	2.0%	45.0%
301이상	12.2%	8.9%	23.3%	6.7%	1.1%	2.2%	4.4%	41.1%
도시규모별								
대도시	11.8%	2.4%	20.0%	4.9%	1.6%	.9%	2.2%	56.3%
중소도시	7.5%	3.2%	20.6%	4.2%	2.0%	.4%	.8%	61.4%
읍면지역	7.5%	2.1%	14.7%	4.9%	1.5%	.4%	1.3%	67.5%
전체	9.6%	2.5%	18.8%	4.7%	1.7%	.7%	1.6%	60.6%

	각종 도서관 이용현황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마을문고		직장부속도서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8.4%	91.6%	11.7%	88.3%	4.3%	95.7%	6.2%	93.8%
여	6.5%	93.5%	11.0%	89.0%	6.2%	93.8%	2.7%	97.3%
연령별								
10대	15.8%	84.2%	26.3%	73.8%	6.7%	93.3%	.4%	99.6%
20대	12.8%	87.2%	17.6%	82.4%	4.4%	95.6%	5.2%	94.8%
30대	3.7%	96.3%	9.8%	90.2%	7.8%	92.2%	6.8%	93.2%
40대	4.3%	95.7%	4.3%	95.7%	4.6%	95.4%	4.3%	95.7%
50대	3.8%	96.2%	.0%	100.0%	1.6%	98.4%	3.3%	96.7%
60대이상	1.3%	98.7%	1.3%	98.7%	1.9%	98.1%	1.3%	98.7%
학력별								
국졸이하	1.7%	98.3%	3.4%	96.6%	1.7%	98.3%	.0%	100.0%
중졸	5.8%	94.2%	10.8%	89.2%	5.8%	94.2%	1.2%	98.8%
고졸	7.6%	92.4%	11.1%	88.9%	5.1%	94.9%	3.9%	96.1%
대졸	10.8%	89.2%	15.9%	84.1%	7.0%	93.0%	10.8%	89.2%
대원졸이상	22.2%	77.8%	24.4%	75.6%	6.7%	93.3%	17.8%	92.2%
직업별								
사무직	8.3%	91.7%	15.9%	84.1%	3.2%	96.8%	13.5%	86.5%
전문기술직	8.2%	91.8%	14.2%	85.8%	3.0%	97.0%	14.2%	85.8%
행정관리직	3.1%	96.9%	9.4%	90.6%	.0%	100.0%	15.6%	84.4%
판매직	2.6%	97.4%	4.6%	95.4%	7.6%	92.4%	2.3%	97.7%
생산직	3.6%	96.4%	7.2%	92.8%	7.2%	92.8%	5.8%	94.2%
서비스업	4.0%	96.0%	2.4%	97.6%	4.8%	95.2%	1.6%	98.4%
1차산업	.7%	99.3%	2.9%	97.1%	2.1%	97.9%	.0%	100.0%
주부	3.4%	96.6%	5.8%	94.2%	6.8%	93.2%	1.2%	98.8%
학생	21.8%	78.2%	28.6%	71.4%	5.9%	94.1%	.9%	99.1%
정년퇴직	5.1%	94.9%	.0%	100.0%	.0%	100.0%	2.6%	97.4%
기타	8.0%	92.0%	14.9%	85.1%	3.4%	96.6%	5.7%	94.3%
소득수준별								
40이하	6.4%	93.6%	7.8%	92.2%	5.7%	94.3%	.7%	99.3%
41-70	4.0%	96.0%	6.4%	93.6%	3.6%	96.4%	3.6%	96.4%
71-100	5.7%	94.3%	10.5%	89.5%	4.3%	95.7%	5.5%	94.5%
101-150	6.6%	93.4%	11.6%	88.4%	5.0%	95.0%	5.4%	94.6%
151-200	10.6%	89.4%	13.5%	86.5%	5.8%	94.2%	3.4%	96.6%
201-300	11.9%	88.1%	14.9%	85.1%	7.9%	92.1%	6.4%	93.6%
301이상	8.9%	91.1%	16.7%	83.3%	6.7%	93.3%	2.2%	97.8%
도시규모별								
대도시	9.7%	90.3%	11.9%	88.1%	6.5%	93.5%	4.5%	95.5%
중소도시	6.9%	93.1%	12.9%	87.1%	3.8%	96.2%	4.8%	95.2%
읍면지역	3.8%	96.2%	8.9%	91.1%	4.3%	95.7%	4.2%	95.8%
전체	7.5%	92.6%	11.4%	88.7%	5.3%	94.8%	4.5%	95.6%

	각종 도서관 이용현황					
	대학도서관		중고교도서관		사설도서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12.6%	87.4%	6.2%	93.8%	7.2%	92.8%
여	11.5%	88.5%	5.6%	94.4%	5.9%	94.1%
연령별						
10대	15.8%	84.2%	40.0%	60.0%	20.0%	80.0%
20대	30.3%	69.7%	1.9%	98.1%	9.2%	90.8%
30대	5.1%	94.9%	1.2%	98.8%	3.3%	96.7%
40대	3.7%	96.3%	1.2%	98.8%	4.0%	96.0%
50대	2.2%	97.8%	.5%	99.5%	1.6%	98.4%
60대이상	.0%	100.0%	.0%	100.0%	.0%	100.0%
학력별						
국졸이하	.9%	99.1%	5.5%	94.5%	4.3%	95.7%
중졸	2.4%	97.6%	18.6%	81.4%	8.4%	91.6%
고졸	13.4%	88.6%	2.0%	98.0%	6.4%	93.6%
대졸	22.8%	77.2%	2.2%	97.8%	6.2%	93.8%
대원졸이상	42.2%	57.8%	2.2%	97.8%	6.7%	93.3%
직업별						
사무직	13.9%	86.1%	2.4%	97.6%	6.3%	93.7%
전문기술직	19.4%	80.6%	3.0%	97.0%	3.0%	97.0%
행정관리직	9.4%	90.6%	.0%	100.0%	9.4%	90.6%
판매직	2.3%	97.7%	2.3%	97.7%	3.6%	96.4%
생산직	3.6%	96.4%	2.2%	97.8%	3.6%	96.4%
서비스업	1.6%	98.4%	.0%	100.0%	3.2%	96.8%
1차산업	.7%	99.3%	.0%	100.0%	.0%	100.0%
주부	1.7%	98.3%	.2%	99.8%	3.4%	96.6%
학생	41.3%	58.7%	27.7%	72.3%	20.1%	79.9%
정년퇴직	.0%	100.0%	2.6%	97.4%	.0%	100.0%
기타	17.2%	82.8%	2.3%	97.7%	6.9%	93.1%
소득수준별						
40이하	7.1%	92.9%	7.8%	92.2%	1.4%	98.6%
41-70	5.2%	94.8%	4.8%	95.2%	5.2%	94.8%
71-100	7.6%	92.4%	5.7%	94.3%	5.7%	94.3%
101-150	11.6%	88.4%	5.8%	94.2%	7.2%	92.8%
151-200	17.5%	82.5%	6.1%	93.9%	8.7%	91.3%
201-300	20.8%	79.2%	5.4%	94.6%	7.4%	92.6%
301이상	21.1%	78.9%	7.8%	92.2%	7.8%	92.2%
도시규모별						
대도시	13.2%	86.8%	5.7%	94.3%	7.2%	92.8%
중소도시	15.0%	85.0%	5.3%	94.7%	7.5%	92.5%
읍면지역	7.2%	92.8%	6.8%	93.2%	4.5%	95.5%
전체	12.1%	88.0%	5.9%	94.1%	6.6%	93.5%

도서관 이용목적						
	입사취직	도서대출	행사참석	기타	가지않음	무응답
성별						
남	14.9%	16.9%	1.3%	3.6%	60.1%	3.1%
여	11.2%	17.6%	2.0%	2.3%	65.5%	1.5%
연령별						
10대	51.3%	26.7%	.0%	3.8%	15.8%	2.5%
20대	21.8%	23.4%	1.3%	3.1%	49.2%	1.1%
30대	2.8%	18.6%	3.3%	3.1%	69.2%	3.0%
40대	2.1%	11.0%	1.2%	4.0%	79.9%	1.8%
50대	.5%	7.1%	1.6%	1.1%	84.1%	5.5%
60대이상	.0%	1.9%	.0%	.6%	96.8%	.6%
학력별						
국졸이하	8.9%	3.0%	.0%	.9%	84.3%	3.0%
중졸	20.7%	11.3%	.5%	2.4%	63.1%	1.9%
고졸	10.8%	16.7%	1.9%	3.2%	65.0%	2.4%
대졸	13.2%	30.4%	2.7%	3.2%	48.1%	2.4%
대원졸이상	8.9%	48.9%	6.7%	11.1%	24.4%	.0%
직업별						
사무직	10.7%	25.8%	2.8%	4.4%	53.6%	2.8%
전문기술직	9.7%	29.9%	3.7%	8.2%	47.0%	1.5%
행정관리직	6.3%	15.6%	3.1%	.0%	71.9%	3.1%
판매직	2.0%	12.9%	1.3%	2.3%	78.8%	2.6%
생산직	7.2%	9.4%	.7%	4.3%	74.8%	3.6%
서비스업	1.6%	9.6%	1.6%	2.4%	82.4%	2.4%
1차산업	.7%	2.9%	.0%	.7%	94.3%	1.4%
주부	1.5%	10.9%	2.4%	1.2%	81.8%	2.2%
학생	53.7%	31.0%	.0%	3.2%	9.7%	2.4%
정년퇴직	.0%	7.7%	.0%	.0%	92.3%	.0%
기타	13.8%	16.1%	3.4%	4.6%	60.9%	1.1%
소득수준별						
40이하	12.1%	11.3%	.0%	.7%	73.0%	2.8%
41-70	10.0%	10.4%	1.2%	2.4%	74.1%	2.0%
71-100	10.8%	15.3%	1.8%	2.7%	65.7%	3.7%
101-150	13.2%	17.2%	1.4%	3.4%	63.5%	1.4%
151-200	15.6%	21.2%	2.4%	3.7%	55.3%	1.9%
201-300	13.9%	25.7%	2.5%	2.0%	53.5%	2.5%
301이상	21.1%	20.0%	1.1%	5.6%	50.0%	2.2%
도시규모별						
대도시	13.6%	18.5%	1.9%	3.4%	59.8%	2.8%
중소도시	15.4%	17.8%	1.6%	2.6%	61.2%	1.4%
읍면지역	9.8%	14.3%	1.3%	2.5%	69.8%	2.3%
전체	13.1%	17.3%	1.7%	3.0%	62.8%	2.3%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 문학행사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5.1%	1.9%	1.6%	.3%	.6%	90.5%
여	6.7%	2.4%	.6%	.5%	.8%	89.0%
연령별						
10대	12.5%	3.3%	1.7%	1.3%	.4%	80.8%
20대	7.3%	2.1%	1.5%	.4%	1.3%	87.4%
30대	4.4%	2.8%	.7%	.3%	.2%	91.6%
40대	5.2%	1.8%	1.5%	.3%	.9%	90.2%
50대	3.3%	1.1%	.0%	.0%	1.1%	94.5%
60대이상	1.3%	.0%	.6%	.0%	.0%	98.1%
학력별						
국졸이하	2.1%	.4%	.0%	1.3%	.4%	95.7%
중졸	7.7%	2.4%	1.0%	.2%	.2%	88.4%
고졸	5.9%	1.9%	1.2%	.2%	.5%	90.2%
대졸	6.2%	3.5%	1.6%	.5%	1.6%	86.6%
대원졸이상	6.7%	2.2%	2.2%	.0%	2.2%	86.7%
직업별						
사무직	4.4%	2.0%	2.0%	.8%	1.6%	89.3%
전문기술직	8.2%	2.2%	1.5%	.7%	.7%	86.6%
행정관리직	6.3%	6.3%	.0%	.0%	3.1%	84.4%
판매직	3.3%	.7%	1.0%	.0%	.7%	94.4%
생산직	1.4%	3.6%	.7%	.0%	.0%	94.2%
서비스업	3.2%	1.6%	.0%	.0%	.0%	95.2%
1차산업	2.1%	.0%	.0%	.7%	.0%	97.1%
주부	5.1%	2.4%	.2%	.2%	.2%	91.7%
학생	13.6%	3.5%	2.4%	.9%	.9%	78.8%
정년퇴직	.0%	.0%	.0%	.0%	.0%	100.0%
기타	9.2%	2.3%	2.3%	.0%	2.3%	83.9%
소득수준별						
40이하	1.4%	1.4%	.7%	.0%	.0%	96.5%
41-70	3.6%	2.0%	.4%	.0%	.4%	93.6%
71-100	5.0%	2.3%	.5%	1.1%	.7%	90.4%
101-150	7.8%	1.2%	1.2%	.4%	1.2%	88.2%
151-200	7.4%	4.0%	2.6%	.3%	.8%	84.9%
201-300	6.9%	2.0%	.5%	.0%	.5%	90.1%
301이상	4.4%	1.1%	1.1%	.0%	.0%	93.3%
도시규모별						
대도시	5.9%	2.2%	1.1%	.4%	1.0%	89.3%
중소도시	6.1%	2.6%	1.6%	.4%	.2%	89.1%
읍면지역	5.7%	1.7%	.6%	.4%	.6%	91.1%
전체	5.9%	2.2%	1.1%	.4%	.7%	89.8%

문화예술 관람실태 - 미술전시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7.1%	5.5%	1.4%	.2%	1.9%	83.9%
여	11.1%	7.0%	2.3%	.3%	2.1%	77.2%
연령별						
10대	15.8%	9.2%	1.3%	.4%	.8%	72.5%
20대	10.0%	8.8%	2.7%	.2%	2.9%	75.5%
30대	10.1%	5.7%	2.3%	.3%	3.0%	78.6%
40대	6.7%	5.2%	1.5%	.3%	.3%	86.0%
50대	4.9%	3.8%	.5%	.0%	2.2%	88.5%
60대이상	1.9%	.0%	.6%	.0%	.6%	96.8%
학력별						
국졸이하	3.0%	1.7%	.4%	.0%	.0%	94.9%
중졸	8.9%	3.4%	.7%	.2%	.5%	86.3%
고졸	9.4%	6.9%	1.3%	.0%	1.9%	80.5%
대졸	10.5%	10.5%	5.6%	.8%	4.8%	67.7%
대원졸이상	24.4%	8.9%	.0%	2.2%	4.4%	60.0%
직업별						
사무직	9.9%	7.1%	2.4%	.0%	1.6%	79.0%
전문기술직	13.4%	10.4%	4.5%	1.5%	3.7%	66.4%
행정관리직	9.4%	9.4%	6.3%	.0%	.0%	75.0%
판매직	8.3%	3.3%	1.7%	.0%	1.3%	85.4%
생산직	6.5%	3.6%	1.4%	.0%	.0%	88.5%
서비스업	4.0%	8.0%	2.4%	.0%	1.6%	84.0%
1차산업	1.4%	.7%	.0%	.0%	.0%	97.9%
주부	9.0%	3.9%	1.5%	.2%	2.2%	83.2%
학생	15.3%	11.8%	2.1%	.6%	3.5%	66.7%
정년퇴직	2.6%	.0%	.0%	.0%	2.6%	94.9%
기타	5.7%	9.2%	.0%	.0%	3.4%	81.6%
소득수준별						
40이하	2.1%	3.5%	.0%	.0%	1.4%	92.9%
41-70	4.8%	2.4%	.0%	.0%	1.2%	91.6%
71-100	8.2%	4.6%	1.1%	.0%	1.1%	84.9%
101-150	10.0%	7.0%	1.2%	.6%	1.8%	79.4%
151-200	11.9%	9.5%	3.7%	.3%	2.1%	72.5%
201-300	11.9%	6.9%	4.5%	.5%	4.5%	71.8%
301이상	13.3%	10.0%	3.3%	.0%	4.4%	68.9%
도시규모별						
대도시	11.9%	6.8%	2.6%	.4%	2.8%	75.4%
중소도시	6.7%	7.9%	1.4%	.2%	1.6%	82.2%
읍면지역	6.2%	3.6%	.9%	.0%	.9%	88.3%
전체	9.1%	6.3%	1.9%	.3%	2.0%	80.6%

문화예술 관람실태 - 국악공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2.9%	.9%	.3%	.1%	.2%	95.6%
여	3.2%	.9%	.1%	.0%	.2%	95.6%
연령별						
10대	4.2%	.4%	.0%	.0%	.0%	95.4%
20대	3.1%	1.0%	.2%	.0%	.2%	95.6%
30대	3.0%	.2%	.2%	.0%	.2%	96.5%
40대	2.7%	.9%	.3%	.3%	.0%	95.7%
50대	2.2%	2.2%	.0%	.0%	1.1%	94.5%
60대이상	3.2%	2.6%	.6%	.0%	.0%	93.5%
학력별						
국졸이하	3.0%	2.1%	.0%	.0%	.0%	94.9%
중졸	2.2%	.7%	.2%	.0%	.2%	96.6%
고졸	3.3%	.9%	.0%	.0%	.1%	95.7%
대졸	3.8%	.3%	.8%	.3%	.5%	94.4%
대원졸이상	.0%	2.2%	.0%	.0%	.0%	97.8%
직업별						
사무직	4.0%	.8%	.0%	.0%	.0%	95.2%
전문기술직	3.7%	.0%	.0%	.0%	.0%	96.3%
행정관리직	.0%	.0%	.0%	.0%	.0%	100.0%
판매직	1.3%	1.0%	.3%	.3%	.3%	96.7%
생산직	2.9%	.7%	.0%	.0%	.0%	96.4%
서비스업	3.2%	.0%	.0%	0.0%	.0%	96.8%
1차산업	2.9%	3.6%	.0%	0.0%	.0%	93.6%
주부	3.4%	.5%	.2%	0.0%	.2%	95.6%
학생	4.4%	1.2%	.3%	0.0%	.3%	93.8%
정년퇴직	2.6%	.0%	2.6%	0.0%	2.6%	92.3%
기타	.0%	1.1%	.0%	0.0%	.0%	98.9%
소득수준별						
40이하	2.1%	3.5%	.7%	0.0%	.7%	92.9%
41-70	2.4%	1.6%	.0%	0.0%	.0%	96.0%
71-100	3.0%	.0%	.0%	0.0%	.5%	96.6%
101-150	2.8%	.2%	.4%	0.0%	.2%	96.4%
151-200	4.5%	1.1%	.3%	0.3%	.0%	93.9%
201-300	2.0%	1.5%	.0%	0.0%	.0%	96.5%
301이상	4.4%	1.1%	.0%	0.0%	.0%	94.4%
도시규모별						
대도시	3.1%	1.3%	.3%	.1%	.4%	94.7%
중소도시	3.4%	.2%	.0%	.0%	.0%	96.4%
읍면지역	2.6%	.8%	.2%	.0%	.0%	96.4%
전체	3.1%	.9%	.2%	.1%	.2%	95.6%

문화예술 관람실태 - 전통민속공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4.9%	1.5%	.3%	.3%	.1%	92.9%
여	4.9%	.6%	.3%	.3%	.2%	93.7%
연령별						
10대	4.2%	1.3%	.8%	.0%	.0%	93.8%
20대	5.4%	1.0%	.4%	.2%	.6%	92.5%
30대	4.9%	.3%	.0%	.5%	.0%	94.3%
40대	4.3%	1.5%	.3%	.0%	.0%	93.9%
50대	4.4%	1.1%	.5%	.0%	.0%	94.0%
60대이상	6.5%	2.6%	.0%	1.3%	.0%	89.6%
학력별						
국졸이하	5.1%	1.7%	.9%	.9%	.0%	91.5%
중졸	3.9%	.7%	.0%	.0%	.0%	95.4%
고졸	5.1%	1.0%	.2%	.3%	.3%	93.0%
대졸	5.9%	1.3%	.3%	.0%	.0%	92.5%
대원졸이상	.0%	.0%	2.2%	2.2%	.0%	95.6%
직업별						
사무직	9.1%	1.2%	.0%	.0%	.0%	89.7%
전문기술직	7.5%	1.5%	.7%	.7%	.0%	89.6%
행정관리직	.0%	.0%	.0%	.0%	.0%	100.0%
판매직	2.0%	.3%	.0%	.0%	.3%	97.4%
생산직	3.6%	.7%	.0%	.7%	.0%	95.0%
서비스업	5.6%	.8%	.0%	.0%	.0%	93.6%
1차산업	7.1%	3.6%	.0%	2.1%	.0%	87.1%
주부	3.9%	.5%	.2%	.2%	.0%	95.1%
학생	5.0%	1.8%	.9%	.0%	.6%	91.7%
정년퇴직	2.6%	.0%	.0%	.0%	.0%	97.4%
기타	3.4%	.0%	1.1%	.0%	.0%	95.4%
소득수준별						
40이하	5.7%	5.0%	.0%	1.4%	.0%	87.9%
41-70	5.2%	.8%	.4%	.0%	.0%	93.6%
71-100	3.4%	.9%	.0%	.5%	.0%	95.2%
101-150	5.4%	.6%	.4%	.0%	.2%	93.4%
151-200	6.6%	.8%	.3%	.0%	.5%	91.8%
201-300	4.0%	1.0%	.0%	1.0%	.0%	94.1%
301이상	2.2%	.0%	2.2%	.0%	.0%	95.6%
도시규모별						
대도시	4.8%	1.2%	.2%	.3%	.0%	93.5%
중소도시	4.6%	.8%	.4%	.2%	.2%	93.9%
읍면지역	5.5%	.9%	.4%	.4%	.4%	92.5%
전체	4.9%	1.1%	.3%	.3%	.2%	93.3%

문화예술 관람실태 - 양악연주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5.5%	1.6%	.6%	.0%	.5%	91.8%
여	7.6%	3.1%	.6%	.4%	1.1%	87.2%
연령별						
10대	10.4%	2.1%	.4%	.0%	.8%	86.3%
20대	8.4%	2.5%	.8%	.4%	1.1%	86.8%
30대	6.1%	3.3%	.9%	.2%	.7%	88.9%
40대	5.8%	2.1%	.6%	.0%	.6%	90.9%
50대	3.8%	1.6%	.0%	.5%	1.1%	92.9%
60대이상	.6%	.0%	.0%	.0%	.0%	99.4%
학력별						
국졸이하	2.1%	.0%	.0%	.0%	.4%	97.4%
중졸	5.1%	2.5%	.2%	.0%	.2%	92.3%
고졸	6.2%	1.5%	.2%	.0%	.5%	91.5%
대졸	10.5%	5.1%	1.9%	1.1%	2.2%	79.3%
대원졸이상	17.8%	11.1%	4.4%	.0%	2.2%	64.4%
직업별						
사무직	11.1%	3.2%	.8%	.4%	.8%	83.7%
전문기술직	8.2%	5.2%	2.2%	1.5%	4.5%	78.4%
행정관리직	9.4%	3.1%	.0%	.0%	.0%	87.5%
판매직	5.0%	1.3%	.7%	.0%	.3%	92.7%
생산직	3.6%	.7%	.0%	.0%	.0%	95.7%
서비스업	1.6%	2.4%	.0%	.0%	.0%	96.0%
1차산업	.7%	.0%	.0%	.0%	.0%	99.3%
주부	4.6%	2.4%	.2%	.0%	.5%	92.2%
학생	12.7%	2.9%	1.2%	.0%	1.2%	82.0%
정년퇴직	.0%	.0%	.0%	.0%	.0%	100.0%
기타	4.6%	3.4%	.0%	1.1%	1.1%	89.7%
소득수준별						
40이하	2.1%	.7%	.0%	.0%	.0%	97.2%
41-70	4.0%	.0%	.0%	.0%	.4%	95.6%
71-100	5.7%	1.8%	.0%	.0%	.5%	92.0%
101-150	5.6%	1.2%	1.2%	.2%	.8%	91.0%
151-200	8.5%	5.0%	.3%	.3%	1.3%	84.7%
201-300	11.9%	4.5%	1.0%	.5%	.5%	81.7%
301이상	10.0%	4.4%	3.3%	1.1%	3.3%	77.8%
도시규모별						
대도시	8.7%	3.6%	.8%	.3%	.9%	85.6%
중소도시	5.7%	2.0%	.6%	.0%	.8%	90.9%
읍면지역	3.4%	.4%	.2%	.2%	.6%	95.3%
전체	6.6%	2.4%	.6%	.2%	.8%	89.5%

문화예술 관람실태 - 연극공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7.9%	4.3%	2.3%	.8%	.9%	83.8%
여	9.8%	6.1%	2.3%	1.1%	2.1%	78.6%
연령별						
10대	15.4%	5.8%	3.3%	2.1%	.8%	72.5%
20대	12.8%	9.6%	4.2%	1.0%	3.1%	69.3%
30대	8.7%	4.9%	2.3%	1.4%	1.7%	81.0%
40대	4.6%	3.4%	.3%	.3%	.6%	90.9%
50대	3.8%	.5%	1.1%	.0%	.0%	94.5%
60대이상	.6%	.0%	.0%	.0%	.0%	99.4%
학력별						
국졸이하	1.7%	.4%	.4%	.4%	.4%	96.6%
중졸	8.2%	2.4%	1.0%	.5%	.7%	87.2%
고졸	9.2%	6.3%	2.8%	.9%	1.4%	79.4%
대졸	13.7%	8.1%	3.0%	1.9%	3.2%	70.2%
대원졸이상	4.4%	8.9%	8.9%	2.2%	2.2%	73.3%
직업별						
사무직	14.3%	7.1%	2.8%	1.6%	2.0%	72.2%
전문기술직	7.5%	6.7%	2.2%	1.5%	5.2%	76.9%
행정관리직	3.1%	9.4%	.0%	3.1%	.0%	84.4%
판매직	5.6%	5.3%	2.3%	.3%	.3%	86.1%
생산직	7.9%	4.3%	.7%	.0%	.0%	87.1%
서비스업	8.8%	3.2%	2.4%	.0%	2.4%	83.2%
1차산업	1.4%	.7%	.0%	.0%	.0%	97.9%
주부	7.1%	3.9%	.7%	1.0%	1.2%	86.1%
학생	14.5%	8.0%	6.2%	1.8%	2.7%	67.0%
정년퇴직	.0%	.0%	.0%	.0%	.0%	100.0%
기타	12.6%	4.6%	1.1%	1.1%	.0%	80.5%
소득수준별						
40이하	6.4%	.7%	2.1%	.7%	.7%	89.4%
41-70	7.2%	3.6%	1.2%	1.2%	.0%	86.9%
71-100	7.6%	3.7%	1.1%	.5%	.7%	86.5%
101-150	9.0%	7.6%	2.2%	.6%	1.8%	78.8%
151-200	10.1%	5.8%	3.7%	1.6%	2.9%	75.9%
201-300	12.9%	6.4%	3.0%	1.5%	2.0%	74.3%
301이상	8.9%	5.6%	4.4%	1.1%	2.2%	77.8%
도시규모별						
대도시	9.7%	6.3%	2.8%	1.1%	2.1%	77.9%
중소도시	10.7%	5.1%	2.8%	1.2%	1.2%	79.0%
읍면지역	5.5%	3.2%	.9%	.4%	.8%	89.2%
전체	8.9%	5.2%	2.3%	1.0%	1.5%	81.2%

문화예술 관람실태 - 무용공연

	1번	2번	3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1.4%	.7%	.1%	.1%	97.7%
여	3.2%	.6%	.3%	.1%	95.8%
연령별					
10대	5.8%	1.3%	.4%	.8%	91.7%
20대	2.1%	1.0%	.0%	.0%	96.9%
30대	2.8%	.5%	.3%	.0%	96.3%
40대	.9%	.6%	.3%	.0%	98.2%
50대	1.1%	.0%	.0%	.0%	98.9%
60대이상	.0%	.0%	.0%	.0%	100.0%
학력별					
국졸이하	2.1%	.4%	.0%	.4%	97.0%
중졸	1.9%	.2%	.0%	.2%	97.6%
고졸	1.6%	.8%	.3%	.0%	97.3%
대졸	4.3%	.8%	.3%	.0%	94.6%
대원졸이상	4.4%	2.2%	.0%	.0%	93.3%
직업별					
사무직	2.8%	1.6%	.0%	.0%	95.6%
전문기술직	5.2%	.7%	.0%	.0%	94.0%
행정관리직	.0%	.0%	.0%	.0%	100.0%
판매직	.7%	.0%	.0%	.0%	99.3%
생산직	.0%	.0%	.7%	.0%	99.3%
서비스업	2.4%	.8%	.8%	.0%	96.0%
1차산업	.0%	.0%	.0%	.0%	100.0%
주부	2.2%	.2%	.5%	.0%	97.1%
학생	5.0%	1.8%	.0%	.6%	92.6%
정년퇴직	.0%	.0%	.0%	.0%	100.0%
기타	1.1%	.0%	.0%	.0%	98.9%
소득수준별					
40이하	.7%	.0%	.7%	.0%	98.6%
41-70	.8%	.4%	.0%	.0%	98.8%
71-100	2.7%	.7%	.2%	.0%	96.3%
101-150	2.0%	1.0%	.0%	.2%	96.8%
151-200	3.4%	.5%	.3%	.0%	95.8%
201-300	1.5%	.0%	.5%	.0%	98.0%
301이상	5.6%	2.2%	.0%	1.1%	91.1%
도시규모별					
대도시	2.9%	1.0%	.1%	.1%	95.9%
중소도시	2.8%	.4%	.6%	.0%	96.2%
읍면지역	.8%	.2%	.0%	.2%	98.9%
전체	2.3%	.7%	.2%	.1%	96.8%

문화예술 관람실태 - 연예, 쇼 공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6.8%	2.6%	.7%	.2%	.9%	88.8%
여	7.3%	2.2%	1.0%	.0%	.9%	88.6%
연령별						
10대	12.1%	5.4%	2.5%	.0%	3.3%	76.7%
20대	9.6%	2.7%	1.3%	.2%	.8%	85.4%
30대	7.1%	2.3%	.3%	.0%	.9%	89.4%
40대	3.0%	1.8%	.3%	.3%	.3%	94.2%
50대	3.3%	1.1%	.5%	.0%	.0%	95.1%
60대이상	3.2%	.0%	.0%	.0%	.0%	96.8%
학력별						
국졸이하	2.6%	1.3%	.4%	.0%	.9%	94.9%
중졸	7.5%	2.7%	1.7%	.0%	1.0%	87.2%
고졸	7.8%	3.1%	.8%	.2%	1.1%	87.0%
대졸	7.8%	1.3%	.5%	.0%	.5%	89.8%
대원졸이상	4.4%	.0%	.0%	.0%	.0%	95.6%
직업별						
사무직	9.5%	1.6%	.8%	.0%	.8%	87.9%
전문기술직	6.7%	.7%	.0%	.0%	1.5%	91.0%
행정관리직	9.4%	3.1%	.0%	.0%	.0%	87.5%
판매직	6.0%	3.6%	.3%	.3%	1.0%	88.7%
생산직	6.5%	1.4%	.0%	.7%	.0%	91.4%
서비스업	7.2%	4.0%	1.6%	.0%	.0%	87.2%
1차산업	2.9%	.0%	.0%	.0%	.7%	96.4%
주부	4.9%	1.0%	.5%	.0%	.0%	93.7%
학생	12.4%	5.3%	2.7%	.0%	2.7%	77.0%
정년퇴직	.0%	.0%	2.6%	.0%	.0%	97.4%
기타	3.4%	2.3%	.0%	.0%	1.1%	93.1%
소득수준별						
40이하	6.4%	1.4%	1.4%	.0%	.7%	90.1%
41-70	5.6%	1.2%	1.2%	.0%	.4%	91.6%
71-100	8.0%	1.8%	.2%	.2%	1.1%	88.6%
101-150	6.6%	3.2%	.4%	.2%	1.2%	88.4%
151-200	6.6%	3.4%	1.3%	.0%	.5%	88.1%
201-300	8.4%	2.5%	.5%	.0%	.5%	88.1%
301이상	8.9%	1.1%	3.3%	.0%	2.2%	84.4%
도시규모별						
대도시	7.6%	2.1%	1.1%	.0%	1.0%	88.2%
중소도시	7.5%	3.4%	.8%	.2%	.4%	87.7%
읍면지역	5.7%	2.1%	.4%	.2%	1.1%	90.6%
전체	7.1%	2.4%	.9%	.1%	.9%	88.7%

문화예술 관람실태 - 영화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하	11년이상	없다
성별								
남	8.2%	9.0%	6.6%	3.8%	5.9%	7.9%	3.9%	54.6%
여	8.8%	9.0%	6.5%	3.2%	4.9%	7.4%	4.3%	56.0%
연령별								
10대	12.9%	12.1%	11.7%	6.3%	6.7%	11.7%	7.1%	31.7%
20대	6.5%	8.4%	8.6%	5.6%	11.1%	18.2%	10.3%	31.2%
30대	8.7%	12.0%	7.0%	3.1%	4.2%	4.2%	1.4%	59.4%
40대	11.3%	7.9%	2.7%	2.1%	2.1%	1.2%	.6%	72.0%
50대	7.1%	5.5%	4.4%	.5%	1.1%	1.1%	.5%	79.7%
60대이상	3.2%	1.3%	.6%	.0%	.6%	.0%	.0%	94.2%
학력별								
국졸이하	4.7%	2.1%	1.7%	1.3%	.9%	.9%	.9%	87.7%
중졸	9.9%	7.2%	5.8%	2.4%	2.7%	4.3%	2.9%	64.8%
고졸	7.8%	10.8%	7.0%	4.1%	6.8%	9.0%	4.9%	49.6%
대졸	11.0%	10.8%	9.4%	4.0%	7.3%	12.1%	5.6%	39.8%
대원졸이상	8.9%	8.9%	6.7%	8.9%	11.1%	8.9%	2.2%	44.4%
직업별								
사무직	5.6%	7.9%	8.7%	6.7%	7.5%	14.7%	5.6%	43.3%
전문기술직	9.7%	11.9%	9.0%	4.5%	6.0%	8.2%	3.0%	47.8%
행정관리직	12.5%	6.3%	6.3%	.0%	6.3%	6.3%	12.5%	50.0%
판매직	8.9%	9.3%	5.3%	4.3%	3.6%	3.6%	1.3%	63.6%
생산직	7.9%	15.8%	5.0%	4.3%	4.3%	5.8%	2.9%	54.0%
서비스업	11.2%	9.6%	8.8%	.8%	2.4%	1.6%	5.6%	60.0%
1차산업	7.1%	3.6%	1.4%	.0%	2.1%	1.4%	.0%	84.3%
주부	10.2%	8.8%	4.4%	1.7%	2.7%	2.2%	.5%	69.6%
학생	9.4%	9.7%	10.0%	5.3%	11.2%	18.0%	11.2%	25.1%
정년퇴직	.0%	5.1%	.0%	.0%	.0%	.0%	.0%	94.9%
기타	3.4%	4.6%	8.0%	2.3%	8.0%	11.5%	5.7%	56.3%
소득수준별								
40이하	3.5%	3.5%	5.0%	2.1%	5.0%	6.4%	2.8%	71.6%
41-70	5.2%	6.0%	2.4%	4.0%	4.4%	4.8%	3.2%	70.1%
71-100	7.3%	9.6%	6.6%	4.6%	3.2%	4.6%	4.3%	59.7%
101-150	10.6%	10.2%	7.0%	3.0%	6.6%	8.0%	2.6%	52.1%
151-200	10.3%	9.5%	6.9%	3.2%	6.9%	11.9%	4.0%	47.4%
201-300	10.4%	8.9%	11.4%	4.0%	6.4%	9.9%	7.9%	41.1%
301이상	7.8%	14.4%	5.6%	2.2%	4.4%	7.8%	7.8%	50.0%
도시규모별								
대도시	9.5%	10.1%	8.2%	4.4%	6.0%	8.7%	4.2%	48.9%
중소도시	8.5%	8.7%	5.0%	3.2%	5.9%	7.7%	5.0%	56.0%
읍면지역	6.6%	7.4%	5.1%	2.3%	3.8%	5.7%	3.0%	66.2%
전체	8.5%	9.0%	6.6%	3.5%	5.4%	7.7%	4.1%	55.3%

문화예술 관람실태 - 박물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13.9%	6.2%	2.0%	.9%	.8%	76.2%
여	13.3%	5.9%	2.1%	.4%	1.3%	77.0%
연령별						
10대	20.4%	9.6%	2.9%	1.7%	2.1%	63.3%
20대	13.0%	6.1%	2.5%	.6%	1.0%	76.8%
30대	13.4%	7.5%	2.8%	.7%	1.6%	74.0%
40대	14.9%	4.3%	.6%	.6%	.3%	79.3%
50대	9.3%	3.8%	1.1%	.0%	.5%	85.2%
60대이상	7.8%	1.3%	.6%	.0%	.0%	90.3%
학력별						
국졸이하	9.4%	2.1%	.9%	.4%	.9%	86.4%
중졸	14.7%	6.0%	1.7%	1.0%	.5%	76.1%
고졸	13.8%	5.1%	1.5%	.2%	.6%	78.7%
대졸	14.0%	10.8%	4.3%	.8%	3.0%	67.2%
대원졸이상	17.8%	6.7%	4.4%	6.7%	.0%	64.4%
직업별						
사무직	14.7%	6.3%	2.8%	.0%	.8%	75.4%
전문기술직	14.9%	6.0%	3.7%	2.2%	.0%	73.1%
행정관리직	18.8%	.0%	6.3%	3.1%	3.1%	68.8%
판매직	13.9%	6.0%	2.0%	.3%	.3%	77.5%
생산직	12.2%	4.3%	.7%	1.4%	.7%	80.6%
서비스업	13.6%	4.0%	.8%	.8%	.8%	80.0%
1차산업	5.0%	2.1%	.0%	.0%	.0%	92.9%
주부	11.4%	4.4%	1.5%	.5%	1.0%	81.3%
학생	18.0%	10.6%	3.2%	.9%	2.4%	64.9%
정년퇴직	17.9%	.0%	5.1%	.0%	.0%	76.9%
기타	12.6%	12.6%	.0%	.0%	3.4%	71.3%
소득수준별						
40이하	6.4%	5.0%	.0%	.0%	.0%	88.7%
41-70	10.8%	1.6%	1.6%	.8%	.4%	84.9%
71-100	14.4%	6.9%	2.3%	.7%	.5%	75.3%
101-150	16.2%	5.6%	1.8%	.2%	1.2%	75.0%
151-200	16.9%	6.6%	1.6%	1.3%	1.9%	71.7%
201-300	10.4%	9.4%	4.0%	1.0%	1.0%	74.3%
301이상	7.8%	8.9%	4.4%	.0%	3.3%	75.6%
도시규모별						
대도시	15.0%	8.0%	2.5%	.6%	1.0%	72.8%
중소도시	14.5%	4.4%	2.6%	1.0%	1.8%	75.8%
읍면지역	10.2%	4.2%	.8%	.4%	.4%	84.2%
전체	13.6%	6.1%	2.1%	.7%	1.1%	76.6%

문화예술 관람실태 - 고궁 및 사적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상	없다
성별						
남	15.4%	12.4%	5.0%	1.1%	4.2%	61.8%
여	15.9%	11.2%	5.9%	2.1%	2.8%	62.2%
연령별						
10대	24.2%	7.9%	2.9%	2.5%	2.9%	59.6%
20대	15.5%	12.5%	4.8%	1.1%	3.6%	62.5%
30대	15.5%	12.0%	8.2%	1.9%	4.7%	57.7%
40대	14.0%	15.2%	4.6%	1.5%	3.4%	61.3%
50대	13.7%	8.2%	3.3%	1.6%	2.2%	70.9%
60대이상	9.1%	11.7%	5.8%	.6%	1.3%	71.4%
학력별						
국졸이하	13.6%	6.4%	4.3%	1.7%	1.7%	72.3%
중졸	18.8%	9.4%	2.4%	1.4%	2.7%	65.3%
고졸	14.8%	12.4%	6.0%	1.6%	3.4%	61.7%
대졸	15.9%	15.3%	8.3%	1.9%	5.4%	53.2%
대원졸이상	13.3%	20.0%	4.4%	.0%	6.7%	55.6%
직업별						
사무직	16.3%	12.7%	6.3%	.8%	4.8%	59.1%
전문기술직	15.7%	20.9%	7.5%	.0%	3.7%	52.2%
행정관리직	6.3%	25.0%	6.3%	3.1%	3.1%	56.3%
판매직	14.9%	13.2%	4.6%	1.7%	4.3%	61.3%
생산직	13.7%	3.6%	7.9%	1.4%	5.8%	67.6%
서비스업	14.4%	13.6%	4.8%	.8%	3.2%	63.2%
1차산업	10.7%	6.4%	2.1%	1.4%	.7%	78.6%
주부	14.8%	10.9%	5.4%	2.2%	1.9%	64.7%
학생	22.4%	10.9%	4.4%	2.9%	3.8%	55.5%
정년퇴직	12.8%	12.8%	7.7%	.0%	7.7%	59.0%
기타	11.5%	11.5%	8.0%	.0%	2.3%	66.7%
소득수준별						
40이하	15.6%	6.4%	3.5%	1.4%	1.4%	71.6%
41-70	10.8%	7.6%	1.2%	.8%	3.6%	76.1%
71-100	17.8%	11.7%	5.3%	1.6%	2.3%	61.3%
101-150	17.0%	12.6%	6.4%	1.8%	3.8%	58.5%
151-200	16.4%	15.1%	7.4%	2.1%	4.2%	54.8%
201-300	11.4%	15.8%	7.4%	1.5%	4.0%	59.9%
301이상	17.8%	5.6%	3.3%	1.1%	6.7%	65.6%
도시규모별						
대도시	17.9%	13.8%	5.9%	1.6%	3.4%	57.4%
중소도시	11.3%	11.7%	5.1%	1.8%	3.8%	66.3%
읍면지역	15.7%	8.3%	4.9%	1.5%	3.4%	66.2%
전체	15.7%	11.8%	5.5%	1.6%	3.5%	62.0%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											
	비용지출	공연적다	거리가 멀	표구입	여가시간	마음의 여유	동행자	내용난해	공연정보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성별												
남	9.4%	6.2%	17.9%	.9%	36.4%	8.8%	1.1%	1.5%	3.5%	11.0%	1.4%	1.8%
여	14.8%	4.3%	22.3%	1.0%	30.0%	10.8%	1.5%	.9%	3.4%	7.6%	2.0%	1.5%
연령별												
10대	17.1%	7.5%	25.0%	.8%	23.8%	6.7%	2.5%	2.5%	3.3%	8.3%	.8%	1.7%
20대	15.9%	8.0%	23.2%	1.3%	27.6%	8.6%	1.1%	1.0%	5.2%	5.2%	1.5%	1.3%
30대	9.2%	4.2%	22.0%	.9%	36.9%	12.9%	.7%	.3%	2.8%	6.8%	2.3%	1.0%
40대	9.5%	4.0%	17.7%	1.2%	41.2%	10.7%	.3%	.9%	1.8%	9.5%	.6%	2.7%
50대	11.0%	2.2%	11.5%	.5%	40.7%	9.3%	1.1%	2.2%	3.3%	13.2%	1.6%	3.3%
60대 이상	9.1%	2.6%	10.4%	.0%	27.3%	5.8%	4.5%	2.6%	3.9%	29.2%	3.9%	.6%
학력별												
국졸이하	11.9%	1.7%	14.0%	1.7%	32.8%	7.7%	3.8%	2.6%	2.6%	17.9%	2.1%	1.3%
중졸	11.3%	3.6%	21.0%	.7%	32.3%	8.9%	1.2%	2.4%	2.7%	11.8%	1.7%	2.4%
고졸	11.6%	5.7%	22.6%	.8%	31.4%	11.5%	1.0%	.8%	3.6%	8.5%	1.4%	1.3%
대졸	14.2%	7.5%	18.0%	1.1%	38.2%	7.8%	.8%	.3%	4.6%	3.5%	2.4%	1.6%
대원졸 이상	13.3%	11.1%	8.9%	2.2%	40.0%	11.1%	.0%	.0%	2.2%	6.7%	.0%	4.4%
직업별												
사무직	14.7%	6.0%	22.2%	.8%	34.5%	7.1%	1.2%	.8%	4.0%	6.7%	.4%	1.6%
전문기술직	10.4%	6.7%	13.4%	1.5%	52.2%	6.7%	.7%	.7%	1.5%	4.5%	.0%	1.5%
행정관리직	3.1%	3.1%	15.6%	.0%	31.3%	18.8%	3.1%	.0%	12.5%	3.1%	3.1%	6.3%
판매직	6.3%	4.6%	19.5%	.3%	48.0%	8.9%	.3%	.7%	2.3%	7.3%	1.0%	.7%
생산직	6.5%	3.6%	17.3%	.7%	39.6%	9.4%	.7%	.7%	3.6%	11.5%	2.9%	3.6%
서비스업	8.0%	3.2%	20.0%	1.6%	34.4%	14.4%	.8%	.8%	2.4%	10.4%	1.6%	2.4%
1차산업	7.1%	1.4%	20.7%	1.4%	38.6%	7.1%	.0%	2.1%	5.0%	15.0%	.7%	.7%
주부	14.6%	2.4%	21.7%	1.2%	22.6%	14.6%	1.9%	1.0%	2.9%	10.9%	3.9%	2.2%
학생	20.6%	10.3%	21.2%	1.2%	23.3%	7.1%	1.8%	2.1%	4.1%	6.5%	.3%	1.5%
정년퇴직	12.8%	5.1%	10.3%	.0%	15.4%	10.3%	7.7%	2.6%	5.1%	25.6%	5.1%	.0%
기타	8.0%	9.2%	24.1%	.0%	25.3%	8.0%	1.1%	2.3%	3.4%	14.9%	3.4%	.0%
소득수준별												
40이하	14.2%	4.3%	23.4%	.7%	30.5%	3.5%	.7%	2.8%	3.5%	15.6%	.7%	.0%
41-70	12.7%	4.8%	20.7%	1.2%	28.3%	7.6%	2.8%	1.2%	3.2%	13.1%	2.8%	1.6%
71-100	12.4%	4.1%	19.9%	1.1%	29.7%	11.7%	1.8%	1.1%	3.7%	11.2%	.9%	2.3%
101-150	11.8%	6.6%	23.0%	.4%	31.9%	11.8%	1.0%	1.0%	3.0%	7.0%	1.8%	.8%
151-200	12.4%	6.6%	17.5%	.5%	37.8%	9.8%	.5%	1.3%	3.4%	6.3%	2.1%	1.6%
201-300	11.4%	4.0%	17.3%	2.5%	38.1%	7.9%	1.0%	.5%	3.5%	8.9%	2.0%	3.0%
301이상	7.8%	3.3%	15.6%	1.1%	44.4%	10.0%	1.1%	1.1%	5.6%	5.6%	1.1%	3.3%
도시규모별												
대도시	13.7%	5.8%	11.6%	1.3%	37.8%	10.3%	1.8%	1.1%	3.1%	9.3%	2.1%	2.1%
중소도시	13.1%	6.5%	18.8%	.6%	31.5%	11.9%	.8%	1.2%	4.2%	8.7%	1.2%	1.6%
읍면지역	8.3%	3.0%	36.8%	.6%	26.4%	7.0%	.9%	1.3%	3.4%	9.8%	1.5%	.9%
전체	12.1%	5.3%	20.1%	1.0%	33.2%	9.8%	1.3%	1.2%	3.5%	9.3%	1.7%	1.7%

문화행사에 관한 정보원								
	일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지방문화원	주위사람	교육기관	포스터
성별								
남	34.8%	27.8%	2.2%	1.8%	.9%	5.5%	.9%	10.7%
여	25.2%	34.7%	2.9%	1.7%	.4%	7.8%	.7%	10.5%
연령별								
10대	16.7%	35.8%	3.8%	4.6%	.0%	11.7%	4.2%	15.4%
20대	35.6%	24.7%	3.4%	2.5%	.2%	7.1%	.4%	17.2%
30대	39.9%	30.8%	2.3%	1.6%	.9%	3.3%	.2%	9.4%
40대	27.7%	36.9%	2.1%	.3%	1.2%	6.1%	.6%	7.3%
50대	21.4%	35.7%	.5%	.5%	.5%	7.1%	.0%	3.3%
60대이상	9.7%	30.5%	1.9%	.0%	1.3%	10.4%	.6%	.6%
학력별								
국졸이하	4.7%	41.7%	1.3%	.4%	.0%	11.5%	1.7%	2.6%
중졸	17.1%	36.9%	2.9%	1.9%	.2%	8.2%	1.9%	10.6%
고졸	31.8%	31.7%	3.1%	1.9%	.6%	5.6%	.2%	12.6%
대졸	53.5%	18.8%	1.3%	2.2%	1.3%	4.6%	.3%	11.0%
대원졸이상	48.9%	17.8%	4.4%	.0%	2.2%	6.7%	2.2%	6.7%
직업별								
사무직	42.9%	23.0%	1.6%	1.6%	1.2%	7.1%	.0%	10.3%
전문기술직	50.7%	19.4%	3.7%	2.2%	2.2%	2.2%	.7%	10.4%
행정관리직	53.1%	18.8%	3.1%	.0%	3.1%	3.1%	.0%	12.5%
판매직	35.4%	31.5%	2.6%	.7%	1.0%	6.6%	.0%	7.6%
생산직	25.2%	33.8%	4.3%	2.9%	.0%	4.3%	.7%	15.8%
서비스업	28.8%	28.0%	3.2%	4.0%	.0%	4.8%	.0%	11.2%
1차산업	11.4%	43.6%	.7%	.0%	.7%	4.3%	.0%	2.9%
주부	23.8%	41.1%	1.9%	.7%	.2%	5.4%	.7%	5.6%
학생	24.5%	26.0%	2.7%	3.2%	.0%	12.7%	3.2%	20.9%
정년퇴직	10.3%	30.8%	5.1%	.0%	.0%	15.4%	.0%	2.6%
기타	32.2%	32.2%	3.4%	3.4%	1.1%	2.3%	.0%	11.5%
소득수준별								
40이하	17.0%	36.2%	1.4%	2.1%	.7%	8.5%	.0%	6.4%
41-70	17.9%	35.5%	4.0%	2.0%	.4%	7.6%	1.2%	6.0%
71-100	26.5%	34.1%	3.4%	1.6%	.2%	6.4%	1.4%	10.1%
101-150	33.9%	31.9%	2.6%	1.0%	.6%	5.8%	.4%	12.0%
151-200	37.0%	26.7%	1.3%	1.9%	1.1%	7.1%	.5%	12.2%
201-300	37.1%	27.2%	2.0%	2.5%	.5%	5.4%	1.5%	12.4%
301이상	33.3%	22.2%	2.2%	3.3%	2.2%	7.8%	.0%	14.4%
도시규모별								
대도시	34.9%	30.5%	2.7%	2.0%	.3%	6.0%	.8%	8.5%
중소도시	29.5%	30.1%	3.2%	1.8%	1.2%	5.5%	1.2%	15.0%
읍면지역	21.5%	33.8%	1.7%	1.3%	.8%	8.9%	.4%	10.2%
전체	30.0%	31.3%	2.6%	1.8%	.7%	6.7%	.8%	10.6%

(continued)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원

	지역신문	확성기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성별					
남	.7%	.2%	.4%	12.3%	1.8%
여	2.3%	.4%	1.0%	9.9%	2.5%
연령별					
10대	.0%	.0%	.4%	6.3%	1.3%
20대	1.9%	.4%	.8%	3.4%	2.3%
30대	2.6%	.0%	.5%	7.0%	1.6%
40대	.9%	.0%	.9%	13.1%	2.7%
50대	.5%	.5%	.5%	24.7%	4.4%
60대이상	.6%	1.9%	1.3%	39.6%	1.3%
학력별					
국졸이하	.0%	1.3%	.9%	31.9%	2.1%
중졸	.5%	.2%	1.0%	16.6%	1.9%
고졸	2.3%	.2%	.6%	7.6%	1.6%
대졸	1.3%	.0%	.3%	1.6%	3.8%
대원졸이상	4.4%	.0%	2.2%	2.2%	2.2%
직업별					
사무직	.8%	.4%	.8%	7.1%	3.2%
전문기술직	1.5%	.0%	1.5%	2.2%	3.0%
행정관리직	.0%	.0%	.0%	3.1%	3.1%
판매직	2.6%	.0%	2.0%	8.6%	1.3%
생산직	1.4%	.0%	.0%	10.1%	1.4%
서비스업	.8%	.8%	.8%	16.0%	1.6%
1차산업	.0%	1.4%	.0%	34.3%	.7%
주부	2.9%	.2%	.5%	13.4%	3.4%
학생	.3%	.0%	.3%	4.1%	2.1%
정년퇴직	.0%	2.6%	.0%	33.3%	.0%
기타	2.3%	.0%	.0%	11.5%	.0%
소득수준별					
40이하	2.1%	1.4%	.0%	24.1%	.0%
41-70	.8%	.4%	.8%	21.9%	1.6%
71-100	.9%	.5%	.9%	11.2%	2.7%
101-150	2.0%	.2%	.8%	8.0%	.8%
151-200	1.9%	.0%	.3%	6.9%	3.2%
201-300	1.0%	.0%	1.0%	6.4%	3.0%
301이상	2.2%	.0%	1.1%	5.6%	5.6%
도시규모별					
대도시	.8%	.1%	.8%	8.9%	3.6%
중소도시	1.6%	.6%	.6%	8.7%	1.0%
읍면지역	2.6%	.4%	.6%	17.4%	.6%
전체	1.5%	.3%	.7%	11.1%	2.2%

	휴일 여가활동								
	여행	산책	운동	스포츠관람	낚시	독서	문화감상	문화참여	생활문화
성별									
남	2.5%	9.0%	17.2%	5.1%	10.3%	4.4%	4.6%	.3%	1.6%
여	4.2%	17.0%	8.0%	1.1%	2.9%	5.2%	5.4%	.6%	1.2%
연령별									
10대	.4%	8.3%	12.5%	5.0%	2.9%	7.5%	12.9%	.8%	.4%
20대	3.8%	12.5%	10.5%	4.8%	5.7%	8.4%	7.7%	.6%	.8%
30대	4.7%	17.1%	12.5%	2.8%	9.2%	3.5%	3.0%	.3%	1.6%
40대	2.4%	12.5%	15.9%	2.1%	7.9%	4.0%	2.1%	.3%	1.8%
50대	3.8%	10.4%	16.5%	1.1%	6.0%	.0%	2.2%	.0%	2.7%
60대이상	2.6%	11.0%	8.4%	.0%	3.2%	.6%	.6%	.6%	1.9%
학력별									
국졸이하	1.3%	6.4%	7.2%	1.7%	2.6%	1.3%	.9%	.4%	1.7%
중졸	.7%	12.0%	12.8%	2.4%	5.3%	3.9%	5.8%	.0%	1.4%
고졸	3.9%	13.7%	10.6%	3.5%	8.8%	5.5%	5.6%	.8%	1.1%
대졸	5.6%	15.9%	20.2%	4.0%	5.6%	6.5%	5.1%	.0%	1.9%
대원졸이상	8.9%	17.8%	17.8%	.0%	2.2%	4.4%	6.7%	2.2%	2.2%
직업별									
사무직	2.0%	13.1%	18.3%	.63%	6.3%	6.0%	5.6%	.0%	.8%
전문기술직	7.5%	13.4%	20.1%	.7%	9.7%	4.5%	4.5%	.7%	2.2%
행정관리직	3.1%	12.5%	18.8%	6.3%	9.4%	3.1%	3.1%	.0%	6.3%
판매직	4.3%	11.6%	11.9%	3.6%	12.3%	1.3%	4.0%	.7%	1.7%
생산직	.7%	12.9%	15.8%	4.3%	14.4%	7.8%	2.9%	.0%	.7%
서비스업	4.8%	18.4%	10.4%	3.2%	3.2%	1.6%	3.2%	.0%	1.6%
1차산업	3.6%	5.0%	2.1%	.0%	7.9%	.7%	3.6%	.0%	1.4%
주부	3.6%	20.4%	10.0%	.2%	3.6%	3.4%	2.4%	.5%	1.9%
학생	1.8%	5.6%	12.4%	4.4%	2.4%	10.0%	11.8%	1.2%	.3%
정년퇴직	.0%	23.1%	7.7%	.0%	5.1%	2.6%	.0%	.0%	2.6%
기타	5.7%	11.5%	14.9%	6.9%	3.4%	9.2%	4.6%	.0%	1.1%
소득수준별									
40이하	2.8%	12.1%	9.2%	4.3%	2.1%	2.1%	2.8%	.0%	1.4%
41-70	1.2%	13.5%	11.6%	2.8%	4.0%	2.8%	2.0%	.4%	.4%
71-100	2.7%	11.9%	11.0%	3.2%	9.4%	4.6%	4.6%	.2%	1.1%
101-150	4.2%	14.6%	11.8%	3.2%	7.8%	4.2%	5.6%	.2%	1.8%
151-200	3.7%	13.0%	15.1%	1.6%	5.8%	7.1%	6.6%	1.1%	1.9%
201-300	4.0%	12.9%	15.3%	5.0%	5.0%	7.4%	6.9%	1.0%	1.0%
301이상	5.6%	10.0%	16.7%	3.3%	7.8%	3.3%	4.4%	.0%	2.2%
도시규모별									
대도시	3.9%	13.8%	13.3%	3.7%	5.2%	5.5%	5.5%	.2%	1.2%
중소도시	3.8%	16.4%	13.1%	3.4%	7.9%	4.2%	4.4%	.4%	1.8%
읍면지역	1.9%	8.3%	10.9%	1.7%	7.9%	4.2%	4.7%	.9%	1.3%
전체	3.4%	13.0%	12.6%	3.1%	6.6%	4.8%	5.0%	.5%	1.4%

(continued)

	휴일여가활동				
	과외학습	휴식	기타	여가시간없다	무응답
성별					
남	.8%	34.4%	3.6%	4.9%	1.2%
여	1.4%	39.7%	5.2%	6.8%	1.4%
연령별					
10대	4.2%	36.7%	5.4%	1.3%	1.7%
20대	1.9%	34.7%	5.0%	2.7%	1.0%
30대	.3%	32.6%	4.4%	6.6%	1.4%
40대	.0%	36.3%	3.4%	9.5%	1.8%
50대	.0%	40.1%	3.3%	12.1%	1.6%
60대이상	.0%	60.4%	4.5%	5.8%	.0%
학력별					
국졸이하	.4%	59.1%	3.0%	14.0%	.0%
중졸	2.2%	38.3%	6.0%	7.7%	1.4%
고졸	1.0%	36.3%	3.5%	4.7%	1.1%
대졸	.8%	24.5%	5.9%	1.6%	2.4%
대원졸이상	.0%	28.9%	2.2%	4.4%	2.2%
직업별					
사무직	.8%	32.5%	3.6%	2.4%	2.4%
전문기술직	.7%	26.1%	6.0%	3.0%	.7%
행정관리직	.0%	31.3%	.0%	3.1%	3.1%
판매직	1.0%	34.8%	2.3%	10.3%	.3%
생산직	.0%	33.8%	2.2%	3.6%	1.4%
서비스업	.0%	32.0%	4.8%	12.8%	4.0%
1차산업	.0%	51.4%	6.4%	17.9%	.0%
주부	.2%	42.8%	5.4%	4.1%	1.2%
학생	4.1%	37.2%	5.6%	2.1%	1.2%
정년퇴직	.0%	56.4%	2.6%	.0%	.0%
기타	1.1%	29.9%	4.6%	5.7%	1.1%
소득수준별					
40이하	.0%	51.1%	2.1%	9.9%	.0%
41-70	.0%	49.4%	4.8%	6.8%	.4%
71-100	.9%	37.3%	5.3%	6.2%	1.6%
101-150	1.6%	35.1%	4.2%	4.6%	1.2%
151-200	2.1%	32.5%	3.2%	5.0%	1.3%
201-300	.5%	27.2%	5.9%	6.4%	1.5%
301이상	1.1%	31.1%	5.6%	4.4%	4.4%
도시규모별					
대도시	.9%	35.5%	5.1%	3.6%	2.5%
중소도시	1.6%	34.1%	3.6%	5.1%	.4%
읍면지역	.9%	42.6%	4.0%	10.6%	.0%
전체	1.1%	37.1%	4.4%	5.9%	1.3%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행	산책	운동	스포츠관람	낚시	독서	문화감상	문화참여
성별								
남	43.1%	2.8%	15.5%	3.8%	11.2%	1.0%	2.9%	2.7%
여	42.6%	3.5%	11.5%	.9%	2.5%	1.3%	4.2%	5.3%
연령별								
10대	48.3%	1.3%	8.3%	4.6%	7.1%	1.7%	7.9%	3.8%
20대	48.9%	1.5%	14.9%	2.7%	3.3%	.2%	3.8%	5.4%
30대	37.5%	3.1%	15.9%	1.9%	8.2%	1.6%	3.8%	5.6%
40대	36.0%	4.0%	16.2%	2.4%	10.4%	.3%	2.4%	2.4%
50대	45.6%	5.5%	11.5%	1.6%	5.5%	2.2%	1.1%	1.1%
60대이상	45.5%	7.1%	4.5%	.0%	7.8%	2.6%	.0%	.6%
학력별								
국졸이하	39.6%	5.5%	8.5%	.4%	5.1%	3.0%	3.0%	.9%
중졸	39.8%	2.9%	12.3%	4.3%	9.2%	1.0%	3.9%	2.4%
고졸	41.4%	3.3%	14.4%	2.8%	7.5%	.8%	3.9%	4.7%
대졸	50.8%	1.6%	16.1%	.5%	4.0%	1.1%	3.0%	6.5%
대원졸이상	53.3%	2.2%	11.1%	.0%	4.4%	2.2%	2.2%	.0%
직업별								
사무직	43.3%	2.0%	18.7%	.8%	6.7%	1.2%	1.6%	6.0%
전문기술직	53.0%	1.5%	13.4%	2.2%	4.5%	2.2%	4.5%	1.5%
행정관리직	53.1%	.0%	25.0%	3.1%	3.1%	3.1%	.0%	3.1%
판매직	38.1%	5.0%	15.2%	4.0%	8.9%	1.3%	2.3%	5.0%
생산직	36.0%	5.0%	21.6%	4.3%	12.9%	.7%	3.6%	2.2%
서비스업	36.8%	3.2%	15.2%	1.6%	10.4%	.8%	2.4%	6.4%
1차산업	39.3%	2.1%	4.3%	2.1%	12.1%	1.4%	1.4%	.0%
주부	37.2%	4.9%	11.2%	1.0%	2.7%	1.0%	4.4%	3.9%
학생	53.1%	.9%	8.3%	3.8%	5.3%	1.2%	7.1%	5.0%
정년퇴직	53.8%	5.1%	10.3%	.0%	10.3%	.0%	.0%	.0%
기타	46.0%	2.3%	20.7%	1.1%	5.7%	.0%	2.3%	3.4%
소득수준별								
40이하	44.0%	4.3%	7.1%	.7%	7.1%	.7%	2.1%	.7%
41-70	44.2%	3.2%	13.5%	2.8%	8.4%	.0%	1.2%	2.4%
71-100	36.4%	4.8%	16.7%	2.3%	7.3%	1.8%	4.6%	2.7%
101-150	39.9%	3.2%	14.4%	3.2%	8.6%	1.2%	3.2%	5.6%
151-200	49.2%	1.1%	10.8%	2.4%	5.8%	.8%	3.7%	6.1%
201-300	46.5%	1.5%	14.9%	2.0%	3.5%	2.0%	5.0%	3.5%
301이상	50.0%	5.6%	11.1%	.0%	2.2%	1.1%	5.6%	3.3%
도시규모별								
대도시	45.2%	2.6%	15.6%	1.7%	4.8%	1.3%	3.5%	4.7%
중소도시	44.0%	3.2%	11.9%	3.2%	8.7%	.6%	2.6%	4.0%
읍면지역	37.5%	4.2%	11.1%	2.8%	8.9%	1.3%	4.5%	2.8%
전체	42.9%	3.2%	13.5%	2.4%	6.9%	1.2%	3.6%	4.0%

(continued)

희망하는 여가활동						
	생활문화	과외학습	휴식	기타	여가시간없다	무응답
성별						
남	2.1%	3.8%	8.4%	.6%	.9%	1.1%
여	11.6%	6.0%	6.9%	.8%	1.4%	1.6%
연령별						
10대	2.9%	7.5%	5.4%	.4%	.0%	.8%
20대	7.7%	7.1%	3.1%	.6%	.2%	.8%
30대	11.1%	5.4%	3.7%	.2%	.7%	1.4%
40대	5.8%	3.4%	11.0%	1.8%	1.5%	2.4%
50대	2.2%	.5%	17.6%	1.6%	1.6%	2.2%
60대이상	1.9%	.0%	22.7%	.0%	6.5%	.6%
학력별						
국졸이하	3.4%	1.7%	23.0%	.9%	4.7%	.4%
중졸	7.0%	3.1%	10.6%	1.4%	1.4%	.7%
고졸	9.1%	5.8%	4.6%	.5%	.3%	1.0%
대졸	3.8%	5.9%	2.7%	.3%	.8%	3.0%
대원졸이상	2.2%	11.1%	4.4%	.0%	.0%	6.7%
직업별						
사무직	7.9%	5.2%	4.4%	.0%	.4%	2.0%
전문기술직	1.5%	10.4%	2.2%	.7%	.0%	2.2%
행정관리직	3.1%	.0%	3.1%	.0%	.0%	3.1%
판매직	5.6%	5.0%	6.6%	1.7%	.3%	1.0%
생산직	2.9%	2.2%	5.8%	.7%	1.4%	.7%
서비스업	6.4%	3.2%	9.6%	.8%	.8%	2.4%
1차산업	1.4%	.7%	28.6%	.7%	5.7%	.0%
주부	16.8%	5.6%	7.5%	.7%	1.5%	1.7%
학생	2.7%	6.8%	4.7%	.3%	.0%	.9%
정년퇴직	.0%	.0%	15.4%	2.6%	2.6%	.0%
기타	5.7%	2.3%	5.7%	.0%	3.4%	1.1%
소득수준별						
40이하	5.7%	1.4%	19.9%	.7%	5.0%	.7%
41-70	4.8%	4.4%	12.4%	.8%	2.0%	.0%
71-100	7.1%	5.0%	7.1%	.5%	2.1%	1.6%
101-150	9.4%	4.6%	4.4%	.8%	.0%	1.6%
151-200	6.1%	5.8%	6.3%	.5%	.3%	1.1%
201-300	5.4%	7.4%	6.4%	.5%	.5%	1.0%
301이상	5.6%	3.3%	4.4%	2.2%	.0%	5.6%
도시규모별						
대도시	5.8%	4.0%	7.2%	.7%	.3%	2.6%
중소도시	9.7%	6.1%	4.2%	.4%	1.2%	.4%
읍면지역	6.0%	5.3%	11.9%	.9%	2.6%	.0%
전체	6.9%	4.9%	7.7%	.7%	1.2%	1.4%

	여가활동 장애요인									
	비용	시간	정신적여유	프로그램	동행자	정보	내용난해	기타	관심없다	무응답
성별										
남	17.7%	47.8%	16.4%	4.7%	3.0%	2.7%	.6%	1.7%	4.2%	1.1%
여	19.7%	40.9%	19.2%	5.1%	4.2%	2.4%	.7%	3.5%	3.2%	1.2%
연령별										
10대	26.7%	37.1%	12.9%	8.3%	5.0%	2.5%	.4%	1.7%	3.8%	1.7%
20대	22.4%	41.4%	18.0%	6.5%	4.4%	3.1%	.4%	2.3%	.8%	.8%
30대	13.2%	49.5%	23.2%	3.3%	2.6%	2.8%	.5%	2.4%	1.6%	.9%
40대	14.6%	52.7%	17.1%	4.9%	2.1%	1.2%	.6%	2.1%	2.4%	2.1%
50대	20.3%	47.3%	11.5%	1.6%	2.7%	2.2%	1.1%	1.6%	9.9%	1.6%
60대이상	20.8%	25.3%	13.6%	3.9%	6.5%	3.2%	1.9%	7.8%	16.9%	.0%
학력별										
국졸이하	25.5%	33.2%	10.6%	4.3%	5.1%	1.7%	2.6%	3.4%	13.6%	.0%
중졸	21.2%	42.4%	17.8%	4.8%	3.1%	2.7%	.2%	1.7%	4.8%	1.2%
고졸	18.4%	45.6%	18.0%	5.4%	3.6%	2.9%	.5%	2.6%	1.6%	1.4%
대졸	12.6%	49.5%	21.5%	4.6%	3.5%	2.4%	.3%	3.2%	1.3%	1.1%
대원졸이상	15.6%	53.3%	20.0%	2.2%	.0%	.0%	.0%	2.2%	4.4%	2.2%
직업별										
사무직	15.9%	51.2%	17.5%	4.8%	3.2%	2.4%	.0%	1.6%	2.8%	.8%
전문기술직	9.7%	59.7%	14.9%	2.2%	3.7%	2.2%	.7%	1.5%	2.2%	3.0%
행정관리직	18.8%	31.3%	31.3%	3.1%	3.1%	6.3%	.0%	3.1%	3.1%	.0%
판매직	12.6%	57.9%	16.2%	5.0%	2.0%	2.3%	.0%	2.0%	1.3%	.7%
생산직	18.7%	44.6%	14.4%	5.8%	2.9%	5.8%	1.4%	2.2%	2.9%	1.4%
서비스업	16.8%	48.8%	18.4%	4.0%	1.6%	1.6%	.0%	2.4%	4.8%	1.6%
1차산업	16.4%	47.9%	12.9%	4.3%	2.1%	1.4%	1.4%	2.1%	10.0%	1.4%
주부	19.0%	31.6%	23.8%	5.6%	5.1%	2.2%	1.2%	5.8%	4.4%	1.2%
학생	29.5%	37.5%	14.7%	5.9%	4.7%	2.4%	.6%	.9%	2.7%	1.2%
정년퇴직	35.9%	15.4%	17.9%	.0%	7.7%	5.1%	2.6%	5.1%	10.3%	.0%
기타	17.2%	46.0%	19.5%	5.7%	3.4%	2.3%	.0%	1.1%	4.6%	.0%
소득수준별										
40이하	27.7%	31.9%	13.5%	5.7%	2.1%	2.8%	2.8%	.7%	12.8%	.0%
41-70	22.3%	41.4%	12.7%	7.2%	4.4%	2.0%	.4%	3.6%	5.6%	.4%
71-100	22.9%	40.5%	18.1%	4.3%	4.1%	2.1%	.5%	2.3%	3.4%	1.8%
101-150	17.4%	43.7%	21.8%	5.4%	3.0%	3.0%	.4%	3.0%	1.8%	.6%
151-200	14.8%	48.9%	18.3%	4.2%	4.0%	2.9%	.8%	2.4%	2.4%	1.3%
201-300	11.4%	50.5%	18.8%	4.0%	4.0%	3.0%	.5%	2.0%	4.0%	2.0%
301이상	14.4%	61.1%	11.1%	2.2%	2.2%	1.1%	.0%	4.4%	1.1%	2.2%
도시규모별										
대도시	18.2%	47.5%	17.6%	2.4%	3.1%	2.6%	.9%	2.9%	2.9%	1.9%
중소도시	22.4%	39.2%	20.0%	3.8%	4.6%	3.0%	.2%	2.4%	4.0%	.6%
읍면지역	16.0%	43.6%	16.0%	10.6%	3.6%	2.1%	.6%	2.3%	4.9%	.4%
전체	18.7%	44.4%	17.8%	4.9%	3.6%	2.6%	.7%	2.6%	3.7%	1.2%

	일일 평균 여가시간 (평일)							안본다
	30분이하	1시간이하	2시간이하	3시간이하	4시간이하	5시간이하	5시간초과	
	a	a	a	a	a	a		
성별								
남	2.3%	16.2%	28.4%	17.4%	11.8%	7.6%	7.7%	8.5%
여	3.5%	13.6%	24.1%	18.3%	12.4%	8.5%	7.6%	12.2%
연령별								
10대	2.9%	16.3%	23.8%	18.8%	12.5%	12.5%	7.9%	5.4%
20대	3.1%	13.0%	25.9%	21.5%	14.0%	8.4%	8.4%	5.7%
30대	3.0%	15.7%	30.3%	16.4%	9.8%	5.4%	4.0%	15.5%
40대	2.7%	16.8%	26.8%	17.1%	14.3%	7.0%	3.4%	11.9%
50대	3.8%	17.0%	23.1%	17.6%	10.4%	7.1%	8.8%	12.1%
60대이상	1.3%	9.7%	18.2%	11.7%	11.0%	13.0%	26.0%	9.1%
학력별								
국졸이하	3.8%	17.4%	19.6%	7.7%	9.8%	10.6%	20.4%	10.6%
중졸	3.4%	14.9%	25.1%	19.3%	10.1%	9.6%	7.2%	10.4%
고졸	2.1%	13.5%	26.0%	19.6%	12.8%	8.0%	6.3%	11.6%
대졸	3.5%	15.9%	31.7%	18.0%	14.2%	5.1%	4.3%	7.3%
대원졸이상	4.4%	22.2%	28.9%	20.0%	11.1%	4.4%	.0%	8.9%
직업별								
사무직	2.0%	18.7%	30.2%	19.8%	15.5%	7.1%	2.4%	4.4%
전문기술직	4.5%	14.2%	34.3%	17.2%	9.7%	6.0%	1.5%	12.7%
행정관리직	3.1%	6.3%	43.8%	25.0%	9.4%	3.1%	3.1%	6.3%
판매직	3.3%	20.9%	27.5%	16.9%	9.6%	1.3%	5.0%	15.6%
생산직	.7%	13.7%	21.6%	22.3%	13.7%	12.2%	2.2%	13.7%
서비스업	3.2%	11.2%	34.4%	13.6%	11.2%	4.0%	4.8%	17.6%
1차산업	4.3%	22.1%	22.1%	8.6%	12.9%	7.9%	7.9%	14.3%
주부	2.9%	9.5%	22.6%	21.2%	12.2%	10.7%	10.0%	10.9%
학생	3.2%	15.3%	23.6%	19.5%	13.6%	11.5%	8.3%	5.0%
정년퇴직	.0%	2.6%	10.3%	5.1%	2.6%	20.5%	53.8%	5.1%
기타	2.3%	12.6%	27.6%	11.5%	11.5%	6.9%	21.8%	5.7%
소득수준별								
40이하	.7%	16.3%	21.3%	11.3%	10.6%	10.6%	20.6%	8.5%
41-70	2.8%	14.7%	17.9%	20.7%	12.4%	10.8%	11.2%	9.6%
71-100	2.1%	12.4%	28.6%	19.0%	11.9%	8.0%	8.5%	9.6%
101-150	4.0%	14.8%	26.9%	16.4%	12.2%	8.2%	6.0%	11.6%
151-200	3.7%	16.7%	27.0%	20.4%	11.9%	6.1%	4.2%	10.1%
201-300	3.0%	14.9%	29.7%	16.3%	12.4%	6.4%	5.0%	12.4%
301이상	1.1%	18.9%	30.0%	15.6%	14.4%	7.8%	3.3%	8.9%
도시규모별								
대도시	2.4%	13.3%	26.8%	19.2%	12.8%	7.5%	7.3%	10.8%
중소도시	2.8%	14.9%	24.2%	15.4%	13.1%	10.7%	8.1%	10.9%
읍면지역	4.0%	17.9%	27.0%	17.7%	9.8%	6.6%	7.9%	9.1%
전체	2.9%	14.9%	26.2%	17.9%	12.1%	8.1%	7.7%	10.4%

	연 평균 국내여행 횟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상	없음
성별							
남	18.2%	21.5%	8.7%	4.0%	4.8%	5.5%	37.4%
여	18.7%	18.6%	9.7%	4.8%	5.4%	4.1%	38.8%
연령별							
10대	17.1%	14.6%	6.7%	2.9%	3.8%	2.5%	52.5%
20대	16.5%	20.3%	12.1%	6.9%	8.6%	7.3%	28.4%
30대	19.3%	21.4%	8.2%	3.1%	4.5%	6.1%	37.3%
40대	19.8%	17.7%	9.8%	5.2%	3.4%	3.4%	40.9%
50대	16.5%	24.2%	10.4%	3.8%	2.7%	1.1%	41.2%
60대이상	23.4%	21.4%	4.5%	1.9%	3.9%	2.6%	42.2%
학력별							
국졸이하	19.1%	13.2%	6.0%	17.7%	3.0%	2.1%	54.9%
중졸	18.8%	16.9%	7.0%	3.1%	2.4%	1.2%	50.6%
고졸	19.3%	22.6%	9.0%	5.1%	5.0%	5.5%	33.4%
대졸	16.7%	20.4%	13.4%	5.9%	9.7%	8.6%	25.3%
대원졸이상	8.9%	24.4%	15.6%	2.2%	4.4%	6.7%	37.8%
직업별							
사무직	19.0%	21.0%	7.1%	5.6%	7.5%	6.7%	32.9%
전문기술직	20.9%	19.4%	11.2%	3.7%	9.0%	6.7%	29.1%
행정관리직	15.6%	25.0%	15.6%	6.3%	.0%	6.3%	31.3%
판매직	18.2%	20.5%	11.6%	4.6%	4.6%	5.6%	34.8%
생산직	16.5%	27.3%	7.9%	5.0%	1.4%	4.3%	37.4%
서비스업	21.6%	18.4%	6.4%	3.2%	3.2%	4.8%	42.4%
1차산업	23.6%	23.6%	5.0%	.7%	1.4%	1.4%	44.3%
주부	19.0%	18.0%	8.0%	4.4%	5.6%	2.4%	42.6%
학생	15.6%	18.6%	9.7%	5.9%	5.9%	4.7%	39.5%
정년퇴직	17.9%	15.4%	20.5%	.0%	5.1%	5.1%	35.9%
기타	13.8%	14.9%	12.6%	3.4%	4.6%	10.3%	40.2%
소득수준별							
40이하	17.0%	20.6%	8.5%	2.1%	3.5%	5.7%	42.6%
41-70	21.5%	12.7%	6.8%	3.6%	4.8%	3.6%	47.0%
71-100	18.8%	19.7%	8.2%	1.8%	3.2%	4.1%	44.2%
101-150	21.2%	20.2%	7.6%	5.6%	5.6%	3.8%	36.1%
151-200	14.8%	25.1%	10.6%	6.3%	6.1%	5.8%	31.2%
201-300	15.8%	18.3%	12.9%	7.4%	7.9%	4.0%	33.7%
301이상	16.7%	21.1%	16.7%	1.1%	4.4%	13.3%	26.7%
도시규모별							
대도시	18.0%	20.8%	10.4%	4.6%	6.2%	5.2%	34.8%
중소도시	16.8%	20.6%	9.7%	4.8%	4.8%	5.1%	38.2%
읍면지역	20.8%	17.7%	6.6%	3.8%	3.4%	3.8%	44.0%
전체	18.5%	20.0%	9.2%	4.4%	5.1%	4.8%	38.1%

	연 평균 해외여행 횟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상	없음
성별							
남	8.0%	4.4%	1.6%	.8%	1.1%	2.9%	81.2%
여	5.5%	1.4%	1.3%	.3%	.6%	1.4%	89.5%
연령별							
10대	2.5%	.8%	.4%	.8%	.0%	.8%	94.6%
20대	5.9%	2.3%	1.5%	.4%	.6%	.8%	88.5%
30대	8.7%	2.8%	1.9%	.5%	1.0%	2.3%	82.8%
40대	9.1%	4.6%	.9%	.6%	1.5%	4.0%	79.3%
50대	3.8%	5.5%	2.2%	.0%	1.6%	3.8%	83.0%
60대이상	7.1%	1.9%	1.3%	1.3%	.0%	2.6%	85.7%
학력별							
국졸이하	3.4%	.9%	.9%	.0%	.0%	.4%	94.5%
중졸	3.1%	1.2%	1.0%	.5%	.0%	.7%	93.5%
고졸	5.1%	2.0%	.5%	.5%	.5%	1.5%	89.7%
대졸	14.8%	7.0%	4.8%	.5%	2.2%	4.8%	65.9%
대원졸이상	24.4%	13.3%	.0%	4.4%	8.9%	15.6%	33.3%
직업별							
사무직	10.7%	4.8%	2.4%	.8%	1.6%	3.2%	76.6%
전문기술직	16.4%	6.0%	3.7%	.0%	2.2%	6.7%	64.9%
행정관리직	15.6%	12.5%	9.4%	.0%	6.3%	6.3%	50.0%
판매직	5.3%	3.0%	.3%	.3%	1.0%	2.0%	88.1%
생산직	5.8%	2.2%	.7%	.0%	.7%	.7%	89.9%
서비스업	5.6%	1.6%	1.6%	.8%	.0%	1.6%	88.8%
1차산업	2.9%	.7%	.7%	.0%	.0%	.7%	95.0%
주부	5.4%	1.7%	1.0%	.5%	.7%	1.0%	89.8%
학생	4.1%	2.9%	1.2%	.9%	.3%	.6%	90.0%
정년퇴직	7.7%	5.1%	2.6%	.0%	.0%	2.6%	82.1%
기타	8.0%	.0%	1.1%	2.3%	.0%	8.0%	80.5%
소득수준별							
40이하	2.8%	.7%	1.4%	.0%	.7%	.0%	94.3%
41-70	4.8%	.4%	.4%	.4%	.4%	2.4%	91.2%
71-100	5.5%	1.1%	.5%	.2%	.5%	.2%	92.0%
101-150	6.8%	2.8%	1.2%	.6%	.6%	2.4%	85.6%
151-200	9.3%	4.8%	1.6%	1.3%	1.1%	2.4%	79.6%
201-300	8.4%	5.4%	2.5%	.5%	2.0%	5.0%	76.2%
301이상	10.0%	8.9%	7.8%	.0%	2.2%	5.6%	65.6%
도시규모별							
대도시	8.1%	4.0%	2.4%	.9%	1.3%	3.6%	79.6%
중소도시	6.5%	2.8%	.8%	.4%	.8%	1.4%	87.3%
읍면지역	4.5%	.9%	.4%	.0%	.0%	.2%	94.0%
전체	6.8%	2.9%	1.5%	.6%	.9%	2.2%	85.4%

	문화용품 소유현황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		피아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78.2%	21.8%	67.1%	32.9%	32.2%	67.8%	16.5%	83.5%
여	79.0%	21.0%	69.8%	30.2%	31.7%	68.3%	21.9%	78.1%
연령별								
10대	81.3%	18.8%	67.5%	32.5%	41.7%	58.3%	21.3%	78.8%
20대	78.5%	21.5%	75.5%	24.5%	37.2%	62.8%	15.9%	84.1%
30대	88.3%	11.7%	73.0%	27.0%	27.0%	73.0%	19.9%	80.1%
40대	81.4%	18.6%	69.2%	30.8%	35.4%	64.6%	29.3%	70.7%
50대	69.8%	30.2%	58.2%	41.8%	31.3%	68.7%	16.5%	83.5%
60대이상	42.9%	57.1%	39.6%	60.4%	11.0%	89.0%	6.5%	93.5%
학력별								
국졸이하	49.4%	50.6%	40.4%	59.6%	14.0%	86.0%	9.8%	90.2%
중졸	74.2%	25.8%	62.2%	37.8%	29.4%	70.6%	14.5%	85.5%
고졸	84.6%	15.4%	72.0%	28.0%	28.6%	71.4%	16.3%	83.7%
대졸	86.0%	14.0%	82.8%	17.2%	50.8%	49.2%	33.3%	66.7%
대원졸이상	86.7%	13.3%	80.0%	20.2%	62.2%	37.8%	55.6%	44.4%
직업별								
사무직	82.5%	17.5%	74.6%	25.4%	35.3%	64.7%	23.0%	77.0%
전문기술직	88.1%	11.9%	79.9%	20.1%	53.7%	46.3%	29.9%	70.1%
행정관리직	78.1%	21.9%	84.4%	15.6%	50.0%	50.0%	37.5%	62.5%
판매직	83.4%	16.6%	67.9%	32.1%	30.5%	69.5%	13.9%	86.1%
생산직	79.9%	20.1%	65.5%	34.5%	15.8%	84.2%	10.1%	89.9%
서비스업	83.2%	16.8%	68.8%	31.2%	23.2%	76.8%	16.8%	83.2%
1차산업	42.9%	57.1%	39.3%	60.7%	5.0%	95.0%	.7%	99.3%
주부	80.3%	19.7%	70.8%	29.2%	26.0%	74.0%	20.0%	80.0%
학생	82.9%	17.1%	72.0%	28.0%	51.6%	48.4%	26.8%	73.2%
정년퇴직	66.7%	33.3%	51.3%	48.7%	20.5%	79.5%	10.3%	89.7%
기타	65.5%	34.5%	63.2%	36.8%	25.3%	74.7%	21.8%	78.2%
소득수준별								
40이하	42.6%	57.4%	31.9%	68.1%	17.7%	82.3%	4.3%	95.7%
41-70	61.8%	38.2%	50.2%	49.8%	14.7%	85.3%	7.2%	92.8%
71-100	76.0%	24.0%	64.3%	35.7%	23.6%	76.4%	13.0%	87.0%
101-150	86.4%	13.6%	75.0%	25.0%	32.5%	67.5%	19.2%	80.8%
151-200	87.6%	12.4%	80.2%	19.8%	42.3%	57.7%	28.6%	71.4%
201-300	91.1%	8.9%	81.7%	18.3%	49.5%	50.5%	32.7%	67.3%
301이상	85.6%	14.4%	81.1%	18.9%	56.7%	43.3%	36.7%	63.3%
도시규모별								
대도시	83.8%	16.2%	74.8%	25.2%	39.5%	60.5%	25.8%	74.2%
중소도시	82.4%	17.6%	69.9%	30.1%	29.3%	70.7%	17.8%	82.2%
읍면지역	65.5%	34.5%	55.5%	44.5%	20.8%	79.2%	8.5%	91.5%
전체	78.6%	21.4%	68.5%	31.6%	32.0%	68.1%	19.2%	80.8%

	문화용품 소유현황					
	휴대 전화기		자동차		위성수신 방송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16.4%	83.6%	52.4%	47.6%	3.8%	96.2%
여	18.3%	81.7%	51.1%	48.9%	6.4%	93.6%
연령별						
10대	17.9%	82.1%	48.3%	51.7%	4.6%	95.4%
20대	17.0%	83.0%	48.5%	51.5%	5.6%	94.4%
30대	22.6%	77.4%	63.6%	36.4%	7.1%	92.9%
40대	17.7%	82.3%	57.0%	43.0%	3.4%	96.6%
50대	8.8%	91.2%	41.2%	58.8%	4.4%	95.6%
60대이상	7.1%	92.9%	25.3%	74.7%	1.3%	98.7%
학력별						
국졸이하	9.4%	90.6%	25.1%	74.9%	1.3%	98.7%
중졸	12.8%	87.2%	43.4%	56.6%	2.7%	97.3%
고졸	18.6%	81.4%	54.2%	45.8%	4.6%	95.4%
대졸	23.7%	76.3%	69.4%	30.6%	9.4%	90.6%
대원졸이상	22.2%	77.8%	71.1%	28.9%	22.2%	77.8%
직업별						
사무직	15.9%	84.1%	59.1%	40.9%	6.7%	93.3%
전문기술직	26.9%	73.1%	63.4%	36.6%	7.5%	92.5%
행정관리직	18.8%	81.3%	68.8%	31.3%	6.3%	93.8%
판매직	20.5%	79.5%	59.9%	40.1%	2.6%	97.4%
생산직	12.9%	87.1%	46.8%	53.2%	.7%	99.3%
서비스업	18.4%	81.6%	40.0%	60.0%	2.4%	97.6%
1차산업	5.7%	94.3%	20.0%	80.0%	.7%	99.3%
주부	17.8%	82.2%	54.5%	45.5%	8.0%	92.0%
학생	18.9%	81.1%	52.5%	47.5%	6.2%	93.8%
정년퇴직	7.7%	92.3%	33.3%	66.7%	5.1%	94.9%
기타	16.1%	83.9%	46.0%	54.0%	4.6%	95.4%
소득수준별						
40이하	6.4%	93.6%	19.1%	80.9%	1.4%	98.6%
41-70	6.8%	93.2%	22.3%	77.7%	2.0%	98.0%
71-100	14.2%	85.8%	43.9%	56.1%	2.5%	97.5%
101-150	18.0%	82.0%	55.3%	44.7%	5.6%	94.4%
151-200	23.8%	76.2%	70.1%	29.9%	7.7%	92.3%
201-300	23.3%	76.7%	72.8%	27.2%	6.9%	93.1%
301이상	35.6%	64.4%	78.9%	21.1%	14.4%	85.6%
도시규모별						
대도시	18.0%	82.0%	53.5%	46.5%	5.8%	94.2%
중소도시	18.4%	81.6%	54.5%	45.5%	5.7%	94.3%
읍면지역	15.1%	84.9%	46.0%	54.0%	3.2%	96.8%
전체	17.4%	82.7%	51.8%	48.3%	5.1%	94.9%

	문화용품 소유현황					
	유선방송 수신기능		팩시밀리		무선 호출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24.6%	75.4%	4.6%	95.4%	34.2%	65.8%
여	31.3%	68.7%	5.3%	94.7%	29.5%	70.5%
연령별						
10대	30.0%	70.0%	5.4%	94.6%	38.3%	61.7%
20대	28.4%	71.6%	5.6%	94.4%	35.2%	64.8%
30대	31.9%	68.1%	5.1%	94.9%	38.2%	61.8%
40대	29.9%	70.1%	5.2%	94.8%	25.0%	75.0%
50대	20.9%	79.1%	5.5%	94.5%	26.4%	73.6%
60대이상	13.6%	86.4%	.6%	99.4%	7.8%	92.2%
학력별						
국졸이하	26.0%	74.0%	1.3%	98.7%	15.7%	84.3%
중졸	27.7%	72.3%	2.2%	97.8%	26.7%	73.3%
고졸	31.1%	68.9%	5.3%	94.7%	37.9%	62.1%
대졸	22.3%	77.7%	9.4%	90.6%	34.4%	65.6%
대원졸이상	24.4%	75.6%	6.7%	93.3%	15.6%	84.4%
직업별						
사무직	23.0%	77.0%	2.0%	98.0%	33.3%	66.7%
전문기술직	23.9%	76.1%	9.0%	91.0%	35.8%	64.2%
행정관리직	18.8%	81.3%	21.9%	78.1%	31.3%	68.8%
판매직	32.1%	67.9%	8.9%	91.1%	37.1%	62.9%
생산직	30.9%	69.1%	2.2%	97.8%	37.4%	62.6%
서비스업	30.4%	69.6%	4.8%	95.2%	36.0%	64.0%
1차산업	17.9%	82.1%	.0%	100.0%	10.0%	90.0%
주부	31.9%	68.1%	3.4%	96.6%	29.2%	70.8%
학생	28.0%	72.0%	5.3%	94.7%	36.3%	63.7%
정년퇴직	17.9%	82.1%	2.6%	97.4%	12.8%	87.2%
기타	32.2%	67.8%	6.9%	93.1%	27.6%	72.4%
소득수준별						
40이하	13.5%	86.5%	1.4%	98.6%	15.6%	84.4%
41-70	21.1%	78.9%	1.6%	98.4%	21.9%	78.1%
71-100	29.3%	70.7%	1.8%	98.2%	30.7%	69.3%
101-150	29.9%	70.1%	5.2%	94.8%	34.9%	65.1%
151-200	28.3%	71.7%	6.1%	93.9%	32.5%	67.5%
201-300	37.1%	62.9%	10.9%	89.1%	40.1%	59.9%
301이상	31.1%	68.9%	15.6%	84.4%	52.2%	47.8%
도시규모별						
대도시	24.5%	75.5%	6.0%	94.0%	37.3%	62.7%
중소도시	34.9%	65.1%	3.8%	96.2%	29.9%	70.1%
읍면지역	27.9%	72.1%	4.2%	95.8%	23.8%	76.2%
전체	28.0%	72.0%	5.0%	95.1%	31.9%	68.2%

문화예술행사의 시설, 장소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림	대체로불만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성별							
남	2.8%	10.0%	24.7%	18.3%	20.3%	23.4%	.3%
여	1.9%	9.2%	27.9%	20.0%	17.7%	23.1%	.3%
연령별							
10대	1.3%	6.7%	29.2%	27.9%	21.3%	12.9%	.8%
20대	3.1%	10.3%	25.7%	21.8%	21.5%	17.2%	.4%
30대	3.0%	10.5%	28.2%	19.2%	20.4%	18.5%	.3%
40대	1.8%	9.5%	27.4%	14.9%	18.0%	28.4%	.0%
50대	2.2%	11.0%	21.4%	17.0%	9.3%	39.0%	.0%
60대이상	.6%	7.1%	20.8%	7.8%	15.6%	48.1%	.0%
학력별							
국졸이하	.9%	5.5%	16.2%	14.5%	17.0%	46.0%	.0%
중졸	1.4%	7.5%	28.7%	21.0%	18.1%	23.1%	.2%
고졸	3.0%	9.4%	27.9%	18.8%	20.2%	20.3%	.5%
대졸	3.0%	13.4%	27.2%	20.7%	18.8%	16.9%	.0%
대원졸이상	.0%	22.2%	20.0%	22.2%	15.6%	20.0%	.0%
직업별							
사무직	3.2%	13.1%	24.2%	20.6%	21.0%	17.1%	.8%
전문기술직	4.5%	14.2%	20.9%	22.4%	17.2%	20.9%	.0%
행정관리직	6.3%	18.8%	25.0%	9.4%	18.8%	21.9%	.0%
판매직	2.6%	8.9%	30.5%	16.2%	20.5%	20.9%	.3%
생산직	2.2%	7.9%	23.0%	18.7%	20.9%	27.3%	.0%
서비스업	1.6%	8.0%	30.4%	15.2%	18.4%	26.4%	.0%
1차산업	.0%	3.6%	20.0%	10.7%	27.9%	37.9%	.0%
주부	2.2%	10.2%	29.2%	17.8%	11.9%	28.2%	.5%
학생	1.8%	8.6%	27.7%	28.0%	20.6%	13.0%	.3%
정년퇴직	.0%	7.7%	17.9%	12.8%	5.1%	56.4%	.0%
기타	3.4%	8.0%	21.8%	18.4%	27.6%	20.7%	.0%
소득수준별							
40이하	2.8%	7.8%	22.0%	12.1%	22.0%	33.3%	.0%
41-70	3.2%	9.2%	19.9%	21.1%	17.9%	28.7%	.0%
71-100	1.6%	11.4%	27.7%	16.5%	18.1%	24.3%	.5%
101-150	2.0%	7.4%	29.7%	20.4%	19.8%	20.6%	.2%
151-200	3.2%	11.1%	26.2%	18.3%	20.4%	20.4%	.5%
201-300	1.5%	7.4%	29.7%	25.7%	15.3%	20.3%	.0%
301이상	3.3%	15.6%	18.9%	20.0%	20.0%	21.1%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2.7%	11.4%	27.7%	19.5%	14.3%	24.1%	.3%
중소도시	2.0%	9.9%	30.9%	21.6%	15.2%	20.2%	.2%
읍면지역	2.1%	6.0%	19.6%	16.2%	31.1%	24.5%	.4%
전체	2.4%	9.6%	26.4%	19.2%	19.0%	23.3%	.3%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영화관	기타	필요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성별										
남	27.0%	2.6%	10.4%	14.3%	8.8%	11.1%	1.4%	3.2%	19.8%	1.3%
여	30.5%	5.9%	6.9%	16.0%	5.6%	9.7%	2.2%	2.9%	18.9%	1.5%
연령별										
10대	31.7%	4.6%	8.3%	13.3%	1.7%	26.3%	1.7%	1.3%	9.6%	1.7%
20대	36.0%	3.8%	7.7%	17.6%	5.7%	12.8%	2.7%	1.9%	10.5%	1.1%
30대	31.4%	5.7%	9.4%	16.0%	6.4%	7.7%	1.2%	2.8%	18.1%	1.2%
40대	24.4%	4.6%	9.8%	16.8%	9.5%	6.4%	.6%	3.7%	22.9%	1.5%
50대	16.5%	2.2%	10.4%	10.4%	11.0%	5.5%	1.6%	4.9%	35.2%	2.2%
60대이상	13.6%	1.3%	5.2%	8.4%	14.3%	1.9%	3.9%	7.1%	42.9%	1.3%
학력별										
국졸이하	11.1%	2.1%	7.7%	11.1%	11.5%	10.2%	3.4%	5.1%	37.4%	.4%
중졸	24.1%	4.1%	9.4%	13.7%	7.0%	13.3%	1.0%	2.7%	22.7%	2.2%
고졸	33.5%	3.2%	8.3%	14.8%	6.9%	10.5%	2.1%	3.0%	16.7%	1.0%
대졸	33.9%	8.3%	9.4%	18.0%	5.9%	8.3%	1.1%	2.2%	11.0%	1.9%
대원졸이상	22.2%	4.4%	8.9%	33.3%	4.4%	.0%	.0%	4.4%	17.8%	4.4%
직업별										
사무직	29.8%	4.4%	8.7%	22.2%	6.7%	8.7%	1.6%	2.4%	13.5%	2.0%
전문기술직	27.6%	5.2%	10.4%	23.1%	6.0%	6.7%	1.5%	3.7%	13.4%	2.2%
행정관리직	28.1%	9.4%	9.4%	12.5%	6.3%	9.4%	.0%	3.1%	21.9%	.0%
판매직	27.2%	4.6%	7.9%	16.6%	7.6%	11.6%	1.7%	2.3%	19.5%	1.0%
생산직	29.5%	2.2%	11.5%	12.2%	7.9%	8.6%	.7%	2.9%	23.0%	1.4%
서비스업	24.0%	4.8%	8.0%	12.0%	10.4%	8.0%	2.4%	3.2%	25.6%	1.6%
1차산업	22.1%	.0%	4.3%	9.3%	12.9%	8.6%	2.1%	5.0%	34.3%	1.4%
주부	29.4%	5.4%	6.3%	14.1%	6.3%	6.3%	1.2%	4.4%	25.5%	1.0%
학생	34.8%	4.1%	9.1%	14.2%	3.2%	20.9%	2.1%	1.5%	8.6%	1.5%
정년퇴직	20.5%	.0%	17.9%	.0%	17.9%	.0%	7.7%	5.1%	30.8%	.0%
기타	26.4%	5.7%	16.1%	12.6%	9.2%	9.2%	3.4%	2.3%	12.6%	2.3%
소득수준별										
40이하	22.7%	.7%	12.1%	6.4%	5.0%	8.5%	4.3%	4.3%	36.2%	.0%
41-70	21.9%	2.0%	6.0%	14.7%	10.8%	11.2%	2.4%	3.2%	25.9%	2.0%
71-100	30.0%	3.2%	8.7%	15.6%	8.7%	9.8%	.9%	3.0%	18.8%	1.4%
101-150	31.5%	7.0%	8.8%	13.6%	6.4%	10.8%	1.4%	2.8%	16.2%	1.6%
151-200	28.6%	4.2%	8.5%	19.6%	6.3%	10.8%	1.1%	3.7%	16.1%	1.1%
201-300	32.2%	5.0%	8.9%	19.8%	5.4%	8.9%	2.5%	1.0%	15.3%	1.0%
301이상	28.9%	4.4%	10.0%	7.8%	5.6%	13.3%	4.4%	4.4%	17.8%	3.3%
도시규모별										
대도시	28.1%	4.2%	7.9%	17.7%	5.9%	8.4%	2.2%	3.2%	20.1%	2.3%
중소도시	34.1%	5.1%	12.9%	11.7%	7.1%	4.6%	2.0%	3.6%	18.0%	1.0%
읍면지역	24.9%	3.4%	6.0%	13.8%	9.6%	19.6%	.9%	2.3%	19.2%	.2%
전체	28.8%	4.3%	8.7%	15.2%	7.2%	10.4%	1.8%	3.1%	19.4%	1.4%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	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	관심없다	무응답
성별							
남	1.6%	6.1%	25.6%	16.9%	15.2%	33.7%	.9%
여	.8%	7.5%	31.3%	16.1%	13.1%	30.9%	.3%
연령별							
10대	.8%	7.9%	30.4%	20.0%	17.1%	22.9%	.8%
20대	1.1%	6.9%	28.5%	19.9%	16.5%	26.4%	.6%
30대	1.9%	6.3%	31.7%	17.1%	15.3%	27.5%	.2%
40대	.9%	6.7%	30.2%	12.8%	11.3%	37.2%	.9%
50대	.5%	9.3%	20.9%	14.3%	7.1%	47.3%	.5%
60대이상	.6%	3.9%	18.2%	7.8%	11.7%	56.5%	1.3%
학력별							
국졸이하	1.3%	4.7%	20.4%	5.5%	14.5%	52.8%	.9%
중졸	.5%	6.3%	29.6%	15.4%	11.8%	35.7%	.7%
고졸	1.6%	7.3%	29.4%	16.8%	16.1%	28.4%	.4%
대졸	1.1%	6.5%	30.6%	22.8%	12.1%	26.1%	.8%
대원졸이상	.0%	15.6%	22.2%	24.4%	11.1%	26.7%	.0%
직업별							
사무직	1.6%	7.1%	29.4%	21.0%	15.1%	25.0%	.8%
전문기술직	2.2%	6.0%	24.6%	20.9%	12.7%	33.6%	.0%
행정관리직	6.3%	15.6%	18.8%	18.8%	15.6%	21.9%	3.1%
판매직	1.3%	6.3%	28.1%	14.9%	13.6%	34.8%	1.0%
생산직	.7%	5.8%	25.2%	14.4%	15.8%	37.4%	.7%
서비스업	.0%	7.2%	36.0%	8.8%	13.6%	34.4%	.0%
1차산업	1.4%	.7%	20.7%	9.3%	20.0%	47.9%	.0%
주부	1.2%	8.0%	32.1%	13.4%	9.2%	35.3%	.7%
학생	.9%	7.4%	28.6%	23.3%	17.1%	22.4%	.3%
정년퇴직	.0%	10.3%	17.9%	12.8%	7.7%	51.3%	.0%
기타	.0%	6.9%	29.9%	17.2%	18.4%	26.4%	1.1%
소득수준별							
40이하	2.1%	3.5%	26.2%	6.4%	17.0%	44.7%	.0%
41-70	1.2%	6.4%	25.1%	15.5%	12.4%	39.0%	.4%
71-100	.9%	7.3%	30.2%	13.3%	14.6%	32.5%	1.1%
101-150	.8%	6.6%	29.9%	18.0%	15.4%	29.1%	.2%
151-200	1.6%	6.1%	29.4%	18.5%	14.6%	29.1%	.8%
201-300	1.5%	8.4%	26.2%	23.3%	10.4%	29.7%	.5%
301이상	1.1%	11.1%	25.6%	18.9%	12.2%	30.0%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1.3%	8.2%	27.6%	16.5%	10.2%	35.4%	.8%
중소도시	1.2%	7.1%	33.7%	19.0%	10.5%	28.3%	.2%
읍면지역	.9%	4.0%	25.1%	14.2%	24.9%	30.4%	.6%
전체	1.2%	6.8%	28.5%	16.5%	14.2%	32.3%	.6%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인식										
	역사유산	공연성행	생활질서	전통축제	창조	학문번성	과학발달	기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성별											
남	26.6%	24.0%	18.3%	9.2%	4.4%	5.0%	1.8%	.5%	3.7%	5.5%	.9%
여	17.3%	32.7%	22.1%	9.0%	2.7%	3.1%	2.4%	.3%	3.3%	6.6%	.6%
연령별											
10대	23.8%	38.8%	13.8%	7.5%	2.9%	5.4%	2.5%	.4%	2.9%	1.3%	.8%
20대	16.5%	36.2%	23.9%	9.0%	5.2%	3.8%	1.3%	.8%	2.3%	.8%	.2%
30대	21.6%	30.8%	22.8%	8.9%	3.5%	3.7%	.7%	.5%	2.8%	4.0%	.7%
40대	22.9%	20.7%	24.4%	11.0%	2.1%	4.3%	3.7%	.0%	4.0%	6.1%	.9%
50대	28.0%	16.5%	10.4%	12.1%	3.3%	3.3%	2.7%	.0%	7.1%	14.3%	2.2%
60대이상	29.2%	7.1%	10.4%	5.2%	2.6%	4.5%	5.2%	.0%	5.8%	29.2%	.6%
학력별											
국졸이하	29.4%	9.8%	11.9%	10.6%	1.7%	1.3%	3.8%	.0%	6.8%	23.8%	.9%
중졸	24.6%	27.7%	16.4%	10.1%	.7%	4.3%	2.7%	.0%	4.1%	8.4%	1.0%
고졸	21.5%	31.1%	22.7%	8.5%	4.2%	3.4%	1.5%	.6%	3.1%	2.9%	.4%
대졸	16.4%	33.9%	22.8%	8.9%	6.2%	6.5%	2.2%	.5%	1.6%	.0%	1.1%
대원졸이상	11.1%	31.1%	24.4%	6.7%	4.4%	8.9%	.0%	.0%	4.4%	6.7%	2.2%
직업별											
사무직	25.0%	29.4%	19.8%	7.9%	4.8%	5.2%	2.4%	1.2%	2.4%	1.2%	.8%
전문기술직	17.2%	28.4%	23.9%	6.7%	9.7%	5.2%	.7%	.0%	3.7%	3.7%	.7%
행정관리직	21.9%	21.9%	18.8%	12.5%	6.3%	9.4%	6.3%	.0%	3.1%	.0%	.0%
판매직	23.5%	29.5%	20.9%	9.6%	1.7%	4.3%	3.3%	.0%	3.3%	4.0%	.0%
생산직	24.5%	29.8%	18.0%	7.9%	3.6%	2.2%	1.4%	.7%	3.6%	7.9%	.7%
서비스업	21.6%	20.0%	26.4%	12.8%	3.2%	3.2%	1.6%	.8%	3.2%	5.6%	1.6%
1차산업	27.9%	11.4%	15.7%	9.3%	.7%	1.4%	2.1%	.0%	7.9%	22.9%	.7%
주부	19.5%	30.2%	21.7%	9.7%	1.0%	2.9%	1.9%	.2%	2.9%	9.0%	1.0%
학생	18.9%	37.5%	18.3%	8.6%	5.6%	5.3%	1.8%	.6%	2.4%	.9%	.3%
정년퇴직	33.3%	7.7%	7.7%	10.3%	5.1%	5.1%	5.1%	.0%	7.7%	17.9%	.0%
기타	19.5%	27.6%	21.8%	8.0%	4.6%	4.3%	.0%	.0%	5.7%	4.6%	3.4%
소득수준별											
40이하	22.0%	18.4%	14.9%	5.0%	4.3%	1.4%	.7%	.7%	3.5%	29.1%	.0%
41-70	21.5%	25.5%	14.3%	12.4%	2.0%	3.6%	4.0%	.4%	7.2%	8.0%	1.2%
71-100	24.7%	25.2%	21.5%	8.9%	3.2%	3.7%	1.8%	.5%	3.4%	6.4%	.7%
101-150	23.4%	26.9%	22.8%	8.8%	5.0%	4.4%	2.0%	.6%	2.8%	3.2%	.2%
151-200	19.8%	32.5%	19.3%	10.8%	2.9%	5.6%	1.9%	.0%	3.4%	2.4%	1.3%
201-300	18.3%	38.6%	23.8%	5.9%	2.5%	3.0%	2.0%	.5%	2.5%	2.0%	1.0%
301이상	17.8%	35.6%	20.0%	8.9%	5.6%	5.6%	2.2%	.0%	.0%	3.3%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22.4%	29.9%	20.7%	8.3%	3.3%	4.0%	2.2%	.4%	3.0%	4.7%	1.0%
중소도시	17.8%	29.7%	19.2%	9.1%	4.6%	5.1%	3.0%	.4%	4.6%	5.5%	1.0%
읍면지역	24.9%	24.3%	20.2%	10.6%	3.0%	3.0%	1.1%	.4%	3.4%	9.1%	.0%
전체	21.9%	28.4%	20.2%	9.1%	3.6%	4.1%	2.1%	.4%	3.5%	6.1%	.8%

훌륭한 문화의 보유정도에 대한 인식

	매우많다	다소있다	별로없다	거의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성별						
남	38.4%	42.7%	11.2%	2.0%	5.5%	.2%
여	33.1%	47.4%	10.7%	1.5%	7.1%	.2%
연령별						
10대	26.7%	51.3%	17.5%	1.3%	2.9%	.4%
20대	42.9%	43.7%	9.8%	1.7%	1.9%	.0%
30대	35.0%	48.1%	10.5%	1.2%	4.9%	.3%
40대	28.0%	49.1%	11.0%	2.1%	9.8%	.0%
50대	37.9%	35.7%	11.5%	3.3%	11.0%	.5%
60대이상	42.2%	31.2%	5.8%	1.9%	18.8%	.0%
학력별						
국졸이하	40.0%	30.6%	7.7%	3.0%	18.7%	.0%
중졸	31.8%	45.8%	13.5%	1.4%	7.5%	.0%
고졸	35.0%	47.9%	10.5%	1.7%	4.5%	.3%
대졸	39.5%	45.7%	11.6%	1.1%	1.9%	.3%
대원졸이상	33.3%	48.9%	8.9%	4.4%	4.4%	.0%
직업별						
사무직	36.5%	48.0%	10.3%	2.4%	2.4%	.4%
전문기술직	38.1%	41.8%	14.2%	.7%	5.2%	.0%
행정관리직	37.5%	50.0%	9.4%	.0%	3.1%	.0%
판매직	34.8%	44.4%	11.9%	2.0%	7.0%	.0%
생산직	37.4%	42.4%	9.4%	1.4%	9.4%	.0%
서비스업	31.2%	44.8%	12.0%	3.2%	8.0%	.8%
1차산업	42.1%	34.3%	7.1%	4.3%	12.1%	.0%
주부	32.4%	48.7%	9.0%	1.0%	9.0%	.0%
학생	33.0%	49.3%	14.5%	1.2%	2.1%	.0%
정년퇴직	46.2%	30.8%	10.3%	2.6%	10.3%	.0%
기타	48.3%	36.8%	8.0%	1.1%	3.4%	2.3%
소득수준별						
40이하	36.9%	29.8%	11.3%	2.8%	19.1%	.0%
41-70	36.3%	39.8%	13.1%	2.4%	8.0%	.4%
71-100	40.7%	41.6%	8.5%	1.4%	7.6%	.2%
101-150	32.5%	48.5%	12.6%	1.2%	5.0%	.2%
151-200	33.3%	51.6%	10.3%	1.9%	2.9%	.0%
201-300	35.6%	48.0%	10.4%	3.0%	3.0%	.0%
301이상	36.7%	46.7%	11.1%	.0%	4.4%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32.0%	48.4%	12.6%	2.0%	4.8%	.2%
중소도시	37.2%	44.2%	10.9%	1.4%	5.9%	.4%
읍면지역	41.1%	39.8%	7.9%	1.7%	9.4%	.0%
전체	35.8%	45.1%	11.0%	1.8%	6.3%	.2%

한국의 문화수준에 대한 인식

	높은편	보통이다	낮은편	모르겠다	무응답
성별					
남	25.2%	48.8%	18.1%	7.4%	.5%
여	21.7%	49.0%	19.4%	9.9%	.1%
연령별					
10대	21.3%	55.4%	16.3%	5.4%	1.7%
20대	23.2%	49.6%	21.6%	5.6%	.0%
30대	20.6%	50.9%	20.7%	7.5%	.3%
40대	20.7%	49.7%	17.4%	12.2%	.0%
50대	24.7%	46.7%	15.9%	12.6%	.0%
60대이상	42.2%	29.9%	11.7%	16.2%	.0%
학력별					
국졸이하	37.9%	30.6%	12.8%	18.7%	.0%
중졸	20.7%	50.4%	17.1%	11.1%	.7%
고졸	20.5%	51.1%	21.1%	7.1%	.2%
대졸	25.3%	53.0%	18.0%	3.5%	.3%
대원졸이상	17.8%	51.1%	22.2%	8.9%	.0%
직업별					
사무직	25.0%	48.8%	22.2%	3.6%	.4%
전문기술직	22.4%	56.7%	17.2%	3.7%	.0%
행정관리직	28.1%	43.8%	21.9%	6.3%	.0%
판매직	21.5%	46.7%	23.8%	7.9%	.0%
생산직	15.8%	48.2%	20.9%	15.1%	.0%
서비스업	16.8%	47.2%	24.8%	9.6%	1.6%
1차산업	35.0%	39.3%	12.9%	12.9%	.0%
주부	20.0%	50.1%	17.0%	12.9%	.0%
학생	24.5%	53.7%	15.3%	5.9%	.6%
정년퇴직	53.8%	35.9%	5.1%	5.1%	.0%
기타	26.4%	47.1%	17.2%	8.0%	1.1%
소득수준별					
40이하	25.5%	39.0%	15.6%	19.9%	.0%
41-70	24.7%	41.0%	21.9%	12.4%	.0%
71-100	24.9%	46.2%	19.2%	9.4%	.2%
101-150	19.8%	57.1%	17.0%	6.2%	.0%
151-200	22.8%	52.6%	17.7%	6.3%	.5%
201-300	25.7%	46.5%	19.8%	6.9%	1.0%
301이상	26.7%	43.3%	24.4%	4.4%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20.9%	50.5%	21.3%	6.7%	.5%
중소도시	23.6%	49.3%	16.8%	10.1%	.2%
읍면지역	27.7%	45.7%	15.8%	10.8%	.0%
전체	23.4%	48.9%	18.8%	8.7%	.3%

	한국문화예술분야 중 발전분야에 대한 인식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성별									
남	7.1%	3.5%	.5%	15.7%	28.1%	1.3%	3.2%	1.3%	3.5%
여	7.4%	4.0%	.5%	10.5%	21.0%	2.9%	3.8%	3.0%	5.0%
연령별									
10대	12.5%	3.3%	.4%	11.3%	35.0%	2.5%	3.8%	1.3%	2.1%
20대	10.5%	3.8%	.8%	11.1%	28.5%	1.7%	5.0%	1.9%	4.8%
30대	5.9%	4.2%	.3%	13.2%	24.2%	3.1%	3.7%	2.3%	5.4%
40대	5.8%	4.0%	.9%	16.5%	19.8%	1.8%	2.1%	1.8%	4.9%
50대	1.6%	3.8%	.0%	14.3%	18.1%	1.1%	2.7%	3.8%	2.2%
60대이상	2.6%	1.9%	.0%	13.6%	13.0%	.6%	1.3%	2.6%	2.6%
학력별									
국졸이하	3.0%	1.7%	.4%	12.8%	15.7%	.4%	3.4%	4.3%	2.1%
중졸	6.0%	2.9%	.5%	18.6%	22.7%	.7%	2.7%	2.2%	3.4%
고졸	6.9%	2.7%	.6%	10.7%	26.5%	2.6%	4.4%	2.0%	5.5%
대졸	11.6%	8.1%	.3%	12.6%	28.5%	3.2%	2.7%	1.1%	3.8%
대원졸이상	13.3%	8.9%	.0%	17.8%	13.3%	4.4%	.0%	2.2%	2.2%
직업별									
사무직	9.1%	5.2%	.0%	11.9%	28.2%	3.2%	3.2%	.8%	3.2%
전문기술직	9.7%	7.5%	.0%	11.9%	29.1%	5.2%	3.0%	1.5%	2.2%
행정관리직	3.1%	6.3%	.0%	12.5%	28.1%	3.1%	6.3%	.0%	6.3%
판매직	5.0%	3.3%	.7%	14.6%	27.5%	2.0%	4.6%	2.0%	6.3%
생산직	3.6%	2.2%	1.4%	13.7%	22.3%	2.2%	2.9%	2.2%	4.3%
서비스업	3.2%	1.6%	.8%	13.6%	23.2%	.0%	4.8%	.8%	4.0%
1차산업	2.9%	1.4%	.7%	10.7%	16.4%	.7%	3.6%	4.3%	2.1%
주부	5.4%	3.9%	.5%	13.1%	18.5%	1.9%	3.2%	3.9%	5.8%
학생	15.3%	3.2%	.6%	13.6%	32.2%	2.1%	2.9%	.9%	2.4%
정년퇴직	2.6%	.0%	.0%	15.4%	12.8%	.0%	2.6%	.0%	2.6%
기타	5.7%	6.9%	.0%	12.6%	17.2%	1.1%	3.4%	4.6%	6.9%
소득수준별									
40이하	2.8%	1.4%	.0%	13.5%	18.4%	1.4%	4.3%	2.8%	1.4%
41-70	6.4%	2.8%	.8%	11.2%	22.7%	1.2%	4.4%	2.0%	2.8%
71-100	6.4%	4.1%	1.1%	14.6%	24.5%	1.4%	3.9%	2.3%	5.5%
101-150	7.8%	4.2%	.6%	14.4%	22.4%	2.6%	2.6%	2.6%	5.0%
151-200	6.9%	2.9%	.0%	12.7%	27.8%	1.3%	3.4%	2.4%	4.5%
201-300	8.9%	5.0%	.0%	10.9%	26.7%	4.5%	3.0%	1.0%	3.0%
301이상	15.6%	6.7%	.0%	10.0%	32.2%	4.4%	4.4%	.0%	4.4%
도시규모별									
대도시	8.1%	4.5%	.4%	14.1%	23.8%	2.7%	3.0%	1.3%	5.0%
중소도시	6.7%	4.0%	.6%	12.7%	27.1%	1.8%	3.4%	2.0%	2.6%
읍면지역	6.2%	2.3%	.6%	11.7%	23.2%	1.3%	4.5%	3.8%	4.5%
전체	7.3%	3.8%	.5%	13.1%	24.5%	2.1%	3.5%	2.2%	4.3%

(continued)

한국문화예술분야 중 발전분야에 대한 인식

	연예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성별				
남	6.4%	.4%	27.8%	1.2%
여	9.4%	.3%	31.3%	1.0%
연령별				
10대	9.2%	.0%	17.9%	.8%
20대	9.0%	.6%	21.8%	.4%
30대	8.7%	.5%	26.7%	1.7%
40대	3.4%	.0%	38.1%	.9%
50대	8.2%	.5%	42.3%	1.1%
60대이상	8.4%	.0%	51.3%	1.9%
학력별				
국졸이하	8.5%	.4%	45.5%	1.7%
중졸	8.0%	.0%	31.6%	1.0%
고졸	8.8%	.4%	28.1%	.9%
대졸	5.4%	.5%	21.2%	1.1%
대원졸이상	6.7%	.0%	26.7%	4.4%
직업별				
사무직	7.5%	.4%	25.8%	1.6%
전문기술직	5.2%	.0%	24.6%	.0%
행정관리직	3.1%	3.1%	28.1%	.0%
판매직	9.6%	.3%	23.5%	.7%
생산직	9.4%	.7%	34.5%	.7%
서비스업	7.2%	.8%	36.8%	3.2%
1차산업	4.3%	.7%	51.4%	.7%
주부	8.0%	.2%	31.4%	1.2%
학생	8.6%	.0%	18.0%	.3%
정년퇴직	15.4%	.0%	43.6%	5.1%
기타	6.9%	.0%	32.2%	2.3%
소득수준별				
40이하	7.1%	.0%	46.1%	.7%
41-70	8.8%	.4%	35.5%	1.2%
71-100	8.5%	.5%	26.5%	.7%
101-150	8.2%	.4%	28.7%	.6%
151-200	7.4%	.5%	27.8%	2.4%
201-300	7.9%	.0%	28.7%	.5%
301이상	4.4%	.0%	15.6%	2.2%
도시규모별				
대도시	8.9%	.4%	26.2%	1.6%
중소도시	7.1%	.2%	30.9%	1.0%
읍면지역	6.8%	.4%	34.3%	.4%
전체	7.9%	.4%	29.6%	1.1%

	한국문화예술분야 중 나후분야에 대한 인식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성별									
남	4.4%	2.5%	2.5%	9.4%	6.5%	3.0%	3.5%	3.9%	29.3%
여	4.4%	1.7%	1.8%	9.2%	8.4%	3.5%	3.3%	3.9%	20.7%
연령별									
10대	5.0%	2.9%	.8%	7.1%	5.4%	5.0%	4.2%	5.4%	37.5%
20대	5.4%	2.1%	3.8%	10.0%	8.6%	2.1%	3.3%	5.9%	32.0%
30대	5.1%	3.1%	2.4%	12.5%	8.5%	3.0%	2.6%	3.3%	24.7%
40대	4.0%	1.2%	.6%	7.9%	6.1%	4.9%	3.0%	2.7%	19.2%
50대	2.2%	.5%	1.1%	7.7%	6.6%	3.3%	6.0%	1.6%	13.7%
60대이상	1.3%	.6%	1.9%	3.2%	6.5%	1.9%	3.2%	1.9%	7.8%
학력별									
국졸이하	.9%	1.3%	1.7%	5.1%	8.1%	3.0%	4.7%	2.6%	8.9%
중졸	4.6%	1.4%	1.2%	5.3%	5.3%	4.3%	2.2%	3.6%	21.4%
고졸	4.2%	2.7%	2.1%	10.5%	8.8%	3.4%	3.4%	4.1%	27.9%
대졸	6.5%	1.9%	3.8%	13.4%	5.9%	2.2%	3.5%	5.1%	31.5%
대원졸이상	8.9%	2.2%	.0%	8.9%	8.9%	.0%	6.7%	.0%	26.7%
직업별									
사무직	6.7%	2.0%	2.0%	11.9%	7.9%	2.4%	4.4%	4.8%	25.8%
전문기술직	3.7%	3.0%	.7%	20.1%	6.7%	1.5%	2.2%	6.0%	31.3%
행정관리직	6.3%	3.1%	.0%	12.5%	3.1%	.0%	3.1%	3.1%	25.0%
판매직	4.6%	2.0%	3.6%	8.9%	7.3%	4.0%	3.6%	3.0%	27.5%
생산직	2.2%	2.2%	2.2%	10.1%	8.6%	1.4%	4.3%	2.2%	21.6%
서비스업	4.8%	2.4%	1.6%	7.2%	4.8%	3.2%	4.0%	3.2%	18.4%
1차산업	.7%	.7%	2.9%	3.6%	8.6%	3.6%	.7%	2.9%	12.1%
주부	3.9%	1.2%	1.5%	9.2%	7.5%	3.6%	3.2%	2.7%	19.0%
학생	4.1%	3.2%	2.4%	6.5%	7.1%	4.7%	3.8%	7.4%	36.6%
정년퇴직	7.7%	2.6%	2.6%	7.7%	5.1%	2.6%	2.6%	.0%	7.7%
기타	8.0%	2.3%	2.3%	8.0%	11.5%	2.3%	3.4%	1.1%	29.9%
소득수준별									
40이하	2.1%	2.1%	3.5%	5.7%	7.1%	4.3%	2.1%	1.4%	22.7%
41-70	3.2%	1.2%	.8%	6.8%	6.0%	2.8%	2.4%	3.2%	22.7%
71-100	4.1%	1.4%	2.3%	11.4%	9.8%	2.7%	3.2%	3.7%	23.6%
101-150	3.8%	2.6%	1.8%	9.2%	6.6%	2.6%	3.8%	3.8%	25.7%
151-200	6.6%	2.9%	2.6%	9.5%	7.1%	5.0%	3.2%	5.0%	23.3%
201-300	5.9%	2.0%	2.0%	11.4%	6.4%	2.5%	3.5%	5.4%	30.2%
301이상	3.3%	2.2%	3.3%	6.7%	8.9%	3.3%	7.8%	3.3%	32.2%
도시규모별									
대도시	4.2%	2.1%	2.0%	9.4%	6.7%	2.7%	4.4%	4.0%	26.3%
중소도시	4.6%	2.6%	2.2%	9.3%	7.5%	2.6%	2.8%	3.6%	29.1%
읍면지역	4.5%	1.7%	2.5%	9.1%	8.7%	4.9%	2.3%	4.0%	18.5%
전체	4.4%	2.1%	2.2%	9.3%	7.5%	3.3%	3.4%	3.9%	25.0%

(continued)

한국문화예술분야 중 낙후분야에 대한 인식

	연예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성별				
남	3.0%	.4%	30.8%	.8%
여	3.6%	.9%	37.9%	.8%
연령별				
10대	3.3%	.4%	21.3%	1.7%
20대	2.7%	1.0%	22.8%	.4%
30대	3.7%	.3%	30.3%	.3%
40대	3.7%	.6%	44.5%	1.5%
50대	3.8%	.5%	52.2%	.5%
60대이상	2.6%	1.3%	66.2%	1.3%
학력별				
국졸이하	2.1%	1.3%	58.7%	1.7%
중졸	3.1%	.2%	46.0%	1.2%
고졸	2.4%	.8%	29.5%	.3%
대졸	6.2%	.5%	18.8%	.8%
대원졸이상	6.7%	.0%	28.9%	2.2%
직업별				
사무직	4.0%	.8%	25.8%	1.6%
전문기술직	4.5%	.7%	19.4%	.0%
행정관리직	9.4%	.0%	34.4%	.0%
판매직	2.3%	1.0%	31.8%	.3%
생산직	1.4%	.0%	43.2%	.7%
서비스업	2.4%	.8%	46.4%	.8%
1차산업	1.4%	.7%	61.4%	.7%
주부	4.9%	.2%	42.1%	1.0%
학생	2.4%	.9%	20.1%	.9%
정년퇴직	2.6%	.0%	56.4%	2.6%
기타	4.6%	1.1%	25.3%	.0%
소득수준별				
40이하	2.8%	.0%	45.4%	.7%
41-70	3.2%	2.0%	45.0%	.8%
71-100	1.8%	.7%	34.3%	.9%
101-150	3.0%	.2%	36.3%	.6%
151-200	5.3%	.3%	28.0%	1.1%
201-300	3.5%	1.0%	25.7%	.5%
301이상	4.4%	1.1%	22.2%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3.4%	.7%	33.0%	1.0%
중소도시	2.8%	.4%	32.1%	.6%
읍면지역	3.6%	.8%	39.1%	.6%
전체	3.3%	.7%	34.4%	.8%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문화시설확충	지도자양성	문화행사실시	문화정보제공	씨름육성지원	표창제도	문화교류	기타	무응답
성별									
남	38.5%	7.8%	19.5%	10.6%	9.4%	3.0%	5.0%	3.5%	2.6%
여	36.9%	6.6%	21.9%	14.3%	8.2%	1.6%	3.5%	4.5%	2.6%
연령별									
10대	45.8%	2.1%	23.3%	12.5%	9.6%	.8%	1.7%	2.5%	1.7%
20대	39.1%	5.4%	21.5%	17.0%	12.1%	.4%	3.1%	.6%	1.0%
30대	36.1%	9.8%	22.3%	12.9%	8.0%	1.9%	4.5%	2.6%	1.9%
40대	32.6%	7.3%	18.9%	11.9%	9.8%	4.6%	6.1%	4.9%	4.0%
50대	35.2%	7.1%	17.6%	8.8%	4.4%	4.9%	4.9%	9.9%	7.1%
60대이상	40.3%	11.7%	15.6%	.6%	2.6%	4.5%	6.5%	14.3%	3.9%
학력별									
국졸이하	36.2%	9.4%	17.0%	4.7%	2.1%	4.7%	7.2%	14.0%	4.7%
중졸	41.4%	9.2%	15.9%	11.6%	6.0%	3.1%	3.9%	6.0%	2.9%
고졸	36.2%	6.2%	22.7%	14.4%	11.1%	1.6%	4.0%	1.7%	2.0%
대졸	37.1%	6.2%	23.9%	13.4%	10.5%	1.6%	3.5%	1.6%	2.2%
대원졸이상	46.7%	6.7%	15.6%	13.3%	6.7%	2.2%	4.4%	.0%	4.4%
직업별									
사무직	38.9%	5.2%	24.2%	13.1%	10.3%	.8%	3.6%	1.2%	2.8%
전문기술직	45.5%	6.7%	18.7%	10.4%	10.4%	3.0%	3.7%	1.5%	.0%
행정관리직	31.3%	15.6%	15.6%	18.8%	6.3%	3.1%	9.4%	.0%	.0%
판매직	33.8%	7.6%	21.5%	16.6%	10.9%	2.3%	2.0%	3.0%	2.3%
생산직	35.3%	12.2%	16.5%	10.1%	7.2%	5.0%	7.2%	2.9%	3.6%
서비스업	36.0%	8.8%	12.8%	12.8%	5.6%	5.6%	5.6%	7.2%	5.6%
1차산업	41.4%	8.6%	19.3%	7.1%	2.1%	3.6%	5.0%	9.3%	3.6%
주부	33.8%	7.5%	22.1%	12.7%	7.3%	2.4%	4.9%	6.3%	2.9%
학생	43.7%	2.4%	22.4%	13.9%	11.8%	.3%	2.7%	1.8%	1.2%
정년퇴직	25.6%	15.4%	23.1%	2.6%	2.6%	5.1%	12.8%	7.7%	5.1%
기타	39.1%	10.3%	18.4%	6.9%	11.5%	.0%	4.6%	5.7%	3.4%
소득수준별									
40이하	44.0%	7.8%	11.3%	8.5%	9.2%	4.3%	2.8%	9.2%	2.8%
41-70	37.5%	8.8%	18.7%	9.2%	8.0%	4.0%	4.8%	6.4%	2.8%
71-100	40.3%	8.0%	19.2%	10.3%	7.6%	2.7%	4.1%	4.8%	3.0%
101-150	35.5%	6.8%	22.6%	14.4%	10.0%	1.2%	4.8%	2.4%	2.4%
151-200	34.4%	8.2%	26.2%	11.4%	8.5%	1.6%	4.2%	2.1%	3.4%
201-300	38.1%	4.0%	20.3%	16.8%	9.4%	2.5%	5.0%	2.5%	1.5%
301이상	41.1%	3.3%	15.6%	22.2%	10.0%	1.1%	1.1%	5.6%	.0%
도시규모별									
대도시	39.2%	6.6%	19.6%	14.2%	8.2%	2.2%	4.1%	2.5%	3.4%
중소도시	32.5%	6.3%	22.0%	13.3%	10.9%	3.0%	4.8%	5.1%	2.2%
읍면지역	40.0%	9.1%	21.5%	8.5%	7.9%	1.9%	4.0%	5.7%	1.5%
전체	37.7%	7.2%	20.7%	12.5%	8.8%	2.3%	4.3%	4.0%	2.6%

	문화예술교육 경험							
	음악교육		연극교육		무용교육		미술교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8.0%	92.0%	3.1%	96.9%	.6%	99.4%	4.7%	95.3%
여	14.8%	85.2%	2.7%	97.3%	3.4%	96.6%	8.9%	91.1%
연령별								
10대	15.4%	84.6%	4.2%	95.8%	2.5%	97.5%	14.2%	85.8%
20대	17.6%	82.4%	5.7%	94.3%	3.4%	96.6%	9.0%	91.0%
30대	11.5%	88.5%	2.1%	97.9%	1.7%	98.3%	5.9%	94.1%
40대	6.4%	93.6%	1.8%	98.2%	1.2%	98.8%	3.4%	96.6%
50대	3.8%	96.2%	.0%	100.0%	.5%	99.5%	3.3%	96.7%
60대이상	3.2%	96.8%	.0%	100.0%	.6%	99.4%	2.6%	97.4%
학력별								
국졸이하	3.8%	96.2%	.4%	99.6%	1.3%	98.7%	3.8%	96.2%
중졸	8.9%	91.1%	2.2%	97.8%	.7%	99.3%	6.3%	93.7%
고졸	12.3%	87.7%	3.4%	96.6%	2.6%	97.4%	5.9%	94.1%
대졸	16.1%	83.9%	4.3%	95.7%	2.7%	97.3%	10.5%	89.5%
대원졸이상	15.6%	84.4%	.0%	100.0%	.0%	100.0%	15.6%	84.4%
직업별								
사무직	9.1%	90.9%	2.8%	97.2%	1.6%	98.4%	4.4%	95.6%
전문기술직	18.7%	81.3%	1.5%	98.5%	1.5%	98.5%	8.2%	91.8%
행정관리직	9.4%	90.6%	6.3%	93.8%	.0%	100.0%	3.1%	96.9%
판매직	8.6%	91.4%	2.6%	97.4%	1.0%	99.0%	4.3%	95.7%
생산직	6.5%	93.5%	3.6%	96.4%	.7%	99.3%	.0%	100.0%
서비스업	9.6%	90.4%	4.0%	96.0%	.8%	99.2%	9.6%	90.4%
1차산업	2.9%	97.1%	.0%	100.0%	.7%	99.3%	2.1%	97.9%
주부	11.7%	88.3%	1.5%	98.5%	3.4%	96.6%	5.6%	94.4%
학생	20.1%	79.9%	6.8%	93.2%	3.2%	96.8%	16.8%	83.2%
정년퇴직	5.1%	94.9%	.0%	100.0%	.0%	100.0%	.0%	100.0%
기타	9.2%	90.8%	.0%	100.0%	3.4%	96.6%	5.7%	94.3%
소득수준별								
40이하	3.5%	96.5%	2.1%	97.9%	1.4%	98.6%	2.1%	97.9%
41-70	7.6%	92.4%	1.6%	98.4%	1.2%	98.8%	4.4%	95.6%
71-100	8.5%	91.5%	2.1%	97.9%	1.8%	98.2%	3.4%	96.6%
101-150	11.0%	89.0%	2.6%	97.4%	2.4%	97.6%	6.6%	93.4%
151-200	13.8%	86.2%	4.8%	95.2%	1.6%	98.4%	8.2%	91.8%
201-300	17.8%	82.2%	4.5%	95.5%	1.5%	98.5%	12.9%	87.1%
301이상	26.7%	73.3%	2.2%	97.8%	6.7%	93.3%	18.9%	81.1%
도시규모별								
대도시	13.4%	86.6%	3.1%	96.9%	1.9%	98.1%	9.1%	90.9%
중소도시	10.1%	89.9%	2.6%	97.4%	2.8%	97.2%	6.1%	93.9%
읍면지역	9.1%	90.9%	2.8%	97.2%	1.5%	98.5%	3.2%	96.8%
전체	11.4%	88.6%	2.9%	97.1%	2.0%	98.0%	6.8%	93.2%

	문화예술교육 경험					
	영화교육		국악교육		민속놀이 교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	2.0%	98.0%	3.4%	96.6%	5.6%	94.4%
여	1.2%	98.8%	4.3%	95.7%	3.6%	96.4%
연령별						
10대	2.1%	97.9%	6.7%	93.3%	4.6%	95.4%
20대	2.3%	97.7%	5.0%	95.0%	6.3%	93.7%
30대	1.9%	98.1%	3.3%	96.7%	3.5%	96.5%
40대	.9%	99.1%	2.7%	97.3%	4.0%	96.0%
50대	.5%	99.5%	1.6%	98.4%	3.3%	96.7%
60대이상	.0%	100.0%	2.6%	97.4%	5.8%	94.2%
학력별						
국졸이하	.0%	100.0%	.4%	99.6%	2.1%	97.9%
중졸	1.0%	99.0%	2.9%	97.1%	4.8%	95.2%
고졸	2.3%	97.7%	4.3%	95.7%	5.0%	95.0%
대졸	1.6%	98.4%	6.2%	93.8%	5.4%	94.6%
대원졸이상	2.2%	97.8%	2.2%	97.8%	.0%	100.0%
직업별						
사무직	1.2%	98.8%	2.0%	98.0%	5.2%	94.8%
전문기술직	.7%	99.3%	3.0%	97.0%	3.7%	96.3%
행정관리직	.0%	100.0%	3.1%	96.9%	6.3%	93.8%
판매직	1.7%	98.3%	5.0%	95.0%	5.0%	95.0%
생산직	2.2%	97.8%	4.3%	95.7%	7.2%	92.8%
서비스업	3.2%	96.8%	3.2%	96.8%	3.2%	96.8%
1차산업	.0%	100.0%	3.6%	96.4%	5.0%	95.0%
주부	1.2%	98.8%	1.9%	98.1%	2.4%	97.6%
학생	2.7%	97.3%	6.2%	93.8%	5.3%	94.7%
정년퇴직	.0%	100.0%	2.6%	97.4%	7.7%	92.3%
기타	2.3%	97.7%	8.0%	92.0%	5.7%	94.3%
소득수준별						
40이하	.7%	99.3%	2.8%	97.2%	3.5%	96.5%
41-70	1.2%	98.8%	2.0%	98.0%	4.8%	95.2%
71-100	2.3%	97.7%	3.9%	96.1%	5.9%	94.1%
101-150	1.8%	98.2%	3.6%	96.4%	5.8%	94.2%
151-200	.8%	99.2%	4.5%	95.5%	3.7%	96.3%
201-300	1.5%	98.5%	6.9%	93.1%	2.5%	97.5%
301이상	3.3%	96.7%	2.2%	97.8%	1.1%	98.9%
도시규모별						
대도시	1.8%	98.2%	3.6%	96.4%	3.2%	96.8%
중소도시	1.2%	98.8%	2.4%	97.6%	5.5%	94.5%
읍면지역	1.7%	98.3%	5.7%	94.3%	6.2%	93.8%
전체	1.6%	98.4%	3.9%	96.2%	4.6%	95.4%

문화예술교육 참가의사							
	비싸도참가	무료참가	싸면참가	시간여유	관심없다	기타	무응답
성별							
남	11.1%	3.8%	6.7%	62.5%	13.8%	.6%	1.4%
여	12.9%	5.7%	12.5%	58.5%	8.5%	1.0%	1.0%
연령별							
10대	15.8%	5.8%	11.7%	57.5%	7.5%	.8%	.8%
20대	15.9%	4.2%	12.1%	63.0%	3.8%	.6%	.4%
30대	10.8%	2.8%	10.3%	68.3%	6.3%	.5%	1.0%
40대	10.1%	5.5%	5.8%	63.1%	13.1%	.9%	1.5%
50대	7.7%	5.5%	9.3%	51.6%	21.4%	1.6%	2.7%
60대이상	6.5%	9.7%	3.9%	32.5%	43.5%	1.3%	2.6%
학력별							
국졸이하	6.0%	8.5%	7.7%	41.7%	31.9%	2.1%	2.1%
중졸	9.9%	6.7%	9.9%	55.9%	14.9%	.7%	1.9%
고졸	13.3%	3.8%	10.1%	64.5%	7.2%	.5%	.6%
대졸	14.5%	3.2%	9.9%	67.5%	3.5%	.5%	.8%
대원졸이상	15.6%	.0%	4.4%	60.0%	13.3%	2.2%	4.4%
직업별							
사무직	11.1%	2.4%	9.5%	69.4%	5.6%	.8%	1.2%
전문기술직	10.4%	1.5%	8.2%	71.6%	7.5%	.0%	.7%
행정관리직	12.5%	.0%	3.1%	75.0%	9.4%	.0%	.0%
판매직	12.9%	2.6%	6.6%	66.2%	10.3%	.3%	1.0%
생산직	12.2%	2.2%	8.6%	65.5%	8.6%	.7%	2.2%
서비스업	8.8%	6.4%	7.2%	66.4%	8.0%	.8%	2.4%
1차산업	12.9%	7.9%	2.1%	37.9%	35.7%	2.1%	1.4%
주부	10.7%	7.3%	12.9%	56.0%	11.4%	.7%	1.0%
학생	15.0%	5.6%	12.1%	59.9%	5.9%	.9%	.6%
정년퇴직	2.6%	12.8%	7.7%	28.2%	46.2%	.0%	2.6%
기타	14.9%	3.4%	17.2%	50.6%	9.2%	2.3%	2.3%
소득수준별							
40이하	12.1%	10.6%	5.0%	41.8%	26.2%	2.1%	2.1%
41-70	10.0%	9.2%	10.4%	49.8%	17.9%	1.2%	1.6%
71-100	11.0%	6.2%	10.5%	59.0%	11.2%	.7%	1.4%
101-150	10.8%	2.2%	11.8%	66.3%	7.4%	.6%	1.0%
151-200	10.6%	2.6%	8.5%	68.0%	9.0%	.3%	1.1%
201-300	19.3%	3.5%	8.4%	60.4%	6.4%	1.5%	.5%
301이상	18.9%	2.2%	5.6%	63.3%	8.9%	.0%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10.6%	4.9%	11.2%	59.9%	11.7%	.4%	1.3%
중소도시	11.5%	4.4%	9.3%	64.2%	9.5%	.4%	.8%
읍면지역	15.1%	4.9%	7.0%	58.1%	11.7%	1.9%	1.3%
전체	12.0%	4.8%	9.6%	60.5%	11.2%	.8%	1.2%

월 평균 최대지출 문화활동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각종전시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성별											
남	31.7%	14.1%	16.6%	1.4%	.4%	.1%	8.6%	.8%	2.4%	23.1%	.7%
여	36.2%	12.8%	15.5%	.8%	.8%	.1%	7.5%	.7%	1.1%	23.9%	.7%
연령별											
10대	36.7%	28.3%	14.2%	.0%	.4%	.0%	8.8%	.0%	2.9%	7.9%	.8%
20대	35.2%	16.7%	19.2%	.8%	.8%	.0%	17.0%	1.0%	1.5%	7.3%	.6%
30대	41.8%	11.7%	21.1%	.5%	.7%	.2%	5.6%	1.4%	1.9%	14.6%	.5%
40대	36.0%	8.8%	14.6%	1.2%	.0%	.0%	4.0%	.6%	1.2%	32.6%	.9%
50대	18.7%	6.6%	9.3%	4.4%	1.6%	.5%	2.7%	.0%	1.1%	53.8%	1.1%
60대이상	9.7%	3.9%	.6%	1.9%	.0%	.0%	.6%	.0%	1.9%	80.5%	.6%
학력별											
국졸이하	14.0%	7.2%	5.1%	1.7%	.4%	.0%	.4%	.0%	.9%	69.4%	.9%
중졸	27.2%	16.4%	14.7%	1.7%	.5%	.0%	5.3%	.5%	1.4%	31.3%	1.0%
고졸	35.8%	14.4%	20.4%	.8%	.3%	.2%	9.5%	1.0%	1.6%	15.4%	.6%
대졸	47.3%	11.3%	14.8%	1.1%	1.1%	.0%	12.6%	.8%	3.2%	7.3%	.5%
대원졸이상	51.1%	17.8%	6.7%	.0%	4.4%	.0%	4.4%	2.2%	.0%	13.3%	.0%
직업별											
사무직	42.5%	12.7%	12.7%	.8%	.0%	.0%	17.1%	.8%	2.8%	10.7%	.0%
전문기술직	38.8%	14.2%	20.1%	1.5%	3.0%	.0%	5.2%	2.2%	.7%	14.2%	.0%
행정관리직	46.9%	3.1%	12.5%	.0%	.0%	.0%	15.6%	.0%	.0%	21.9%	.0%
판매직	37.7%	12.3%	20.5%	1.3%	.7%	.0%	6.0%	.7%	2.6%	16.9%	1.3%
생산직	24.5%	14.4%	19.4%	2.2%	.0%	.7%	10.8%	.0%	1.4%	26.6%	.0%
서비스업	29.6%	10.4%	24.0%	.8%	.0%	.8%	8.0%	.8%	.8%	23.2%	1.6%
1차산업	10.7%	4.3%	10.0%	3.6%	.7%	.0%	5.0%	.7%	.0%	65.0%	.0%
주부	33.3%	9.0%	16.3%	.5%	.2%	.0%	3.4%	1.0%	1.0%	34.8%	.5%
학생	38.9%	27.1%	12.4%	.3%	.9%	.0%	11.2%	.6%	2.1%	5.6%	.9%
정년퇴직	5.1%	7.7%	2.6%	.0%	2.6%	.0%	.0%	.0%	2.6%	79.5%	.0%
기타	39.1%	10.3%	17.2%	2.3%	.0%	.0%	4.6%	.0%	4.6%	18.4%	3.4%
소득수준별											
40이하	14.9%	14.2%	9.2%	2.1%	.7%	.0%	5.0%	.7%	1.4%	51.8%	.0%
41-70	17.5%	10.4%	13.5%	2.0%	.0%	.4%	9.6%	.4%	2.0%	43.4%	.8%
71-100	33.4%	13.3%	16.5%	1.4%	.5%	.0%	6.4%	.7%	1.6%	24.7%	1.6%
101-150	36.1%	14.8%	19.4%	.8%	.2%	.2%	8.4%	.8%	1.8%	17.2%	.4%
151-200	42.9%	14.3%	13.5%	.5%	.5%	.0%	9.3%	.8%	1.6%	16.4%	.3%
201-300	44.6%	9.9%	19.3%	1.0%	1.0%	.0%	9.4%	1.5%	1.5%	11.4%	.5%
301이상	38.9%	18.9%	16.7%	.0%	4.4%	.0%	6.7%	.0%	3.3%	10.0%	1.1%
도시규모별											
대도시	36.0%	13.3%	16.3%	1.3%	1.1%	.0%	9.0%	1.0%	1.9%	19.1%	1.0%
중소도시	33.5%	15.4%	16.4%	1.2%	.2%	.2%	7.1%	.8%	1.4%	23.6%	.2%
읍면지역	30.8%	11.9%	15.3%	.6%	.0%	.2%	7.2%	.2%	1.9%	31.5%	.6%
전체	34.0%	13.5%	16.1%	1.1%	.6%	.1%	8.1%	.8%	1.8%	23.5%	.7%

	희망하는 문화활동 지출분야										
	책잡지	음반	비디오테 입	각종 전시 회	음악회	무용	영화	연극	기타	해당없다	무응답
성별											
남	21.4%	13.3%	5.4%	11.5%	6.4%	1.0%	11.7%	13.4%	1.0%	13.8%	.9%
여	14.5%	12.7%	3.6%	15.0%	11.8%	1.8%	10.0%	14.3%	1.4%	13.5%	1.6%
연령별											
10대	16.7%	15.0%	7.5%	8.3%	8.3%	.4%	27.1%	13.3%	.4%	1.7%	1.3%
20대	15.7%	20.1%	3.4%	12.1%	10.0%	1.5%	12.6%	21.5%	.4%	1.9%	.8%
30대	21.1%	12.9%	5.4%	15.9%	11.8%	1.7%	7.1%	15.7%	1.6%	5.9%	.9%
40대	23.2%	7.9%	4.0%	15.5%	9.8%	1.8%	7.6%	10.1%	1.5%	16.8%	1.8%
50대	11.5%	8.8%	3.8%	14.3%	4.9%	1.1%	8.2%	3.8%	2.2%	38.5%	2.7%
60대이상	12.3%	1.9%	1.9%	9.1%	.6%	.6%	3.2%	1.9%	1.9%	64.9%	1.3%
학력별											
국졸이하	9.4%	4.7%	2.6%	7.7%	3.4%	.4%	10.2%	2.1%	.4%	57.0%	2.1%
중졸	16.9%	11.1%	5.1%	13.5%	5.5%	1.2%	16.1%	10.8%	1.2%	15.7%	2.9%
고졸	18.8%	14.9%	5.3%	14.1%	8.8%	1.4%	10.7%	17.7%	1.2%	6.8%	.4%
대졸	20.7%	14.8%	3.5%	15.6%	16.4%	2.4%	7.0%	14.8%	1.9%	2.2%	.8%
대원졸이상	33.3%	20.0%	2.2%	2.2%	17.8%	.0%	.0%	15.6%	.0%	6.7%	2.2%
직업별											
사무직	22.2%	14.7%	2.0%	11.1%	13.1%	2.0%	6.0%	19.8%	1.6%	6.3%	1.2%
전문기술 직	23.1%	12.7%	4.5%	15.7%	14.2%	2.2%	8.2%	14.2%	.7%	4.5%	.0%
행정관리 직	28.1%	3.1%	.0%	12.5%	15.6%	.0%	21.9%	12.5%	.0%	6.3%	.0%
판매직	16.9%	12.9%	6.3%	19.9%	7.3%	2.3%	11.3%	12.3%	2.0%	7.0%	2.0%
생산직	24.5%	11.5%	5.0%	12.9%	5.0%	1.4%	11.5%	13.7%	1.4%	12.2%	.7%
서비스업	18.4%	12.0%	8.0%	13.6%	4.8%	.8%	9.6%	14.4%	2.4%	14.4%	1.6%
1차산업	10.7%	7.1%	4.3%	10.0%	1.4%	.7%	6.4%	5.7%	.0%	52.1%	1.4%
주부	13.6%	11.4%	3.6%	14.6%	12.4%	1.9%	7.5%	12.4%	1.5%	19.5%	1.5%
학생	18.3%	18.6%	5.3%	7.7%	8.6%	.3%	20.9%	18.0%	.3%	.9%	1.2%
정년퇴직	10.3%	2.6%	2.6%	7.7%	2.6%	.0%	2.6%	.0%	2.6%	69.2%	.0%
기타	20.7%	16.1%	3.4%	16.1%	8.0%	.0%	11.5%	11.5%	.0%	11.5%	1.1%
소득수준 별											
40이하	12.8%	8.5%	5.0%	13.5%	2.8%	.7%	9.2%	8.5%	.0%	37.6%	1.4%
41-70	13.5%	8.0%	4.0%	9.2%	4.8%	1.6%	13.9%	12.4%	1.6%	28.3%	2.8%
71-100	18.8%	10.3%	3.4%	15.8%	9.4%	1.6%	11.7%	11.9%	.5%	14.6%	2.1%
101-150	20.6%	14.4%	6.0%	12.8%	8.2%	1.4%	11.0%	15.0%	2.0%	8.2%	.6%
151-200	19.8%	17.7%	4.8%	12.2%	9.8%	2.1%	10.6%	14.3%	1.1%	6.9%	.8%
201-300	16.8%	13.9%	4.0%	17.3%	15.3%	.5%	6.4%	19.8%	1.0%	5.0%	.0%
301이상	14.4%	17.8%	2.2%	10.0%	17.8%	.0%	11.1%	14.4%	2.2%	8.9%	1.1%
도시규모 별											
대도시	17.0%	14.6%	3.9%	13.2%	10.3%	1.9%	11.2%	14.6%	1.3%	10.4%	1.7%
중소도시	20.2%	10.7%	5.3%	12.7%	11.5%	1.2%	6.5%	16.2%	1.2%	13.3%	1.2%
읍면지역	17.5%	12.3%	4.7%	14.0%	4.7%	.8%	14.3%	10.2%	.9%	20.0%	.6%
전체	18.0%	13.0%	4.5%	13.3%	9.1%	1.4%	10.9%	13.9%	1.2%	13.7%	1.3%

	월 평균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1만원이하	2만원이하	3만원이하	4만원이하	5만원이하	십만원이하	십만원초과	없다
	a	a	a	a	a			
성별								
남	20.3%	18.9%	11.3%	2.2%	10.9%	5.8%	2.0%	28.5%
여	21.2%	19.7%	9.9%	2.5%	6.6%	5.0%	1.0%	34.2%
연령별								
10대	41.7%	20.8%	9.6%	2.1%	2.5%	.8%	.4%	22.1%
20대	19.5%	27.8%	13.0%	3.6%	13.8%	7.7%	1.1%	13.4%
30대	17.6%	19.2%	13.9%	2.8%	9.8%	8.7%	2.3%	25.8%
40대	18.9%	15.5%	8.8%	1.2%	8.2%	3.4%	1.2%	42.7%
50대	20.9%	9.9%	4.9%	1.6%	6.0%	2.2%	2.7%	51.6%
60대이상	7.8%	7.8%	1.9%	.0%	1.9%	.6%	.6%	79.2%
학력별								
국졸이하	15.3%	8.9%	2.1%	.0%	.0%	.0%	.0%	73.6%
중졸	31.6%	13.0%	6.7%	1.4%	3.4%	1.4%	.5%	41.9%
고졸	20.6%	23.7%	12.4%	2.4%	9.6%	5.9%	1.4%	24.0%
대졸	14.2%	23.1%	15.1%	4.8%	16.1%	10.2%	3.2%	13.2%
대원졸이상	6.7%	8.9%	15.6%	2.2%	24.4%	20.0%	6.7%	15.6%
직업별								
사무직	17.1%	23.8%	15.9%	5.6%	13.1%	6.3%	.4%	17.9%
전문기술직	11.9%	18.7%	11.9%	4.5%	15.7%	14.9%	3.7%	18.7%
행정관리직	12.5%	21.9%	9.4%	3.1%	21.9%	9.4%	3.1%	18.8%
판매직	22.2%	19.9%	11.6%	.3%	9.3%	5.3%	3.0%	28.5%
생산직	23.7%	22.3%	7.2%	1.4%	7.9%	2.2%	1.4%	33.8%
서비스업	20.8%	12.8%	13.6%	1.6%	8.0%	5.6%	1.6%	36.0%
1차산업	9.3%	8.6%	3.6%	.7%	1.4%	1.4%	1.4%	73.6%
주부	19.5%	17.3%	7.8%	2.4%	7.3%	4.4%	.5%	40.9%
학생	33.0%	25.1%	13.0%	2.4%	6.8%	3.5%	.3%	15.9%
정년퇴직	17.9%	7.7%	5.1%	.0%	.0%	.0%	2.6%	66.7%
기타	16.1%	18.4%	9.2%	2.3%	11.5%	12.6%	4.6%	25.3%
소득수준별								
40이하	17.0%	9.2%	8.5%	2.8%	.7%	.7%	.0%	61.0%
41-70	20.3%	12.7%	6.0%	1.6%	6.4%	2.8%	.4%	49.8%
71-100	24.7%	16.7%	8.9%	1.4%	8.2%	3.2%	1.4%	35.5%
101-150	23.8%	23.0%	10.6%	3.0%	7.8%	6.0%	1.0%	25.0%
151-200	17.5%	25.4%	14.3%	2.9%	12.4%	6.6%	1.3%	19.6%
201-300	17.3%	21.3%	13.4%	2.0%	14.4%	8.4%	3.0%	20.3%
301이상	13.3%	15.6%	13.3%	3.3%	7.8%	15.6%	7.8%	23.3%
도시규모별								
대도시	19.8%	21.3%	11.1%	3.1%	9.4%	7.0%	1.5%	26.7%
중소도시	22.2%	21.0%	12.3%	1.4%	9.1%	4.2%	1.4%	28.5%
읍면지역	21.1%	14.0%	8.1%	1.9%	7.2%	3.6%	1.7%	42.5%
전체	20.8%	19.3%	10.6%	2.4%	8.8%	5.4%	1.5%	31.4%

1994년도 문화향수 실태조사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화체육부가 경제기획원(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주관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문화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표본통계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생활 및 문화 시설 이용현황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아낌없는 협조가 전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올바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모두 컴퓨터로 처리될 것이오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방문한 면접원은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선발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입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장

(전화 02 - 705 - 8228)

* 응답은 √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I. 대중문화매체 이용에 관한 질문

1. 선생님은 신문을 주로 어떻게 보십니까?

- | | |
|--------------------------|--------------------------|
| 1) _____ 정기구독한다 | 3) _____ 직장에 들어오는 신문을 본다 |
| 2) _____ 가판이나 지하철이에 사서본다 | 4) _____ 거의 보지 않는다 |

2. 선생님은 통상 하루에 몇가지 신문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전혀 보지 않을 경우 '0'가지, '0'시간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 1) 종류 : _____ 가지
- 2) 시간 : 약 _____ 시간 _____ 분

3. 선생님이 신문을 볼 때 가장 관심있게 보시는 면은 무엇입니까?

- | | |
|--------------|--------------------------|
| 1) _____ 정치면 | 5) _____ 문화면 |
| 2) _____ 경제면 | 6) _____ 생활정보면 |
| 3) _____ 사회면 | 7) _____ 기타 (무엇 : _____) |
| 4) _____ 국제면 | 8) _____ 거의 보지 않는다 |

4. 선생님은 평일의 경우 하루평균 텔레비전 방송을 얼마나 보십니까? (전혀 보지 않을 경우 '0'시간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약 _____ 시간 _____ 분

5. 선생님은 텔레비전에서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같은 시간대에 방영될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겠습니까?

- 1) _____ 뉴스 및 보도프로그램
- 2) _____ 드라마
- 3) _____ 오락, 코미디 및 쇼 프로그램
- 4) _____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 5) _____ 스포츠 중계
- 6) _____ 특선 영화
- 7)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8) _____ 관심 없다

6. 선생님은 주로 어디에서 라디오를 듣습니까?

- | | |
|---------------|---------------------------|
| 1) _____ 집에서 | 4) _____ 늘 가지고 다니며 듣는다 |
| 2) _____ 직장에서 | 5) _____ 거의 듣지 않는다 |
| 3) _____ 차안에서 | 6) _____ 기 타 (어디 : _____) |

7. 선생님은 평일의 경우 하루평균 라디오방송을 얼마나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을 경우 '0'시간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약 _____ 시간 _____ 분

8. 선생님이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세 가지만 1, 2, 3의 선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_____ 서양고전음악 | 9) _____ 토론 및 해설 프로그램 |
| 2) _____ 팝송 | 10) _____ 생활정보 |

- | | |
|---------------|----------------------------|
| 3) _____ 대중가요 | 11) _____ 교양프로그램 |
| 4) _____ 국악 | 12) _____ 날씨 |
| 5) _____ 드라마 | 13) _____ 교통안내 |
| 6) _____ 코미디 | 14)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 7) _____ 뉴스 | 15) _____ 거의 듣지 않는다 |
| 8) _____ 스포츠 | |

9. 선생님은 책을 주로 어디에서 구매 보십니까?

- 1) _____ 서점에서 그때 그때 직접 구입해서 본다
- 2) _____ 공공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에서 빌려본다
- 3) _____ 근처 책을 빌려주는 곳 또는 정기적으로 오는 이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 4) _____ 다른사람(친구, 친지)에게서 빌려 본다
- 5) _____ 기 타 (어떻게 : _____)
- 6) _____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10. 선생님은 지난 1년간(1993년 6월 25일부터 1994년 6월 24일까지) 약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전혀 읽지 않으셨다면 '0'권으로 적어 주십시오)

약 _____ 권

11. 선생님은 평소에 읽는 책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입니까?

- | | |
|------------------|--------------------------|
| 1) _____ 문학.예술분야 | 6) _____ 어학.인문과학 |
| 2) _____ 역사분야 | 7) _____ 순수.기술과학 |
| 3) _____ 사회과학 | 8) _____ 기 타 (_____ 분야) |
| 4) _____ 종교.철학 | 9) _____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
| 5) _____ 생활.육아 | |

12. 선생님은 평소에 잡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 | | |
|-----------------------------|--------------------|
| 1) _____ 정기구독하는 잡지는 있다 | 4) _____ 빌려서 보곤 한다 |
| 2) _____ 가끔 구입해서 본다 | 5) _____ 거의 보지 않는다 |
| 3) _____ 다른 곳에 비치되어있는 것을 본다 | |

13. 선생님은 평소에 만화책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 | | |
|----------------------|--------------------------|
| 1) _____ 거의 매일 본다 | 4) _____ 어쩌다 한두번 본 적이 있다 |
| 2) _____ 한달에 한두번 본다 | 5) _____ 거의 보지 않는다 |
| 3) _____ 일주일에 한두번 본다 | |

14. 선생님은 평소에 만화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 | |
|---------------------|------------------------------|
| 1) _____ 만화가계에서 본다 | 4) _____ 다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 |
| 2) _____ 집에 빌려와서 본다 | 5) _____ 거의 보지 않는다 |
| 3) _____ 사서 본다 | |

15. 선생님은 평소 비디오 테이프를 한달에 몇 편이나 보십니까?

(전혀 보지 않을 경우 '0'편으로 적어 주십시오)

약 _____ 편

16. 만약 선생님택에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로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테이프)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는 대로 √표해 주십시오)

- | | |
|---------------------|----------------------------|
| 1) _____ 일반영화 | 6) _____ 성인대상영화(포르노물) |
| 2) _____ 음악프로그램 | 7) _____ 스포츠물 |
| 3) _____ 쇼, 코미디물 | 8) _____ 교양물(다큐멘터리, 문예물 등) |
| 4) _____ 아동용 만화영화 | 9)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 5) _____ 교육자료용(강습등) | 10) _____ 비디오(테이프)가 없다 |

17. 선생님은 업무적인 것을 포함해서 컴퓨터를 하루평균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0'시간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약 _____ 시간 _____ 분

18. 선생님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십니까?
(응답항 1)에 응답한 사람은 20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1) _____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컴퓨터 문맹자) ----->20번 문항으로
- 2) _____ 오락 프로그램 등 반복적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용방법 정도는 안다(컴퓨터 초보자)
- 3) _____ 워드 프로세서 등 기본 프로그램 몇가지를 이용할 수 있고, OS(운영체제)도 알고 있다(초급 사용자)
- 4) _____ 대부분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중급 사용자)
- 5) _____ 웬만한 프로그램은 스스로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다(고급 사용자)

19. 선생님은 컴퓨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 1) _____ 전자 오락 게임
- 2) _____ 어학 등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 3) _____ 원고나 문서(서류)의 작성 등 개인업무 및 일반사무
- 4) _____ 고객관리 등 정보의 저장, 관리, 활용
- 5) _____ 컴퓨터 통신 등 정보의 습득과 교류
- 6) _____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전문적인 업무에 활용
- 7) _____ 기 타 (무엇 : _____)

II. 사회문화활동에 관한 질문

20. 선생님은 지난 1년간(1993년 6월 25일부터 1994년 6월 24일까지) 이용한 적이 있는 도서관에 모두 √하여 주십시오

- | | |
|------------------------|---------------------------|
| 1) _____ 국립도서관 | 5) _____ 대학도서관 |
| 2) _____ 공립(시.도.군립)도서관 | 6) _____ 중.고교도서관 |
| 3) _____ 마을문고 | 7) _____ 사설 도서실 |
| 4) _____ 직장부속도서관 | 8) _____ 기 타 (어디 : _____) |
| | 9) _____ 가본 적이 없다 |

21. 선생님이 도서관(또는 도서실)에 가는 것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1) _____ 입시나 취직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 2) _____ 책을 읽거나 대출하기 위해
- 3) _____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 4)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5) _____ 거의 가지 않는다

22. 선생님은 지난 1년동안(1993년 6월 25일부터 1994년 6월 24일까지) 아래의 문화예술행사를 몇번 관람(혹은 문화시설을 몇번 이용) 하셨습니까?

(한번도 없었다면 '0'번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 1) 문학행사 | _____ | 번 |
| 2) 미술(건축, 사진) 전시회 | _____ | 번 |
| 3) 국악연주 | _____ | 번 |
| 4) 전통민속공연 | _____ | 번 |
| 5) 양악(클래식, 오페라 등) 연주 | _____ | 번 |
| 6) 연극공연 | _____ | 번 |
| 7) 무용공연 | _____ | 번 |
| 8) 연예, 쇼 공연 | _____ | 번 |
| 9) 영화관 | _____ | 번 |
| 10) 박물관 | _____ | 번 |
| 11) 고궁 및 사적지 | _____ | 번 |
| 13) 기타 (무엇 : _____) | _____ | 번 |

23. 선생님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1) _____ 비용이 많이 든다
- 2) _____ 매력있는 공연이 적다
- 3) _____ 근처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는다
- 4) _____ 표를 구하기 어렵다
- 5) _____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 6) _____ 마음의 여유가 없다
- 7) _____ 함께 갈 친구가 없다
- 8) _____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9) _____ 공연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 10) _____ 모르겠다 (관심없다)
- 11) _____ 기 타 (무엇 : _____)

24. 선생님은 문화예술에 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구하십니까?

- | | |
|----------------|----------------------------|
| 1) _____ 일간신문 | 7) _____ 교육기관 |
| 2) _____ 텔레비전 | 8) _____ 행사 안내문이나 포스터 |
| 3) _____ 라디오 | 9) _____ 마을신문, 지역신문 |
| 4) _____ 잡지 | 10) _____ 확성기 등 안내방송 |
| 5) _____ 지방문화원 | 11) _____ 기 타 (어디 : _____) |
| 6) _____ 주위사람 | 12) _____ 관심 없다 |

Ⅲ. 여가활동에 관한 질문

25. 선생님은 요즈음 공휴일에 주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 1) _____ 여행(국내, 해외), 명승지 탐방
- 2) _____ 가까운 곳 산책
- 3) _____ 운동, 등산
- 4) _____ 스포츠 관람
- 5) _____ 낚시, 야유회, 해수욕
- 6) _____ 독서
- 7) _____ 문화예술 감상(각종 공연, 전시관람, 음악, 비디오 감상 등)
- 8) _____ 문화예술 참여(창작, 그림, 연주, 연기, 서예, 사진 등 직접활동)
- 9) _____ 원예, 꽃꽂이, 수, 지공예, 인테리어, 바둑, 장기 등 생활문화 취미활동
- 10) _____ 영어회화, 컴퓨터 등 과외학습
- 11) _____ 집에서 쉰다(휴식)
- 12)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13) _____ 여가시간이 전혀 없다

26.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선생님이 여건이 허락할 때 여가활동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_____ 여행(국내, 해외), 명승지 탐방
- 2) _____ 가까운 곳 산책
- 3) _____ 운동, 등산
- 4) _____ 스포츠 관람
- 5) _____ 낚시, 야유회, 해수욕
- 6) _____ 독서
- 7) _____ 문화예술 감상(각종 공연, 전시관람, 음악, 비디오 감상 등)
- 8) _____ 문화예술 참여(창작, 그림, 연주, 연기, 서예, 사진 등 직접활동)
- 9) _____ 원예, 꽃꽂이, 수, 지공예, 인테리어, 바둑, 장기 등 생활문화 취미활동
- 10) _____ 영어회화, 컴퓨터 등 과외학습
- 11) _____ 집에서 쉬고 싶다(휴식)
- 12) _____ 기 타 (무엇 : _____) 13) _____ 여가시간이 전혀 없다

27. 선생님이 위해서 말씀하신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_____ 돈이 없어서
- 2) _____ 시간이 없어서
- 3) _____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 4) _____ 관련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 5) _____ 같이 활동할 사람이 없어서
- 6) _____ 정보가 전혀 없어서
- 7) _____ 내용이 어려워서
- 8)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9) _____ 관심 없다

28. 평일에 선생님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시간은 근로, 취침, 식사, 출퇴근, 학업, 주부 가사노동 제외한 시간)

약_____ 시간_____ 분

29. 선생님은 지난 1년동안(1993년 6월 25일부터 1994년 6월 24일까지)에 업무상의 여행을 제외하고 몇 번이나 국내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경우 '0'번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_____ 번

30. 선생님은 지금까지 업무상의 여행을 포함하여 통산 몇 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경우 '0'번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_____ 번

31. 다음의 문화용품중 선생님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표하여 주십시오.

- | | |
|------------------|-------------------------|
| 1) _____ 비디오 | 6) _____ 자동차 |
| 2) _____ 오디오(전축) | 7) _____ 위성수신방송기 |
| 3) _____ 컴퓨터 | 8) _____ 유선방송(CATV)수신기능 |
| 4) _____ 피아노 | 9) _____ 팩시밀리 |
| 5) _____ 휴대전화기 | 10) _____ 무선호출기(삐삐) |

IV. 지역문화에 관한 질문

32.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장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_____ 매우 만족한다
- 2) _____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3) _____ 그저 그렇다
- 4) _____ 대체로 불만스럽다
- 5) _____ 매우 불만스럽다
- 6) _____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33.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문화시설의 정비, 확충을 기한다면 어떤 문화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_____ 문화회관(공연이 가능한 회관) | 6) _____ 영화관 |
| 2) _____ 미술관 | 7)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 3) _____ 박물관 | 8) _____ 필요없다(현재로서 충분하다) |
| 4) _____ 도서관 | 9) _____ 잘 모르겠다 |
| 5) _____ 시민(구민)회관 및 지역의 집회시설 | |

34.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양과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_____ 매우 만족한다
- 2) _____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3) _____ 그저 그렇다
- 4) _____ 대체로 불만스럽다
- 5) _____ 매우 불만스럽다
- 6) _____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35.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열렸으면 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무엇입니까?
(2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_____ 문화행사 | 7) _____ 무용공연 |
| 2) _____ 미술(사진, 건축) 전시회 | 8) _____ 연예, 쇼공연 |
| 3) _____ 국악연주 | 9) _____ 문예영화 상영 |
| 4) _____ 전통민속공연 | 10) _____ 생활문화강습 |
| 5) _____ 양악(클래식, 오페라 등) 연주 | 11)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 6) _____ 연극공연 | 12) _____ 관심 없다 |

V.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에 관한 질문

36. 선생님은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되십니까?

- 1) _____ 역사적 유산(유물, 유적 등)이 보존되고 있는 것
- 2) _____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이 성행하는 것
- 3) _____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지며 서로 질서를 지키는 것
- 4) _____ 전통적인 축제, 행사, 예능 등의 것
- 5) _____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
- 6) _____ 학문이 번성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것
- 7) _____ 과학 및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것
- 8) _____ 기타(무엇 : _____)
- 9) _____ 특별히 없다
- 10) _____ 모르겠다

37. 선생님은 한국에 훌륭한 문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_____ 매우 많다고 생각함
- 2) _____ 다소 있다고 생각함
- 3) _____ 별로 없다고 생각함
- 4) _____ 거의 없다고 생각함
- 5) _____ 잘 모르겠다

38.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수준은 세계 속에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_____ 높은 편이다
- 2) _____ 보통이다
- 3) _____ 낮은 편이다
- 4) _____ 뭐라 말할 수 없다(잘 모르겠다)

39. 선생님은 우리나라 예술분야 중 가장 발전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_____ 문학
- 2) _____ 미술
- 3) _____ 사진
- 4) _____ 건축
- 5) _____ 국악
- 6) _____ 양악
- 7) _____ 연극
- 8) _____ 무용
- 9) _____ 영화
- 10) _____ 연예
- 11)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12) _____ 잘 모르겠다

40. 선생님은 우리나라 예술분야 중 가장 낙후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_____ 문학
- 2) _____ 미술
- 3) _____ 사진
- 4) _____ 건축
- 5) _____ 국악
- 6) _____ 양악
- 7) _____ 연극
- 8) _____ 무용
- 9) _____ 영화
- 10) _____ 연예
- 11)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12) _____ 잘 모르겠다

41. 선생님은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가지만 지적하여 주십시오)

- 1) _____ 예술가들의 예술창작지원
- 2) _____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 3) _____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 4) _____ 지역문화 육성, 지방문화시설 확충
- 5) _____ 문화관련 제품 등 문화산업 육성
- 6) _____ 예술 교육의 강화
- 7) _____ 남북한 간의 문화예술교류
- 8) _____ 외국과의 문화예술교류
- 9) _____ 기타(무엇 : _____)
- 10) _____ 모르겠다(관심 없다)

42.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_____ 문화시설을 정비 확충한다
- 2) _____ 지도자를 양성 파견한다
- 3) _____ 문화사업,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 4) _____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5) _____ 예술문화단체 씨클을 육성 지원한다
- 6) _____ 지역 문화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한다
- 7) _____ 타지역(국내.해외, 남북)과의 문화활동교류를 추진한다
- 8) _____ 기타(무엇 : _____)

43. 선생님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것 모두에 V표를 해주십시오 (단,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은 제외).

- | | |
|-------------|---------------------------|
| 1) _____ 음악 | 6) _____ 국악 |
| 2) _____ 연극 | 7) _____ 민속놀이 |
| 3) _____ 무용 | 8)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 4) _____ 미술 | 9) _____ 별로 없다 |
| 5) _____ 영화 | |

44. 선생님의 경우 주변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이 실시된다면 참가하시겠습니까?

- 1) _____ 교육비가 비싸더라도 유익하다면 참가하겠다
- 2) _____ 무료일 경우에만 참가하겠다
- 3) _____ 교육비가 싼 경우에 참가하겠다
- 4) _____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참가하겠다
- 5) _____ 참가하지 않겠다(관심 없다)
- 6) _____ 기 타 (무엇 : _____)

45. 선생님이 월평균 가장 많이 지출하시는 문화예술활동 항목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1) _____ 책, 잡지구입 | 6) _____ 무용관람 |
| 2) _____ 음반, 테입 및 CD구입 | 7) _____ 영화관람 |
| 3) _____ 비디오테입구입 및 대여 | 8) _____ 연극관람 |
| 4) _____ 각종 전시회 관람 | 9) _____ 기 타 (무엇 : _____) |
| 5) _____ 음악회 관람 | 10) _____ 해당사항 없다 |

46. 선생님이 앞으로 형편이 좋아질 경우 다음 문화예술활동 중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리고 싶으십니까?

- | | |
|-------------------------|--------------------------|
| 1) _____ 책, 잡지구입 | 6) _____ 무용관람 |
| 2) _____ 음반, 테입 및 CD 구입 | 7) _____ 영화관람 |
| 3) _____ 비디오테이구입 및 대여 | 8) _____ 연극관람 |
| 4) _____ 각종 전시회 관람 | 9) _____ 기 타(무엇 : _____) |
| 5) _____ 음악회 관람 | 10) _____ 관심 없다 |

47. 선생님은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한달에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는 '0'원으로 적어 주십시오)

약 _____ 원

VII. 응답자 개인에 관한 질문

1. 선생님의 성별은? 1) _____ 남자 2) _____ 여자

2. 선생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9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 _____ 세

3. 선생님의 교육정도는?

- 1) _____ 무학, 독학, 국졸이하(중퇴포함)
- 2) _____ 중졸(고재, 고퇴 포함)
- 3) _____ 고졸(대재, 대퇴 포함)
- 4) _____ 대졸(대학원재, 대학원퇴 포함)
- 5) _____ 대학원졸 이상

4. 선생님택 전체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평균수입은 가구원 전체소득으로 이자, 대여 등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의 총합으로 함)

- | | |
|----------------------|----------------------|
| 1) _____ 40만원 이하 | 5) _____ 151 - 200만원 |
| 2) _____ 41 - 70만원 | 6) _____ 201 - 300만원 |
| 3) _____ 71 - 100만원 | 7) _____ 301만원 이상 |
| 4) _____ 101 - 150만원 | |

5.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_____ 사무 관련직(회사원, 일반공무원, 은행원 등) | |
| 2) _____ 전문 기술직(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기사, 프로그래머 등) | |
| 3) _____ 행정 관리직(기업체 경영주, 기업체 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 |
| 4) _____ 판매직(도소매 상인, 부동산 중개인, 점포, 외판원 등) | |
| 5) _____ 생산직(공장근로원, 운전기사, 기능공, 노무자 등) | |
| 6) _____ 서비스업(숙박.요식업주인, 종업원, 이미용사, 청소원 등) | |
| 7) _____ 농업, 어업, 축산업 등 | |
| 8) _____ 주부 | 10) _____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
| 9) _____ 학생 | 11) _____ 기 타 (구체적으로 _____) |

가구내 피조사자 선정방식

(1)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1)

		성인 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많은 여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남 자	나이 많은 여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2 명		나이 많은 남자	여 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3 명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4 명 이상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2)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2)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적은 여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여 자	나이 적은 여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2 명		나이 적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3 명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4 명 이상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3)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3)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많은 여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세번째 나이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남 자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2 명		나이 많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3 명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4 명				세번째 나이많은 남 자
	이상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4)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4)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적은 여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여 자	나이 많은 여자	남 자
	2 명		나이 적은 남자	여 자	나이 적은 남자
	3 명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4 명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5)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5)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많은 여자	두 번째 나이많은 여 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남 자	나이 적은 여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2 명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3 명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4 명 이상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6)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6)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적은 여자	제일 나이적은 여 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여 자	남 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2 명		나이 적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3 명			제일 나이적은 남 자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4 명 이상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7)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7)

성인수

남 자 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0	바로 그사람	나이 많은 여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세번째 나이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남 자	나이 많은 여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2 명		나이 많은 남자	여 자	나이 많은 남자
	3 명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4 명 이상				세번째 나이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8)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8)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적은 여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여 자	나이 적은 여자	남 자
	2 명		나이 적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3 명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4 명 이상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9)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9)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많은 여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남 자	남 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2 명		나이 많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제일 나이 많은 여 자
	3 명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4 명 이상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10)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10)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적은 여자	제일 나이많은 여 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여 자	나이 많은 여자 여 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2 명		나이 적은 남자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3 명				제일 나이 많은 남 자
	4 명 이상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11)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11)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많은 여자	두번째 나이많은 여 자	세번째 나이많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남 자	나이 적은 여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2 명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
	3 명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두번째 나이많은 남 자
	4 명				세번째 나이많은 남 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12) 먼저 한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는 선생님의 가족 가운데서 15세 이상은 모두 몇분입니까?

15세 이상 成人의 수 : _____ 명

이 가운데 男子의 수 : _____ 명

다음 표에서 해당자를 찾아 표시하고 면접한다

(# 12)

성인수

		1 명	2 명	3 명	4명 이상
남 자 수	0	바로 그사람	나이 적은 여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제일 나이 적은 여 자
	1 명	바로 그사람	여 자	남 자	남 자
	2 명		나이 적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나이 적은 남자
	3 명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제일 나이 적은 남 자
	4 명 이상				제일 나이 적은 남자

##(응답자가 부재중일 경우)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_____

##(응답자와의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가구로 간다

면접 불가사유 _____

면접원 지침(里 지역)

설문일련번호 :

조사원 번호 :

성명 :

소속 :

조사 지역 : 도 군 면

1. (리)

2. (리)

예비 지역 : 1. 리

1. 리

1. 리

1. 리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조사 개요

가. 조사방법 : 전국 만15세 이상의 남녀 2000명.

나.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직접 면접.

다. 조사기간 : 1994년 6월 24일(금) - 26일(일)

3. 면접 방법

가. 면접 전에 확인할 사항.

1. 면접은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지역, 설문지와 선물의 수를 확인한다.(조사대상자수 + 예비설문 2부)
2. 본 면접원의 지침의 상단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한다.

3. 배부된 설문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일련번호는 본 지침의 상단에 부여된 숫자 범위로 한다.
4. 예비로 지급된 설문에는 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다만 기재된 설문이 파손되었을 경우 파손된 설문의 일련번호를 적어 대치시킨다.

나. 통반 선정 방법

1. 면접은 본 지침의 상단에 지정된 리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2. 지정된 리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지역난에 지정된 리로 대치한다.
3. 예비지역난에 기재된 리가 없을 경우 그 숫자와 가장 가까운 리를 선정한다. 따라서 모두 2개 리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 가구선정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가구를 선정해야 하는데 가구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구선정은 각 리내에서 이장집을 포함 7-8가구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2개 리에서 실시한다.
2. 먼저 이장집을 선정한 다음 그 왼쪽으로 돌면서 한 집씩 건너뛰면서 선정한다.

라. 면접대상자 선정

*. 각구가 선정되면 그 가구에 들어가 자신의 신분, 조사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토록 해야한다.

1. 대상자 선정은 설문지 표지에 기재된 선정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가구내에서 현재 거주하는 15세 이상 성인수 및 남자 성인 수를 확인한 다음 설문지 표지에 있는 선정표 상에서 해당자를 찾아야 한다.
2. 설문지는 반드시 미리 기재한 일련번호의 순으로 사용한다.
3. 선정표에서 선정된 사람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언제오면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방문하도록 한다. (반드시 선정된 사람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해서는 안된다)
4. 대상자가 출장 또는 여행등으로 인해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3회 이상 방문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구를 포기하고 다른 가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다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마. 면접시 유의 사항

1.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는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상대의 협조를 받아내도록 한다.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예시*****

** ‘나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 해라’

-- 얼마나 아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왜 하필 내가 조사대상자가 되어야 하느냐’

-- 표본 추출방법에 의해 꼭 선생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니까 도와 주십시오.

**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

-- 한 20분이면 되니까 잠시 시간을 내 주십시오.

-- 다음에 다시 찾아올 테니 편리한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런 조사는 왜 하느냐’

-- 국민들이 문화를 향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하는데 그 곳은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대충 알아서 적당히 적어라’

-- 선생님은 지금 다른 2만명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직접 응답해 주십시오.

2. 설문지에는 면접자가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 중에 상대방의 응답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4. 면접 대상자와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

5. 응답을 꺼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질문을 한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면 억지로 응답을 강요하지 말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6.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설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들을 확인한다.

7. 면접 대상자의 응답에 대해 ‘이상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

8. 대상자가 면접과 무관한 이야기를 할 경우, 적당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 면접대상자가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고 하면 ‘연구목적상 필요한 것이니 가급적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바. 면접 후 확인사항

1.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설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들을 확인한다.
2. 특히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정도, 월 수입 등은 반드시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3. 면접 대상자의 주소(리까지 기록)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는다. (면접 대상자에게는 '실제로 제가 면접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것: 면접 설문 중 2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면접내용을 확인하게 됨)

4. 기타

가. 조사기간 중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의 연락처:

김 학 수 교수 (02-705-8378),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02-705-8228)

나. 본 면접원 지침은 설문지와 함께 조사가 끝난 후 필히 제출해야 한다.

다. 면접시에는 반드시 학생증(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면접원 지침(統.班 지역)

설문일련번호 :

조사원 번호 :

성명 :

소속 :

조사 지역 : 시 구 동

예비 지역 : 1. 통 반
2. 통 반
3. 통 반
4. 통 반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조사개요

가. 조사방법 : 전국 만15세 이상의 남녀 2000명.

나.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직접 면접.

다. 조사기간 : 1994년 6월 24일(금) - 26일(일)

3. 면접 방법 : 이하 ㄹ지역과 동일.